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 동향

윤영인 외 41

• 발간사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해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6년 9월에 설립하여 출범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외 석학들과 더불어 동북아의 역사문제와 영토문제 등에 대해 많은 연구 성과를 축적하였고, 동북아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역사인식을 모색하고 그것을 전파하기 위한 지적·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제 재단은 동북아에서 역사화해와 우호협력의 사상과 인식을 생산하고 발산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동북아의 정세는 유동적이어서 역사문제와 영토문제가 언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지 모릅니다. 우리 재단이 추구하고 있는 역사와 영토 주권의 수호, 상생을 위한 역사인식의 창조와 공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공동체상의 수립 등에는 걸림돌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한일, 한중 역사연구 분야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개별 연구를 뛰어넘어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역사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상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재단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연구자들과 더 깊고 강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며 동아시아 연구의 중심으로 확고하게 위상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만주’라고 알려진 ‘중국 동북’의 역사는 당면한 고구려사 등의 역사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상을 구축하기 위해서 차분하게 연구를 진행해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만주는 고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관련이 있고 특히 한반도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또한 향후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에도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만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한국고대사 문제에 머물지 말고 시기상으로나 연구주제에서 폭과 깊이를 더하여 새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만주와 관련된 연구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진행해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북방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비롯하여 이 지역의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주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 동향』은 이러한 의도에서 시작한 기획연구의 성과물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서 이 지역을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시작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가 적으며 연구성과의 축적도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초기의 연구방향을 기존의 국내외 연구동향 파악과 자료 정리 그리고 연구방법 모색 등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가 그간의 우리 학계의 연구 공백을 메워가면서 향후 해야 할 연구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의 출간을 통해 만주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연구자들이 많아져서 이 분야 연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만주연구가 중국과의 역사분쟁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연구지평을 열어나가고,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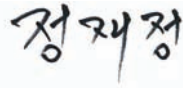
과 한국이 역사문제에 대해 화해하고 함께 손잡고 연구하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와 인접해 있는 중국동북지역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교류 확대에도 활용되는 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길지 않은 연구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옥고를 제출해준 연구책임자 윤영인 교수를 비롯한 공동연구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고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재단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리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지향하는 여러분들께서 동북아역사재단이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연구와 정책개발의 싱크탱크로 확고한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조언 그리고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0년 11월 18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책머리에	11
● 서구학계의 거란·금 연구 <small>윤영인</small>	
- 한화, 이원적 통치체제와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I. 머리말	21
II. 정복왕조의 한화에 대한 시각	23
III. 이원적 통치체제에 대한 시각	30
IV. 정복왕조 시기의 다원적 국제관계	33
V. 맺음말	38
● 몽골제국사 연구의 주요 논쟁 <small>이용규</small>	
- 연구의 분절성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I. 머리말	47
II. 지역사와 민족사로의 분할	50
III. 유목국가의 성립 배경을 둘러싼 논쟁	59
IV. 유목국가 시대구분을 둘러싼 논의	64
V. 사료의 이해를 둘러싼 논쟁	70
VI. 몽골제국의 분열 과정을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	73
● 청제국의 변경통치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small>김선민</small>	
- 미국학계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I. 머리말	85
II. 중국학계의 변강사 인식과 미국학계의 반응	88

Ⅲ. 미국 역사학계의 청대 변경사 연구	91
1. 초기의 변경사 연구	91
2. 신청사 학파	94
3. 청대 변경의 지역별 특징	99
4. 청대 변경정책의 일반화	111
Ⅳ. 맺음말	114
1. 경계, 변경, 국경지대, 국경	114
2. 청-조선 조공관계와 국경지대	118

● 몽골제국사 회고와 전망 토마스 알슨

Ⅰ. 머리말	127
Ⅱ. 사료	128
Ⅲ. 근간의 연구경향	132
Ⅳ. 향후 연구방향	139
Ⅴ. 몽골제국의 유산	143

● 중동학 및 중앙아시아학의 관점에서 본

몽골제국에 관한 연구(1989~2009) 미할 비란

Ⅰ. 사료	149
Ⅱ. 연구경향과 주요 분야	153
Ⅲ. 장래 경향들	161

● 북방민족 왕조와 중국역사 <small>테무르</small>	
- 중국학계의 요·금·원·청 등 왕조에 대한 연구	
I. 중국학계에서의 '정복왕조' 이론	167
II. 문헌정리와 연구성과	172
III. 연구논저	175
IV. 정복왕조사 연구에서의 어문과 역사의 결합	178
● '신'청사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small>피델라 크로슬리</small>	
I. 머리말	183
II. 구청사	184
III. 신청사	190
IV. 만주족 중심의 역사 대(對) 청사	197
● 일본의 청조사 연구 <small>이시바시 다카오</small>	
- 최근 20년간의 동향과 과제	
I. 머리말	217
II. 사료(1)	218
III. 사료(2)	223
IV. 맺음말	245
찾아보기	250



I

10세기 거란제국의 성립에서 만주족이 ‘입관’하여 중원을 정복하기까지의 북방민족과 정복왕조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중국사’의 일부로만 인식되었고 한·송·명 등 ‘정통’ 한족왕조에 비해 연구가 미약하였다. 특히 중국학계의 한족중심적 시각은 정복왕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정치·제도적으로 한족을 차별하고 중원의 자원을 착취한 정복왕조를 한족들이 이루어낸 선진 경제·문화·기술 발전을 저해한 주체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중국학계의 편견과 자의적 해석이 국내 학계의 무관심으로 인해 종종 비판 없이 수용되기도 하였다.

한족중심적 역사관은 단순히 중국학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서구와 한국 학계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과 일본학자들의 연구성과에 크게 의존 하였던 서구학계는 일반적으로 ‘정복왕조’의 역사를 ‘중국사’의 틀 안에서 인식 하고 있는 현실이다. 거란·금·몽골·만주제국과 그 통치민족들을 단순히 ‘중국’과 ‘중화민족’으로 인식하는 중국학계의 현재주의적 역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연구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외국학계 연구성과 의 기본 틀인 이론과 학문적 논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이해가 요구된다. 동아시아 역사의 주요 구성요소인 북방민족과 정복왕조 연구에서 여러 이론

들이 어떻게 적용되었고 비판되어 왔는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 역사관을 좀 더 명확하게 짚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2009년 9개월에 걸쳐 진행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10~18세기 동북아시아 북방민족 거란·여진·몽골·만주족과 그들이 세운 ‘정복왕조’의 역사에 대한 외국학계의 연구성과에 보이는 주요 이론을 검토·분석하고, 최근 연구동향을 고찰하는 것이었다. 이 작업은 2008년 동북아역사재단 프로젝트로 진행한 “10~18세기 북방민족과 정복왕조 연구”(윤영인·이정신·이용규·박원길·김두현·조병학)의 후속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¹⁾ 여기에 서는 외국학계의 여러 이론 중에서 특히 정복왕조론, 이원적 통치체제론, 전통 중화사상, 서양학계와 일본학계의 조공-책봉론, 몽골제국사의 성격을 둘러싼 이론들, 정복왕조의 변경통치, 유목-정착문명 이론, 청대사의 새로운 연구경향인 ‘신청사’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II

프로젝트에 참여한 세 연구원은 각각 거란-여진, 몽골, 청제국시기에 대한 기존 외국학계 연구 이론과 방법론, 그리고 연구성과를 정리·소개하고자 하였다.

윤영인은 거란과 금 시기의 한화, 이원적 통치체제, 그리고 국제관계에 대한 서구학계의 이론과 성과를 검토하고 중국학계의 일방적인 해석이 서구학

1) 2008년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2009년 12월에 『10~18세기 북방민족과 정복왕조 연구』(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36)로 출판되었다.

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이에 대한 반응을 살폈다. 북방민족을 ‘중화민족’의 일원이나 ‘소수민족’으로 보고 있는 중국학계의 현재주의적 역사관은 정복왕조의 특성을 왜곡한다. 이에 대해 서구학계는 다양한 차원에서 정복왕조의 통치를 다루면서 문화변용은 일방적인 현상이 아닌 점을 강조하지만 독자적인 이론적 틀을 제시하기보다는 시대적 특성과 인물에 대한 상세한 묘사에 치중하고 있다. 결국 한족문화를 거부하고 그들의 고유문화를 지키려고 한 북방민족의 노력이나 ‘중국’ 문화에 미친 정복왕조의 영향력은 과소평가되어왔다. 하지만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단순한 조공체제의 이론을 넘어 ‘맹약체제’ 혹은 ‘다원적 국제관계’를 통해 접근하여 ‘한족중심적 문화론’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용규는 몽골제국사 연구의 주요 논쟁이 연구자의 지역학적 배경, 특히 연구자가 핵심적으로 다루는 사료가 가지는 지역적·민족적·문화적·언어적·정치적 배경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며 몽골제국사 연구의 지역적·언어적 분절성과 맞물려 있다고 하였다. 몽골제국사 연구는 지역학과 민족사관에 의해 분절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동아시아 지역 연구의 경우 중국사 중심의 북방민족사 연구가 수적으로 압도적이었기에 중국사 틀의 연장선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나아가 지난 25년간의 몽골제국사 연구에 있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주요 쟁점들, 구체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국의 유목제국사, 몽골제국사 연구에 있어서 분절적 또는 분할적 연구로 인해 발생했던 관점상의 차이와 그로 인한 논쟁을 검토하였다.

김선민은 청대 변경정책에 대한 중국과 미국학계의 시각을 비교하였다. 청과 조선은 ‘종주국’과 ‘속국’이라는 조공관계의 전제가 갈등 없이 일관되게 적용되었다고 인식되기도 하였지만, 국경지대에서 바라본 양국 관계는 시대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갈등의 관계였

으며 양국의 국경지대가 갖는 특징을 지적함으로써 청-조선관계가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근대 중국은 청조의 업적을 기반으로 지금과 같은 국경선과 국민으로 구성된 민족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기에 청대의 지역별 변경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청조의 역사적 특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III

9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외국학계의 방대한 연구 이론과 최근 동향을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세 연구원의 역량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외국 저명학자 다섯 분에게 참여와 자문을 구하였다. 미국의 저명한 몽골제국사 연구자인 미국 트렌트 주립대(은퇴)의 알슨(Thomas Allsen) 교수,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비란(Michal Biran) 교수, 중국 난징대학[南京大學]의 테무르[特木勒] 교수,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크로슬리(Pamela Crossley) 교수, 그리고 일본 국사관대학의 이시바시 다카오[石橋崇雄] 교수께서 기꺼이 참여해 주시고 각자 전공분야의 주요 쟁점과 전망을 정리한 원고를 주셨다. 이 원고들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이 책에 포함하였다.

알슨 교수는 「몽골제국사 회고와 전망(Mongolian Empire: Research Trends and Future Directions)」에서 몽골제국의 다양한 정체(政體)·민족·종교집단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특히 한국사 연구자들로 하여금 한국의 민족적 경험을 광범위한 유라시아적 맥락에서 바라보며 몽골제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담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언을 주었다. 또 몽골제국의 유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러시아·중국·이란에 대한 몽골의 ‘충격’이라는 용어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유효하고 생산적인 접근법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알슨 교수는 몽골제국이 독특한, 새로운 존재였는가 아니면 유라시아에 걸친 다양한 민족들과 문화권의 여러 전통에 근거를 둔 이전 세계 제국들의 긴 계보의 정점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질문들은 쉽게 답을 찾기가 어렵지만 문제제기를 통해 몽골제국을 보다 큰 역사적·비교사적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비란 교수는 「중동학 및 중앙아시아학의 관점에서 본 몽골제국에 관한 연구(Studies on the Mongol Empire from the Perspective of Middle Eastern and Central Asian Studies), 1989~2009」에서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몽골제국사 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는 몽골 침입과 지배로 야기된 사회적 변용은 중국과 무슬림 세계의 지성세계를 크게 바꿔놓은 충격이라 하였다. 때문에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과 몽골 복속민들의 다양한 지적 산물에 대한 연구를 연계한다면 몽골 치하의 지적 환경과 지식 전달의 경로와 수단에 대해 보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이란지역의 일한국과 중원지역의 원제국이 이러한 모색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이전 학계의 보편적 견해는 몽골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과 유산을 남기지 못하였다고 보았지만 현재의 연구는 몽골제국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다. 특히 정통성 관념, 군사 조직, 정주민들에 대한 태도 등의 주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테무르 교수는 「북방민족 왕조와 중국역사: 중국학계의 요·금·원·청 등 왕조에 대한 연구(北族王朝与中国历史: 中国学界对于辽金元清等王朝的研究)」에서 북방민족과 정복왕조 이론에 대한 중국학계의 시각과 연구현황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비트포겔의 ‘정복왕조’ 이론은 중국역사에서 ‘정복왕조’의 특수성과 민족성(비한족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구미 각국과 일본·홍콩·대만 등지의 학술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많은 토론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1949년 이후 중국대륙의 학술연구는 ‘정복왕조’ 이론에 매우 냉담하게 반응하여 논제를 다루는 것 자체를 피해왔고,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까지도 “정복왕조론의 핵심은 중국역사의 민족관계를 왜곡한다”는 비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에 근거한 관점이 보이기 시작하여, 난징대학의 천드즈[陳得芝] 교수는 정복왕조에 대응하여 최초로 ‘북족왕조(北族王朝)’ 개념을 제시했고 이 용어는 내륙 유라시아 알타이어계 여러 민족이 세운 왕조에 대한 적절한 개념으로 많은 중국학자들이 수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테무르 교수는 어문과 역사의 결합을 중국학계의 정복왕조사 연구의 중요한 특징으로 보았다. 요·금·원사는 모두 한학과 내륙 유라시아 연구(혹자는 민족사와 왕조사의 두 계통)라는 두 영역에 걸쳐 있기에 “한학도 서학도 아닌 학문(不中不西之學)”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다.

크로슬리 교수는 「신청사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A Reserved Approach to ‘New Qing History’)」에서 이른바 ‘신청사’의 개념과 연구성과를 고찰하였는데 신청사의 학문적 공헌을 인정하면서도 역사연구의 새로운 흐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특히 청대의 황제권을 ‘만주족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건륭 연간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청제국의 특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만주(족의) 제국’이라는 개념하에서는 만주족의 문화·정체성·관습·팔기 조직, 이 모든 것이 청제국 그 자체와 동일한 것으로 만주족을 제국의 산물로 여기는 대신 제국을 만주족의 산물로 단순화하는 것으로 ‘만주족 중심주의’ 역사와 진정한 청제국의 역사 사이의 갈등이 앞으로 청대 역사가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았다.

이시바시 교수는 「일본의 청조사 연구-최근 20년간의 동향과 과제-(日本の清朝史研究-近20年間の動向と課題-)」에서 일본의 청사 연구가 21세기에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세기말의 전환기를 앞에 두고, 또 ‘전후(戰後)’라는 특별히 긴 시간을 가졌던 일본 역사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 규모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1945년 이후 20세기 후반을 매듭짓고자 하는 연구자 특유의 의식이 작용한 결과라 하였다. 특히 본인의 청조국가론(淸朝國家論)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면서 청의 양면성을 한층 더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통일[複合] 다민족국가’로 자리매김하고, 그 지배구조를 ‘기(旗)·한(漢)·번(藩)’의 삼중구조(三重構造)로 파악할 것을 제창한다. 하지만 삼중구조론(三重構造論) 역시 도식화된 모델이라고는 할 수 없고 추상적인 표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대청제국(大清帝國)’이라는 용어도 실증적 연구로 뒷받침된 엄밀한 정의(定義)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이론의 구축과 새로운 이름 붙이기를 혼동한 것이 아닌가 반성하면서, ‘다이칭 구륜’이라는 만주어, 혹은 ‘신만주(新滿洲)’라는 조어(造語)의 도입도 실증 연구의 뒷받침 없이는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IV

2009년 9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좋은 원고를 주시고 외국학자와의 연락을 맡아 주신 이용규 교수와 김선민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외국학자와의 연락은 테무르와 크로슬리 교수는 운영인이, 알슨과 비란 교수는 이용규가, 그리고 이시바시 교수는 김선민이 각각 담당하였다. 그리고 비란과 알슨 교수의 영문 원고는 하버드 대 박사과정의 유광훈씨가, 크로슬리와 이시바시 교수의 영문과 일문 원고는 김선민 교수가, 그리고 테무르 교수의 중문 원고는 고명수 박사가 번역하였으며 번역문에 대한 감수는 다시 운영인·이용규, 그리고 경북대의 홍성구 교수께서 맡아주셨다. 아울러 2009년

프로젝트 중간발표에서 토론을 해주신 민병희(성균관대)·이개석(경북대), 그리고 계승범(고려대)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해주신 동북아역사재단에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2년 동안 프로젝트 진행과 원고준비에서 출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업무에서의 배려는 물론 학문적으로도 아낌없이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동북아역사재단의 노기식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중국학계는 북방민족과 정복왕조에 대한 기록과 고고학적 유물을 거의 독점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중화민족 다원일체(中華民族多元一體)’와 ‘통일다민족국가(統一多民族國家)’의 틀에 맞추어 북방민족의 독자적 역사를 축소·왜곡·삭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국학계의 현재주의적 시각과 성과에 대한 논리적 비판과 대안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고구려의 역사에 대한 소유권의 분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동북아시아, 나아가 내륙아시아의 역사를 보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거란-여진-몽골-만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북방민족 제국의 역사는 결코 ‘중국사’의 한 부분 혹은 한 시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동아시아 혹은 중앙유라시아의 역사와 전통을 한족의 입장에서만 접근하려는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한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외국학계의 다양한 이론과 논쟁, 그리고 연구동향에 대한 고찰이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동아시아 역사 인식의 추구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0년 11월 30일

저자들을 대표하여 윤영인

서구학계의 거란·금 연구

한화, 이원적 통치체제와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영산대학교 윤영인

- I. 머리말
- II. 정복왕조의 한화에 대한 시각
- III. 이원적 통치체제에 대한 시각
- IV. 정복왕조 시기의 다원적 국제관계
- V. 맺음말



서구학계의 거란·금 연구

한화, 이원적 통치체제와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영산대학교 윤영인

I. 머리말

10~13세기 만주지역에서 흥기하여 중원은 물론 내륙아시아의 광활한 초원지역을 포괄하는 거대한 제국을 세운 정복왕조 거란과 여진은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면서 피통치민의 대다수였던 한족을 차별한 이원적 통치체제를 실행하였고 한반도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정복왕조’ 거란과 금에 대한 연구는 동시대 한족왕조 ‘송’에 비해 매우 미약하였는데 기본 사료의 소략함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정복왕조를 야만의 ‘오랑캐’ 혹은 기껏해야 한화(漢化, sinicization)된 ‘소수민족’의 왕조로 간주한 전통적인 한족중심적 역사관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한족중심적 시각은 정복왕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정복왕조를 중원의 자원을 착취하고 한족이 이루어낸 ‘선진’ 경제·문화·기술 발전을 저해한 주체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족중심적 역사관은 중국학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중국과 일본 학자들의 연구성과에 크게 의존해온 서구학계도 일반적으로 ‘정복왕조’의 역사를 ‘중국사’의 틀 안에서 인식해왔다. 중원에 들어온 모든 이민족이 ‘선진’

한족의 문화에 동화된다는 ‘한화’이론에 이의를 제기하였던 비트포겔(Wittfogel, 1949, pp. 4~5) 역시 연운16주를 정복한 이후의 거란 역사를 궁극적으로는 거란의 독자적인 역사가 아닌 ‘중국사’의 일부로 보았고, 20세기 서구학계 연구성과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케임브리지 중국사(Cambridge History of China, p. 43. 이하 CHC로 줄임)』도 비트포겔의 기본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기원후 900년에서 1800년까지의 『중국제국사(Imperial China)』(Mote, 1999)를 서술한 미국의 모트(Frederick Mote)교수는 거란과 금 시대를 다룬 1부와 2부의 제목을 「정북왕조와 북송(Conquest Dynasties and the Northern Song)」 그리고 「정북왕조와 남송(Conquest Dynasties and the Southern Song)」으로 서술하였는데, 한족과 북방민족 관계사 연구가 한족의 편견이 내재되어 있는 중원의 한문 기록에 거의 의존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객관성(objectivity)’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결국 대다수의 연구가 한족중심적 시각을 가지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중국학계 한족중심적 시각의 비역사적(ahistorical) 성격을 비판하였다(Mote, 1999, p. 28). 그러나 모트 역시 거란에서 몽골제국시기까지의 5세기 동안 중원지역과 내륙 아시아 부족들이 상호접촉을 통해 심오한 변화를 겪었으며 정북왕조는 중원과 인접하여 지속적으로 접촉하였기에 그들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중국사’에 귀속된다고 보았다. 즉 초원과 만주의 역사를 ‘중국사’의 전체적 흐름에 통합하여 접근한 것으로 북방민족 자신의 독자적 역사가 아닌 ‘중국사’의 일면으로 서술한 것이다(Mote, 1999, pp. 29~30). 물론 스탠든(Naomi Standen)처럼 ‘중국(China)’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기피하면서 기존 ‘중국사’의 틀로 북방민족의 역사에 접근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보이지만(Standen, 2007, p. 31) 아직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과연 거란-여진-몽골-만주로 이어졌던 지난 천 년 동안의 동아시아 북방민족 역사를 ‘중국사’의 틀로서만 접근해야 하는가? 여기에서는 먼저 정복

왕조에 대한 서구학계의 최근 주요 연구성과에 보이는 몇몇 학문적 이론과 동향을 한화, 이원적 통치체제, 그리고 국제관계의 세 주제로 나누어 검토하여 한족중심주의의 일방적인 해석이 서구학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이에 대한 반응 및 논리적 대응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II. 정복왕조의 한화에 대한 시각

중국학계는 ‘중화민족대가정(中華民族大家庭)’이라는 현대의 만들어진 개념을 현재 중국의 영토라는 공간의 과거에 일률적으로 소급 적용하여 북방민족을 “비한족이지만 중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사에서의 민족융합을 인류 역사발전의 필연적 규칙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역사를 이민과 민족 융합의 역사로, 나아가 민족융합으로 인한 ‘중화민족(中華民族)’의 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陳玉屏, 1998, p. 38 ; 王文光·田琬婷, 2000, p. 61). 최근에는 북방민족에 대한 기존의 한족중심적 편견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낙후된 유목문명의 ‘소수’ 민족이 ‘선진’ 한족(혹은 중화)에 흡수되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한화’이론으로 체계화하였다. 결국 ‘중화민족’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선진’ 한족을 ‘중국사’의 주체로 설정하는 논리는 전통적 한족중심 관념인 ‘화이지변(華夷之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농경은 선진, 유목은 낙후라는 논리를 적용하여 북방 유목민족이 ‘선진’ 한족에 동화하여 하나의 ‘중화민족’을 구성하였다는 중국학계의 주장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최근에는 유목과 농경의 두 문명지역을 하나로 통합된 구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Barfield, 1989).

그런데 대다수의 서구학자들도 거란과 금을 포함한 거의 모든 북방민족이

‘선진’ 한족의 문화적 영향을 수용한다는 ‘한화’ 현상을 강조한다. 중원에 들어오는 모든 이민족은 한족문화에 동화되어 그들 본래의 부족적 정체성을 잃게 되었고, 경제·문화적으로 비교적 낙후된 북방유목민족이 한족문화의 깊은 영향을 받은 것은 자연스럽게 필연적인 것이며 나아가 중원 한족지역의 거대한 영토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복왕조의 한화가 필수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즉 북방민족과 한족 관계의 대세적인 추세는 ‘한화’로, 10~13세기 거란과 여진은 중원 한족의 관습·의례·문학 및 문화를 채용하면서 ‘중국’의 왕조가 되었다는 전형적 한족중심주의 역사관의 산물인 동화흡수이론은 아직 서구학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물론 정복왕조들이 점차 한족문화와 제도를 수용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화’에 부합되는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북방민족의 정복왕조들이 한족과의 차별성을 유지 또는 강화하려고 한 노력은 거의 무시되곤 하였다. 예외로 거란의 역사를 ‘중국사’로 인정한 비트포겔은 일찍이 단순한 ‘한화’이론을 거부하고 거란과 한족의 관계를 ‘융합(fusion)’이 아닌 ‘공생(symbiosis)’관계로 설정하였고 비록 거란과 한족의 관계가 계속 변화하였고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조정과 개혁이 있었지만 거란사회의 이원적 체제, 풍속, 그리고 종교적 전통은 지속되었다고 보았다(Wittfogel, 1949, p. 7).

모트 역시 단순한 ‘한화’의 틀보다는 문화적 변용(Acculturation), 다문화적 적응(multicultural adaptation), 그리고 비트포겔이 제시한 ‘창조적 오해(creative misunderstanding)’의 개념을 선호한다(Wittfogel, 1949, p. 434 ; Mote, 1999, pp. 87~88). 여기서 ‘창조적 오해’란 한족방식의 외래(한족)제도가 부족사회에 적용되면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거란이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새로운 한족제도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질적인 체제와의 상호 모순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 논지는 ‘한화’에 비해 거란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한 가설이지만 여전히 한족문화의 ‘선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거란족의 입장을 볼 수 있는 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아무튼 모트는 거란사회에서 한족문화의 여러 모습이 점차 확대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현상만으로 한족의 위대한 문화에 거란이 자신의 문화적 열등성을 인정하였다는 가치관의 변화를 입증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초원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거란성(Khitanness)’은 지속되었다고 하였다(Mote, 1999, pp. 42-90).

거란과 금제국의 한화현상 중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과거제도의 시행이었다. 하지만 대다수 학자들은 거란시기 과거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금나라의 과거제도에만 초점을 맞춘다. 거란은 930년경에 처음 과거를 시작했지만 전면적인 시행은 다시 60여 년이 지난 988년이었으며 멸망하기 직전인 1123년까지 매 3년간 과거를 시행하였지만 매회 급제자의 수는 적게는 3~5명, 많아야 30~130명으로 2세기 동안 총 2,000여 명에 불과하여 송대의 39,711명, 금대의 16,484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숫자였다. 또 거란에서는 과거에서 급제한 인물들이 대거 높은 관직에 오른 흔적도 없으며 거란제국의 관리 등용에는 음서제도가 더욱 중요하였다(Wittfogel, 1949, pp. 450-63). 모트는 거란조정이 과거에서 거란족을 제외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거란족은 관료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볼 하등의 이유나 동기가 없었으며, 비록 소수의 거란인들이 한족 전통에 심취하고 교육을 받았지만 그 이유는 정치적인 출세가 아닌 개인적 학문과 지식의 추구, 그리고 불교 등의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Mote, 1999, p. 81).

하지만 거란보다 한화가 급속하게 전개되었다는 금나라의 과거제도는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여진족의 ‘한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현상으로

언급되곤 하였다. 실제 금나라의 과거 급제자는 연평균 149명으로 동시대 송나라의 124명은 물론, 후대 명나라의 89명, 청대의 100명보다 많았다(Elman, 2000, p. 647, <표 1.2>). 여기서 바필드는 이렇게 금이 거란보다 빠르게 ‘한화’된 이유를 여진족의 낮은 문화 수준에서 찾았다. 여진의 부족 전통과 제도는 중원의 새로운 생활방식에 적용할 수 없었고 한족의 문화와 제도가 여진이 쉽게 활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모델이었기 때문에 나름 발전된 전통을 가졌던 거란에 비해 여진은 한족의 문화를 대거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만주에서 중원으로 진출하였을 때 거란은 이미 고유 문자를 사용하였고 통치조직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몇 세기 동안 발전된 정치체제를 통해 거란 군주들은 부족과 한족문화를 결합한 변경사회를 세울 수 있었다. 즉 10세기에 거란이 중원 동북부로 진출한 것은 근 1세기 동안 이루어진 거란체제 발전의 정점이라고 하겠지만, 12세기 초 아골타의 여진족은 이러한 발전단계 없이 북중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금 조정의 주기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진의 전통가치·풍습, 그리고 심지어 언어마저도 중원의 새 환경에서 빠르게 상실되었다는 것이다(Barfield, 1989, pp. 180~181).

여진이 중앙집권화, 관료화, 그리고 과거제도의 시행 등 여러 면에서 거란보다 높은 ‘한화’를 겪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중국과 서구학계 사이에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한족의 선진 문명은 정복자들을 매료시켰고, 정복왕조들은 중앙집권화를 정당화·제도화한 한족방식을 필연적으로 수용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모트는 금나라 희종이 황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진족의 정치·행정·군사조직인 맹안모극(猛安謀克)제도를 한족방식의 군현(郡縣)체제로 바꾸는 ‘한화’정책을 추진하여 여진의 전통 부족구조와 엘리트를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에 종속시키는 정치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보았다(Mote, 1999, p. 217).

금사 연구를 주도한 서구의 대표적 학자인 프랑케(Herbert Franke), 진학림(陳

學霖), 그리고 도진생(陶晉生)의 연구에는 ‘한화’를 강조하는 시각이 종종 드러난다(윤영인, 2009, 71~72쪽). 이들 학자들은 정복왕조의 통치가 중원문화의 정체(停滯)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계혼(收繼婚) 등 북방민족의 전통과 풍습이 한족에게 미친 영향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여전히 북방민족이 한족방식에 매료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여진의 ‘한화’를 기정사실화하여 금제국의 역사를 한화의 진행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Franke and Chan, 1997). 도진생은 12세기 여진의 역사를 다룬 저서에 ‘한화의 연구(A Study of Sinicization)’라는 부제를 달아 ‘한화’현상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한화’의 개념을 ‘동화(assimilation)’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Tao, 1976, IX). 1150년까지는 이원적 통치체제가 존재하였고 여진의 전통문화를 부흥시키려고 한 금 세종의 노력을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화의 진행을 막지 못하였으며 1200년 이후 금나라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계급이 통치하는 ‘중국 국가(Chinese state)’로 바뀌었고, 금나라의 몰락 후 여진족은 완전히 동화되었다고 주장한다(Tao, 1976, p. 152, note 1).

금대의 사상과 문화를 여러 분야에서 다루었던 학술회의 논문을 모아 출간한 서구학계의 대표적 연구성과인 *China under Jurchen Rule*의 주요 내용도 여진의 부족적 전통보다는 중원의 유교적 전통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통치의 주체였던 여진족의 정치·문화적 특성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하였다(Tillman and West, 1995). 심지어 여진족 고유의 문학적 전통을 분석한 논문조차 중원의 여진문자·언어, 그리고 문학이 한족문화의 영향으로 사라지고 말았다는 모델을 제시한다(Jin, 1995).

‘한화’는 문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수의 여진족이 권력을 독점한 정치적 상황에도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12세기 말엽의 금나라 통치체제는 여진의 전통 군사조직인 맹안모극, 그리고 거란과 발해의 오경제도를 계승한 사실을 제외하면 전통 한족왕조 송과 다른 점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Franke and

Twitchett, 1994, p. 270). 또 진학림은 12세기 후반 금 세종의 ‘토착문화 부흥운동(nativistic movement)’이 ‘참담하게 실패(failed dismally)’ 하였다고 보았는데 칭기즈칸의 몽골군대가 변경을 침략하고 있는 다급한 상황에서 조정은 오행의 순환이론에 따른 정통성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바로 금의 ‘한화’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Chan, 1984, p. 116 ; Chan, 1991, pp. 260 · 291). 금 조정이 정통 한족문화의 오행 원리에 따라 왕조가 교체된다는 이론으로 대다수 한족들의 지지를 구하려 하였다는 주장은 나름 설득력이 있지만 여러 국가가 힘의 균형을 유지하였던 당시의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관계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단지 조정에서의 정통성 논의가 곧 한화의 증거가 된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데 거란과 금 사이에 ‘한화’ 현상이 다르게 전개된 사실은 두 제국의 인구구성의 차이로 설명되고 있다. 즉 북중국의 일부(연운십육주(燕雲十六州))만을 통치한 거란과는 달리 금나라는 북중국(회하(淮河) 이북) 대부분을 통치하였고 거란시기 한족인구가 거란족의 3배에 불과하였지만 금대에는 여진족의 10배에 이르렀던 사실에 주목하였다(Franke and Twitchett, 1994, p. 279). 금나라가 지배한 4,800만 화북지역의 인구 중 한족이 약 2/3를 차지하였다고 하는데, 여진족은 그들의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1120년대에서 40년대에 걸쳐 만주지역의 여진족을 화북지역으로 이주시켜 잡거(雜居)시켰다. 즉 100만에 달하는 만주지역의 여진족 대부분을 중원으로 이주시킨 것인데, 대다수의 한족 사이에 적은 수의 여진족을 분산·배치하면서 ‘한화’가 더 빨리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거란족의 일부가 항상 북방 초원지역에 남아 고유의 부족문화와 전통을 지켰던 상황과 달리 여진족 대부분이 중원으로 이주하였기에 한족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할 수 있는 전통의 ‘저수지(reservoir)’가 사라졌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한화’는 필연적이었던 것이다(Mote, 1999, pp.

228~229). 바필드는 정복왕조가 ‘한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거란과 금이 유독 한족왕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만주와 초원의 여러 부족들을 대한 태도와 정책이었다고 강조한다. 한족왕조 한과 송은 북방민족에 물자를 제공하고 평화를 추구한 유화책을 선택하였지만 거란은 물론 전형적인 ‘중원’ 왕조였던 금나라 역시 북방 초원에 대한 정책에서만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실행하였다는 것이다(Barfield, 1989, p. 182).

10여년 전 서구학계에서는 북방민족과 정복왕조의 ‘한화’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미국 아시아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의 회장이었던 로스키(Evelyn Rawski)는 한족 중심의 한화이론으로는 결코 만주족이 세운 대제국의 건설과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만주족 중심의 관점(a Manchu-centered view)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중원을 정복한 왕조들의 성공적인 통치가 한족방식으로서의 동화(즉 ‘한화’)에 달렸다는 기존의 편견을 극복하고 유목문명 혹은 비한족문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청나라의 제국 형성과 운영을 만주족과 다양한 내륙아시아 민족과의 문화적 연결성, 그리고 제국 내의 한족지역과 비한족지역 통치에서의 차별성 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Rawski, 1996). 이에 최근에는 ‘신청사’라는 새로운 시각의 청대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반면 서구학자들 대다수가 여전히 한족중심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재확인할 수 있다(Ho, 1998).

중국(즉 ‘한족’)중심적 청나라 역사 연구로부터 탈피하지는 로스키의 주장은 청대 이전시기인 거란·금·몽골제국에 대한 연구에도 유효하지만 아직 거란중심적, 그리고 여진 중심적 시각의 정복왕조사는 미완성의 과제로 남아 있으며 ‘신청사’와 같은 새로운 연구경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서구학계의 연구는 종종 북방민족의 정체성과 다민족 문화를 강조하고 나아가 ‘한화’의 문

제점을 거론하면서도 실제로는 거란과 여진이 한족의 가치관과 제도에 점차 흡수되었다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서구학계는 북방민족 고유의 정체성과 가치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보다는 정복왕조 역사의 흐름을 전통 부족문화에서 한족문화로의 이행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Ⅲ. 이원적 통치체제에 대한 시각

정복왕조는 초원이나 만주지역의 유목부족들을 다스리는 정치체제로 중원 지역의 정착민을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없었기에 중원을 통치하면서 한족의 사상·제도·문화를 수용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고유의 부족 전통과 한족문화가 충돌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차별화된 이원적 통치체제였다. 바필드에 의하면 공존하던 초원 제국과 중원 한족왕조가 동시에 몰락한 불안정한 정치상황에서 출현한 것이 만주에서 흥기한 정복왕조였고 하나의 국가 안에 부족민의 조직과 한족방식의 정부를 모두 수용한 것이 이원적 통치체제 유형이었다. 그러므로 이원적 통치체제 이론은 어느 면에서는 한족문화로의 동화를 강조한 ‘한화’ 현상과는 대조되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원적 통치체제는 특히 거란제국의 특징으로 지목되었다. 거란은 최초의 정복왕조로서 부족 전통을 유지하는 동시에 한족 통치에 한족체제를 이용하는 이원적 체제를 실행하였다. 『요사(遼史)』 백관지는 거란 통치체제의 핵심을 “관제를 남과 북으로 나누어 나라(거란)의 제도로 거란인을 다스리고, 한족의 제도로써 한인을 대한다(官分南北, 以國制治契丹, 以漢制待漢人)”고 하였으며(『요사』, 47.773), 이원적 차별정책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나타난다 (Wittfogel, 1949).

이원적 통치체제는 유목제국사의 시대구분에도 중요한 요소로 주목되었다. 내륙아시아 지역에서의 국가형성과정을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 이해한 바 필드와 달리 초원지역 내부의 위기, 군사화, 중앙집권화, 그리고 외부 자원의 획득을 통한 일련의 사회적 대응 결과로 이해한 디 코스모(Di Cosmo)는 내륙아시아의 시대구분을 ‘조공제국(Tribute Empires, 209 BCE~551)’, ‘조공-교역 제국(Trade-tribute Empires, 551~907)’, ‘이원적 통치체제 제국(Dual-administration Empires, 907~1259)’, 그리고 ‘직접징세 제국(Direct-taxation Empires, 1260~1796)’으로 나누었다(Di Cosmo, 1999, pp. 29~37). 여기서 ‘이원적 통치체제 제국’ 시기가 바로 거란과 금, 그리고 몽골제국 초기와 일치한다.

모트 역시 거란은 초원과 중원의 서로 다른 통치방식을 하나의 체제로 통합하는 데 성공하여 12세기 다양한 문화의 광대한 지역을 통치할 수 있었고 그 통치체제는 여진·탕구트, 그리고 카라키타이가 계승·발전시켜 후대의 몽골제국과 만주 청제국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였다(Mote, 1999, p. 32, p.226). 거란의 이원적 통치체제는 금대에도 계속되었는데 여진제국은 초기에 북송지역에 한족 괴뢰정권을 세워서 한족 인구를 간접적으로 통치하기도 하였지만, 이내 여진족 고유의 부락체제이자 정치·행정·군사조직인 명안모극(猛安謀克)제도를 모든 피통치민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실행이 어려웠고 결국에는 한인(漢人)과 발해인 등을 전통 한족왕조의 주현제도(州縣制度)로 분리하여 통치하는 이원적 체제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거란의 정치체제를 유지한 것이었다. 모트는 금나라 초기인 1115년에서 1135년을 “이원적 제도 시기(The Period of Dual Institutions)”로, 1135년에서 1161년까지는 “중앙집권화 시기(The Era of Centralization)”로 보았고 이러한 중앙집권화/한화에 대한 반발로 1161년에서 1208년까지 “토착문화의 반발시기”(The Period of Nativist Reaction)가 있었지만 1208년 이후 몽골의 공격으

로 점차 몰락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물론 정복왕조의 이원적 통치체제 시행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뒤따랐다. 특히 북방민족과 한족의 전통법을 제국 내부의 여러 집단에 각각 차별하여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제국 내의 모든 피통치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은 정복왕조가 여러 다른 전통의 집단들을 차별하여 통치하는 제국인지 아니면 통일된 제도와 법을 균일하게 시행하는 통합국가인지의 정체성 문제이기도 하였다.

중국학계의 연구경향은 정복왕조의 이원적 성격을 거론하면서도 대체로 중원 한족문화의 영향을 강조해왔다(陳述, 1986) ; 楊岩薇, 1991 ; 何天明, 2004). 그러나 CHC는 거란이 북중국지역을 차지하고 많은 한족들과 관료를 흡수하면서 중원 한족의 통치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을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면서도 동시에 전통적 사회조직과 전통·문화·종교 등을 유지한 이원적 통치체제에 주목하였다(Franke and Twitchett, 1994, p. 77). 모트 역시 사료의 결핍으로 거란사회의 여러 면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지만 200년 왕조시기 동안 거란의 사회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유목과 군사활동에 적합한 부족 중심의 사회로 남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Mote, 1999, p. 76). 결국 서구학계는 이원적 통치체제를 북방민족이 세운 정복왕조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Ⅳ. 정복왕조 시기의 다원적 국제관계

거란과 금은 만주·몽골, 그리고 중원 북부에 걸친 거대한 영토를 통치하면서 동으로 고려, 동북으로 여진, 남으로 송(남송), 서남으로 대하, 그리고 서북으로는 초원의 여러 유목민족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국제관계 연구는 여전히 현재의 중국 영토에 존재하였던 여러 국가와 부족간의 관계, 특히 ‘정통’ 한족왕조 송과의 관계에 치중하고 있다.

중원 내부의 정치에 있어서 한족중심적 국제질서 혹은 조공체제는 강력한 이상으로 존재하였다. 슈워르쯔(Benjamin Schwartz)는 조공체제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한족 세계질서’의 이상적인 핵심 개념은 지속되었다고 보았다(Schwartz, 1968, p. 281). 그러나 한족 중심적 역사 기록에 보이는 ‘조공체제’의 용어는 정치적 현실을 왜곡하기도 한다. 최근까지 서구 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조공체제’는 명대에 와서 복원된 것이었지만 16세기 동아시아에 출현한 서구인들은 조공체제가 항상 중국 대외관계 방식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잘못 인식하게 된 것이다(Shiba, 1983, p. 98). 그리하여 몇 서구학자들은 거란·금 시기에 군사적 세력균형에 따른 다원적 국제관계가 지속되었으며, “동등한 국가 중 하나로서의 ‘중국(china among equals)’”(Rossabi, 1983, pp. 225~229) 혹은 ‘외교적 동등관계(diplomatic parity)’의 틀(Rossabi, 1983, p. 12)로 접근하고 있다.

이제 몇 서구 학자들은 송대(즉 거란과 금시기)의 국제관계를 ‘조공체제’보다는 ‘다원체제(Multistate System)’와 ‘맹약관계(Treaty Relations)’로 규정한다(Franke and Twitchett, 1994, p. 16~21). 특히 송과 거란이 상대방의 영토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연의 맹약이야말로 ‘다원적 국제관계’의 기본 틀로 120여 년간 양국관계

는 물론 동북아시아에 평화를 유지하였고 경제·문화적 발전이 가능하게 하였다고 평가한다. 나아가 맹약에 의해 획정된 국경은 문화적·언어적, 혹은 생태적 경계라기보다는 국제관계에서의 힘의 균형에 따라 양측이 합의한 정치적 경계선으로 보았는데 군사력의 균형으로 국제질서가 유지되었던 역사적 현실이 한족전통의 외교적 의례와 용어에 의해 왜곡된 것이었다고 본다.

중국학계는 거란과 금 시대의 다원적 국제질서의 전형적인 틀을 제공한 전연의 맹약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20세기 후반까지는 ‘수치’와 ‘굴욕’이라는 입장을 보여주었지만 최근에는 ‘다민족국가’라는 정치적 현실에서 점차 ‘중국’ 혹은 ‘중화민족’의 입장에서 전연의 맹약을 재평가하여 중국에 평화를 유지하면서 경제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이 시기 거란과 금이 ‘중국’이었는가 아니면 ‘외국’이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란-송, 금-남송 (그리고 이들 국가와 대하의 전쟁) 사이의 대립과 전쟁을 단지 “중국경내의 두 분열정권” 사이의 ‘내전’이자 중국 내부의 ‘민족관계’로 설정하면서, 거란의 침략 역시 북방민족의 외침에 대한 한족의 저항이 아니라 ‘반동 대진보’, 혹은 ‘정의 대 비정의’의 투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李錫厚, 2007, 18쪽; 黃震云, 2003, 60~61쪽; 武玉环·陳德洋, 2007, 59쪽).

그런데 서구학계는 일반적으로 송을 ‘중국’ 혹은 ‘한족국가(national Chinese state of Sung)’, 그리고 거란과 금을 ‘외부인(alien)’으로 보면서도(Franke and Twitchett, 1994, p. 319), 중원의 전통 기록과 사서가 거란·여진 그리고 몽골족을 ‘한족’ 영토를 침략한 ‘외부인’으로 묘사한 것은 오해를 초래하는 지나친 단순화였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즉 이 시기에는 진정한 ‘중국’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중국문명(Chinese civilization)’이 남북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었다는 주장이다(Franke and Twitchett, 1994, p. 7, p. 319). 나아가 송과 북방민족 거란·여진·탕구트·몽골의 전쟁을 거의 “중국 내전의 특별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

다고 하면서도 중원-북방의 접촉은 전통 중원역사관이 제시하는 문명과 야만의 충돌로만 볼 수 없다고 하였다(Franke and Twitchett, 1994, pp. 12~13).

도진생은 거란-송 관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면서 대하와 고려의 역할에도 주목하여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질서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송의 대외인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Tao, 1988). 최근 출판된 거란과 송의 관계에 대한 연구서에서 라이트(David C. Wright) 역시 군사·정치·외교의 다각적 시각에서 국제질서를 고찰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송나라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었다(Wright, 2005). 전해지는 사료 대부분이 송나라의 기록인 현실에서 이러한 연구 성향과 결과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한편 한족(송)중심적 시각의 극복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말해주기도 한다.

물론 서구학계와 중국학계가 확실히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는데 거란의 멸망 후에 중앙유라시아에 거란유민들이 세운 카라키타이 역사가 그 예이다. 일찍이 비트포겔은 카라키타이를 *The History of Chinese Society : Liao(907~1125)*의 본문이 아닌 부록에 넣어 간략하게 서술하면서 카라키타이의 '중국적' 요소는 매우 미약하다고 하였다(Wittfogel, 1949, pp. 672~673). CHC는 카라키타이를 아예 '중국'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내용에서 완전히 배제하였는데 '서요'를 중국의 역사에 편입하고 있는 중국학계의 입장과는 대조적이다(丁立軍, 2005). 하지만 중원왕조의 역사기록이 무시하였던 카라키타이의 국제관계, 예를 들면 대하(서하)와 카라키타이(서요)의 관계 등은 여전히 서구학계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초점을 거란·금과 송·남송의 남북 대치에 맞춘 대다수 연구와는 달리 레자드(Gari K. Ledyard)는 일찍이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에서 한반도 왕조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중원-만주-한국의 삼각관계를

통해 중원 한족왕조의 팽창과 수축의 역사적 순환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Ledyard, 1983, pp. 313~353). 또 바필드는 북방민족과 한족왕조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교역 혹은 약탈”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가 아닌 중원·초원(몽골지역), 그리고 만주 세 지역의 상호관계에 주목하였고,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만주에서 흥기한 왕조들의 대외정책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이는 거란과 북송왕조와의 관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하였다(Barfield, 1989, pp. 167~177). 실제 송은 거란과 동맹관계에 있던 중원의 몇 왕국을 거란의 큰 반발 없이 정복할 수 있었고 거란과의 충돌도 송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다.

바필드는 맹약체제로 유지된 장기간의 평화가 궁극적으로 정복왕조의 멸망을 초래하였다고 하였다. 전연의 맹약을 체결한 후 영토 확장을 포기하고 현상유지를 견지한 거란은 큰 문제에 직면하는데 이원적 통치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송의 세폐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또 북쪽 초원지역의 유목부족과의 빈번한 전쟁은 재정 악화를 야기하였고 변경에서의 승리는 중원에서와는 달리 세폐(歲幣)와 같은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1042년 송나라의 세폐 액수가 대폭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세기 후반에 이르러 거란은 재정적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거란·금과 송 사이의 ‘동등한’ 맹약체제와 다원적 국제질서의 현실을 강조하는 서구학계도 그 ‘주변’에 놓인 탕구트족의 대하와 고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족중심적 ‘조공체제’의 용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송이 멸망한 후 여진의 공세를 피하기에 급급하였던 남송의 고종은 1141년에 금에 보낸 서표(誓表)에서 자신의 이름 ‘구(構)’를 직접 사용하면서 금나라의 신하를 자칭하여, ‘보잘것없는 나라[繫邑]’ 송이 상국인 금나라에 회하 이복의 땅을 할양하고, 황제의 생일과 신년을 하례하는 사절을 보내며, ‘세폐(歲幣)’가 아

년 ‘세공(歲貢)’으로 매년 은(銀) 25만량과 비단 25만 필을 보낼 것을 약속한다(『金史』, 77, 1755-6). 물론 이 서표(誓表)의 내용은 송나라의 사료에는 보이지 않고 다만 『금사(金史)』 완안종필(完顔宗弼)의 전기에 기록되어 전해지며 일반적으로 한족왕조의 역사기록은 그들의 굴욕적인 모습을 숨기고 있다. 오늘날 한족왕조의 ‘굴복’을 알 수 있는 것은 몽골제국시대에 편찬된 『요사(遼史)』와 『금사(金史)』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만일 다른 한족왕조가 이 시대의 역사 편찬을 하였다면 정복왕조의 역사는 단독으로 편찬되지 않고 다만 『송사(宋史)』의 열전에 간단하게 서술되었으며 그들에게 불리한 기사는 모두 삭제 혹은 왜곡되었을 것이다. 거란과 금의 기록에 보이는 송의 국제적 위상이나 ‘조공국’인 고려나 대와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조공품(즉 세폐)의 규모는 훨씬 많았다. 그럼에도 CHC는 고려와 하를 ‘조공국(tributary state)’으로 서술하면서도 책봉을 받고 서표(誓表)와 공물(貢物)을 바친 남송에게는 ‘조공국’의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한족중심적 화이사상의 편견이 남아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고려와 대하는 명목상의 ‘조공체제’의 형식을 어느 정도 따르기도 하였지만 이는 ‘속국’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었다. 고려가 거란의 연호를 시행하고 조공을 하여 ‘다국적 (국제관계의) 현실(multi-state reality)’로부터 가려져 있었다는 주장(Rogers, 1978, p. 10)이나 고려왕조를 ‘중국’의 여러 왕조로부터 ‘책봉받은 ‘충성스러운 제후국(a loyal vassal)’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서구학계가 아직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 연구에서 한족중심적 시각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Franke and Twitchett, 1994, p. 112). 이는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동아시아 세력균형의 한 축을 이룬 고려와 대하의 자기중심적인 세계관과 역할을 무시하는 것인데 중원 ‘주변’국가들에 대한 서구학계의 비교적 낮은 학문적 관심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거란과 여진시기 북방민족과 한족 사이에는 어떠한 정치·문화적 상호작용이 있었는가? 북방민족을 ‘중화민족’의 일원이자 ‘소수민족’으로 보고 있는 중국학계의 현재주의적 역사관은 정복왕조의 특성을 왜곡하고 있다. 또 ‘한화’라는 이론적 틀로는 이 시대에 복잡하게 전개된 정치적 상황과 문화적 변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먼저 한화이론은 그 ‘한화’라는 용어가 함의하는 ‘중국’ 혹은 ‘중국문화’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해왔고 계속 변하고 있는 모호한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서구학계는 중국학계의 현재주의적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며 문화변용의 현상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하면서도 아직 독자적인 이론적 틀을 제시하기보다는 시대적 특성과 인물에 대한 상세한 묘사에 치중하고 있다. 그 리하여 여전히 ‘중국’이라는 역사적 틀로 정복왕조의 역사에 접근하고 있으며 한족문화를 거부하고 고유문화를 지키려고 한 북방민족의 노력이나 ‘중국’문화에 미친 정복왕조의 영향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한문기록에 내재되어 있는 한족중심적 시각은 종종 정복왕조의 역사적 진실을 은폐·전유·왜곡하지만 대다수 학자들은 아직도 거의 전적으로 한문기록에 의존한다. 심지어 상당한 분량의 만문사료가 전해지는 청대사 연구에서도 만주족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연구가 드물다는 사실을 보면 한문사료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란과 여진제국의 역사가 결국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된 사실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하겠다. 일찍이 플레처(Joseph Fletcher)는 청대사 연구자들이 한문 기록의 구속에서 벗어나 내륙아시아의 여러 언어와 문자로 기록된 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는데(Fletcher,

1978, pp. 655-56), 이 지적은 청대 이전 시기 정복왕조의 연구에도 매우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거란과 여진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서구학계의 관심과 연구는 미약하였고 비트포겔의 역작⁽¹⁹⁴⁹⁾도 거란 문자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였지만 거란의 언어는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거란과 금시대의 국제관계는 한족왕조와 정복왕조, 그리고 ‘주변’의 여러 국가 사이에 이루어진 타협이었지 중원 한족의 전통이 일방적으로 수용된 것이 아니었다. 당시 ‘맹약체제’ 혹은 ‘다원적 국제관계’의 성립은 한족중심적 조공체제의 와해를 통해서만이 가능하였을 것이며 중원의 전통(예를 들면 춘추전국시대)과는 역사적 배경, 내용, 그리고 전개에서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서구 학계에서는 정복왕조 시기의 국제관계를 점차 ‘조공체제’의 틀을 넘어 다원적 국제질서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한족중심적 문화론’(피터슨, 2002 참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고려와 서하를 포함하는 다원적 국제관계에서 ‘주변’의 위치와 정책을 조명하는 전체론적(holistic) 시각을 찾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연구는 한족왕조 송/남송과 그리고 ‘정복왕조’인 요·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고려와 서하의 시각에서 당시 국제관계의 재조명을 시도한다면 ‘중심’에만 집착하는 한족중심적·문화론적 조공제도의 틀을 벗어나 동아시아 다원적 국제관계의 실체에 좀 더 다가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거란과 금의 역사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위해서는 중국사·한국사·일본사 등 근대민족국가가 규정한 국사의 경계를 허물고 ‘중국사’의 일부가 아닌 정복왕조의 독자적 시각을 복원하는 노력이 간절하게 요구된다. 중국학계는 대대적 ‘공정’을 진행하면서 북방 ‘소수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연구에 투자를 하여 북방민족이 세운 다민족제국 정복왕조의 역사를 ‘중국의 변강사’ 혹은 ‘중화민족’의 역사로 재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주의에 왜곡된 중국학계의 연구 시각과 성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 거란과 금

의 역사는 북방민족이 세운 정복왕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들의 고유 전통과 문화적 배경,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서구학계의 거란·금 연구는 중국학계의 한족중심적 시각이 대거 반영되어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에 학계의 관심과 검토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국문〉

- 권선홍 외(1999), 『전통시대 중국의 대외관계』, 釜山外國語大 出版部.
- 김성규(2005), 「송대 조공질서의 재편과 그 양상」, 『歷史學報』 185.
- 김한규(2004),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 노명호(1999), 「고려시대의 다원적 천하관과 해동천자」, 『한국사연구』 105.
- 유인선(1987), 「중월관계와 조공제도 - 가상과 실상 -」, 『역사학보』 114.
- 윤영인(2005), 「몽골 이전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관계」, 『만주연구』 3.
- 윤영인(2007), 「10~13세기 동북아시아 多元的 國際秩序에서의 冊封과 盟約」, 『東洋史學研究』 101.
- 윤영인(2008), 「동아시아 盟約체제와 거란·금의 版圖」, 『역대 중국의 판도 형성과 변강』, 한신대학교 출판부.
- 이성규(2005), 「중화제국의 팽창과 축소 : 그 이념과 실제」, 『歷史學報』 186.
- 추명엽(2002), 「고려전기 ‘번(蕃)’ 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현실』 43.
- 피터윤(Peter Yun)(2002), 「서구학계 조공제도 이론의 중국중심적 문화론 비판」, 『아세아연구』 109.

〈영문〉

- Barfield, Thomas J.(1989), *The Perilous Frontier : Nomadic Empires and China, B.C. 221 to A.D. 1757*, Cambridge and Oxford : Blackwell.
- Chan, Hok-lam.(1984), *Legitimation in Imperial China : Discussions under the Jurchen-Chin Dynasty (1115~1234)*, 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Chan, Hok-lam.(1991), ““Ta Chin” (Great Golden) : The Origin and Changing Interpretations of the Jurchen State Name,” *T'oung Pao* 77, pp. 253~299.
- Di Cosmo, Nicola.(1999), “State Formation and Periodization in Inner Asian History,” *Journal of World History* 10.1, pp. 1~40.

- Dunnell, Ruth.(1996), *The Great State of White and High : Buddhism and State Formation in Eleventh-Century Xia*,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 Elman, Benjamin A.(2000), *A Cultural History of Civil Examinations in Late Imperial China*, Berkeley and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airbank, John K., ed.(1968), *The Chinese World Order :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Fletcher, Joseph(1978), "Ch'ing Inner Asia c. 1800,"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10, part I, edited by J. K. Fairbank.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anke, Herbert, and Hok-lam Chan(1997), *Studies on the Jurchens and the Chin Dynasty*, Aldershot : Ashgate Publishing Company.
- Franke, Herbert and Denis Twitchett, eds.(1994),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907~1368*,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via, James L.(1995), *Cherishing Men from Afar : Qing Guest Ritual and the Macartney Embassy of 1793*, Durham and London : Duke University Press.
- Ho, Ping-Ti(1998), "In Defense of Sinicization : A Rebuttal of Evelyn Rawski's 'Reenvisioning the Qing'," *Journal of Asian Studies* 57.1, pp. 123~155.
- Jin Qicong(1995), "Jurchen Literature under the Chin," in Hoyt C. Tillman and Stephen H. West, eds., *China Under Jurchen Rule*, pp. 216~237.
- Ledyard, Gari K.(1983), "Yin and Yang in the China-Manchuria-Korea Triangle," in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313~353.
- Mote, Frederick W.(1999), *Imperial China 900~1800*,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Rawski, Evelyn S.(1996), "Reenvisioning the Qing : The Significance of the Qing Period in Chinese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55.4, pp. 829~850.

- Rogers, Michael C.(1959), "Sukchong of Koryô : His Accession and His Relations with Liao," *T'oung Pao* 47, pp. 30~42.
- Rogers, Michael C.(1961), "The Regularization of Koryô-Chin Relations (1116~1131)," *Central Asiatic Journal* 6, pp. 51~84.
- Rogers, Michael C.(1977), "The Late Chin Debates on Dynastic Legitimacy," *Sung Studies Newsletter* 13, pp. 57~66.
- Rogers, Michael C.(1978), "The Chinese World Order in Its Transmural Extension : The Case of Chin and Koryô," *Korean Studies Forum* 4.
- Rogers, Michael C.(1983), "National Consciousness in Medieval Korea : The Impact of Liao and Chin on Koryô," In M.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pp. 151~172. Berkeley and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ssabi, Morris, ed.(1983),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urs, 10th-14th Centuries*,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inor, Denis, ed.(1990), *The Cambridge History of Early Inner Asia*,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anden, Naomi.(2003), "Raiding and Frontier Society in the Five Dynasties," in Nicola Di Cosmo and Don J. Wyatt, eds., *Political Frontiers, Ethnic Boundaries, and Human Geography in Chinese History*,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Curzon, pp. 160~91.
- Standen, Naomi.(2007), *Unbounded Loyalty : Frontier Crossings in Liao China*.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 Schwartz, Benjamin(1968), "The Chinese Perception of World Order, Past and Present," in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Shiba Yoshinobu(1983), "Sung Foreign Trade : Its Scope and Organization," in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urs, 10th-14th Centuries*,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ao, Jing-shen(1976), *The Jurchen in Twelfth Century China*. Seattle, WA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Tao, Jing-shen(1988), *Two Sons of Heaven : Studies in Sung-Liao Relations*, Tucson : University of Arizona Press.

Tillman, Hoyt C. and Stephen H. West, eds.(1995), *China Under Jurchen Rule*, Albany, NY : SUNY Press.

Wittfogel, Karl and Feng Chia-sheng(1949), *The History of Chinese Society : Liao (907~1125)*, Philadelphia :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Wright, David C.(2005), *From War to Diplomatic Parity in Eleventh-Century China : Sung's Foreign Relations with Kitan Liao*, Leiden : Brill.

Yun, Peter I.(1998), "Rethinking the Tribute System : Korean States and Northeast Asian Interstate Relations, 600~1600,"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중문〉

李錫厚(2007), 『論“澶淵之盟”非“城下之盟”』, 『澶淵之盟新論』, 上海人民出版社.

武玉环·陳德洋(2007), 「澶淵之盟與遼宋關係」, 『澶淵之盟新論』, 上海人民出版社.

何天明(2004), 『遼代政權机构史稿』, 內蒙古大學出版社.

楊若薇(1991), 『契丹王朝政治軍事制度研究』, 北京 :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陳述(1986), 『契丹政治史稿』, 人民出版社.

丁立軍(2005), 「西遼創建者耶律大石評述」, 『伊犁師範學院學報』, 2005年 第2期.

黃震云(2003), 「契丹的由來和遼代的建元(上·下)」, 『遼寧工程技術大學學報(社科版)』, 第1-2期.

陳玉屏(1998), 「秦漢以來中國南, 北方民族融合進程的特点」, 『西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6期.

王文光·田琬婷(2000), 「中國民族史研究散論」, 『思想戰線』, 第4期.

몽골제국사 연구의 주요 논쟁

연구의 분절성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몽골 국제대학교 이용규

- I. 머리말
- II. 지역사와 민족사료의 분할
- III. 유목국가의 성립 배경을 둘러싼 논쟁
- IV. 유목국가 시대구분을 둘러싼 논의
- V. 사료의 이해를 둘러싼 논쟁
- VI. 몽골제국의 분열 과정을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



몽골제국사 연구의 주요 논쟁

연구의 분절성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몽골 국제대학교 이용규

I. 머리말

이번 연구는 2008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 지원 프로젝트의 하나였던 북방민족사 연구사 정리 과제 내에 본인이 기고한 「몽골 제국사 연구 동향(1995~2008)」의 후속 연구이다. 전의 글에서 다양한 연구성과를 몇 가지 주제로 일별하였다면 이 글에서는 근 25년간의 몽골제국사 연구에 있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즉 각 학자들의 주요 연구성과를 일일이 열거하기보다는 필자의 주관에 따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연구자 간의 시각의 차이를 정리함으로써 해서 인접 학문분야의 연구자들과 대학원 학생에게 이 분야 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단 여기에 선정된 주제들은 필자의 판단에 의거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들이며 연구자에 따라서는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가장 큰 관심은 지역학과 민족사관에 의해 분절적이고 단편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몽골제국사 연구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

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국의 유목제국사, 특별히 몽골제국사 연구에 있어서 분절적 또는 분할적 연구로 인해 발생했던 관점상의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한 논쟁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거대한 영역을 정복하고 통치했던 몽골제국을 연구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관행은 각 지역학 또는 문명권 단위로 통치영역을 구분하여 연구의 세부 단위로 삼은 것이었다. 이러한 몽골제국사 연구의 지역적 분업화는 궁극적으로 몽골제국의 역사상(歷史像)의 통합적 이해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 관행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개념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연구의 경우 중국 내의 연구자들에 의해 ‘북방민족사’의 시각에서 진행되는 몽골제국사 연구가 수적으로 압도적이다. 따라서 중국사의 틀의 연장에서 북방민족사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하나의 주요 흐름이 되어왔다. 이 글은 중국사의 연장선에서 다루어지는 북아시아 사나 유목제국사 연구가 가지는 시각의 한계, 더 나아가 민족사 관점으로 몽골제국사를 다룰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아울러 몽골제국사의 분절화의 구도 속에서 그간 몽골제국사 연구에 있어서 발생했던 몇 가지 논쟁점들을 일별하고 그것이 그간의 몽골제국사의 분절화 구도와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현재 대안으로 떠오르는 연구에 대해서도 간단히 일별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루어질 세부 논의 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로 유목국가 역사에 있어서의 시대구분 노력, 그리고 유목국가체제의 발생 원인 등과 관련해서 몇 가지 논쟁점이 발생했으며 입장의 차이가 존재해 왔다. 그러한 논점의 차이가 가지는 의미 내지는 발생 원인을 검토함에 있어서 몽골제국사의 분절적 연구 틀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둘째로 몽골제국사의 기초 사료가 가지는 고유한 관점이나 문제점을 두고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 벌어진 논쟁에 대한 것이다. 각 연구자의 지역학적 그리고 언어 훈련의 배경의 차이에 따라서 사료의 가치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리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몽골제국사의 대표적 학자들 사이의 논쟁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각 지역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사료 가운데 어떤 것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몽골제국사 성격 규명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 사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일본학계를 대표하는 몽골제국사 연구자인 수기야마 마사야키(杉山正明)가 제시한 몽골 세계 제국에 대한 이해와 김호동 교수가 그리는 몽골 세계 제국의 통합 기제와 분열 과정에 대한 이해 사이의 차이점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만들어진 사료의 편파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몽골제국사 전체 그림을 그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예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다룰 논쟁이나 관점의 차이, 연구에 있어서 발생하는 학자간의 이견들은 주로 현재 활동 중인 몽골제국사 분야의 대가들 사이에서 발생한 것들이다. 필자의 개인 연구 역시 기존 연구에 힘입은 바가 크고 또 기존 연구가 가진 한계의 영향권 하에 있을 수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기간의 선학들의 연구에 대한 존중을 견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다루고자 하는 논쟁들 가운데 특정 견해를 지지한다거나 특정 연구가 가지는 약점을 강조하기보다는 양쪽 입장의 차이와 논쟁 발생의 계기가 되는 기본적 전제나 입장의 차이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이 초점임을 밝혀둔다.

II. 지역사와 민족사로의 분할

현재까지의 유라시아 초원 역사의 연구가 가지는 극복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는 유목사 연구가 지역학과 민족사 연구의 틀에 갇혀서 분절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후의 논의에서 언급될, 연구자들 간에 발생한 이견의 상당 부분이 바로 몽골제국사 연구가 가지는 지역사적, 민족사적 분할 연구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의 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유목제국사 연구는 크게 동아시아사, 서아시아사, 러시아 및 슬라브 역사 이렇게 세 개의 지역학적 범주의 틀로 분할되어 연구자를 양성해왔다. 따라서 이 지역의 역사 연구는 각각의 특정 지역학의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지역학적 전통하에서 진행된다. 그것은 유목사를 다루는 사료의 언어가 주로 이들 세 지역의 주요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과 관계가 깊다. 초원지대에 사는 민족들은 주변 문명권에 속한 다양한 민족들과 교류하며 역사적 흔적을 남겼다. 초원지대의 투르크족과 몽골족의 역사를 다루는 언어는 크게 중국어·페르시아어·아랍어·라틴어·아르메니아어·히브리어·그루지아어·몽골어·투르크어·그리스어·시리아어·러시아어·일본어 등인데, 한 연구자가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분산되어 있는 사료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란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전공자가 근거를 두는 지역권과 문명권에 따라 연구 언어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 사료의 범주가 정해지기 마련이었다.

언어 습득의 부담과 다양한 언어권에 흩어진 사료 독해의 문제 외에도 중앙아시아의 유목제국사 연구의 지역적 분절화 경향을 강화시켰던 또 다른 요인이 있다. 그것은 근현대에 들어와서 강화되고 있는 지역학과 민족사 연구로 인해 생기는 지역적 분할 경향이다. 미국학계의 경우 세계대전 이후 냉전 체

제의 확산과 함께 미국 내에서 지역 연구를 위한 전략적 필요가 증대됨에 따라 미국정부와 연구 관련 기관들은 지역학 연구에 재정 지원을 대규모로 확장했다. 그로 인해 미국 대학 내에서 지역학 연구가 주요 학문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소련령으로 흡수된 서투르키스탄 지역과 중국의 신강성으로 편입된 동투르키스탄의 분리로 인해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족 역사 연구도 중국어권 연구와 러시아어권 연구로 분리되는 경향이 점차 강화되었다. 그 결과 근현대에 형성된 민족국가의 경계를 따라 동투르키스탄 지역 연구는 중국 민족사의 영향권 하에서 서투르키스탄 연구는 러시아 지역학 연구의 틀 아래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었다. 또한 현대에 들어 유교권, 또는 이슬람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종교적인 전통이나 문명권 단위로 지역을 구분하는 경향으로 인해 동아시아 또는 중동을 고유의 연구영역으로 분리해내는 것이 당연한 흐름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틈바구니 사이에서 중앙유라시아 지역 역사의 일부는 이슬람권, 다른 일부는 라마 불교권을 포함하는 중국 문화권 등으로 분할되어갔다. 따라서 티베트 연구나 만주지역 연구는 중국사라는 거대한 전통의 틀 속에서, 시베리아 지역사는 러시아사나 슬라브학 연구의 연장선에서, 그리고 이슬람권 중앙아시아사는 중동지역학의 구도에서 각기 다루어지면서 중앙아시아의 역사는 각 지역학의 변방 학문으로 전략하게 된다.

더 나아가 유목제국사 또는 중앙아시아사의 지역적인 분절은 현대 민족국가에서 진행되는 민족사학의 연구로 인해 더욱 더 세분화된 분할을 경험하게 되었다. 현대의 각국은 자신의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이념적 수단으로 민족주의 역사관을 강화시켜왔다. 이로 인해 이미 지역학적인 틀에서 쪼개진 지역 연구 단위는 민족사를 단위로 더 분할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각 지역적 단위의 한정된 지역 안에서 각 시대를 관통하는 연결 고리 내지는

통시적으로 일관된 흐름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연구의 주종을 이루어왔다. 그 결과 각 지역을 넘어서서 통지역적으로 중앙아시아 전역을 다루는 연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는 반면 그것을 시도하는 연구자는 상대적으로 희귀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미시적 역사 연구경향은 한편으로는 지역적 단위를 기반으로 한 노동의 분업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불러일으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각 지역학이 생산하는 지식이 그 지역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어서 다른 지역학과 서로 호환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한 예로 몽골제국시기의 토지소유 구조를 연구함에 있어서 몽골제국 치하에 존재하던 귀족들의 토지소유를 기반으로 한 지배구조에 대한 용어와 개념은 지역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중국지역에서는 평지엔(封建), 중동지역에서는 이끄타(igta), 몽골 초원지역에서는 소유르갈(soyurqal), 또는 토우시아(頭下), 쿠비(qūbi) 등의 용어가 등장한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각각의 지역에서의 문화적 특수성 속에 존재하는 각각의 토지 소유구조의 특징을 강조하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구조는 한 정권의 통치체제 속에서 공존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토지소유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현재까지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울러 몽골제국의 양극단에 위치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에 대한 비교 연구도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시도되지 못했다. 한 예로 고려와 그루지아는 몽골제국이라는 거대 제국 하에 복속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독립국으로써의 지위를 가졌던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와 몽골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는 양국의 역사 연구에 있어서 또한 몽골의 세계 지배체제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시도된 바가 없었다. 또한 몽골 지배하

의 이란과 중국의 법제나 군제에 대한 비교 연구도 이 시기 몽골제국의 세계 정복과 지배구조의 형성이 지역 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앙유라시아 지역에서 유목부족에 의해 건설된 국가들의 경우 하나의 통치 그룹이 다른 문명권으로 이주하거나 정복해 들어가서 국가를 건설하는 예가 자주 관찰된다. 한 예로 카라키타이 제국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왕조는 중국 북부에 위치하여 한자로 거란이라는 국호로 불리웠던 키타이 제국이 여진족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그 유민들이 서투르키스탄 지역으로 이주하여 세운 것이다. 이 경우는 거란족의 지배층과 지배구조 자체는 큰 변화를 겪지 않은 가운데 통치하는 대상과 지역이 달라져버린 예이다. 카라키타이 제국의 지배층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어도 그들이 만주와 중국 북부를 지배했던 시기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의식과 문화, 제도의 유산을 간직한 채 현지인들을 통치하며 그 지역문화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미할 비란(Michal Biran, 2005)의 포괄적 시각의 연구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란 제국은 중국사의 일부로서, 카라키타이 제국사는 이슬람사 내지는 중앙아시아사의 주변부적이고 예외적인 영역으로서만 다루어졌다. 그 통치구조에 대해서도 거란 제국사는 요금원이라는 중국 역대 왕조사를 구성하는 하나의 단대사로 이해되는 한편 카라키타이 제국사는 주로 중앙아시아의 투르크화와 이슬람화로의 발전단계에서의 일시적 현상의 하나로서 다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중간지대에 위치하여 중동과 중국·러시아 등 여러 문화권에 걸쳐서 상호간에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중앙아시아의 투르크계 또는 몽골계·만주계의 왕조들은 하나의 문명권에만 구속되지 않았다. 이들은 자유롭게 여러 문명권의 경계를 넘나들며 통치체제를 구축했다. 이들 왕조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분절적인

역사 연구의 구도를 넘어서서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바람직한 현상은 2000년대에 들어서 지역적인 구도를 넘어서는 몽골제국사 내지는 유목제국사 연구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서구학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토마스 알센(Thomas Allsen)과 미할 비란 두 연구자를 들 수 있다. 또한 동양학계의 수기야마 마사아키[杉山正明]와 김호동 같은 연구자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¹⁾ 아울러 기대되는 일은 유광훈·박현희 등 현재 박사과정에 있는 연구자들을 통해 중국에서 이란과 중동에 이르는 지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유기적인 연결 고리에 대한 연구, 또는 몽골제국 내에서 각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에 대한 비교 검토가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현대의 유목제국사 연구의 지역학적 분절, 그리고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중앙유라시아 건조지역에서 활동하던 투르크 몽골계 민족의 공통의 역사는 근대에 등장한 강대국 중심의 지역 구도로 재편된 역사 속에 편입되어 축소되고 분절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역사를 자국사 중심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입장차를 보이며 충돌하곤 한다. 몇 가지 사례로 몽골제국사를 둘러싼 민족사적 단절과 왜곡의 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러시아의 경우 현 러시아 민족 역사의 기원이 되는 모스크바 공국은 형성과 성장 자체가 몽골제국의 동유럽 지배와 긴밀히 맞물려 있었다. 모스크바 공국은 몽골제국의 일파인 조치 가문의 킵차크 한국의 지배를 인정하는 속국

1) 위 연구자들의 구체적 연구는 참고문헌을 참조할 것. 이러한 연구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8년에 집필된 필자의 원고 「몽골 제국사 연구 동향(1995~2008)」을 참조.

의 일원으로써 몽골 한(汗)들의 인정을 받아 주변 공국에 대해 비교우위를 얻어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모스크바 공국은 그 동남쪽에 위치한 투르크 몽골계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후 몽골제국의 쇠퇴 시기에 그 공백을 메우며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후 해상 제국의 시대가 열리고 유럽이 아시아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가지게 되자 표트르 대제 시기 이후 러시아는 동쪽이 아닌 서쪽에 관심을 집중하고 유럽 체제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려 노력을 기울인다. 이후 유럽의 낭만과 역사학의 영향을 받은 러시아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과거 그들의 아시아 지역의 유목민들과 맺었던 정치·외교적 유대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몽골족의 지배를 받았던 사실을 치욕으로 여겨 그 시기를 어둡고 굴욕적인 시기로 묘사하였다. 그들 민족사에서 아시아적인 요소들을 부정적으로 파악했으므로 그 잔재를 제거하고 극복하고자 노력했으며 몽골제국의 슬라브족 지배 역사를 민족 역사에 있어서의 수치스러운 과거 내지는 일탈적 현상으로 왜곡해서 그려내고자 했다.

소련이 성립하고 몽골이 그 군사적 우산 아래에 들어오게 되자 소련 정권은 몽골에서의 칭기즈 칸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켰다. 출판물 상에 몽골인들이 칭기즈 칸을 언급하는 것은 러시아인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건드리고 몽골의 민족의식을 고양하는 일로 간주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서 몽골 민족사 학자들은 모두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적, 또는 외국의 스파이라는 명목으로 숙청당하게 되었다. 주류(主類) 이외의 이름에 칭기즈 칸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고 몽골인이 스스로 몽골제국사 연구를 할 수 없게 했던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였다.

중국의 경우 1930년대 이래로 중국공산당이 주장해온 민족론과 소수민족 정책 기조가 중국의 정복왕조 역사 연구의 기본 인식을 주도하는 틀을 형성

했다. 중국공산당은 국공(國共) 분열 이후 국민당의 공세 하에서 대장정을 거쳐 연안으로 도피한 시절부터 인근의 소수 민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중국대륙 통일 이후 중국공산당은 ‘다민족 통일국가론’을 기본 골조로 해서 민족통합 정책을 견지해왔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정책 이후 경제적인 자신감을 갖게 됨과 동시에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중국정부는 팽창주의적인 민족관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민족관은 중국역사 서술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따라서 중국 정복왕조 역사 연구는 결국 중국 변방의 다양한 민족이 현재의 중국 다민족국가 형태로 통합되어 가는 일관된 역사적 흐름이라는 명제를 증명해내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중국에서 몽골제국사는 ‘원조사(元朝史)’라는 명칭 하에 연구되었다. 이 명칭이 보여주듯이 원조사 연구의 기본 전제는 원조가 중국역사의 한 단대(斷代)를 구성하며 그 시기에 다민족(多民族)이 통일된 국가체제 안에 연합되었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즉 중국의 역사 연구자들은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대와 수당 시대를 거쳐 형성된 통일 중화 왕조가 요금원대(遼金元代)를 거치면서 또 한 차례 중화 민족으로 통합되어간다는 논리적인 틀 속에서 원조의 역사적 역할을 규정한다. 이러한 틀에서 보면 원나라는 중국 내의 소수민족이 중국 내에 세운 하나의 왕조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더 나아가서 칭기즈 칸은 중국 소수민족의 영웅이 되는 것이다. 내몽골의 칭기즈 칸 동상이나 칭기즈 칸 이름을 딴 공원에 중국어로 적혀 있는 서술은 이러한 정부의 역사관을 대중에게 투영하는 통로가 된다. 이러한 논리는 확장하자면 몽골 초원에서 시작해서 유라시아 대부분의 영역을 장악했던 몽골제국의 역사를 중국이라는 일개 국가의 민족사의 한 부분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된다.

더 나아가 중국 민족사학은 현재의 영토에서 발생한 모든 역사 사건을 다 민족을 포유하는 중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역사의 일부로 투영하고자 한다.

그 결과 북방의 흉노·돌궐·유연과 위구르의 역사도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비치고 있다. 이러한 팽창주의적 역사 인식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며 오랜 시기 중국인과 역사적으로 맞물려 있는 몽골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주변국들의 역사관과 충돌할 소지가 다분하다.

신생 중앙아시아 독립국 사이에서도 투르크계 유목민들이 중앙아시아에 세운 제국을 각기 자기 민족의 역사로 끌어안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다. 이들 독립국들은 각기 소련의 스탈린 치하에서 임의로 경계를 그어 갈라놓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특정 민족명을 명칭으로 삼은 공화국을 전신으로 한다. 각각의 공화국 영토에는 다양한 종족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 종족의 이름을 따서 공화국의 이름이 붙여졌다. 그것이 소련의 붕괴 이후 독립국가의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이러한 중앙아시아 독립국가들은 기존의 공화국 체제에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진 민족국가로 변모하기 위해서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 예로 우즈베키스탄은 칭기즈 칸 가문의 사위였던 사실을 부각하며 정치적으로 성장하여 제국을 형성했던 티무르(Timur)를 민족 영웅으로 강조해서 민족정체성 확보와 단결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다. 아이러니의 하나는 그들의 민족명이자 국가명의 근거가 된 ‘우즈베크(Uzbek)’이라는 단어는 바로 티무르가 세운 제국을 멸망시켰던 우즈베크족에서 기원하는 것이다. 각각의 중앙아시아 국가는 그 지역에서 명멸했던 제국의 역사를 함께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 사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각 지역과 종족의 역사를 민족사라는 구획으로 잘게 분할시키고 있다.

중동에서도 근본주의 이슬람의 시각에 의거하여 몽골제국의 정복 시기를 이민족 이교도들에 의해 건설된 이질적인 시기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과 바그다드 함락을

몽골제국시기 훌레구(Hulegu)에 의한 바그다드 함락에 비유한 바 있다. 이란에서는 근본주의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의 중앙아시아적인 요소와 투르크계 유목제국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부정하고 자신의 과거를 서쪽의 아랍권, 중동권 역사의 틀 속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새롭게 부각되는 유라시아 권역의 에너지 자원을 가진 국가들과의 연결을 강조하고 긍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북방 지역에 위치한 국가와의 과거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대중적인 정서가 형성되고 있다. 구 소련권의 해체와 공산권 국가들의 개방 이후 한국은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직접 그 지역의 실체를 접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정보와 이해의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몽골제국시기는 고려사와 경계를 접함과 동시에 몽골의 고려 정벌 또는 왕실 간의 혼인 관계 등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한국의 국사학계에서는 몽골제국시기의 고려의 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원간섭기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몽골의 고려 통치를 이해함에 있어서 고려가 몽골제국의 ‘식민지’ 또는 ‘속국’이 아닌 비교적 대등한 관계였다고 서술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이 몽골제국 역사와 여몽(麗蒙)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한국적인 특수성을 강조하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몽골제국사라는 좀 더 큰 틀에서 고려사를 바라볼 때 분명해질 것이다.²⁾ 몽골제국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고려사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논의의 일반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약 800년 전의 역사를 근대의 식민통치 개념이나 민족의식을 투영해서 해석하는 방식 자체는

2)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논의는 李玠奭(2007), 「대몽고고려 관계 연구의 재검토」, 『史學研究』 8과 동저자의 「동아시아 諸國의 13~14세기 역사상과 민족주의」(미간행원고)를 참조.

개념적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이 몽골제국사는 관련된 주변 국가들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왜곡되거나 잘라지는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유목국가의 성립 배경을 둘러싼 논쟁

서구학계에서는 몽골제국사 연구에 있어서 미개척 영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시기에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독립적인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는 세부 연구영역 가운데 미개척 분야를 선점하는 것이 주된 과제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 대한 비평이나 논쟁점이 부각되는 연구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1980년대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점진적으로 거시적 관점의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들어서 데이비드 크리스천(David Christian, 1994)에 의해 제기된 ‘중앙유라시아(Central Eurasia)’라는 용어는 유라시아 중앙부의 건조지대를 하나의 연구 단위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것으로 기존의 분업적 연구 관행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제시의 의미를 가진다.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 거시적 관점을 제시하며 몽골제국사 연구에 새 바람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제넷 아부 루고드(Jenet Abu-Lugod, 1989), 조셉 플레처(Joseph Fletcher, 1986), 그리고 토마스 바필드(Thomas Barfield, 1989) 등을 들 수 있다. 아부 루고드는 사회학자로서 그녀가 가지는 이론적 배경의 틀을 가지고 12~14세기 몽골제국 전후한 시기의 교통과 교류의 발달로 인한 소위 ‘세계체제’의 형성과정을 그려냈다. 단 몽골제국에서 진행된 세계화와 세계 무역의 확산을 단순히 전근대 시기의 자본

주의 이전 단계에서의 발전 정도로 보고 여타 지역 단위의 발전의 하나로 취급한 것은 몽골제국에 의해 이루어진 변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아직 제약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연구는 이후 몽골제국시기를 전후로 하는 역사 연구에 있어서 지역 단위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촉발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

플레처는 북아시아 초원지대에 펼쳐진 유목지역에 형성된 국가들이 가지는 공통적 특징에 주목하여 초원에 형성된 국가의 형성 배경을 하나의 연구 주제로 부각시켰다. 그가 볼 때, 초원지역에서 형성된 부족 단위로 생활하던 유목민이 초(超)부족적 유목국가를 형성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다. 유목지역에서의 가장 자연스러운 정치·사회 단위는 부족이었다. 이러한 유목부족들이 통합되어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제국 건설의 야심을 가진 지도자가 정주 지역으로부터 상업이나 약탈·공물 등의 형태로 유입되는 물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플레처는 이해했다. 즉 초원지대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은 목축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했기에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각종 비타민과 기초 영양소를 제공해 주는 곡류·차 등의 식품을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고도로 발달한 정치질서와 사회체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비단과 같은 사치품과 다양한 재화의 공급이 필요했다. 초원의 자유로운 부족들이 연합하여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위한 강력한 기제가 필요했으며, 초원의 개별 부족들을 묶어주는 데 필요한 것이 외부 정주 농경권, 특히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재화였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 리더가 리더십을 가지고 부족들을 통합하여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물자를 들여와 분배하는 과정에서 부족장과 그 휘하의 부족민들의 신뢰와 인정을 받아야 부족을 통합하여 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는 이해했다.

플레처의 제자였던 바필드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중심으로 중국과 초원지대 사이에 벌어졌던 긴장과 완화·약탈·침투 그리고 평화 관계로 이어지는 주기적 반복현상, 그리고 예외적이지만 정주지역 정복으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패턴에 주목한다. 플레처에 이어 바필드 역시 유목민들의 생존과 더 나아가 국가 건립을 위해서는 정주지역으로부터 오는 물자와 재화의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빈약한 생산구조를 가진 유목민들이 외부로부터 물자를 들여오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역이나 약탈이었다. 바필드는 약탈을 하나의 정치적이면서 경제적인 행위로 이해했다. 그에 따르면 북방의 유목국가에 있어서 변경에서의 약탈 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진한(秦漢) 시기 이래로 중국에 세워진 한족 황실을 북방의 유목국가가 압박하는 정치 외교적 수단이었다. 이러한 약탈을 통해 유목국가는 자신에게 필요한 물자를 중국의 정권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었으며 또한 이러한 정치적 압박을 통해서 조공이라는 제도를 유도해낼 수 있었다고 보았다. 조공제도를 통해 들어오는 물자가 초원의 정치 지도자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부족 통일을 유지하는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물리적 압박이 가능했던 것은 초원지대의 말과 활에 의존한 기마군대의 기동성과 파괴력이 정주지역의 보병에 의존한 군대의 그것보다 앞섰기 때문이기도 했다.

전근대 동아시아 북부의 초원지대 역사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바필드의 연구는 북아시아사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기여를 했지만 다른 한편 세부 논의에 있어서 섬세함과 치밀함의 미비로 인해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 비판 중에 니콜라 디 코스모(Nicola Di Cosmo, 1994)의 그것은 가장 핵심 근간을 겨냥한 것이었다. 디 코스모는 유목민과 정주민의 관계를 ‘상생적(Symbiotic)’ 관계로 파악한다. 즉 상호 의존적이면서 평화적인 관계가 역사적으로 그들 양집단 사이의 기초적인 관계

라고 이해한다. 그는 중국 사료에 등장하는 유목부족이나 국가의 약탈에 관한 기록들은 이방 유목부족들에 대한 중국사가들의 폄하 노력이나 중국 지식인들의 왜곡된 부정적 시각의 결과라고 이해한다. 실제로는 유목민들은 외부 세계와의 평화로운 공존을 선호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그의 기본 시각이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오웬 라티모어(Owen Latimore)부터 플레처와 바필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중국사가들의 기록이 가지는 왜곡된 시각에 영향을 받아서 유목민들을 호전적인 존재이며 전투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로 그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디 코스모는 유목민이 자급경제를 이룩할 수 있었으며 유목민이나 유목국가 모두에게 외부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물자가 필수품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초원 세계에서 진행된 고고학적인 발굴성과를 분석하면서 초원지대의 농경의 흔적의 예를 들어 초원에서도 기본적인 농경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플레처와 바필드가 설명했던 것과는 달리, 그는 유목민들의 경제체제가 정주지역의 농산물이 공급되지 않아도 일정 정도 유지될 수 있는 자급형 경제였다고 한다.

디 코스모의 이러한 견해는 기존의 유목민들에 대해 정주 문명권의 역사가 그려왔던 단순하고 획일적인 이미지를 교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리고 유목민과 정주민 관계를 보는 시각을 다변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하지만 몇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만주에서부터 남부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펼쳐진 초원이 가지는 자연적·지리적 여건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그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르키스탄 지역에 펼쳐진 초원의 경우는 오아시스 도시들을 끼고 있어서 유목민들과 정주민들이 역사적으로 상생관계를 맺어왔던 예가 확인된다. 주로 유목계 지도자들이 오아시스 도시를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그 대가를 세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남부 러시아의 킵차크 초

원과 주변 정주지역에서도 유목민과 정주민 사이의 상생관계의 예를 볼 수 있다. 반면 중국 북쪽에 위치한 몽골 초원은 중간에 오아시스 농경 도시를 가지지 않기에 도시와 초원의 공존 구조를 보기 어렵다. 몽골 초원의 생태 환경을 보면, 동쪽의 만주와 접경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고원지대에 위치하며 강우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 지역은 거대한 유목세계를 형성하며 남쪽의 중국이라는 거대 농경지대와 맞닿아 있어서 유목민과 정주민 사이의 상생적 모델보다는 적대적 대립관계가 사료상에 빈번히 나타난다. 물론 중국역사가들의 편견이라는 측면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몽골 초원에 관한 한 바필드가 제시하는 모델을 뒷받침해줄 기초 사료가 월등히 많은 부분은 무시하기 어렵다. 바필드가 주목하는 모델은 주로 중국 북쪽에 위치한 몽골 초원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반면 디 코스모가 증거로 제시하는 고고학적 발굴 자료들은 주로 남부 러시아 평원이나 서투르키스탄과 같이 상대적으로 몽골 초원에 비해 물이 더 많은 지역에서 나온 사례이다. 몽골 초원의 경우 자연환경이 농경에는 극히 열악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물론 몽골 초원까지 식량을 운반하는 것은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이므로 자체적으로 농경을 실시해서 곡류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은 확인되는 사실이다. 흉노나 몽골제국시기 남쪽의 중국인 포로들을 이용해서 몽골 중앙부의 강 주변에서 농사를 지었던 예가 있었으며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들은 몽골 초원시대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농경이 가능했고 또 실제로 유목민의 생리적 필요를 자급할 수 있을 정도로 곡류를 생산해왔다고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어느 쪽의 견해가 옳은지의 문제는 차치하고 본 논의와 관련해서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중앙유라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유목민 사회는 모두 초원지대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해당 초원지역들이 가지는 환

경적 차이, 또는 정주 도시와의 관계상의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유목국가의 일반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같은 스텝권역이라고 하더라도 생태환경의 차이가 있고 그것이 그 지역 역사 전개에 영향을 준다. 일례로 몽골 초원에서 나온 부족들은 끊임없이 남쪽과 서쪽으로 이주했지만 그 반대 방향의 이동은 미미했다. 서쪽지역의 스텝 부족이 동쪽으로 공격해 들어오거나 이주했던 예를 찾을 수 없다. 이는 몽골 초원이 가지는 환경상의 상대적 열악함 때문이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 몽골 초원의 부족들을 지속적으로 외부로 진출하도록 촉발하는 요인의 하나였다.

플레처와 바필드에 의해 묘사된 유목제국 역사 전체를 조망하는 틀은 현재까지 나온 많은 시도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물론 후대 학자들에 의해 몇몇 비평과 공격에 처하고 있고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그 논의의 틀이 유효성을 잃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IV. 유목국가 시대구분을 둘러싼 논의

유목제국사를 하나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개념화하려는 연구자들의 노력은 유목제국을 어떻게 시대적으로 구분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논의를 전개시켜 왔다. 특히 시대구분을 둘러싼 논의는 주로 동아시아권 역사가들 사이에서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된 바 있었다. 근대에 들어와서 전개된 중국사 시대구분론은 공산주의 역사 이론의 현실적 적용에서 나오는 고민과 관련되어 있다. 즉 동아시아권의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된 중국과 일본학자들이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를 거치지 않고 공산혁명에 성공한 중국의 역사적 발전단계를 어떻게 마르크스주의 역사발전 모델에 맞춰 설명해낼 것인가의 고민에서부터 시대구분에 대한 논쟁이 등장한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전근대 역사를 노예제와 봉건제 두 개의 큰 시대로 나누려 했다. 하지만 서유럽의 역사 경험에서 유래한 이러한 역사적 모델을 동아시아의 역사 경험에 끼워 맞추려는 노력은 논리상으로 무리한 억지스러운 면이 있었고 장시간에 걸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중국사 연구자들의 중국사 시대구분 노력은 북아시아 지역에 세워졌던 유목국가의 시대구분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중원의 왕조와 경계를 맞닿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중원 지역을 침투·점령, 또는 정복해왔던 북아시아의 유목국가들도 중국과 같은 역사 발전단계의 틀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내지 영토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지배했던 소위 정복왕조들도 이러한 시대구분에 편입되기에 이른다. 러시아의 몽골 역사가인 블라디미르초프의 몽골사 연구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에게 있어서 거란·여진·몽골로 이어지며 중국 내지를 통치했던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부족, 또는 노예제의 사회적 발전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중국 정복 이후 봉건제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전통적으로 중국역사가들은 중국 정복 이후 거란·여진·몽골 왕조를 정복왕조로 명명하면서 이들 외래 왕조들도 중국역사 발전단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전통 중국사가들이 요금원이라는 명칭으로 이들 국가를 명명하면서 각각의 단대사를 편찬하여 중국역사의 일부로 포함시킨 이래로 이러한 전통적 관점이 후대 역사학자들에게 답습되어왔다.

동아시아권에서의 시대구분 노력과 달리 서구학계에서도 북아시아 역사의

전개를 또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하려는 시도들이 등장했다. 앞에서 언급한 라티모어(Lattimore, 1940)의 경우 북아시아사와 중국사가 맞물려서 주기를 가지고 나선형적으로 역사가 발전한다고 파악하였다. 그의 관점은 바필드에 의해 발전적으로 계승되었다. 바필드는 라티모어와 그의 이전 세대가 이해해왔던 순환적 초원 역사관을 한 단계 진일보시켜 만주형 유목국가의 모델을 추가했다.

바필드는 진한과 흉노, 수당과 돌궐, 명(明)과 북원(北元)의 경우처럼 중국에 강력한 통일정부가 들어설 때에 북아시아의 초원지대에도 강한 유목 정권이 들어설 수 있었다고 이해하며 이 현상을 ‘거울의 상(mirror image)’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초기의 유목국가들은 군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약탈과 조공을 통한 중국으로부터의 물자 공급에 만족할 뿐 중국을 정복하려 하지 않았다. 즉 바필드는 흉노와 돌궐과 같은 유목국가들은 중국의 통일과 변영에 기초해서 자신들의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이해한다. 즉 한의 융성과 흉노의 강성, 그리고 수당의 변영과 돌궐의 군사적 성장이 거울의 짝처럼 맞물린다는 것이다. 한편 바필드의 설명에 따르면 만주지역을 기반으로 성립된 국가들의 경우 중국 내지 정복이라는 ‘예외적’ 현상으로 발전한다. 만주에서 성립된 정권은 반농 반목의 경제 생활에 익숙한 부족민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유목민의 기마 전술에도 익숙할 뿐 아니라 정주 지역 통치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정권은 약탈에 그치지 않고 중국 내지를 정복하여 통치하기에 이른다. 주로 거란과 여진 정권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바필드의 시대구분 논리에 따르면 몽골제국의 중국 정복은 ‘초원형’ 모델과 ‘만주형’ 모델이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구분 시도는 다른 관점에서 시대를 구분하려는 여러 시도들을 촉발시켰다. 정주국가와 유목국가가 가지는 경제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

된 역사관에 만족하지 못한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시대구분 노력이 제시된다. 이것의 세련되고 발전된 형태의 두 예로 니콜라 디 코스모(1999)와 김호동(1987) 교수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대구분 노력에서 다루는 구체적·시대적 특징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은 이 논문의 초점이 아니다. 하지만 기존의 시대구분 노력이 가지는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의 시대구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전제는 북아시아 지역에 나타난 유목국가들도 기타 정주지역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하나의 일관되고도 연속적인 흐름을 가지고 전개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북아시아 유목국가의 역사 전개는 중국사라고 하는 거대 역사 전개의 패턴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진행된다고 하는 가정이다. 이러한 시각은 지역적으로 학문의 대상을 나누어서 다루고자 하는 지역학적 구도에서는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논리적 귀결일 수 있다. 즉 대부분의 북아시아사 역사가들이 중국어를 공부하고 중국사를 기점으로 학문의 시각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중국사 전통의 영향권에 놓이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의 전지는 중앙아시아나 인도 북부 그리고 이란을 연결하는 또 다른 문명의 축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유목제국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해 요소로 작용하기 쉽다.

중국사와의 관계 속에서 북아시아 역사 시대를 구분하는 모델들이 가지는 약점은 이슬람 문화권을 포괄해서 관계 맺으며 통치해왔던 유목제국들을 자칫 중국사의 역사발전 모델의 연속선상에 한정시키는 단순화의 문제다. 한 예로 흉노제국이나 월지국의 시기로부터 돌궐제국에 이르기까지 제국의 구성원들은 동쪽에서 정치·군사적인 실패를 맞게 되었을 때 서쪽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정권을 형성했다. 또한 거란의 키타이 제국도 여진족에 의해 붕괴된 후

그 일부가 당시 이슬람화된 서투르키스탄 지역으로 옮겨가서 무슬림 현지인들을 통치하며 카라키타이(西遼) 정권을 건설했다. 투르크 제국의 후예들은 정치·군사 엘리트 집단으로서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도시의 무슬림들을 통치하였다. 몽골제국의 경우 몽골인 군주들이 만주지역에서부터 중국에 이르는 중화문화권을 넘어서서 이슬람 문화권이었던 중앙아시아, 중동에 이르는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을 통치했다. 기존의 지역 분할적 틀에서는 중국과 서아시아의 중간지대에 등장했던 다양한 중앙아시아의 유목국가들은 중국사, 또는 이란사나 이슬람사의 시대구분의 틀에서 예외적이거나 주변적 존재로 다루어지기 쉬웠다.

북아시아의 유목국가들은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국가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유목민들은 2000여 년 동안 문화와 문명의 벽을 자유로이 넘나들었다. 한 예로 몽골제국은 단순히 북아시아에 명멸한 여러 유목국가만의 계승자라고 한정해서 볼 수 없다. 몽골제국체제를 지탱한 또 다른 그룹은 서쪽의 이슬람화된 도시 국가를 지배했던 투르크계 유목민들이었다.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주해서 그 사회를 지배해온 투르크계 왕조들이 빠진 상태에서 중국과 그 북쪽지역을 지배한 유목집단을 중심으로 한 시대구분은 우선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목국가의 역사를 조망하게 되므로 중국사 연구에서 형성된 시각의 영향권 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북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와 이슬람권으로 연결되는 유목제국의 과거는 그 틀 안에 같이 담아내기 어렵게 된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중앙아시아의 서쪽에 위치한 이란의 역사 연구에서도 맞물려 나타난다. 버르트 프래그너(Bert Fragner, 1997)가 지적했듯이 이란 역사 연구는 결국 이슬람의 중심권이라고 간주되는 중동 이슬람권 지역사에 편입됨으로 해서 중앙아시아나 북아시아에 연결되었던 과거로부터 단절을 경험

하게 된다. 현대 이란의 역사가들은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과거 아르케메니드(Archemenid) 왕조, 그리고 그 후의 사산조(Sasanid) 페르시아 왕조로 이어지는 역사에서부터 이슬람 정복으로 이어져서 사파비(Safavi) 왕조로 연결되는 역사를 자신의 일관된 민족사로 규정해내는 작업을 했다.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서구의 이란사 학자들도 이란 역사를 하나의 연속성과 일관된 흐름을 가지는 민족사로 파악하고자 하여 그 역사에 면면히 흐르며 계승된 일관된 특징들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리차드 프라이어(Richard Frye, 1975)나 앤 램튼(Ann Lambton, 1988)을 들 수 있다.

이란 민족사 집필 노력은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적 정체성으로 인해서 이란사를 중동사의 일부로 이해하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1600여 년간 지속되어왔던 중앙아시아와의 깊은 연결 고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보이지 못했다. 이는 이란 역사를 이슬람화의 과정 그리고 정주 페르시아 문명화 과정이라는 두 축으로 단순화하는 관점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프래그너가 지적하듯이 실제로 이란 역사에서 서쪽으로부터의 침공은 알렉산더 대왕과 무슬림 정복, 이 두 차례에 불과했던 반면 동쪽의 유목부족들에 의해 수도 없이 많은 침공이 이루어졌다(Fragner, 1997, p. 123). 실제로 몽골제국의 이란 점령은 현대 이란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제국 하의 이란을 역사적으로 예외적인 시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Fragner, 1997, p. 122).

이란사에서 중앙아시아와 연결된 과거를 돌발적이고 예외적인 시기로 간주하거나 중국에는 페르시아화되어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시각은 중국사에서 소위 정복왕조를 바라보았던 시각이나 북아시아사에서 서쪽 투르크계 유민의 역사를 상대적으로 간과하는 상황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민족사나 지역사라는 틀 속에서 유목제국사를 조망하는 경우 그 한정된 지역 내

에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수직적인 발전 상황에 초점을 맞춘 통시대적인 연결 관계가 부각되게 된다. 한편 이 경우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은 유목제국이 여러 문명권을 넘나들면서 가지는 수직적·통지역적인 특징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V. 사료의 이해를 둘러싼 논쟁

지역적으로 분절된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들은 그간 연구자들 간에 전개되었던 사료 이해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나타난다. 이미 지적했듯이 몽골제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료는 수많은 언어로 되어 있고 이 모든 언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 결과 몇 개의 언어군을 중심으로 지역학적으로 몽골제국사 연구자 그룹이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그중 한 그룹은 동아시아 지역학적인 훈련을 받아 한문과 중국어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역사학자군이다. 또 하나는 페르시아어 또는 아랍어 등 이슬람권 언어로 된 사료를 중심으로 연구하며 이슬람학적인 훈련 전통 속에 있는 연구자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라브학적 배경을 가지고 러시아어나 동유럽의 사료 더 나아가 유럽어로 된 사료들을 주로 다루는 연구자군이다. 이러한 학자들의 분업화된 연구는 각 지역의 세부적인 역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 각 연구자들이 가지는 지역학적인 시야의 제한으로 인해 통합된 시각을 가지고 몽골제국사를 이해하는 데는 방해가 될 소지도 있다.

각 지역에서 기록된 사료들은 그 사료를 기록한 지식층이 가지는 지역적·신분적·문화적인 시각의 한계와 제약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관점

의 한계를 가진 사료군을 엮어서 제국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몽골제국사 연구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주요 논쟁은 연구자들이 의거하고 있는 사료들이 가진 문제와 관련이 깊다.

몽골어로 자사크(Jasaq, Jasakh) 또는 페르시아어로 야사(Yasa)라 불렸던 칭기즈 칸의 대법령이 실존했는가의 여부를 가지고 전개된 데이비드 모간(David Morgan)과 이고르 드 라케빌츠(Igor de Rachewiltz)의 논쟁은 그 한 예이다. 데이비드 모간은 중동학적인 배경 속에서 훈련받은 학자이다. 그가 주로 사용하는 텍스트들은 대부분 페르시아어로 기록된 것이고 그 외에 일부 아랍 사료를 다루고 있다. 반면 라케빌츠는 주로 동아시아학적인 전통에서 훈련을 받았고 한문 사료와 중국어·일본어로 된 중국사 연구에 익숙하다. 모간이 페르시아어 사료를 통해서 이해하는 몽골 법전의 형성과정과 방식은 라케빌츠가 중국 사료를 통해서 바라보는 몽골제국의 법전 편찬 전통과 크게 달랐다. 모간은 페르시아어 사료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칭기즈 칸의 법령인 자사크는 구전으로만 전해졌을 뿐 문서로 기록되어 보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다(Morgan, 1986). 반면 라케빌츠는 중국 측 기록을 통해서 실제로 자사크가 법전으로 기록되어 전승되어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예를 제시하면서 모간의 주장을 반박한다(Rachewiltz, 1993). 모간은 후속 글에서 자신의 주장을 일부 고수하며 이 논의에 있어서 라케빌츠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Morgan, 2005).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은 두 연구자 중에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의 문제라기 보다는 왜 이러한 논쟁점이 발생하는가의 문제이다. 몽골제국사를 바라보는 지역학적 전통의 차이 그리고 주로 다루는 언어의 사료군의 차이가 역사적 사실을 구성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어쨌든 모간이 중국사적인 연구 배경이 있었다면 아마 자사크에 대한 그의 첫번째 논문의 논의가 많이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을 것은 확실하다.

사료와 관련해서 발생한 논쟁의 또 다른 유명한 사례가 있다. 그것은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의 실제성 내지는 신빙성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이다. 그 논쟁은 오랜 역사를 가진 뿌리깊은 것이었다. 그러나 프랜시스 우드(Francis Wood)가 1995년에 이 주제를 다룬 책을 쓰기 전까지는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에 대한 의심은 학계에서 논쟁거리로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우드는 각 장 별로 여러 가지의 증거를 제시하며 마르코 폴로가 실제로 중국에 간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지역의 도시에 머물며 중국과 교류했던 페르시아 상인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 그것들을 조작하고 자신의 상상을 가미해서 여행기를 썼다고 주장했다(F. Wood, 1995). 한편 우드의 주장 가운데에는 그녀가 중국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오해한 부분도 많았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마르코 폴로가 중국어를 할 줄 몰랐는데 어떻게 쿠빌라이 황실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안들을 알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 몽골왕조의 주요 소통 언어는 몽골어·투르크어, 그리고 페르시아어였지 중국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또 한 예로 그녀가 제기한 의문점 중에 마르코 폴로가 북경에 살았으면서 만리장성과 같은 거대한 구조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북경 근교에 위치한 만리장성이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명대 이후의 일이라는 사실은 중국사에 조예가 깊지 않은 이상 알기 어려운 것이다.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한문 사료 가운데 『영락대전(永樂大典)』에 나오는 기록 가운데 쿠빌라이(Qubilai) 한이 일한국(Ilkhanate)에 보낸 사신들에 관한 내용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마르코 폴로(Marco Polo)의 여행기의 기술과 일치하는 것임을 밝힘으로써 마르코 폴로의 기록이 실제였을 가능성을 방증한다. 또한 그 외의 방증 자료들을 한문 사료에서 찾아 마르코 폴로 기록의 신빙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구학계에서 중국 사료와 중국역사에 조예가 깊은 이고르 드 라케빌츠는 두 차례에 걸쳐 우드의 주장

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논증했다.³⁾ 이 논쟁 역시 페르시아어를 일차 연구 자료로 쓰는 연구자와 한문을 주요 연구 자료로 하는 연구자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 논쟁도 연구자가 어느 언어로 된 사료를 다룰 수 있는가와 어떤 지역학적 배경에서 훈련되었는가가 특정 사료의 특징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택하게 되는가를 결정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Ⅵ. 몽골제국의 분열 과정을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

지역학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분업화로 인해 몽골제국사는 기존에는 몽골제국의 통합 기제보다는 네 개의 한국으로의 분열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그간의 대세였다. 즉 몽골제국은 거대한 지역을 빠른 시간 안에 정복했기 때문에 이미 초기부터 분열의 조짐을 가지고 있었고 몽골제국은 잠시의 통합 시기를 지나면서 각 문명권 단위로 급속히 분열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오랜 동안 몽골제국사에 대한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전제가 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중동학적인 전통에서는 일한국 중심의 역사를 다루고 중국사적인 전통에서는 쿠빌라이 이후의 중국 통치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이었고 이러한 연구경향은 그다지 문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슬라브학적 전통에서는 조치 가문을 중심으로 한 킵차크(Qipchaq) 초원지역의 한국[汗國]이 주요 관심 영역이었다. 그래서 제국 전체를 일관하는 통합 기제를 강조하는 연구

3) 이와 관련해서 Igor de Rachewiltz(1997), "Marco Polo Went to China," *Zentralasiatische Studien* 27, pp. 34~92 ; "A Critical Appraisal : F. Wood's *Did Marco Polo Go to China?*," <http://rspas.anu.edu.au/eah/Marcopolo.html> 참조.

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몽골제국의 통합과 분열을 바라보는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이해는 칭기즈 칸의 분봉 이후부터 지역적인 분할의 전조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즉 이러한 분봉에서 나타난 몽골 지배층의 제국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이미 제국이 네 개의 한국으로 분열되어간 씨앗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정복에 의해 성립된 몽골제국은 그 초기부터 분열의 그림자를 내포하고 있었다. 실은 이러한 연구는 그 동안 몽골제국사 연구가 각 문명권이나 언어권 단위로 나뉘어 독립적으로 연구되어왔던 경향과 맞물려 있었다.

한편 최근 10여 년간에 걸쳐 이러한 분열 중시 관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제국 전체를 통지역적으로 조망함과 동시에 몽골제국의 분열적 경향보다는 통합적인 구도에 비중을 두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이들 연구에 있어서도 어떤 지역학적 전통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료에 무게 중심을 두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피터 잭슨(Peter Jackson)의 연구인 「울루스에서 한국으로(From Ulus to Khanate)」는 몽골제국이 통합적인 구도에서 어떻게 지역 정권으로 분할되어갔는가를 그려낸 수작이다.⁴⁾ 그러나 이 연구 논문이 노출하는 한 가지 취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데이비드 모간처럼 영국의 이란사 연구 전통에서 훈련받은 학자로서 페르시아어 사료와 서구 언어로 된 사료에 익숙한 반면 동아시아 권 연구와 가깝지 않다는 점과 맞물려 있다. 피터 잭슨의 연구 주제는 이미 일

4) Peter Jackson(1998), "From Ulus to Khanate : The Making of the Mongol States, c. 1220-c. 1290," Reuven Amitai-Preiss and David Morgan ed. *The Mongol Empire and its Legacy*. Leiden: Brill. 이 논문은 그의 초기 연구인 Peter Jackson(1978), "The Dissolution of the Mongol Empire," *Central Asiatic Journal* 32의 후속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본의 수기야마 마사아키에 의해서 1978년 이래로 깊이 다루어지고 연구된 부분이다. 수기야마는 몽골제국사 연구에 있어서 일본에서 가장 앞선 연구자 중 한 명이고 그의 연구는 이미 동아시아권의 몽골제국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익히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일본어로만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서구권 연구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 결과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터 잭슨이 비슷한 주제의 연구를 재탕으로 발표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는 몽골제국사 연구가 언어권을 따라 얼마나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몽골제국의 역사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관망하며 몽골제국의 중국 영역과 이란 영역 모두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연구가 현재 몽골제국사 연구의 주된 흐름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별히 수기야마 마사아키와 김호동의 연구 모두 페르시아어와 한문으로 된 사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피터 잭슨이 그리고자 한 몽골제국의 통합 기제와 이후의 분열 과정을 한층 진전된 차원에서 그려낼 수 있었다. 한편 두 연구자가 보는 몽골제국의 정치적 구도와 통합 기제에 있어서 몇 가지 견해차가 나타난다.

수기야마 마사아키의 연구는 분명히 기존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적 한계와 중국사 중심 시각을 넘어서려 했다는 점에서 몽골제국사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획을 긋는 역할을 했다. 그는 페르시아 역사서가 가지는 몽골 중심적 시각을 강조하면서 한문 사료가 가진 제한된 시각에 대해 보정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몽골제국 전체를 아우르는 몽골 정권의 통합적 기제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데 성공했다. 특별히 그의 쿠빌라이 정권에 대한 재해석은 쿠빌라이를 한화된 중국적 제왕으로 묘사해온 기존의 쿠빌라이 정권에 대한 이미지를 혁신하는 것이었다. 수기야마는 쿠빌라이를 중국의 황제라기보다는 몽골제국의 대칸의 풍모를 가진 존재로 그려냈다. 그

는 쿠빌라이가 중국식 통치방식을 원용한 예로 기존에 이해되게 했던 행정 조치들, 즉 ‘원(元)’으로 불리웠던 국호 제정, 중국적 제도의 도입, 한인 관료들의 등용, 북경으로의 천도 등의 예가 정권의 중국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몽골제국의 세계 통치를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간과되었던 쿠빌라이 통치의 몽골적 특징을 성공적으로 그려냈다. 또한 쿠빌라이 시대에 이루어진 사한국(四汗國)의 분열 현상에 대해서도 외적인 분열 이면에는 쿠빌라이를 정점으로 해서 각 한국간에 느슨하지만 이념적인 통합 기제와 유대 관념이 있었으며 이러한 통합 의식은 카이산(Quaishan, 武宗) 정권의 시기까지 이어지고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낸다. 이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몽골제국 분열에 강조점을 둔 이해를 보정하고 몽골제국의 통합과 유지에 무게 중심을 두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의 광범위한 시각과 탁월한 혜안에 기초한 도발적인 연구는 기존의 몽골제국사를 바라보던 시각에 대한 교정을 촉구하며 다양한 후속 논의를 불러일으키며 연구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수기야마 마사아키가 그리는 몽골 세계 제국에 대한 역사상은 중국 문헌 자료보다는 페르시아 문헌 세계, 특히 라시드 웃딘(Rashid al-Din)이 기록한 『집사(集史)』의 서술에 더 큰 중요성을 둔다. 이와 달리 김호동 교수의 최근의 연구는 라시드 웃딘의 사료가 가지는 정치적 한계에 주목하며 수기야마의 연구와는 다른 모습에서 몽골제국의 통합 질서 형성과 이후의 분열 과정을 설명한다. 두 연구자의 견해차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바로 사료를 바라보는 시각차이다. 몽골제국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료들은 지역적이고 단편적이며 그 사료의 저자가 가지는 문화적·사회적·정치적 환경의 제약 하에 있었다. 기존의 동아시아 지역의 몽골제국사 연구자들은 주로 한문 사료에 의지해서 몽골제국의 역사상을 그려왔다. 이러한 연구가 가지는 약점은 대체로 그

들이 의지하고 있는 사료 자체의 약점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수기야마는 이러한 한문 사료가 가지는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써 페르시아어 사료에 눈을 돌렸다. 몽골제국 전체를 그려내기에 가장 적합한 통합적 역사 서술은 일한국 시기에 라시드 웃딘이 페르시아어로 기술한 『집사』이다. 그는 『집사』의 기록에 의거해서 한문 사료의 한계를 보정하면서 몽골제국사의 흐름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그려낸다. 『집사』에서 다루는 부족의 유래 부분이나 칭기즈 칸 가문의 분봉 상황 등의 기록은 『몽골비사(蒙古秘史)』나 『원사(元史)』에서의 기술과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세부적인 차이에 대해서 수기야마는 『집사』의 기록을 중시했다. 한편 김호동 연구가 바라보는 『집사』에 대한 이해는 수기야마의 그것에 비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그가 이해하는 『집사』는 일한국이라는 특수한 정치 환경의 산물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라시드 웃딘은 톨루이(Tolui) 가문의 한 아들로써 이란을 중심으로 한 정주지역을 분리 독립시켰던 훌레구에 대해서 정통성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역사 기술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집사』가 가지는 정치성과 편파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기록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김호동 연구의 기본 입장이다.⁵⁾ 이러한 사료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구육(Guyuk) 칸에 대한 역사적 평가뿐 아니라 쿠빌라이의 집권 과정과 대칸을 중심으로 한 울루스(Ulus)의 위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소위 사한국 체제의 성립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 연구자의 이해와는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되는 출발점이 된다. 즉 어느 지역에서 나

5) 金浩東 교수의 이러한 입장에서 진행된 최근의 몇 가지 연구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金浩東(2007), 『몽골제국과 고려 : 쿠빌라이정권의 탄생과 고려의 정치적 위상』, 서울대학교출판부 ; 金浩東(2006), 「몽골제국과 '大元」, 『歷史學報』 192, 역사학회 ; 金浩東(2004), 「칭기즈칸의 子弟分封에 대한 再檢討 - 『集史』〈千戶一覽〉의 分析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연구』 9, 중앙아시아학회.

온 사료에 비중을 둘 것인가 그리고 그 사료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할 것인가에 따라 다른 모습의 몽골제국의 이미지가 그려짐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예다.

이상에서 몽골제국사 분야의 주요 연구자들의 연구 가운데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위의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쟁점의 배경에는 연구자가 가지는 지역학적인 배경, 그리고 연구자가 핵심적으로 다루는 사료가 가지는 지역적·민족적·문화적·언어적·정치적 배경에 대한 이해의 차이 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몽골제국사, 그리고 더 나아가 유목제국사의 지역적 광범위성, 관련 사료의 지역적·언어적인 분산성과 광범위성, 그리고 그로 인한 몽골제국사 연구에 있어서의 지역적·언어적 분절성과도 맞물려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절성은 민족사와 지역학의 분할 구도로 인해 더 심화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상의 제약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를 내는가가 앞으로의 몽골제국사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서 새로운 공헌을 하며 하나의 흐름을 형성할 수 있기 위해서 씨름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 참고문헌

〈국문〉

- 金浩東(2007), 『몽골제국과 고려 : 쿠빌라이 정권의 탄생과 고려의 정치적 위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 金浩東(2006a), 「몽골제국과 ‘大元」, 『歷史學報』 192, 歷史學會.
- 金浩東(2006b), 「蒙元帝國期 한 色目人 관사의 초상 - 이사 켈레메치(Isa Kelemechi, 1227-1308)의 생애와 활동 -」, 『중앙아시아연구』 11, 중앙아시아학회.
- 金浩東(2004), 「칭기즈 칸의 子弟分封에 대한 再檢討 - 『集史』 〈千戶一覽〉의 分析을 중심으로 -」, 『중앙아시아연구』 9, 중앙아시아학회.
- 金浩東(1987), 「북아시아의 역사상 구성을 위한 시론」, 『아시아 문화』 3.
- 李玠奭((2007a), 「대몽고국 - 고려 관계 연구의 재검토」, 『史學研究』 88.
- 李玠奭(2007b), 「정통론과 13~14세기 동아시아 역사서술」, 『大丘史學』 88.
- 李玠奭(2005), 「현대중국 역사학 연구의 추이와 동북공정의 역사학」, 『중국의 동북 공정과 중화주의』, 고구려역사재단.
- 李玠奭, 「동아시아 諸國의 13~14세기 역사상과 민족주의」(미간행).

〈영문〉

- Abu-Lughod, Jenet(1989), *Before European Hegemony : the World System A.D. 1250~1350*,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Allsen, Thomas T.(2006), *The Royal Hunt in Eurasian Histor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Allsen, Thomas T.(2001), *Culture and Conquest in Mongol Eurasia*.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llsen, Thomas T.(1987), *Mongol Imperialism : The Policies of the Grand Qan Möngke in China, Russia and the Islamic Lands*. Berkeley.
- Barfield, Thomas J.(1990), "Tribe and State Relations : The Inner Asian Perspective," ed. Philip S. Khoury and Joseph Kostiner, *Tribes and State*

- Formation in the Middle Eas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arfield, Thomas J.(1989), *The Perilous Frontier : Nomadic Empires and China*, Basil Blackwell.
- Biran, Michal(2007), *Chinggis Khan*, Oxford.
- Biran, Michal(2005), *The Qara Khitai Empire in Eurasian History : Between China and the Islamic World*.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ristian, David(1994), "Inner Eurasia as a Unit of World History," *Journal of World History* 5-2.
- Cosmo, Nicola Di.(1999), "State Formation and Periodization in Inner Asian History," *Journal of World History*.
- Cosmo, Nicola Di.(1994), "Ancient Inner Asian Nomads : Their Economic Basis and its Significance in Chinese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53-4.
- Fletcher, Joseph F.(1986), "The Mongols : Ecological and Social Perspectives,"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46. rpt.Beatrice F. Manz ed. *Studies on Chinese and Islamic Inner Asia*, Variorum.
- Fragner, Bert G.(1997), "Iran under Ilkhanate Rule in a World History Perspective," Denise Aigle ed. *L'Iran Face à la Domination Mongole*. Tehran.
- Frye, Richard N.(1975), *The Golden Age of Persia : The Arabs in the East*,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 Jackson, Peter.(1998), "From Ulus to Khanate : The Making of the Mongol States, c. 1220-c. 1290," Reuven Amitai-Preiss and David Morgan ed. *The Mongol Empire and its Legacy*. Leiden: Brill.
- Jackson, Peter.(1978), "The Dissolution of the Mongol Empire," *Central Asiatic Journal* 32.
- Lattimore, Owen(1940), *Inner Asian Frontiers of China*,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New York.
- Lambton, Ann K. S.(1988), *Continuity and Change in Medieval Persia*, Bibliotheca Persia.
- Morgan, David(2005), "The 'Great Yāsā' of Chingiz Khān' Revisited," R. Amitai

- & M. Biran eds. *Mongols, Turks, and Other s: Eurasian Nomads and the Sedentary World*, Brill, Leiden.
- Morgan, David(1986), "The 'Great Yāsāof Chingiz Khān' and Mongol Law in the Īlkhānate,"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49-1.
- Rachewiltz, Igor de(1997), "Marco Polo Went to China," *Zentralasiatische Studien* 27, pp. 34~92.
- Rachewiltz, Igor de(1993), "Some Reflections on Činggis Qan's *Jasaγ*," *East Asian History* 6.
- Rachewiltz, Igor de, "A Critical Appraisal : F. Wood's *Did Marco Polo Go to China?*," <http://rspas.anu.edu.au/eah/Marcopolo.html>.
- Lee, Yonggyu(2004), "Seeking Loyalty : The Inner Asian Tradition of Personal Guards and its Influence in Persia and China." Harvard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Wood, Frances Wood(1995), *Did Marco Polo Go To China?*, Secker & Warburg, London.

〈일문〉

- 杉山正明(2006), 『モンゴルが世界史を覆す』, 日本經濟新聞社.
- 杉山正明(2005), 『疾驅する草原の征服者－遼・西夏・金・元－』, 講談社.
- 杉山正明(2004), 『モンゴル帝國と大元ウルス』, 京都：京都大學學術出版會.
- 杉山正明(2002), 『逆説のユーラシアラシア史－モンゴルからのまなざし－』, 東京：日本經濟新聞社.
- 杉山正明(2000), 『世界史を變貌させたモンゴル－時代史のデッサン－』, 東京：角川書店.
- 杉山正明 等著(1997), 『岩波講座世界歷11中央ユーラシアラシアの統合』, 東京：岩波書店.
- 杉山正明(2003a), 「チンギス・カンのイメ」ージ形成－時をこえた權威と神聖化の道程－, 網野善彦ほか 編, 『岩波講座 天皇と王權を考える 第9卷 生活世界とフォークロア』, 東京：岩波書店.

杉山正明(2003b), 「東西の地圖が示るモンゴル時代の世界像」, 『論集－古典の世界像－』, 古典學の再構築” 研究成果報告集 V.

杉山正明(2003c), 「帝國史の脈絡－歴史のなかのモンゴル化にむけて－」, 山本有造編, 『帝國の研究』,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청제국의 변경통치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미국학계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김선민

- I. 머리말
- II. 중국학계의 변경사 인식과 미국학계의 반응
- III. 미국 역사학계의 청대 변경사 연구
- IV. 맺음말



청제국의 변경통치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미국학계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김선민

I. 머리말

청조의 만주족 통치자들은 초기의 중원 점령과 뒤이은 정복사업으로 이전의 명조보다 중화제국의 판도를 두 배 이상 확장시켰다. 새로이 제국의 일부로 편입된 광대한 변경지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집단을 제국의 신민으로 흡수하기 위해 청조는 각 지역에 적합한 변경정책을 개발하고 실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청조가 1912년 공화혁명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진 후에도 이들이 남긴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구성원이라는 두 가지 유산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모두 계승되었다. 근대의 중국은 청조의 업적을 기반으로 지금과 같은 국경선과 국민으로 구성된 민족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다. 동시에 주변국가와 국경선의 위치를 둘러싼 갈등, 이른바 ‘중국’의 역사적 활동범위를 둘러싼 갈등, 중국사회 내부의 다양한 민족구성원 사이의 갈등 등 현재의 중국이 갖고 있는 내외적 문제 역시 모두 청조가 남긴 유산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청대 변경정책에 대한 이해는 현재의 중국을 파악하

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먼저 청조의 영토적 팽창과정, 변경의 제국 내 통합과정, 지역별 변경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문제는 청조의 역사적 특질을 이해하는 관건이다. 특히 변경지역 내 다양한 민족집단에 대한 청조의 인식과 통치방식은 비한족으로서 중원을 다스린 만주족의 통치방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청대 변경정책은 또한 청제국에서 근대 중국으로의 전환기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이다. 19세기에 이르러 청조는 변경의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였는가? 제국의 영토를 유지하기 위한 청조의 노력은 변경의 비한족집단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한족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흥미로운 점은 청대 변경정책에 대한 이해가 근대 중국의 대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서는 정치적 함의를 강하게 내포한다는 점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내지와 변경의 경제격차가 심화되면서 민족간 갈등이 폭력적인 충돌로 전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진행되는 청대 변경정책 연구는 소수민족을 관리하여 이들의 잠재적 이탈 가능성을 방어하고 국민적·영토적 통합을 꾀한다는 중국정부의 방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중국 내 한족중심적 민족주의가 사회 전반을 강하게 지배하면서 중국학계의 연구경향 역시 사회적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청대 변경정책에 대한 중국학계의 이해와 해외학계의 견해를 비교하여 검토하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첫 번째 목적은 청대 변경정책에 대한 미국학계의 연구성과에 주목하여 이를 중국학계의 일반적인 연구경향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미국학계의 청대 변경 및 민족사 연구경향에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이 중국의 세계적 부상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다. 미국학계

는 오랫동안 자국의 서부 변경사에 대한 연구성과를 축적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같은 다른 지역의 변경역사에 대해 통찰력 있는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사회가 안고 있는 민족간·인종간 갈등의 문제는 미국학계로 하여금 청대 이래 중국이 직면해온 이른바 소수민족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결과 청대사를 민족성(ethnicity)의 시각에서 새롭게 분석하는 연구경향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최근 미국학계가 청대의 변경과 민족문제 연구에 붙여넣고 있는 새로운 활력은 관련중심적인 중국학계의 연구경향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이 글은 미국학계의 연구성과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토마스 바필드(Thomas Barfield, 1989), *The Perilous Frontier : Nomadic Empires and China, B.C. 221 to A.D. 1757*, Oxford: Blackwell Press,

피터 퍼듀(Peter C. Perdue, 2005), *China Marches West*,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제임스 밀워드(James A. Millward, 2007), *Eurasian Crossroads: A History of Xinjiang*,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패터슨 기어쉬(Patterson Giersch, 2006), *Asian Borderlands : The Transformation of Qing China's Yunnan Fronti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엠마 텅(Emma J. Teng, 2004), *Taiwan's Imagined Geography : Chinese Colonial Travel Writing and Pictures, 1683~1895*, Cambridge and London : Harvard University Press,

크리스토퍼 이셋(Christopher M. Isset, 2007), *State, Peasant, and Merchant*

이 글의 두 번째 목적은 청대 변경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청-조선 국경 지대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변경·국경지대·국경·경계 등 다양한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각각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이 청과 조선의 관계에서는 시대별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청대 변경지역과 인접국과의 국경지대가 지닌 차별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청과 조선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신강·운남·타이완·만주가 청의 변경이었다면 조선 역시 청의 변경이었는가? 조선이 청과 공유한 것은 국경이었는가? 혹은 국경지대였는가? 이 글에서는 변경이 국경지대를 거쳐 국경으로 단계적으로 변화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청-조선관계를 설명할 수 있음을 하나의 가설로서 제시할 것이다.

Ⅱ. 중국학계의 변강사 인식과 미국학계의 반응

중국학계의 청대 변경정책 연구는 흔히 ‘변강사’로 칭해진다. ‘변강’이라는 용어는 청대 말기에 등장하여民国시기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내지의 18개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번속(藩屬) 혹은 번부(藩部)로 불리다가 중화민국 성립 이후 변강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박상수, 2007, 218~221쪽). 따라서 처음부터 청대 변강사에 대한 중국학계의 연구는 근대 중국이 직면한 문제, 즉 ‘변강방위(邊疆防衛)’와 소수민족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학계에서 소수민족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세기 중반

여러 변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외세의 침입에 대응하고 변경의 소수민족이 분리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중국학계의 변경과 소수민족 연구에는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내지(內地)와 이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변방을 결합시키고 양자의 역사적 연관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1990년 이후 중국학계의 변강사와 소수민족사 연구경향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먼저 독립적인 학문으로서의 민족학의 등장이다. 새로이 민족사학(民族史學)이라고 불리우게 된 소수민족 연구는 개별적인 민족사뿐만 아니라 모든 중화민족의 기원·형성·발전·정치·경제·문화를 모두 다루는 학문으로 발전하고 있다. 둘째는 강역사와의 밀접한 연관성이다. 중국 강역의 역사적 변천과 변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국가의 영토주권을 옹호하고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를 정립하며 국내의 여러 민족을 단결시키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매우 중요한 분야로 다루어진다. 셋째는 다원 일체론에 근거한 중화민족사의 등장이다. 중국과 타이완의 학자가 함께 진행한 ‘중화민족사연구’는 중국 민족에 해외 화교까지 포함하여 중화민족사를 기술하여 한족중심의 소수민족사를 넘어 시간적·공간적으로 확대된 중화민족사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강현사, 2008, 54~55쪽).

중국학계에서 변강사 연구의 중심은 1983년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의 연구소로 출발한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이다. 이곳에서는 변강연구의 목적을 국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중국에서 변강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연구는 이 지역의 발전과 변화의 성격을 탐구하고 이런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함이며, 이는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 서만이 아니라 동시에 국가의 영토에 대한 주권을 보호하고 인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국내 민족집단의 통합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한다. 대표적인 청대 변경정책 연구자인 마대정(馬大正)은

“은혜와 위협을 병용(恩威并施)”하고 “현지관습에 따라 통치(因俗而治)”하는 것을 청대 변경정책의 특징으로 지적하고, 아울러 청대의 중국강역은 수천년 역사발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馬汝珩·馬大正, 1994).

이러한 중국학계의 시각에 대해 미국학계는 매우 비판적이다. 미국의 청대사 연구자들에 따르면 19~20세기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의 침탈과 현재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팽창을 고려했을 때 중국인 연구자들이 보이는 민족주의에는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일부 공감하면서도, 중국학계가 궁극적으로 중국정부의 외교적·전략적 목표에 봉사하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한다. 제임스 밀워드(James A. Millward)는 중국인 연구자들이 청의 신강 정복을 ‘통일’로 표현하는 점에서 중국학계의 정치적 성향을 발견한다. 밀워드에 따르면 ‘통일’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투르키스탄과 준가리아는 태고시대, 혹은 적어도 당대부터 중국의 한 부분이었으며 청이 마침내 중화제국의 서쪽 영토를 복원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통일’이라는 말로 신강을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중국’의 한 부분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핵심적인 역사적 문제, 즉 명대에 서역은 분명히 중화제국의 통치권 밖에 있었고 18세기 신강이 정복되던 당시조차도 한족은 만주족 황실의 서북공략을 반대했었는데, 신강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 중국의 일부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회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밀워드가 지적하는 또 하나의 사례는 ‘민족단결’의 슬로건을 청대 변강사에 적용하는 것이다. ‘민족단결’이라는 말로 변경지역에서 한족과 비한족의 관계가 언제나 우호적이었다고 전제함으로써 민족 간의 관계, 특히 갈등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문제는 거론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James A. Millward, 1996, pp. 119~120).

중국학계의 변강연구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피터 퍼듀(Peter C. Perdue)의 시각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중국의 민족주의적 역사서술이 “현재 중국인민공

화국의 영토적·문화적 경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청의 몽고와 신강 정복을 “20세기 중화민국 수립으로 정점에 이른 일련의 발전과정의 완성 혹은 중앙 유라시아인들이 다민족 중화민족국가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파악하며 근대 중국의 민족국가는 18세기 청제국의 판도가 최대로 팽창한 이상적인 영토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을 지적한다(Peter C. Perdue, 2005, pp. 1~4). 마크 엘리엇(Mark C. Elliott) 역시 청제국의 영토적 팽창을 군사적 정복의 결과가 아닌 평화로운 필연적 과정으로 설명하는 중국학계의 관점에 문제를 제기한다. “중국을 만들어낸 것은 대영제국과 마찬가지로 전쟁과 제국”이었으며 청대 새로이 통합된 영토가 근대의 중국이 되는 과정은 20세기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시간을 거슬러 역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몽고·만주·신강·티베트·타이완에 대한 청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는 근대 중국의 공화정과 매우 달랐으며 이 때문에 중국정부의 ‘민족대가정’ 혹은 ‘민족대단결’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변경지역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Elliott, 2001, pp. 358~359). 그렇다면 청제국의 변경통치 이데올로기는 무엇이었으며 중국의 근대 민족국가가 발전시킨 변경·이민족에 대한 통치방식과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가?

Ⅲ. 미국 역사학계의 청대 변경사 연구

1. 초기의 변경사 연구

청대 변경역사에 대한 미국학계의 연구성과가 중국사 전반에 대한 이해의 축적을 바탕으로 한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 가운데 청대 변경사 연구

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1989년에 출판된 토마스 바필드(Thomas Barfield)의 *The Perilous Frontier: Nomadic Empires and China, B.C. 221 to A.D. 1757* (Oxford: Blackwell Press)였다. 바필드의 이론은 이전 세대의 오웬 라티모어(Owen Lattimore)와 조셉 플레처(Joseph Fletcher Jr.)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지만,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특히 초원과 중원, 중심과 변경의 관계에서 내륙아시아와 유목민 사회를 중심으로 이론화를 시도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바필드는 초원의 유목민과 거대한 농경국가는 내륙아시아를 둘러싸고 서로 장기간 대립하면서 상호작용해왔다고 주장한다. 중원에 기반한 농경국가인 중화제국은 자신을 주변의 어느 민족이나 국가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던 반면 동아시아 북쪽 초원의 유목민들은 중원의 문화와 이념을 거부하고 중화제국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정치·사회·문화를 유지해왔다는 것이다(Barfield, 1989, pp. 3~4). 내륙아시아의 역사를 초원세력과 유목세력의 각축장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바필드의 연구는 기존의 중국중심적 역사관에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미국학계에서 청대의 비한족적 특징에 주목하는 새로운 연구경향이 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바필드의 이론에 따르면 강력한 유목제국은 중원의 토착왕조와 같은 주기로 나란히 흥기하고 붕괴해왔다. 그는 초원세력과 중원세력의 순환주기를 바탕으로 한(漢)과 흉노, 선비족 제국 위(魏), 당과 돌궐제국, 만주의 요(遼)·금(金)과 송(宋)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청대 변경연구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점은 한족왕조가 내부반란으로 붕괴되었을 때 외래왕조가 흥기하는 온상이 된 것은 몽골 초원이 아니라 바로 만주지역이었음을 지적한 점이다. 동일한 시기에 중원과 몽고 초원의 중앙집권적 통치가 붕괴할 경우 만주지역의 변경민들은 강력한 두 세력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바필드에 따르면 중원의 정복왕조를 연구한 비트포겔과 라티모어는 모두

성공적인 정복왕조가 몽골 초원이나 투르키스탄이 아닌 만주의 주변지역에서 흥기한 사실을 간과했음을 지적하고, 내륙아시아의 복잡한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몽골리아의 초원·북중국·만주를 하나의 역사체제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북중국을 통치한 것이 한족왕조인가 외래왕조인가에 따라 변경의 정의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강조한다(Barfield, 1989, p. 12). 한족왕조인 명조의 변경이 비한족왕조인 청조의 변경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족이 인식하는 제국의 범위는 만주족·몽골족이 통치계급을 형성했던 청대의 변경인식과 결코 같을 수 없으며, 따라서 청의 변경정책 역시 이전시대와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바필드는 다른 외래왕조와 마찬가지로 만주족이 초원과 변경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따라서 청이 초원 부족조직의 약점을 잘 활용하였음을 강조한다. 초기부터 청의 전략은 몽골의 유목민들이 통합조직을 이루어 북중국을 위협하지 않도록 초원의 혼란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내몽골 부족의 엘리트에게 물자를 제공하고, 몽골족과 만주족 엘리트 사이에 혼인동맹을 맺고, 부족을 재편성하여 팔기에 편입시키고, 부족장에게 청의 관직을 하사함으로써 몽고족 엘리트들은 만주족에 의지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 만주족은 몽골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몽고 통제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으니, 이는 청조 외에도 칼카부족·준가르부족·러시아·티베트 등 여러 세력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필드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17세기 이래 몽고 초원의 정치가 점점 복잡해져 갔음을 보여준다. 이전 시기 중원의 왕조는 초원 부족의 혼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북방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시베리아나 티베트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러시아 세력의 팽창과 티베트불교의 영향력 확대로 몽고 초원을 둘러싼 역학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함

에 따라 청조는 이제 중원의 전통적인 외교관계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혹은 전통적인 관례를 거부해온 먼 지역까지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청의 변경정책은 중원의 세력을 그 어느 시대보다, 어쩌면 원대보다 더 깊숙이 내륙아시아로 확장시켰던 것이다(Barfield, 1989, p. 284).”

2. 신청사 학파

1996년 당시 서구의 청대변강연구사를 정리하면서 밀워드는 “중국인 연구자들이 변강연구에서 민족주의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서구학자들의 연구경향 역시 현재의 정치·문화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중국 소수민족에 대한 서구학자들의 관심은 미국 내의 소수민족집단이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Millward, 1996, pp. 121~122). 미국학계의 중국내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은 이후 청대 만주족 문제에 집중되어 이른바 ‘신청사’ 학파의 등장을 가져왔음을 뒤에서 자세히 소개할 것이다. 그러나 아울러 지적할 것은 미국학계의 중국 변강문제 및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관심은 역시 현재의 국제정치적 상황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21세기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불안감과 이에 따른 대중국 반감 역시 서구학자들의 청대 변강 및 소수민족 연구에 암묵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점이다.

청대사와 청대 변경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말 신청사 학파의 대두와 함께 새로운 방향으로 진전되었다.¹⁾ 신청사 학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청

1) ‘신청사’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는 다음의 글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 Ruth W. Dunnell

조의 통치집단인 만주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만주족과 중화제국 및 중국문화의 관계, 나아가 다른 비한족 집단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중국인과 중국문화가 균질적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비판하고 ‘한화(sinicization)’에 대한 오랜 믿음과 전제, 즉 중국을 정복한 집단 및 중국 인근의 이웃들은 궁극적으로 중국적 방식을 따르게 되며 이 과정은 자발적이고 일방적인 것이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화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과거 역사학에 내재된 민족주의적이고 국수적인 경향을 비판하면서 과거에는 “중국인이 된 이적”으로 여겨지던 만주족을 복잡한 문화·정치·민족문제의 탐구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다. 민족 및 민족성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된 청대사 연구는 비단 만주족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현재 중국 내의 다른 비한족집단인 몽골·회족·묘족 등에 대해서도 인류학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신청사적 관점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내륙아시아의 역사적 연관성에 대해 주목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청의 정책에는 중화제국의 전통뿐만 아니라 내륙아시아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었음을 지적한다. 웨일리 코헨(Waley-Cohe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조의 정치적 특징에 내포된 내륙아시아적 전통을 고려할 때 만주족 및 중국사에서 청대가 갖는 독자성은 더욱 중요해진다. 즉 중국과 중앙유라시아에서 형성된 제국의 역사에서만 아니라 제국, 제국과 관련된 여러 문제, 그리고 근대로의 이전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지니기 때문이다”(Waley-Cohen, 2004, p. 195). 다시 말해 “청조는 중화제국이자 동시에 내륙아시아의 제국(the Qing as an Inner Asian, as well as Chinese, empire)”이었다는 것이다. 파멜라 크로스슬리는 더 나아가 “중국사 속에서의 청

and James A. Millward(2004), pp. 1~14 ; Joanna Waley-Cohen(2004), pp. 193~206 ; 윤영인(2006) ; 마크 엘리오트[Mark C. Elliott](2008), pp. 309~325 ; Pamel K. Crossley(2009).

초가 아닌 청제국에 대한 인식(the awareness of the Qing empire, and not the Qing period of Chinese history)”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청조’가 1644년 중원의 정복에서 시작하여 1911년 신해혁명으로 붕괴했다는 시각은 20세기 초 중국의 민족주의 역사학의 산물이며, 따라서 청의 기원은 1587년, 혹은 1601년 팔기의 재편, 혹은 1616년 후금의 건국까지 소급될 수 있고 그 종말 역시 1924년 부의의 황제 퇴위까지 하한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청제국이 유라시아에 미친 영향과 그 대륙적 경향은 명과 청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Crossley, 2009, pp. 194~196).

청조를 중국사의 연장선에서 보는 기존의 시각에 대한 비판은 청제국을 ‘중화중심적’으로 인식하고 이른바 ‘조공체제’로 청의대외관계를 설명해온 기존의 학설에 대한 비판과도 일맥상통한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하나의 단일하고 불변하는 국제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개념, 즉 중원의 군주는 천자로 군림하며 외국인들은 조공의 형식으로 모든 외교와 상업적 활동을 전개해왔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중국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특히 중국인들 자신에게 막강한 학문적 영향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청제국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청조는 정치적 혼인관계, 종교적 후원활동, 상업, 외교, 전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을 통제해왔으며 청조가 사용한 다양한 정책들은 조공이나 중화중심론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조가 전통적인 중국적 외교관계의 형식을 따랐다고 할 경우, 청조의 황제들에게 ‘중국’과 ‘외국’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한 보다 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페어뱅크는 중국적 문화는 청조 정책의 핵심이었다고 여겼지만 만주족 황실은 한인보다는 내륙아시아의 신민들에게 더 큰 친밀감을 보이곤 했다는 점 역시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Dunnell and Millward, 2004, pp. 3~4).

신청사 학파의 또 다른 중요한 공헌이자 특징은 만문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문자료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찾아내 청대사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이다. 만주어 연구와 만주족 연구를 모두 포함하는 이른바 ‘만주학(滿洲學)’은 그 기원이 17세기 유럽인 예수회 선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를 거치면서 유럽의 만주학 중심은 프랑스의 파리에서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로 옮겨지는데, 이는 18세기 말 이래 유럽인 예수회 선교사의 북경 내 활동은 쇠퇴한 반면 러시아 정교의 선교사들은 계속해서 북경에 거주하면서 중국어와 만주어를 학습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었다. 20세기에 이르러 많은 유럽인, 러시아인 및 중국인 학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와 만주학을 소개하면서 미국 대학에서도 만주어를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했다(Elliott, 2008, pp. 312~319). 그러나 미국학계에서는 오랫동안 만주어와 만문자료가 청대사 연구에서 가진 중요성은 오직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되었고 만주어 학습은 흔히 부차적인 것으로서 한문 고문,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뒤를 잇는 하나의 연구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1990년대 이후 신청사 학파는 만주어에 대한 지식, 혹은 몽골어·티베트어 등에 대한 지식이 단순히 청초 연구자들이나 변경사 연구자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청조의 지배, 혹은 중국사 전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음을 강조한다(Elliott, 2008, p. 320).

신청사적 관점이 많은 청대사 연구자들 가운데 공유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이견이 존재하기도 한다. 특히 청제국의 본질적 문제로서 만주족의 민족성 문제를 둘러싸고 마크 엘리엇과 파멜라 크로슬리는 서로 의견을 달리한다. 엘리엇은 만주족의 민족적 정체성은 입관 이전 만주족의 군사·행정의 조직인 팔기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고 본다. 팔기제는 무술연마와 근면강직을 강조하는 만주족의 구법(舊法)을 중심으로 기인(旗人)들을 하나

의 민족집단으로 결집시키는 기능을 담당했다는 것이다.²⁾ 반면 파멜라 크로슬리는 민족성이라는 개념은 청말 이전의 상황에서 사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엘리엇의 주장처럼 만주족의 문화가 청초부터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청조는 만주족의 정체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복과 통제의 필요에 맞게 사용해왔다는 것이다(Crossley, 2009, pp. 199~201). 크로슬리는 또한 만주족 중심주의적 시각이 오히려 청제국의 본질적 특징인 문화적·민족적 다양성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음을 지적한다. 만주족이 청제국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청제국이 만주족의 문화와 민족성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이다(Crossley, 2009, pp. 204~205).

청조의 특질이 만주족의 민족주권(ethnic sovereignty)에 있는 것인지, 혹은 만주족·몽골족·한족·티베트족·위구르족을 모두 아우르는 보편군주적 황제권(universal rulership)에 있는 것인지는 아직도 논쟁중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청사 학파의 청대 민족성 문제에 대한 관심은 청대 변경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비한족 정복왕조로서 청조의 만주족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정복하여 새로 제국의 일부로 편입시킨 광대한 변경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해온 다른 비한족집단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청조의 통치자들이 한족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청조의 정복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청조의 변경인식은 한족왕조였던 명조와는 어떻게 달랐는가? 만주족 통치하에서 몽골족·한족·티베트족·위구르족 및 기타 다양한 비한족집단은 제국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 최근 10년간 미국학계에서 청조의 변경통치와 변경의 비한족집단과 관련된 연구성과가 대량으로 배출된 것

2) Mark Elliott(2001) ; 엘리엇과 크로슬리의 논쟁에 관해서는 Waley-Cohen(2004) ; Crossley(2009), pp. 196~197.

은 신칭사 학파의 자극을 바탕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3. 청대 변경의 지역별 특징

(1) 신강

미국에서 최근 출판된 청대 신강관련 연구서는 피터 퍼듀(Peter C. Perdue)의 *China Marches West*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와 제임스 밀워드 (James A. Millward)의 *Eurasian Crossroads : A History of Xinjiang*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이다. 퍼듀가 청제국의 몽고와 신강정복을 17~18세기에 초점을 맞추고 초원의 유목제국, 러시아, 중원의 청제국의 관계를 횡적으로 서술했다면, 밀워드는 신강이라는 중앙유라시아 문명의 교차점을 고대부터 현대까지 종적으로 서술한다. 퍼듀는 청조의 특징과 중화제국의 팽창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반면, 밀워드는 신강의 문화적 다양성, 17세기 이슬람화 과정, 근대 이후 신강의 한화과정에 비중을 두고 있다. 신강을 분석하는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퍼듀의 책이 특정시기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청대사 전문 연구서인 데 비해 밀워드의 책은 신강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검토하는 개설서이기 때문이다.

퍼듀는 청의 서북변경 정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파악할 것을 강조한다. 청제국이 몽고와 신강을 정복하여 중화제국 영토를 확장시킨 것은 동시대의 다른 유럽 통일국가들이 군사활동으로 자국의 영토를 확장시킨 것과 매우 유사하며, 따라서 이러한 제국의 군사적 팽창은 17~18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유라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교차점이었음을 고려했을 때 청의 신강정복은 유라시아사에 일대 전환점이 되었음을 지적한다. 즉 초원지대 · 사막지대 · 오아시스지대에 고정된 경계선을 만들

으로써 과거 유라시아지역을 끊임없이 이동해오던 변경의 유목민들에게 피할 곳을 남겨두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Perdue, 2005, pp. 9~10). 바필드가 이론화했던 초원과 중원제국의 관계는 청조의 신강정복으로 마침내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또한 퍼듀는 청제국의 몽고 신강 진출을 “중국의 신강정복”으로 보지 않고 대신 중앙유라시아 국가가 중국적 관료제도와 경제에서 얻은 막대한 자원을 활용한 결과로 파악하는데(Perdue, 2005, pp. 19~24), 이런 점에서 퍼듀 역시 바필드나 다른 신청사 학파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중심주의적 관점을 비판하고 중앙유라시아적 관점, 혹은 바필드의 경우처럼 내륙아시아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제국이 초원변경지역을 복속시킬 수 있었던 배경과 관련하여 퍼듀는 여러 가지 학설과 학파의 주장을 소개한다. 초원의 유목제국과 중원의 중앙집권적 국가의 관계에서 초원제국이 중화왕조의 흥망을 그림자처럼 따랐다고 주장한 라티모어와 달리 퍼듀는 청은 만주에 기원한 왕조로 이중적 행정구조를 수립했으며 요·금과 달리 북중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몽고 초원에 강력한 경쟁자를 갖지 않았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본다. 즉 청은 기존의 초원-변경 상관관계의 모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Perdue, 2005, pp. 41~44). 요·금·청이 모두 만주지역에서 흥기한 세력이라는 점에 대해 퍼듀는 따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필드와 차이점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퍼듀는 만주지역을 중앙유라시아의 일부로 파악하지 않고, 또한 청조의 특질을 만주지역과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몽고와의 밀접한 연관성에서 찾는 것으로 보인다.

퍼듀는 한족왕조인 명과 비한족 정복왕조의 청의 통치문화를 비교한다. 그에 따르면 명조는 초원부족에 대해서는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호소로는 통제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한 반면 남서부 변경의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하였는데, 이는 운남의 변경민들은 초원 유목민보다 덜 위협적

이고 조직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한인의 문명을 전파함으로써 제국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청조는 변경의 몽골족을 동물이나 자연력이 아닌 인간으로 인식하고 이들도 윤리적 호소를 통해 교화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이것은 결코 유가적 전통에 기반한 것은 아니었다. 퍼듀에 따르면 청대 이데올로기는 명대보다 더 폭력적이어서 청조에 복속하는 자는 민족성에 상관없이 은혜를 입지만 반항하는 자는 제거되어야 한다고 여겼다는 점에서 명조의 유가적 이론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갖고 있었다(Perdue, 2005, pp. 542~546). 청조의 통치 이데올로기에 군사적·폭력적 문화가 내재되어 있었다는 퍼듀의 주장은 크로슬리가 지적하듯이 만주족의 민족성을 고정적인 것(essentialized)으로 파악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만주족 혹은 중앙유라시아의 변치 않는 비유가적·군사적·폭력적 문화가 청조의 통치방식을 모두 결정지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청조의 변경정책은 만주족의 전통적 문화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각각의 변경지역과 거주민의 당시 상황에 맞추어 대응책을 강구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변경의 비한족집단에 대한 교화에 있어서 제국의 핵심세력이자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몽골족·한족·티베트족·위구르족과, 중원에서 멀리 떨어져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인 타이완 토착민에 대해서 청조가 각각 다른 정책을 취했음은 뒤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신강지역에 대한 통시적 서술에서 밀워드(Millward)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지역간 교류의 장이자 갈등과 경쟁의 장이었다는 점이다. 신강을 둘러싼 중원세력과 몽고세력의 경쟁관계는 한과 흉노, 당과 투르크, 명과 몽골족, 만주족과 몽골족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원세력이 초원제국을 제압하기 위해 전략적 요충지인 신강까지 진출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Millward, 2007, pp. 78~79). 17~18세기 초 신강의 타림분지는 북쪽

의 유목세력인 준가르, 중원의 청제국, 겐룩파의 달라이 라마가 통치하는 티베트, 그리고 러시아 세력의 각축장이었다. 청조가 농경사회의 지원을 기반으로 준가르를 괴멸시키고 서북변경을 정복하는 과정에 대한 밀워드의 설명은 퍼듀의 연구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청조의 준가르 정복과 관련하여 밀워드는 서북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해 청조 내부에서 많은 논쟁과 반발이 있었음을 강조한다. 건륭제의 신강정벌은 막대한 군사비용과 “쓸모없는 땅”을 위한 유지비용을 걱정하는 황실 신하들의 반대에 직면했고 황제는 재정적 측면과 전략적 측면에서 신강정복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했다. 즉 신강에는 팔기병사가 주둔할 것이고 이들은 목축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지 인구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청이 외몽고를 병합하고 신강을 정복함으로써 그동안 한·당·원·명 등 중원의 국가들을 괴롭혀왔던 북방 초원의 위협이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 많은 한인 관료들은 황제의 주장에 점차 동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Millward, 2007, pp. 96~97).

밀워드는 청조가 신강의 다양한 문화를 통치하는 방식에 특히 주목한다. 신강 북부의 준가리아 초원에는 팔기병을 중심으로 청군이 배치되었지만 신강 남부의 회부(回部)사회는 이슬람 엘리트를 지방관으로 충원하여 청조는 이슬람의 법체계나 종교문제에 거의 간섭하지 않았다. 밀워드가 지적하는 청조 신강통치의 특징은 과거 다른 유목세력과 달리 청조는 몽고·준가리아·청해·티베트를 통치함으로써 과거 신강을 둘러싼 중원세력·몽골세력·티베트세력의 지정학적 균형이 마침내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칭기즈 칸의 몽고제국과 달리 청조는 내륙아시아를 속령으로 나누지 않고 신강을 중앙제국의 일부로 둔 채 중원의 통치경험과 청 황실의 내륙아시아적 전통, 특히 언어적·문화적·군사적 경험을 결합시켜 효과적인 통치방식을 개발해 냈다는 점이다(Millward, 2007, pp. 97~98).

청조의 내륙아시아적 전통이 신강 통치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음을 지적함과 아울러 밀워드는 신강에 대한 한화이론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한다. 밀워드에게 따르면 한화란 비한인의 문화를 절멸시키기 위해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그 사람들이나 그 지역을 한인의 방식으로 개종시켰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전까지 청조는 투르크계 이슬람인과 한인 이주자에 대해서 행정적·법적으로 이중적 통치체제를 실시하였고 한인 농민들이 신강 북부나 동부로 이주하는 것을 금지하여 일종의 인구분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밀워드가 강조하듯이 19세기 중반까지 청조는 신강을 결코 한인의 방식(Chinese way)으로 지배하지 않았던 것이다(Millward, 2007, p. 107). 이러한 분리정책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많은 한인 관료들이 신강과 타이완을 포함한 변경지역이 제국에 대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새롭게 논의하면서부터였다. 신강 경략을 연기하고 해군 증강에 주력해야 한다는 이홍장(李鴻章)의 해방파(海防派)와 “신강을 잃으면 몽고를 잃고, 몽고를 잃으면 북경을 잃게 된다”는 좌종당(左宗棠)의 새방파(塞方派) 논쟁이 그것이다. 양자 모두 한족중심주의적 입장에서 청조의 변경정책을 재검토한 것이었다(Millward, 2007, pp. 124~127).

밀워드는 1884년 신강성 건립을 중국의 신강 합병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무엇보다 신강의 위치를 바꾼 것은 중국이 아니라 청제국이었음을 간과한 것이며 또한 암묵적으로 청제국에게 신강이 내지보다 중요하지 않은 일부였다고 잘못 추측하는 것이다. 신강은 몽고나 만주와 마찬가지로 중국 내지와 똑같은 제국의 일부였고 다만 행정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통치되었을 뿐이었다. 밀워드에게 따르면 신강성의 건설은 청제국의 통치원칙 전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조가 이때부터 광대한 제국의 농경지역에서 채택되어온 행정모델을 환경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다른 변경지역에 적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변경정책의 변화는 또한 청제

국의 성격, 나아가 제국 내에서 만주족이나 몽골족 등 내륙아시아인들의 지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신강성 건설의 배경에는 변경지역이 인구·문화면에서 중국 내지와 비슷해지면 통치가 더 수월하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 중기 신강의 군부가 오직 사람을 보호할 뿐이었다면, 중국식의 성(省) 제도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또한 교화할 수 있는 것이었다(Millward, 2007, pp. 137~138).” 변경지역의 성 건립, 한인의 이주와 정착, 유가적 교육의 보급 등은 19세기 청의 변경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음은 운남·타이완·만주지역에 대한 연구에서 다시 검토될 것이다.

(2) 운남

퍼듀와 밀워드 역시 신강의 변경적 측면에 주목하지만 이를 본격적인 분석의 틀로 활용한 것은 패터슨 기어쉬(Patterson Giersch)의 *Asian Borderlands : The Transformation of Qing China's Yunnan Fronti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이다. 기어쉬는 변경의 두 가지 특징을 지적한다. 첫째, 변경(frontier)은 정치적 영역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국경지대(borderland)로, 여러 세력이 자원과 토착세력의 동조를 얻기 위해 경쟁한다. 둘째, 변경은 중간지대(middle ground)로, 문화적·경제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며 문화변용과 혼합적 정치제도의 발생이 지역적 상황에 따라 우연적으로 발생한다(Giersch, 2006, pp. 3~4). 청대 운남은 이러한 변경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청조는 강력한 군대, 효율적인 행정력, 풍부한 경제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남의 토착사회를 완전히 장악하지도, 서남아시아의 정치적 영향력도 배제하지 못한 채 토착 지도층인 타이 귀족들과 혼합적인 통치구조를 만들어야 했다. 서남지역은 또한 한인들의 이주로 중간지대를 형성하여 토착민과 한인은

서로 경쟁하고 동시에 교역과 혼인관계를 통해 사회적·문화적으로 융합했던 것이다(Giersch, 2006, pp. 4~7).

기어쉬의 변경적 관점은 청제국과 한인의 단일한 문화가 변경을 휩쓸어버렸다는 한화이론의 전제를 거부한다. 밀워드가 청조의 신강통치에서 강조하듯이 기어쉬 역시 운남의 청 관료들이 일방적인 한화를 시도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청조의 관리들은 자의식을 가지고 상상의 정치공동체를 창조하고자 했던 국민국가 건설자들이 아니었으며, 통일된 중국시민이라는 생각은 청의 정치이데올로기가 아니었다. 퍼듀·밀워드·엘리엇과 마찬가지로 기어쉬 역시 청조의 역사적 역할이 현재 중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다민족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으며, 청대 변경연구자들은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Giersch, 2006, pp. 10~14).

퍼듀나 밀워드는 신강을 청의 변경(frontier)으로 부르는 반면, 기어쉬는 운남을 변경이 아닌 국경지대(borderland)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은 변경과 국경지대의 개념적 정의와 차이점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다. 이 글의 맺음말에서 변경·국경지대·국경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겠지만 청대 운남이 변경이 아닌 국경지대로 설명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청에만 복속된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청대 운남은 청조 외에도 버마·사이암·베트남이 서로 경쟁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청조의 정책은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없었고 언제나 주변 국가의 견제를 받아야 했다. 기어쉬가 지적하듯 1450~1830년 동남아시아 일대에서는 근대초기 유럽과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이 급속히 팽창함에 따라 더 넓은 영토와 더 많은 사람들을 복속시키기 위해 여러 정치세력들이 국경지대를 둘러싸고 경쟁하고 있었다. 운남지역의 엘리트 집단이었던 타이 귀족은 청조·버마·사이암과 정치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 국가는 이 지역 엘리트와의 동맹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

기도 했던 것이다(Giersch, 2006, p. 213). 청대 운남은 여러 정치세력이 국경지대를 둘러싸고 경쟁했다는 점에서는 명말 요동변경의 상황과 유사하지만, 변경의 독자적인 엘리트 세력이 존재하고 여러 민족집단이 접촉하여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청-조선 국경지대와 결정적인 차이점을 가진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맺음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다.

(3) 타이완

엠마 텡(Emma J. Teng)의 *Taiwan's Imagined Geography: Chinese Colonial Travel Writing and Pictures, 1683-1895*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는 청대 타이완이 “야만의 땅”에서 “중국의 성(省)”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청제국의 특질, 민족성, 한화이론 등 청대 변경통치와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들을 차례로 분석한다. 엠마 텡은 청의 타이완 복속을 ‘제국주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여기에서 청제국주의란 “비한족이 거주하는 거대한 지역을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제국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통치하고 민족적으로 다른 비한족인들을 제국의 신민으로 통합시킨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한인의 변경 이주는 제국주의적·식민주의적(colonial) 현상이라는 것이다(Teng, 2004, pp. 9-10). 엠마 텡이 지적하는 청제국주의에는 경제적·정치적 측면만이 아니라 일련의 태도와 권력관계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청 관리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토착민은 무릎을 꿇어 조공을 바치는 이미지에 제국주의적 담론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변경을 이질적이고 비문명적이며 야만적인 의미를 지닌 곳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는 또한 유럽의 오리엔탈리즘에 비견할 수 있다. 유럽인들이 동양을 타자로 상정하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설명해온 것처럼 중국문명은 사이(四夷)에 반대되는 ‘중국(中國)’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수립해온 것이다(Teng, 2004, p. 12). 엠마

팅은 이러한 제국주의적 팽창과정에서 여행자의 기록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한다. 변경지역에 대한 기록은 멀리 떨어진 지역과 그곳에 거주하는 다른 인종의 모습을 내지의 독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과거 중화제국의 일부가 아니라고 여겨졌던 지역을 제국의 영역 안에 포함시키고 새로운 상상의(imagined) 제국이 갖는 지리적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청의 팽창을 당연한 결과로 만들어주었다는 것이다(Teng, 2004, pp. 3~6).

엠마 텅은 18세기에 완결된 청제국 이데올로기가 각각의 변경과 민족집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한다. 엠마 텅은 크로슬리의 청제국 이데올로기 분석을 바탕으로 청은 만주족·몽골족·한족·티베트족·회족으로 구성된 다섯 개 집단의 통합체라고 본다. 황제는 보편군주로서 자신의 다양한 신민들을 공평하게 통치해야 하며, 다섯 집단은 황제의 권위에 복종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집단이나 문화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황제의 무사공평한 통치력을 위해서 건륭제는 옹정제의 교화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각 집단 간의 문화적 차별성을 분명히 유지하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타이완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엠마 텅이 지적하듯이 타이완 토착민들은 제국의 주요 구성원도 아니고 청조의 창건과 발전과정에서 결정적인 공헌을 한 집단도 아니었으며 왕이나 칸과 같이 중앙집권적인 통치력을 갖춘 집단도 아니었다. 결국 건륭제의 제국 이데올로기에서 타이완 토착민은 황제의 공평무사한 은덕을 입기는 하되 제국의 파트너는 아니었던 것이다. 제국의 다섯 구성원들의 문화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었지만 타이완 토착민의 풍습은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이처럼 각각의 민족집단이 가진 문화적 지위에 따라 제국의 변경정책이 결정되었던 것이다(Teng, 2004, pp. 239~245).

엠마 텅에 따르면 청의 타이완 정책은 격리주의와 식민주의의 반복이었다. 격리주의 정책은 한인의 타이완 이주를 금지하고 원주민의 토지소유권을 보

호함으로써 타이완의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것인 반면, 식민주의 정책은 한인의 이주를 장려하고 이를 위해 토착민의 토지를 적극적으로 강탈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관료들은 이 두 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변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인 이주자와 토착민간의 갈등을 방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앞서 신강의 경우에서 살펴보았듯이 19세기에 들어서 청조의 변경정책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1875년 청조는 ‘개산무번(開山撫番)’을 통해 한인이 타이완 토착민의 토지를 개간하는 것을 허락했고 그 결과 한인의 이해와 토착민의 이해를 중재해온 과거의 정책은 한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중국 제국으로의 흡수는 1887년 타이완성 건립으로 완결되었다(Teng, 2004, pp. 26~27). 이 시기 신강·타이완·만주는 모두 한인의 대규모 이주, 내지 행정구조의 도입, 유가 사당과 한어 교육의 보급을 공통적으로 겪어야 했다. 그 결과 “다양성을 중시하던 건륭연간의 정책은 제국의 다양한 신민과 광대한 영토에 강제되는 한화정책으로 대체되었던 것이다(Teng, 2004, p. 246).”

(4) 만주

앞서 검토한 퍼듀·밀워드·기어쉬·팅의 연구와는 달리 크리스토퍼 이셋(Christopher M. Isset)의 연구는 청조의 변경정책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청대 사회·정치구조와 지역경제의 형성에 대한 연구에 가깝다. 그러나 이셋의 연구는 신청사 학파에서 강조하는 만주족의 특질을 바탕으로 만주지역을 설명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북변경의 특수성과 청대 사회의 민족성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 글의 분석대상에 포함시킨다.

이셋은 청제국에서 만주지역이 갖는 특수성은 황실과 기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고 설명한다. 정복 엘리트인 기인의 군사력과 유목민적 활력을 유지하여 황실의 헤게모니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만

주족 황실의 발상지인 만주지역을 청조의 배타적 영역으로 확보하고 한인의 침투를 방어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조는 1644년 이래 만주지역의 토지를 독점하고 이셋이 ‘청의 토지(Qing Land)’라 부르는 것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청조는 만주에서 대량의 경작지를 분할하여 무장하지 않은 기인을 이주 시켰으니, 이들이 하사받은 토지는 기지(旗地)로, 농촌으로 내려간 기인은 하둔 기인(下屯旗人)이라 불렸다. 그러나 한인 민간인들이 만주지역에 이주·정착하면서 기지를 불법적으로 매입하거나 점유하기 시작하자 청조는 한인의 만주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청조의 동북 봉금은 만주족의 군사력과 차별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러시아의 침탈로부터 아무르 강 유역의 토착부족을 보호하며 한인의 점유로부터 청조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된 것이었다(Isset, 2007, p. 30).

이셋은 먼저 만주지역에서 한인을 배제하는 봉금정책의 실시로 황실의 재산상·이데올로기상의 이해관계와 민간관리들의 행정 이데올로기가 서로 충돌하였음을 지적한다. 18세기 중반 이래 북중국의 식량난이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황실이 만주와 몽고에 대한 봉금정책을 견지함에 따라 지방관들은 토지를 찾아 만주로 이주한 모든 불법적인 이주자들을 내지로 돌려보내고 이 지역을 계속 봉쇄해야 했다. 지방관들은 증가하는 인구압과 생태파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토지를 얻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동북지역을 개방하고자 했으나, 황실의 조치로 만주에 대한 봉금을 계속해야 했던 것이다(Isset, 2007, pp. 8-9).

청 황실과 지방관이 한인의 이주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셋은 청조의 변경정책을 결정짓는 것은 다름아닌 전략적·재정적 고려였다고 설명한다. 변경에서 국가의 행정력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지역에 농민의 이주를 추진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국가는 세수·안

전·통제의 측면에서 손익을 계산해야 했다. 한인의 이주와 식민은 새로운 토지세원을 창출하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행정 비용과 변경 통치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변경개척의 초기 과정에서는 대체로 내지의 농민들이 재원을 충당했지만, 이 경우에도 국가는 새로이 편입된 변경이 언젠가는 자급자족할 것임을 전제로 정책을 수립했다. 이셋은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정치·경제적 고려가 만주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7세기 이래 청조는 만주의 지역경제와 세수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 국가의 행정력을 확장했고 동북지역 통제를 위한 모든 자금을 내지에서 조달했다. 만주지역에 별도의 행정체제를 수립했다는 사실은 황실의 발상지에 대해 청조가 특수한 이해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황실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는 만주지역의 재정자립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다(Isset, 2007, p. 31).

이셋은 청대 만주족의 민족적 특징에 주목하여 만주지역의 특수성과 가치를 분석하면서 청대 사회, 특히 만주지역에서의 민족적 구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셋의 분석에 따르면 청조는 만주지역의 농민을 행정적·법적으로 새로이 분류하고 이들을 지역적으로 고정된 각각의 공동체에 귀속시켰다. 즉 민인은 민인지역에, 하둔기인은 팔기지역에, 농노는 장원으로 각각 분리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각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같은 ‘민족성’을 기반으로 모인 집단이 아니라 국가의 이해에 따라, 혹은 황실과의 관계에 따라 행정적·법적으로 분류된 집단이었던 것이다. 국가가 구분한 이 집단들 사이에 민족적 차이가 형성된 것은 이들의 규정적 범주를 따른 결과이지, 국가가 이들을 민족적 차이에 따라 의도적으로 분류한 것은 아니었다. 각각의 집단은 민족집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계급과도 같은 것이었다. 청조가 기인과 민인을 구분한 기준은 만주족이냐 한족이냐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누가

팔기제에 속해 있고 누가 속하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었다. 따라서 이는 민족적인 구분이 아니라 국가와 이들의 관계, 즉 제도적인 구분이었다는 것이다 (Isset, 2007, pp. 57~58). 이는 기인을 하나의 민족집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엘리엇의 견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기인을 민족집단이 아닌 하나의 사회계급으로 파악하는 이셋의 견해는 청대 만주족의 민족성을 누르차치 시대부터 유지되어온 하나의 고정된 문화로 보는 시각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청대 변경정책의 일반화

그렇다면 청대 여러 변경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청대 변경정책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는 로버트 리(Robert H.G. Lee)와 조셉 플레처(Joseph Fletcher Jr.)가 일찍이 지적한 바 있다. 로버트 리의 만주변경 연구는 청대 변경연구의 초기 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리는 각 변경 지역에 설치된 행정기구의 차이점, 변경 부족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 조공과 무역, 한족의 침투와 이주, 그리고 청대 신강정책의 발전에 대해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19세기 말 외세의 침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족의 만주지역 이주와 정책이 허용되었으며 이는 1830년대 신강 남부 알티샤(Altishahr) 지역에 대한 정책과 유사점을 보인다(Lee, 1970). 조셉 플레처 역시 청의 변경정책이 연안지역과 내륙지역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즉 광동과 카쉬가르의 대외무역기구에서 제도적인 유사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담당관리들 역시 같은 인물들이었다는 점은 청조의 통치자들이 동남과 서북에서의 무역을 비슷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결국 비슷한 해결책을 입안하게 되었다는 것이다(Fletcher, 1978).

앞서 검토한 퍼듀·밀워드·기어쉬의 개별 연구 역시 청조가 각기 다른 변경지역에서 추진한 현지정책에 일정한 유사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플레처와 마찬가지로 퍼듀 역시 서북지역의 무역과 광동지역의 무역에서 여러 가지 유사점을 발견한다. 퍼듀에 따르면 청조 통치자들은 서북 변경에서 얻은 교훈들을 남부 해안에 적용하여 국경을 감시하고 상인들과 협력하였으며 청의 무역 통제조항을 외국의 ‘야만인들’이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국경지대의 관료들은 외국상인들의 교역확대 요구에 대해 국가의 규정을 유연하게 조절하여 적용했으며 내지의 상인들에게 자본금을 보조하여 변경에서의 상업활동을 장려했다. 그러나 서북에서는 상인들이 국가에 의존했지만 광동의 상인들은 점차 해외 무역 파트너에 의존하게 되었고 서북에서의 무역은 효과적으로 통제되었으나 광동일대는 밀무역이 성행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퍼듀가 지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청조가 러시아, 티베트, 준가르 부족과의 경쟁에서 얻은 교훈은 환경이 매우 다른 동남해안에서는 똑같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이것이 청조 쇠퇴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Perdue, 2005, pp. 554-558).

밀워드 역시 청대 모든 변경지역에서 국가의 변경정책이나 한족 정착민과 비한족 거주민의 접촉에 놀랄 만한 유사성과 수렴성(convergence)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우선 청조는 까다로운 변경지역에는 유능한 만주족이나 몽골족 관리를 임명했는데, 이런 조치는 부분적으로는 이들의 군사적 능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청조가 서로 다른 변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는 유사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한 지역에서의 행정 경험이 다른 지역에서도 유용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내륙 변경지대에서는 간접적인 통치기관을 수립하고 지역의 엘리트나 부족장(자사크, 벡, 토사)을 지방관으로 임명했으며 청의 통치하에 복속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민족집단임을 인정하고 모두 대제국의 구성원으로 간주했다. 밀워드는 19세기 한인의 대량

이주에 따른 현상 역시 청의 모든 변경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음을 지적한다. 청조는 한족의 이주로 변경지역이 불안정해지리라는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에 대한 방어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한족 농민의 이주와 정착으로 재정적·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한족의 이주와 농경의 발전에 따른 변경지역의 변화, 구체적으로는 타이완에서의 토지 병탄, 묘족의 반란, 알티사 지역에서의 고리대, 호남의 삼림벌채, 몽고의 가축 감소 등은 단순히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른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 당시 청의 모든 변경에서 동시에 나타난 제국적 현상이었다는 것이다(Millward, 1996, p. 124).

기어쉬는 청대 운남과 신강의 유사점으로부터 청대 변경정책의 일반적 특징을 도출한다. 몽고와 청해에서 몽고 왕실을 팔기조직으로 편제하고 몽골 지도자들을 감시함으로써 몽고 엘리트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정책은 청조의 변경통치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으로, 운남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청조는 타이 귀족과 병사를 제국으로 통합시키고 기존의 정치제도를 이용하여 지역귀족의 영역(muong)을 다스렸는데, 이는 몽고의 기장(자사크)이나 동투르크스탄의 벡과 같은 지역 엘리트였다. 또한 청의 변경통치는 일반 행정체제, 군부, 이번원 등 서로 다른 기관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개별 관리들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주접을 통해 황실과 직접 교신했다. 결과적으로 변경에 대한 정책 결정은 하나의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변경의 관리들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책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청대 관료들은 각각의 토착 지역의 정치적·문화적 기구에 대해서 매우 유연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Giersch, 2006, pp. 208~210).

피듀·밀워드·기어쉬의 주장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청대 변경은 하나의 역사적 단위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피듀가 설명하듯이 대부분의 청대사 연구가 중국의 변경지역을 따로 분리해서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청

조 통치자들은 변경지역의 모든 민족을 동시에 다루었고 유사한 원칙들을 적용하고 있었다. 변경지역의 관직 인사(人事)에서도 청조는 연속성을 유지했으며 공통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변경정책을 단일화시켰기 때문에 청대 변경연구는 “영국 무역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중앙유라시아인과 러시아인을 변경관계의 분야로 다루어야 하며 한 지역에서의 경험이 다른 지역의 정책에 미친 영향을 추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Perdue, 2005, pp. 551~553). 밀워드 역시 청대 변경을 동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청조의 통치자들은 이른바 중국적 세계질서나 한족중심주의적 시각에서 구체적인 변경문제를 인식한 것이 아니었으며 청조의 변경문제는 민족간 접촉, 경제적 발전, 환경의 변화, 재정적·군사적 도전이 뒤얽힌 복잡한 문제였음을 강조한다. 그가 말한 대로 “청의 여러 변경지역에서 실시된 정책과 경험에서 보이는 유사성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변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중심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Millward, 1996, p. 129).”

IV. 맺음말

1. 경계, 변경, 국경지대, 국경

지금까지 이 글에서 검토한 연구들은 모두 청의 변경지역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Frontier)·국경지대(Borderland)·국경(Border)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하지 않았다. 이들의 주요 관심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변경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청대사·중국사의 한 부분으로서 변경지역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의 구

체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말할 나위 없이 이 용어들은 각각 서로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지역별·시대별 상황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본고는 신강·운남·타이완·만주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변경지역은 국경지대, 특히 청-조선의 국경지대와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경계·변경·국경지대·국경의 개념적 차이점을 설명하고 청-조선의 역사는 변경이 아닌 국경지대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하나의 가설을 제시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할 것이다. 아울러 본고는 영어의 boundary는 경계로, frontier는 변경, border는 국경, borderland는 국경지대로 번역할 것임을 밝힌다.

경계·변경·국경지대·국경의 개념과 관련하여 연구대상과 시기에 따라 연구자들이 자의적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은 흥미로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변경과 국경지대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아직 명확하지 않음을 반영하기도 한다. 파커와 로세스(J. Parker and Lars Rodseth)는 경계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어떤 것의 한계를 지칭하며 국경이나 변경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국경이란 특정한 공간을 지정하는 법적으로 인정된 선으로 하나의 정치적·행정적 단위를 다른 것과 구별한다는 의미를 지닌 반면 변경은 모호하게 정의된 경계로서 선이 아니라 공간(zone)에 해당한다. 파커와 로세스에 따르면 대부분의 변경은 두 개의 정치적 중심 사이에 존재하는 전환적 공간(zone of transition)이다. “사실상 변경은 한 사회가 다른 사회와 인접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발생하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 기술이나 군사력, 혹은 사회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조직면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우월하다”(Parker and Rodseth, 2005, pp. 9-11).

미국 서부의 역사를 연구하는 아델만과 애론(Adelman and Aron)에게 변경

은 “사람들의 만남의 공간으로 지리적·문화적 국경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곳”으로서 “국경이 없는(borderless) 땅”이다. 이들은 변경과 국경 사이에 국경지대라는 중간단계를 설정하고 “두 세력이 서로 경쟁하는 경계(contested boundaries between colonial domains)”로 정의한다. 두 식민세력의 경쟁이 국제적인 공조로 바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국경지대는 국경으로 분할된 지역(bordered land)으로 변하고 국경지대가 아닌 선으로서의 국경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Adelman and Aron, 1999, pp. 815~816). 한편 마이클 버드와 빌렘 폰 셴델(Michael Baud & Willem Van Schendel)은 변경을 국가나 문명이 진출하는 “비어 있는” 지역으로, 국경은 경계를 나누는 선이 아닌 지역으로 설명한다. 이들 역시 변경이 국경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한다. “국경이 등장하기 전에는 대개 먼저 둘 혹은 여러 변경지역이 서로 인접하게 되면서 때로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물론 변경이 국경지대로 발전하지 않고 그대로 변경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많다(Baud and Schendel, 1997, p. 223).” 아델만과 애론이 국경지대에서 국경으로의 전환을 설명했다면 버드와 폰 셴델은 변경에서 국경지대로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지적해둘 사항은 국경은 국민국가 등장하여 주권과 영토인식이 결합하는 근대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근대사회의 경계는 명확한 국경선으로 구획되지만 전근대 사회는 변경 혹은 국경지대와 같은 모호한 경계로 나뉘어 있었던 것이다.³⁾

한편 퍼듀는 변경이라는 용어가 중국사 영역에서 사용되는 맥락에 대해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중국어로 변강(邊疆)은 영어의 변경과 국경에 모두 해당된다. 기원전 5~3세기에 나타난 최초의 사전과 사료를 살펴

3) 근대 국민국가와 영토인식의 성장에 대한 연구는 Thongchai Winichakul(1994), pp. 74~77 ; Bruce L. Batten(1994), pp. 235~242 참조.

보면 변(邊)은 넓은 지대, 멀리 떨어진 지역, 혹은 영토의 끝이라는 뜻을 가진 반면, 강(疆)은 분명한 국경을 뜻한다. 따라서 한자의 변강은 불확실한 지대와 구분된 선이라는 두 가지 뜻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Perdue, 2005, pp. 28-29). 10~11세기 송과 요의 관계를 연구한 나오미 스탠던(Naomi Standen)도 변경과 국경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스탠던에 따르면 국경이나 국경선은 “지도에 그릴 수 있는 구분선”이며 둘 다 “특정한 권위의 범위를 이론적으로 나타내지만 그것이 반드시 실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국경과 달리 변경 혹은 국경지대는 하나의 지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경선을 걸치고 있는 불분명하게 규정된 지리적 지역”을 뜻한다. 반면 경계는 “문화, 동맹관계, 혹은 입장에 의해 구분되는 집단 사이에 개념적 분류”를 뜻하는 개념으로서, 10세기 송과 요의 관계처럼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던 시기를 설명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고 설명한다(Standen, 2007, pp. 13-19).

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변경은 인접하는 두 정치세력, 혹은 사회집단이나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가 모호한 공간으로,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세력을 상대방에게 침투시키고 확장할 여지가 있는 지역이다. 한편 국경은 인접하는 두 정치세력이 서로의 영토적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정한 선을 뜻하는데, 이때 두 집단의 경쟁은 군사적 충돌이나 외교적 협상의 결과 종식되고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했음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경이 변경에서 직접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두 세력 사이의 공간이 변경에서 국경으로 변화하기 전에 일종의 전환기인 국경지대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중간단계로서 국경지대는 변경의 성격과 국경의 성격을 모두 지니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국경지대는 변경과 같은 모호한 경계를 둘러싸고 빈번한 접촉이 발생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인접하는 두 국가가 서로의 세력을 인정하고 타협하는 지점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

와 관련하여 지적할 것은 중국에서 사용되는 변강이라는 용어는 변경과 국경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변경·국경지대·국경의 차이점을 모호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청의 영역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청의 영토가 변경을 넘어 조선·버마·베트남 등 주변 인접국까지 미친다는 잘못된 인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⁴⁾

2. 청-조선 조공관계와 국경지대

이 글은 청과 조선의 관계와 관련하여 양국의 국경지대가 갖는 특징을 지적함으로써 청-조선관계가 새롭게 조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청의 변경지역과 비교하여 청-조선 국경지대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청과 조선의 관계에서는 변경에서 국경지대로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신강·운남·타이완·만주는 모두 청의 국가권력이 침투하여 지방행정기구를 수립하여 통제함으로써 제국의 일부로 편입된 지역이었고, 운남을 제외하고는 국경지대로 변화하지 않았다. 반면 조선은 청의 종주권은 인정을

4) 임지현 편(2004)은 일러두기에서 변경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분계·경계·변경·국경을 구분하고 변경은 “근대 국민국가의 엄격한 국경과 대비하여 경계 넘나들기가 가능하고 유연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가 만나 서로 갈등, 대립, 적응, 혼합, 통합되는 교류의 장이자 독특한 하이브리드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역사적 공간을 칭한다”고 정의하고 영어의 border·borderland·zone·frontier를 모두 여기에 포함시켰다. 한편 국경은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를 나누는 획일적이고 확고한 선으로서, 혹은 국제법적 용어로 지도 위의 선으로 국가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고 frontier와 border를 문맥에 따라 국경으로 번역한다. 이 정의는 국경을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에 사용하는 점에서는 이 글과 일치한다. 그러나 변경·국경지대·국경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념을 자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되 국내정치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한 자치를 실시하는 독립적인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변경에서 국경지대로의 전환을 경험했다. 실제로 명말 요동변경을 둘러싼 후금·청과 조선의 관계는 변경에서 국경지대로의 진화과정, 즉 모호한 변경지대가 점차 영역이 구획되어 보다 명확한 경계선이 등장하는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명대 요동변경은 명의 종주권하에 한족·여진족·몽골족·조선인이 서로 공유하는 접촉과 교류의 공간이자 전형적인 중간지대였다. 그러나 16세기 말부터 누르하치가 이 지역에서 명의 종주권에 대항하고 배타적인 영역권을 주장하면서 요동은 명·여진의 후금·몽골부족·조선이 서로 충돌하는 경쟁의 장으로 변모해갔다. 이후 청의 중원정복으로 요동변경뿐만 아니라 중원 내지까지 장악하면서 이 지역의 정치관계는 청의 종주권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었다. 청조의 권력이 내지와 요동을 넘어 조선에까지 미치고 양국의 정치관계가 조공관계로 안착되면서 과거 불안정했던 변경은 점차 안정적인 국경지대로 진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신강·운남·타이완·만주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변경의 토착민, 즉 다양한 비한족집단이 청-조선 국경지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문에서 검토했듯이, 청의 변경정책의 주요한 부분은 변경에 거주하는 다양한 비한족집단의 민족적 차별성을 유지하면서 한족과의 접촉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조선과 인접한 만주지역은 청 황실의 발상지이자 만주족 문화의 보루로 한인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고 기인은 별도의 행정적·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되었다. 무엇보다 압록강과 두만강유역은 일반인의 거주와 출입이 금지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민족간 접촉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곳이었다. 그 결과 청-조선 국경지대에서는 다른 변경에서 보이는 형태의 민족간 융합이나 통혼, 혹은 한화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처음부터 차단되어 있었던 것이다. 명과 조선이 관직과 교역기회로 회유하고 타협했던 변경 엘리트층이

있던 여진족이 청조의 황실과 지배층이 되면서 청과 조선에게는 협상해야 할 국경지대의 세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조선 엘리트층 사이에서는 만주족에 반발하는 반청의식이 강하게 존재했지만 그것은 청의 다른 변경에서 보이는 민족성의 문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셋째, 청-조선 국경지대에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국가권력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는 국경지대의 월경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버드와 폰 센달이 지적하듯이 월경은 국경지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국가의 지도에서 국경이 얼마나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얼마나 많은 관세청 관리가 배치되어 있는가, 혹은 얼마나 많은 감시초소가 설치되어 있는가와 무관하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국경을 무시하고 넘나든다. 국경을 넘나들으로써 사람들은 국경이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정치현상에 도전”하는 것이다(Baud and Schendel, 1997, p. 211). 월경과 국가권력의 관계는 과거 요동변경에서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월경이 후금·청의 등장과 함께 점차 심각한 범법행위, 즉 범월로 비화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⁵⁾ 즉 국가는 국경지대의 월경을 통제하면서 이를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으로 구분함으로써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 결과 국가의 통제노력과 사람들의 월경의지는 충돌한다. “일반적으로 국경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와 국경지대의 일상적인 삶에는 커다란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경우 국경지대의 사람들은 합법적으로든 불법적으로든 국경을 건널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언제, 그리고 어떤 동기에서 국경을 건너는가 하는 것이다(Baud and Schendel, 1997, p. 220).”

청과 조선의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월경은 어떤 모습이었으며 양국은 이

5) 요동을 둘러싼 후금·청과 조선의 관계 및 범월문제에 대해서는 김선민(2008) 참조.

를 어떻게 통제했는가? 청-조선 양국의 관계가 힘의 불균형을 바탕으로 한 상하우열의 조공관계였다는 사실은 국경지대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또한 청-조선의 국경지대가 월경과 밀무역이라는 국경지대의 본질적·일반적 특징을 갖고 있었다면 이는 양국의 조공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다시 말해 청-조선 조공관계는 국경지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었는가?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버드와 폰 셴델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매우 시사적이다. “중앙의 국가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간 경계는 하나의 분명한 선으로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다. 그러나 국경의 관점에서 보면 국경지대는 양측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활발하게 접촉하는 넓은 교류의 장이다. 따라서 국경지대에 대한 연구는 국경을 불변의, 논쟁이 중시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국가중심적 관점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Baud and Schendel, 1997, pp. 215~216). 중앙에서 바라본 청과 조선의 관계는 종주국과 속국이라는 조공관계의 전제가 아무런 갈등없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하나의 고정된 대상으로 인식되지만, 국경지대에서 바라본 양국의 관계는 시대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갈등의 관계이다. 청과 조선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이해가 조공관계의 그늘에 지나치게 가려서 국경지대의 특징을 간과해왔음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청과 조선의 국경지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류와 접촉의 양상에 주목하고 거기에 복잡한 시대적 배경이 있음을 이해함으로써 양국관계의 시대적 변화와 다양한 측면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국문〉

- 강현사(2008), 「중국학계의 중국민족사 서술분석」, 『중국학자들의 소수민족 역사서술』, 동북아역사재단.
- 김선민(2008), 「인삼과 강역 : 후금 - 청의 강역인식과 대외관계의 변화」, 『명청사연구』 30.
- 박상수(2007), 「중국 근대 '민족국가(nation-state)'의 창조와 '변강' 문제 - 청말 - 민국시기 '변강'인식의 변천」, 『중국의 변강 인식과 갈등』, 한신대학교 출판부.
- 윤영인(2006), 「만주족의 정체성과 청대사 연구」, 『만주연구』 5.
- 임지현 편(2004),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 - 변경에 서서 역사를 바라보다」(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 휴머니스트.

〈영문〉

- Adelman, Jeremy and Stephen Aron(1999), "From Borderlands to Borders: Empires, Nation-States, and the Peoples in between in North American Histor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4, pp. 3 · 815~816.
- Barfield, Thomas(1989), *The Perilous Frontier : Nomadic Empires and China, 221BC to AD 1757*, Oxford: Blackwell Press.
- Batten, Bruce L.(1994), *To the Ends of Japan : Premodern Frontiers, Boundaries, and Interaction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Baud, Michiel and Willem van Schendel(1997), "Toward a Comparative History of Borderlands," *Journal of World History* 8-2.
- Crossley, Pamel K.(2009), "The Influence of Altaicism on East Asian Studies," Proceedings for 2009 Berkeley-KU Forum on East Asian Cultural Studies : Towards a New Paradigm in East Asian Cultural Studies, June 24~29, Seoul, Korea.
- Elliott, Mark C.(2001), *The Manchu Way :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358~359 [이
훈·김선민 역(2009),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 Dunnell, Ruth W. and James A. Millward(2004), "Introduction," James A. Millward et al. eds., *New Qing Imperial History*, New York : Routledge, pp. 1~14.
- Fletcher Jr. Joseph(1978), "Ch'ing Inner Asia c. 1800," John K. Fairbank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0, Late Ch'ing, 1800~1911, Part I*,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ersch, Patterson(2006), *Asian Borderlands : The Transformation of Qing China's Yunnan Frontier*,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Isset, Christopher M.(2007), *State, Peasant, and Merchant in Qing Manchuria, 1644~1862*, Stanford University Press.
- Lee, Robert H.G.(1970), *The Manchurian Frontier in Ch'ing History*,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Millward, James A.(2007), *Eurasian Crossroads : A History of Xinjiang*,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Millward, James A.(1996), "New Perspectives on the Qing Frontier," Gail Hershatter et al eds., *Remapping China : Fissures in Historical Terrai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119~120.
- Parker, Bradley J. and Lars Rodseth(2005), "Introduction: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the Study of Frontiers," *Untaming the Frontier in Anthropology, Archaeology, and History*, Tucson : University of Arizona Press, pp. 9~11.
- Perdue, Peter C.(2005), *China Marches West*,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Perdue, Peter C.(2005), "From Turfan to Taiwan : Trade and War on Two Chinese Frontiers," Bradley J. Parker and Lars Rodseth eds., *Untaming the Frontier in Anthropology, Archaeology, and History*, Tucson : University of Arizona Press.
- Standen, Naomi(2007), *Unbounded Loyalty : Frontier Crossings in Liao China*,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Teng, Emma J.(2004), *Taiwan's Imagined Geography : Chinese Colonial Travel Writing and Pictures, 1683~1895*, Cambridge and London : Harvard University Press.

Waley-Cohen, Joanna(2004), "The New Qing History," *Radical History Review* 88, pp. 193~206.

Winichakul, Thongchai(1994), *Siam Mapped : A History of the Geo-body of a Nation*,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중문〉

馬汝珩·馬大正(1994), 『清代的邊疆政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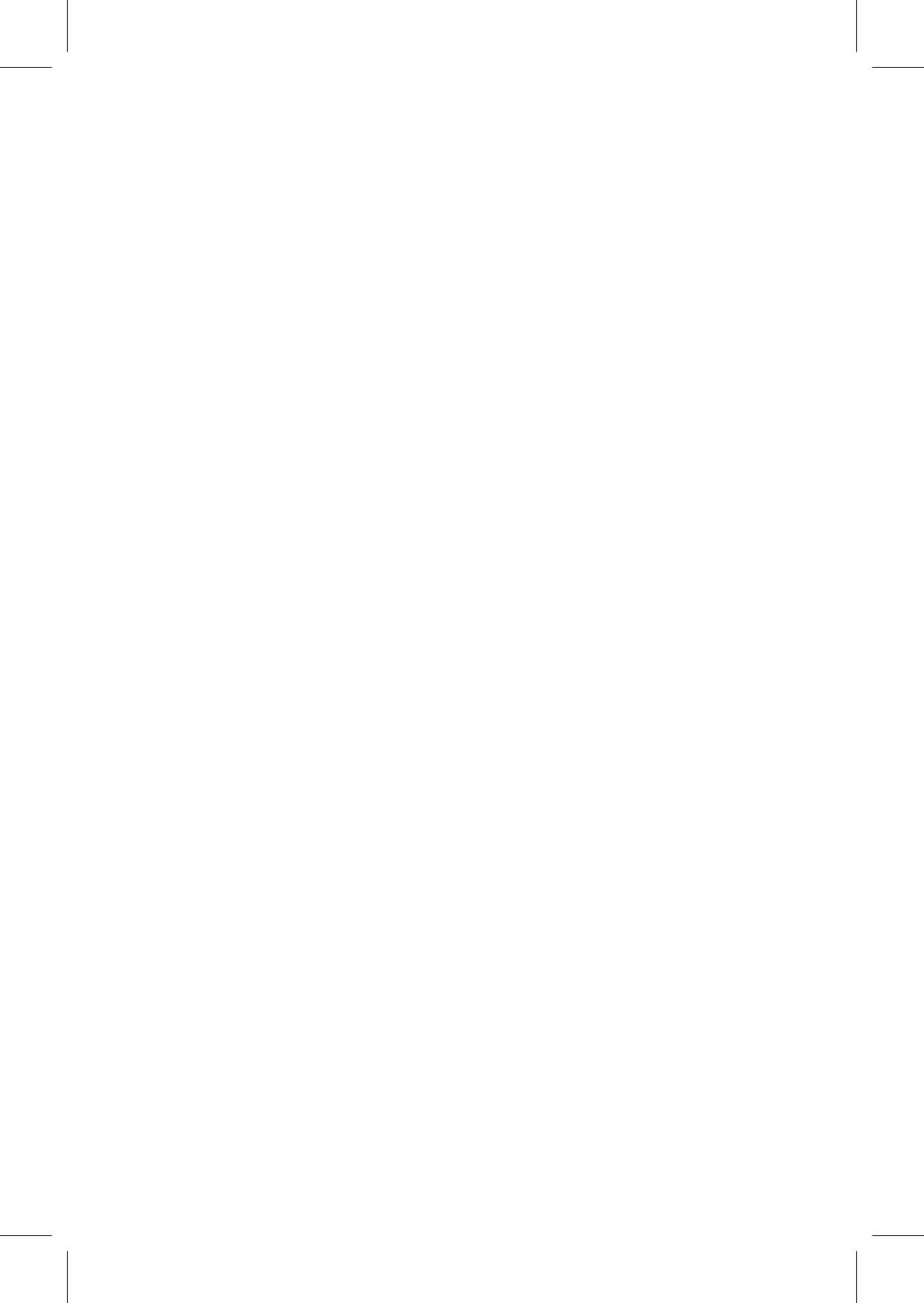
〈일문〉

マーク エイオット[Mark C. Elliott](2008), 「ヨーロッパ, 米國における滿洲學: 過去, 現在, 未來」, 『東洋文化研究』 10.

몽골제국사 회고와 전망

前 트론티 주립대학교 토마스 알슨

- I. 머리말
- II. 사료
- III. 근간의 연구경향
- IV. 향후 연구방향
- V. 몽골제국의 유산



몽골제국사 회고와 전망

前 트랜트 주립대학교 토마스 알슨

I. 머리말

시작하기에 앞서 필자의 연구 분야는 몽골제국 전반과 그들이 복속시킨 다양한 정체(政體)·민족·종교집단이 제국 전체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였는지에 대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 때문에 필자의 제안의 주된 의도는 한국사 연구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민족적 경험을 더 큰 유라시아적 맥락에서 바라보게끔 돕고, 또한 그들이 비교사와 세계사 분야에서 점증하고 있는 몽골제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담론에 기여하도록 격려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몽골사 분야의 장래 연구방향에 대한 필자의 다양한 제안은 이 시대 한국사에 대해 아직 더 알아야 할 필자의 현재 관심사와 장래 연구계획의 표명일 뿐, 먼 곳에서 하달하는 지침이 결코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II. 사료

지난 20년간 몽골제국사 분야에서 일어난 가장 고무적이고 생산적인 진보는 원사료의 평가·편집·번역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극히 중요한 이유는 칭기스조(朝, Chinggisids)의 팽창과 지배의 역사가 당황스러울 만큼 다양한 종류의 언어(라틴어, 고(古) 프랑스어, 고(古) 이탈리아어, 그리스어, 고(古) 러시아어, 그루지아어, 아르메니아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티베트어, 한문, 몽골어, 투르크어 등)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분명한 점은 어느 학자도 혼자서 각각의 문서 전통이 살아 있는 이처럼 다양한 사료언어를 모두 섭렵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각각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부분들과는 다른 전체로서의 몽골제국사를 제대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사료에 대한 신뢰할 만한 번역과 수집 작업이 불가결한데, 결국 이런 종류의 학술적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장기 고수의 배당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료 분야에서의 성과를 논하자면 물론 학계가 오래 기다려온 라케빌츠(I. de Rachewiltz)의 『몽골비사(蒙古秘史)』의 영문 번역본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Leiden, 2004), 그리고 그의 전작인 『몽골비사 색인(*Index to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Bloomington, 1972)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가 이룬 성과는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진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다양한 방향에서 연구의 출발점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행히 다른 연구자들도 부지런히 작업을 하여 이 저작을 넘어서는 기여를 내고 있다.

페르시아어 사료 분야에서 있었던 성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호프만(B. Hoffman)의 *Waqf im mongolischen Iran : Rasbiduddins Sorge um Nachruhm und Seelenheil*(Stuttgard, 2000)과 헤르만(G. Herrmann)의 *Persische*

Erkunden der Mongolenzeit(Wiesbaden, 2004)인데, 모두 이 시기의 공적·사적 문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일한국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연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페르시아어 궁정사료들에 관심을 쏟아온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편 일한국의 인접국이자 적국인 이집트의 맘룩조(朝)와 일한국의 영역이었던 이라크에서 기록한 아랍어 사료들에서도 추가 정보를 얻어내는 것도 가능하다. 아미타이 프라이스(R. Amitai-Preis)의 *Mongols and Mamluks: The Mamluk-Ilkhanid War, 1260~1281*(Cambridge, 1995)와 멜빌(Ch. Melville)의 *The Fall of the Amir Chupan and the Decline of the Ilkhanate, 1327~1337* (Bloomington, 1999) 이 두 저작은 기존의 페르시아어 기록들을 보완하고 교정하는 데 귀중한 아랍어 사료들을 사용한 선구적 연구이다. 이 분야 신세대 연구자들이 이러한 방법론을 기본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 예로는 왕(P. Wing)의 “The Decline of the Ilkhanate and the Mamluk Sultanate’s Eastern Frontier,” *Mamluk Studies Review*, vol. 11-2 (2007), pp. 77~88이 있다.

금장한국(金帳汗國) 분야에서도 연구자들은 역시 당연하게도 궁정·정부·교회 사료 등 고(古) 러시아어 사료들에 먼저 손을 대었다. 이 유구한 사료비평(quellenkritik) 전통의 최근 주자로는 주로 슬라브어 역본에 남아 있는 기록을 통해 금장한국이 러시아정교 사제들에게 부여한 면세권에 대해 고찰한 그리고레브(A. Grigor'ev)의 『몽골 한들이 러시아의 대주교들에게 보낸 율령(yarliq)의 집성(Sbornik khanskikh iarlykov russkim metropolitam)』(St. Petersburg, 2004)이 있다. 연구자들은 이 몽골제국 극서부에 대한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기록들도 활용했지만 이것들 또한 러시아어 사료들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조치조(朝, Jochids)에 대해 외부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편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수십 년간 방치해둔, 중앙아시아와 볼가 강 유역에 구전되던 후대의 투르크어와 페르시

아어 설화들에는 오히려 금장한국시대 자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훨씬 이전 시기의 전통들이 남아 있다. 디위즈(D. DeWeese)의 *Islamization and Native Religion in the Golden Horde*(University Park, 1994)는 창의적이면서도 조심스럽게 활용할 때 이 자료가 얼마나 가치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성과이다.

동아시아측 사료와 관련해서는 영어권에서 몽골과 원조(元朝)에 대한 막대한 분량의 한문 사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라케빌츠와 그의 동료들의 노고를 통해 열렸다. *Index to Biographical Material in Chin and Yuan Literary Sources*(Canberra, 1970~1979)와 *Repertory of Proper Names in Yuan Literary Sources*(Taipei, 1988) 등이 그가 이룩한 성과이다.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이 참고자료들이 단지 원대사(元代史)의 중요 정보로 인도하는 역할뿐 아니라 제국의 다른 부분들에 관한 정보로도 이끌어준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원조 관료들이 중국 밖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들의 전기 자료들에 실린 가족사와 전통에 대한 기록이 우리로 하여금 토착 사료가 적은 킵차크 초원, 북 코카서스 및 여타 지역들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몽골제국의 문화사 분야에서는, 최근 출간된 사료 네 가지가 두드러지는데, 이들은 칭기스조의 유산 탐구에 많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우선 라시드 앳딘(Rashid al-Din)의 *Atbar va Abya*(Tehran, 1989)는 이란에서 기록된 14세기 초의 농업서인데, 중국·인도·중동지역의 농작물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둘째로 골든(P. Golden)이 교주한 *The King's Dictionary : The Rasulid Hexaglot*(Leiden, 2000)은 14세기 후반 예멘의 사전으로서 아랍어·페르시아어·그리스어·아르메니아어·투르크어·몽골어로 의류·병기류에서 동식물까지 전 영역을 망라하여 각각의 언어의 어휘를 병렬적으로 나열하였다. 셋째로 후쓰휘(忽思慧, Hu Szu-hui) 저, 부엘(P. Buell) 외 역간 *A Soup for the*

Qan(London, 2000)은 유라시아 전역의 음식과 약에 대해 논한 원대 음식백과사전인 『음선정요(飮膳正要)』를 철저히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Huibui yaofang* (『回回藥方』, Beijing, 1999)은 명초(明初)의 약학서로, 외래 약재와 식물들의 명칭을 한문 전사(轉寫) 방식과 아랍문자로 기록하였다. 이 사료들을 종합하여 연구하면 칭기스조 시대에 일어난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문화 접촉과 흐름을 이해하는 데 긴요한 추가 정보를 시야를 밝혀주게 되는데, 특히 농업경제학·음식문화·약리학 등의 분야에서 그러하다.

고고학계에서 이루어진 발견 또한 몽골제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한다. 가장 유명한 것은 독일-몽골 합동 발굴단의 카라코룸 발굴인데, 현재까지 발굴 성과를 여러 권에 걸쳐 출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금강한국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발굴작업도 진행 중이다. 페도로브 다비도브(G.Fedorov-Davydov)의 연구서 『볼가강유역의 금강한국 도시(Zolotoordynskie goroda Povolzh'ia)』(Moscow, 1994)와 최근 발간된 논문집 『중세 유럽 초원(Stepi Evropy v epokhu srednevekov'ia)』 제6권, 금강한국 시기(Zolotoordynskie vremia)(Donets, 2008)는 칭기스조 시대의 서부 초원지대, 볼가 강 유역, 북 코카서스, 크림미아지역의 중심도시·주거·건축술·제조술·매장풍습·종교·인구·동전 주조·무역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준다. 이러한 각각의 연구들이 시사하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조치조의 중핵은 초원에 머무르며 유목민으로 남았지만 그들은 한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며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 문화와 경제를 관장했다는 것을 밝혀준다.

이러한 성과들과 발맞춘다는 의미에서, 몽골제국에 대한 고려측 사료들이 번역되어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접근 가능한 사료들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각 사료들이 가진 활용상의 문제들을 보여주는 표본 자료로서의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고려의 사원(寺院)들에 몽골

지배층이 면세특권을 부여했는지 여부는 매우 흥미로운 문제이다. 만약 그랬다면, 이 특허장의 형식적, 구조적 특징은 어떠한지, 러시아의 사제들이나 중국 도시들에게 내린 특허장과 같은 양식을 따르는지, 본래 어느 언어로 발행되었고 현재는 어느 언어로 남아 있는지 등의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이 활용 가능해진다면 유라시아에 걸친 몽골 종교정책의 비교 연구를 크게 용이하게 할 것이다. 또한 몽골제국이 개입하여 지어진 건축물들이 있었는지 여부도 매우 흥미로운 문제이다. 물론 몽골인들은 파괴자로 유명하지만, 초원과 이란 북동부의 고고학 조사를 통해 칭기스조, 그중 적어도 후대 통치자들은 활발한 건설자들이기도 했음이 드러났다.

Ⅲ. 근간의 연구경향

지난 40여 년간 매우 많은 연구가 대 몽골제국의 영토적 확장·제도·쇠망과 유산에 집중되었다. 또한 상당수의 연구는 제국 내의 특정 지역, 특히 1260년 이후 등장한 독립적 한국(汗國)들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의 개관·연구서·논총, 또는 *The Cambridge History of Iran*과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의 몽골제국시기 부분과 같은 공동 저술 등이 그 범주에 포함된다. 또한 곧 몽골제국과 그 후계 국가들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 *The Cambridge History of Inner Asia*의 신간이 간행될 예정이다. 연구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기초 영역들이 공백으로 남아 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연구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인데, 일례로 현재까지도 여전히 몽골제국의 중심부에 자리잡았고, 몽골제국의 후계 유목국가 가운데 가장 거대했던 티무르조(朝)를 배출한 차가다이 한국에 대한 자세한 개설적 연구가 없

는 상황이다.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몽골제국의 출현에 대해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 아닐 것이다. 제국의 창건자 칭기즈 칸에 관해서는 무수한 연구와 전기가 존재하지만, 최근의 저작 두 권은 기존의 일반적 접근법인 그의 군사적 천재성과 위대한 정복자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방법론을 보여주었다. 먼저 토간(T. Togan)은 그녀의 저서 *Flexibility and Limitation in Steppe Formations : The Kerait Khanate and Chinggis Khan*(Leiden, 1998)에서(제국 건설에) 칭기즈 칸이 참고할 수 있었던 선례들과 당대의 사례들을 고찰하며, 제국 초기에 대한 담론에 재분배적 경제 개념을 소개하였다. 위 연구가 칭기즈 칸 이전의 상황에 대한 모색이라면, 비란(M. Biran)의 저서 *Chinggis Khan*(Oxford, 2007)은 칭기즈 칸 이후의 상황에 대해 무슬림 세계에 남은 몽골제국 창건자의 '잔상'을 추적하여, 유라시아에 걸친 다양한 민족과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그의 명성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차용하였는지를 살핀다.

비록 칭기스조의 유산이라는 분야가 매력이 있고 중요하기도 해서 이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 우리는 토간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듯이 몽골인 자신들이 귀감으로 삼았던 선례에 대한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점점 더 우리는 이 필수불가결한 주춧돌들에 대한 더 자세한 지식이 몽골제국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데, 이 주춧돌들은 대부분 칭기스조의 내륙아시아 전임자들 즉 거란·여진·셀주크·호라즘과 그들의 조력자인 초원에 인접한 정주지역 출신 상인·관료 및 변경민들이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로는 비란(M. Biran)의 *The Empire of the Qara Khitai in Eurasian History*(Cambridge, 2005)가 훌륭한 사례이다.

칭기즈 칸 이후 제국의 발전에 대해서는 넓은 관점에서 무슬림과 한문 사

료 양쪽을 활용하는 통합적 연구들이 나타났다. 비란의 연구서 *Qaidu and the Rise of the Independent Mongol State in Central Asia*(London, 1997)는 1260년 이후 등장한 독립적 한국들 간의 정치·군사적 관계에 대한 최고의 기술이다. 칭기스조 궁정들 사이의 활발한 문화적 교류 특히 중국과 이란 사이의 교류에 대해서는 알슨(T. Allsen)의 두 권의 저서, 즉 *Commodity and Exchange in the Mongol Empire : A Cultural History of Islamic Textiles*(Cambridge, 1997)과 *Culture and Conquest in Mongol Eurasia*(Cambridge, 2001)이 있다.

몽골제국과 인접 국가들의 관계도 하나의 연구 분야이다. 우선 언급해두고자 하는 점은 몇몇 세계 시스템 이론가들이 천명하는 바와 달리 몽골제국 시대에 존재한 장거리 경제 교류는 결코 전통적, 선(先)자본주의 제국들의 변경지역에서 발생한 교류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몽골인들의 경우 그들의 경제적·상업적 관계망은 그들의 영토 훨씬 너머까지 뻗어나갔다. 서부 유라시아 지역에 있어서는 마티네즈(P. Martinez)가 이것을 몇 개의 긴 논문을 통해 충분히 기술하였는데 예를 들어 “The Wealth of Ormuz and of Ind,” *Archivum Eurasiae Medii Aevi* 9 (1995~1997), pp. 123~153에서는 일한 궁정이 인도로부터 서유럽까지 뻗어 있는 다면적 교역망 시스템에서 교역상품의 유통, 은괴의 흐름, 중개 매매, 통화 조작 등 여러 영역에 걸쳐 행한 역할을 기술적 세부사항까지 매우 자세하게 다루어냈다. 그의 연구성과는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행히도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이 간과하고 있다. 동아시아와 인도양에 대해서는, 센(T. Sen)이 그의 저서 *Buddhism, Diplomacy and Trade : The Realignment of Sino-Indian Relations(600~1400)* (Honolulu, 2003)의 마지막 장에서 아시아 해역에서 원조의 포괄적 경제적·전략적 이권에 대해 활용 가능한 풍성한 사료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 센과 필자의 사적 대화에

서 그는 자신이 현재 원조와 인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칭기스조의 외부 세계와의 정치 관계 역시 유사한 판도와 범위에서(일본에서부터 영국까지) 이루어졌다. 루오잘라(A. Ruotsala)는 그의 연구서 *Europeans and Mongols in the Thirteenth Century : Encountering the Other*(Helsinki, 2001)와 최근 *Oriente Moderno*, vol. 88-2 (2008)에 발표한 논문들 “*Les relations diplomatique entre le monde musulman et l’occident latin (XIIe-XVIe siècle)*”에서 몽골제국 너머의 정체들과의 외교·문화적 조우를 고찰한다. 브로드브릿지(A. Broadbridge)의 저서 *Kingship and Ideology in the Islamic and Mongol Worlds*(Cambridge, 2008) 역시 몽골 외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크게 기여하지만 덧붙여서 몽골의 제국 이데올로기의 연구에 대해 흥미로운 함의를 담고 있는데, 특히 이는 칭기스조가 그들 자신의 신민에게 부과한 것과 동일한 정치적 관념을 외국에게도 그대로 강제로 투영했기 때문이다. 브로드브릿지가 논증하듯 이집트의 맘루크는 외부자로서 체계적으로 몽골측의 요구에 반박하고 그들 자체적 이데올로기로 이에 반격하였다. 반면 복속한 군주들의 궁정에서는 이 몽골제국 이데올로기에 대해 필요에 의해 훨씬 순응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러시아 제왕(諸王)들은 ‘공식적 침묵’이라고 할 만한 행동을 취했다. 몽골제국 내의 이 지역에서는 궁정 기록들이 칭기스조 이데올로기의 선포에 대해 드러내놓고 도전하지는 않으면서도 가능한 최선을 다해 이것을 무시하려고 했는데, 찰스 할퍼린(Charles Halperin)이 “*The Ideology of Silence : Prejudice and Pragmatism on the Medieval Religious Frontier*,”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6-3 (1984), pp. 442~466에서 이 정책에 처음으로 주목하고 분석하였다.

이 학자들이 발견한 점들을 돌아보면 몽골의 정통성 주장에 대한 고려의 반응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몽골은 그들의 제국 이데올로기를 고

려에서도 제국 내 다른 지역들에서와 동일하게 주장하였는지,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일부분, 일례로 몽골이 천명을 받았다는 주장이 고려의 정치사상과 호환 가능한 것이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 이데올로기가 전달되었는지, 누구에게 전달하였고, 고려측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고려는 침묵의 전략을 사용하였는가, 아니면 칭기스조의 이데올로기를 의도를 가지고 전용하고 재해석하여 내부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하였는가? 이 분야에서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교연구의 방법론 안에서 연구과제와 가설의 설정 및 심화가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필자는 유추나 비교 자체로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추나 비교가 생산적인 화두와 연구전략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사의 영역에서도 발전이 있었다. 오뱅(J. Aubin)은 *Emirs mongols et vizirs persans dans les remous de l'acculturation*(Paris, 1995)에서 제국 전역에 걸친 몽골 인사정책에 관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중국에서 원조의 공식적 인구 분류 용어대로 ‘북부인’인 한인(漢人)이 ‘남부인’인 남인(南人)보다 서열이 높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란에서는 몽골인들은 명확하게 ‘북부인’인 후라산인들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선호도는 분명히 양쪽의 경우 모두 ‘북부인’들이 내륙아시아 지배자들이 정복된 정주지역을 통제하고 수취하는 데 조력했던 오랜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이러한 인재등용과 현지인의 조력이라는 반복되는 방식이 비록 몽골시대 이전에 이미 고안된 지배전략에 의해 형성된 것이긴 해도, 최소한 이 방식이 제국의 최초 형성과정과 1260년 이후 몽골제국 영토의 분열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다.

인사정책의 문제는 또한 아트우드(C. Atwood)의 논문 “*Ulus Emirs, Keshig Elders, Signatures and Marriage Partners : The Evolution of a Classic Mongol Institution*,” in D. Sneath, ed., *Imperial Statecraft : Political*

Forms and Techniques of Governance in Inner Asia, Sixth-Twentieth Centuries(Bellingham, 2006), pp. 141~173에서도 핵심적인 논점이다. 아트우드 는 이 논문에서 몽골제국과 그 유목 후계국가들의 정부에 있어 제국 시위군(侍衛軍)의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는데, 이 주제는 북 유라시아에 걸친 정주, 유목국가들의 등장과 있어 전사 집단과 맹우들의 역할과, 또 이와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인 무슬림 세계에서 '노예 병사'의 본질과 영향에 대한 더 오래되고 광범위한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이용규(Yonggyu Lee)의 하버드 대학 학위논문 *Seeking Loyalty : The Inner Asian Tradition of Personal Guards and its Influence in Persia and China*(Harvard, 2004)가 출판되면 이 계속되는 학술 교류에 중대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몽골 지배에 대한 어떤 논의에서든, 정부의 질 또한 쟁점이 되었다. 이 문제를 보는 데는 종종 양 극단의 관점이 존재했는데, 일부는 '타타르 멍에' 관념에 호소하였고 다른 일부는 이상화된 '팍스 몽골리카' 관념에 호소하였다. 분명 시대와 장소에 따라 차이점이 존재하였고 몽골 권위 아래 살았던 이들의 다양한 경험을 대변할 수 있는 단일한 표상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레인(G. Lane)은 그의 저서 *Early Mongol Rule in Thirteenth Century Iran : A Persian Renaissance*(London and New York, 2004)에서 초기 일한들이 정복시기의 혼란이 지나간 후에 질서라고 할 만한 것을 회복시켰고 그들의 후원하에 페르시아 문화가 번영을 구가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의 관점에 대한 반론이 많지만, 그는 이 책에서 설령 그의 핵심 논제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연구자일지라도 주의 깊게 읽는 이에게 보답할 만큼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해냈다.

몽골제국의 팽창의 또 한 가지 특징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몽골제국의 정복과 지배 방식이 촉발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인구 이동이 그것

이다. 당연히 처음에는 몽골군의 학살을 피하기 위한 전체적 도주가 일어났다. 바사리(I. Vásáry)는 *Cumans and Tatars : Oriental Military in the Pre-Ottoman Balkans, 1185~1365*(Cambridge, 2005)에서 킵차크인과 알란인들의 반복적인 남서유럽으로의 이주에 대해 기술하고 있고 스미스(P. Smith)는 그의 논문 “Family, Landsmann, and Status Group Affinity in Refugee Mobility Strategies : The Mongol Invasions and the Diaspora of the Sichuanese Elite, 1230~1330,”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52-2 (1992), pp. 665~708에서 사천 지방 중국인들의 남쪽으로의 대량 전치(轉置)를 같은 방식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규모가 어찌되었건 도주만이 이 주제의 전부는 아니다. 일단 영토를 복속시킨 다음 몽골인들은 여러 이유에서 정복지 인구의 상당수를 떼어 그들의 본적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로 강제 이동시켰다. 비교적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여러 투르키스탄 무슬림 공동체들을 각각 통째로 중국 서부 및 북부에 재배치시킨 것이다. 고려의 한국인들 역시 이와 유사하게 만주와 북중국으로 이주당했으므로 강제이주의 시기·목적·결과 등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된다. 투르키스탄에서는 대부분의 이주가 정복 직후에 일어났는데, 고려의 경우도 이려했는가의 여부에 대한 것이다. 무슬림 강제이주의 목적은 대개 경제적인 것으로, 서아시아 수공품들을 제조하거나 특수 작물을 재배하거나 파괴된 지역을 복구시키는 것 등이었는데, 뿌리가 뽑혀 새로 심긴 한국인 공동체가 해야 했던 일과 비교해 보면 어떠한 것인가? 또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이 무슬림 식민공동체는 이후 중국의 이슬람 공동체의 토대가 되었는데 한국인들도 만주 등지에 이와 유사한 영구적 거점을 형성했는지 등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관점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세심한 연구가 완료된 후라야 연

구자들이 몽골제국사의 핵심 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들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지배정책을 단일한 중앙집권적 정책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였으며, 또 이 지배정책의 어느 정도까지가 여러 가지 토착화 과정에서 발생한 임기응변의 산물이었을까?

IV. 향후 연구방향

이제 새로운 연구방향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 제국의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 주제별로 다루는 연구방법이 전도가 밝은 길 가운데 하나이다. 첫 예로는 몽골인들의 언어정책과 집행과정을 꼽을 만하다. 그들의 다언어 궁정들은 번역 사업을 후원하였고 언어 학습을 위한 교과과정을 개설하도록 격려했으며 인위적으로 고안된 행정언어 형성에 기여하였으니 줄여 말하면 그 궁정들은 대륙에 걸친 집중적인 언어 교류·차용·변용의 중심지였다. 이 정책과 집행과정의 사회 언어적 함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인식 및 탐구가 이루어졌을 뿐 광범한 비교사적 관점에서는 미답상태이다.

새 연구들은 또다시 제국 전체의 관점에서 칭기스조의 지배전략에도 주목해야 한다. 몇 가지 비교 연구가 유익한 결과를 얻을 잠재력이 있어 보인다. 우선,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초원 이북의 주민들과 초원 이남의 주민들에 대한 몽골제국의 통제와 수취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비교 연구의 한 가지 즉각적인 이점은 제국 내에서 시베리아의 역할을 조명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베리아의 역할은 대개 연구자들이 잊거나 무시하고 지나치게 되는 것인데, 시베리아 지역이 동북아시아 역사의 긴요한 일부임을 생각할 때 유감스러운 일이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하여, 제국 지배에 있어 직접통치와 간접통치의

문제이다. 왜 몽골인들은 어떤 지배계층은 무자비하게 제거하거나 대체하고 다른 지배계층은 용인하여 현지 정부구조를 대부분 그대로 두었는가? 필자에게 이 접근법의 최대 매력은 겉보기에 이질적이고 연결관계가 없는 한국과 그루지아의 역사가 이러한 틀 안에서 의미 있게 관련을 맺을 수 있다는 점이다.

몽골인들의 광범위한 인재등용 및 행정인력 활용은 몽골 치국책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다. 관료 일족에 대한 인물 연구를 통해 제국 통치의 여러 쟁점들을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부재가 더더욱 놀라운 이유는 중국 원조와 이란 일한국의 경우 정부 관료들에 대한 광범하고 세밀한 족보 및 전기 자료가 있어서 연구자가 개별 가문·관직, 그리고 그들의 칭기스조의 후원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4~5세대에 걸쳐 추적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우리에게 관료들의 사환(仕宦) 경로와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몽골인들은 제국 내 농경지대를 다스리는 데 해당 문화권 출신이 아닌 비토착민을 매우 빈번히 등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외지에서 온 관료 가문들이 어느 정도까지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것이다. 브로즈(M. Brose)의 연구서 *Subjects and Masters : Uygurs in the Mongol Empire*(Bellingham, 2007)는 중국 원조하의 위구르족 사씨(謝氏) 일문에 초점을 맞춰, 이러한 조사의 출발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장기 목표로서 심지어 중국, 이란, 제국 내 다른 지역 자체 내부 및 지역간의 지배계층 순환에 대한 비교 연구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른다.

문화사 분야에서는 향후 연구가 근본적인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몽골인들은 이슬람세계 동부와 러시아 제국(諸國)들을 동아시아에서 동원한 인력과 물자로 정복하였고 결과적으로 유라시아 서부의 새 신민들에게는 낯선 여러 가지 문화적 패키지를 함께 가져왔다. 그중 한 가지는 몽골인들이 복속시

킨 다른 모든 동아시아 사회와 마찬가지로 그들 또한 가지고 있었던 조상 숭배의 관습이다. 이러한 관습은 유일신교를 믿는 서방세계에서는 낯선 것이었다. 무슬림이든 기독교이든지 ‘서방인’들은 이 관습을 어떻게 보고 반응하였는가? 더 나아가 초원과 동아시아의 조상숭배와 긴밀히 연관된 인간 형상의 회화적 표현은 이슬람에서는 공식적으로 금지된 관습이었다. 따라서 이 차이점은 이란에서 몽골인들의 미술 후원의 의도와 본질에 대해, 또 일한국 후기와 티무르조 시대에 이슬람 미술에서 인간 형상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현상과의 연관 가능성에 대해 흥미를 품게끔 한다. 이슬람 미술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도 그 자체로 흥미롭지만 이 문제는 유목민의 문화적 선호도, 그리고 유라시아의 거대 정주문명들 간의 교류에서 유목민들이 맡았던 수로이자 여과 장치로서의 역할로 주의를 이끌기 때문에 몽골제국사와의 중대한 관련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몽골제국의 경제체제 역시 더 점검해보아야 할 분야이다. 가장 개괄적인 단계에서는 몽골제국의 경제체제는 봉건경제, 조공체제, 재분배 체제 등으로 특성을 파악하여왔다. 필자의 관점으로는 이러한 표지들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하나의 핵심적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몽골인들이 자원 수취와 교역을 위한, 광범위의 다양한 일련의 체제를 수탈하고 조종하고 침투하며 지배했다는 점이다. 즉 북단부에서는 몽골인들은 시베리아 주민들에게 전통적 방식의 물물교환과 조공관계를 통해 모피를 획득했다. 중단부에서는 칭기스조의 궁정들을, 지배자들이 정주지역으로부터 수취한 물품을 그들의 추종자들과 조력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재분배 체제가 휩쓸었다. 그리고 보다 더 경제가 발달한 남단부에서는 세련된 시장 중심적 교역이 지배적이었다. 중국 원조에서는 청화백자의 생산과 분배가 외국 수요 및 국제 판매 전략에 매여 있었고 이란 일한국의 재정정책은 앞서 언급했듯이 인도양에서 지중해 세계까지 미치는 통화 순환과 은괴의 흐

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아마도 몽골제국을 고대 및 ‘근세’ 교역체제의 혼합체인 경제적 거대기업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 구성요소들과 그 상호연관성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 필자의 짐작으로는 이것은 몽골제국 경제체제들의 유형학과 그 유형들의 순차적 발전과정에 대한 이론들을 상술하는 막대한 작업과 비교해도 절박감과 위압감이 한 치도 뒤떨어지지 않는 과업이 될 것이다.

전술한 분야들은 몽골제국을 보다 깊이 연구하기 위해 중요성이 높은 ‘내적’ 과제들의 표본적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외에도 연구자들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 몇몇 ‘외적’ 과제들이 있다. 그중 가장 중대한 것은 세계적 및 비교사적 관점에서 몽골제국사의 위치를 모색하는 것인데, 꾸준히 ‘내륙’과 ‘외부 유라시아’의 관계라는 주제를 추구해온 크리스천(D. Christian)의 논문 “Silk Roads or Steppe Roads? The Silk Roads in World History,” *Journal of World History* 11-1 (2000), pp. 1~26은 이 과제의 커다란 첫발을 내디딘 대표작이다.

이 과제에 접근하는 보다 명백한 길은 아르케메네스조 · 사산조 · 로마 · 한 · 당 · 압바스조 · 오스만조 및 기타 등 전근대 세계제국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특성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이다. 이 연구 경로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왕가의 행운 관념과 같은 이데올로기 분야, 제국 군대의 징집 방식과 민족 구성과 같은 군사체제 분야, 시위군의 역할과 같은 궁정 정치분야, 주둔군 기지와 식민지의 건립과 같은 인구이동 분야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추구할 수 있다. 현재까지 몇몇 연구만이 몽골 제도들을 그와 같은 비교사적 맥락 안에 포함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알슨(T. Allsen)은 *The Royal Hunt in Eurasian History*(Philadelphia, 2006)에서 유목국가와 정주국가 양측에서 지배층의 수렵행위가 갖는 군사 · 사상 · 정치적 역할을 논의한다. 또한

실버스타인(A. Silverstein)은 운송사 분야에 크게 기여한 논저 *Postal Systems in the Pre-Modern Islamic World*(Cambridge, 2007)에서 몽골 역참제도와 서아시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선례에 대해 조사한다. 그의 연구는 몽골시대 이전, 몽골시대, 몽골시대 이후라는 장기간에 걸친 동아시아의 역참제도에 대한 유사한 성과로 짝을 맞추기를 기다리는 셈이다. 다시 한 번 고려 내에서의 몽골 제국 역참체제 운영에 대한 한국 측 자료는 이 몽골제국의 주요 제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늘려주는 크게 환영할 만한 원군이 될 것이다.

V. 몽골제국의 유산

또 한 가지, 제국들을 그들의 ‘내세’라고 말할 수 있는 장기적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해볼 수 있다. 많은 제국들은 로마와 한 제국처럼 그들의 ‘멸망’ 이후에도 수 세기 동안 일련의 후계국가들의 귀감으로 계속 살아갔고 이 내세의 삶 또한 그들 역사의 불가결하고 정당한 일부분이다. 통치권 이전(*translatio imperii*) 현상, 즉 한 왕조나 민족으로부터 다른 왕조나 민족에게 통치할 권리가 옮겨가는 것은 유라시아의 정치사에서 꾸준히 등장하는 특징이고 몽골인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의 전임자인 투르크인들의 정치사상과 성스러운 영토를 전용하였고, 몽골인들을 뒤이은 자들은 자신들의 정통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칭기스조의 유산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 유산에 대한 연구는 거의 항상 러시아·중국·이란에 대한 몽골의 ‘충격’이라는 용어를 통해 펼쳐졌다. 이 또한 유효하고 생산적인 접근법이지만, 이 분야에서 문제의식을 고안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필자에게는 몽골제국의 후계국가들이 칭기스조 유산의 다양한 요소를 선택적으로 흡수

하였다는 관점이 더 유용하다. 언젠가는 몽골제국의 유산을 특정 지역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데올로기·상징·의례·물질문화를 다 담고 있는 매력적인 꾸러미로 보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몽골제국의 유산 혹은 잔상이 시대를 거쳐 어떻게 전승되었고, 후계국가들이 몽골제국의 성공신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용했는지는 결국 보다 큰 취사선택의 모형들에 따라 민감해야 할 연구이자 마땅히 신중을 기해야 할 연구가 요구되는 주제일 것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로 미루어볼 때, 유목국가든 정주국가든 모든 칭기스조의 후계국가가 이 유산을 탐구하였고 사용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심지어 연구자들이 전형적으로 그 등장을 외래 유목민 지배에 대한 토착적 반응으로 이해하는 명조마저도 이러한 유산의 요소들을 상속하였다. 명 지배층이 몽골 전임자들의 방식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를 로빈슨(D. Robinson)이 그의 논문 “The Ming Court and the Legacy of the Yuan Mongols,” in D. Robinson, ed., *Culture, Courtiers, and Competition: The Ming Court(1368~1644)*(Cambridge, 2008), pp. 365~421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바, 미술·인사정책·궁정 의복 및 기타 명대 생활상에 원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한다. 유라시아 반대편의 정주국가들도 이와 비슷하게 몽골제국의 유산에 참여하였다. 이란 북서부에서 일한국을 대체한 잘라이르조는 칭기스조로부터의 상속한 전통을 내세워 경쟁국가들과의 영토 분쟁 때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였다. 러시아의 모스크바공국 또한 금장한국의 후계국가라는 신분을 취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영토 동쪽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더 극적인 것은 모스크바공국의 군주 이반 4세가 1575년 잠시 퇴위하였을 때에 공식적인 ‘침묵’ 정책과는 정반대로 공식이 된 군주 자리에 칭기스조의 후손을 꼭두각시 군주로 앉혔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초원민은 몽골제국 유산을 더 많은 부분 받아들였다. 실제로 몇몇 후계자들은 그들이 군사조직부터 궁정의 음주 의례까지 칭기즈 칸의 대울령(자사)에 구현된 이 유산을 본질적으로 전부 주의 깊게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분명 초원 세계의 지도자들과 지도자 후보들은 어떻게든 그들의 다스릴 권리를 몽골제국의 창건자와 연결 짓도록 강요하는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티무르는 모계를 통한 칭기스가의 후손임을 주장하였고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칭기스가 후손들인 꼭두각시 군주를 이용해 통치했다. 후에 그의 후손인 무갈조 지배자들은 제국 건설 사업의 성공으로 정통성을 증명한 창건자 티무르와의 혈연에 의존하였다. 발란릴라르(L. Balanilar)의 논문 “Lords of the Fortunate Conjunction : Turco-Mongol Imperial Identity on the Subcontinent,” *Journal of World History*, vol. 18-1 (2007), pp. 1~39에서 볼 수 있듯이, 무갈조는 자신들이 북인도를 지배할 권리를 이전 티무르의 정복에 근거를 두고 주장하였고, 많은 다른 방식들을 통해 티무르의 위세와 영향력을 덧입고자 노력하였다. 물론 이것은 정통성을 찾아가는 과정에는 무갈조 초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티무르를 거쳐 몽골제국의 창립자에 이르고 거기서부터 위구르와 투르크 제국들까지 맞닿는, 서로 맞물린 정통성의 연쇄 사슬이 존재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전승 사슬의 중요성은 후대의 준가르 같은 집단도 내세울 만한 칭기스조와의 관련성이 없자 정통성을 찾아 다른 쪽을 둘러보아야 했고, 주로 티베트불교의 서열과 교리를 통해 정통성을 확보해야 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더욱 확인된다.

16~17세기에 걸친 몽골인들의 점진적 티베트불교 수용은 긴 유목사에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다. 처음으로 초원이 두 적대적인 세계 종교인 불교와 이슬람으로 나뉘게 되었고, 새로운 대규모 유목 연맹체의 출현이 훨씬 어려워졌다. 이 분열은 어쩔 수 없이 또 하나의 질문을 유도한다. 세계 무대에서 활

동하기 시작한 새 세력들의 영향뿐 아니라 지역 내부 변수들의 결과로도 유라시아 대륙 심장부에서 유목민의 군사·정치적 역량이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는 복잡한 문제 말이다. 그리고 정주세계에 대한 유목민 위협의 종말이야말로 몽골제국의 유산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을 적합한 대목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마지막 의문이 떠오르게 된다. 이는 더 열린 결론인데다 추측성이 강하지만 그럼에도 유용하고 생산적인 잠재력도 있는 질문이다. 즉 몽골제국은 어떤 측면에서든 독특한, 새로운 존재였는가, 아니면 무엇인가의 종언, 즉 유라시아에 걸친 다양한 민족들과 문화권의 여러 제국 전통에 근거를 둔 구세계의 세계 제국들의 긴 계보의 절정이었는가? 더 나아가 만약 후자의 해석이 옳다면, 몽골의 놀라운 성공의 열쇠는 앞서간 제국 전통들을 성공적으로 재포장한 데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물론 해결될 가능성이 적지만 이를 시도함으로써 우리가 몽골제국을 보다 큰 역사적, 비교사적 맥락에 놓고 보게끔 만든다는 유익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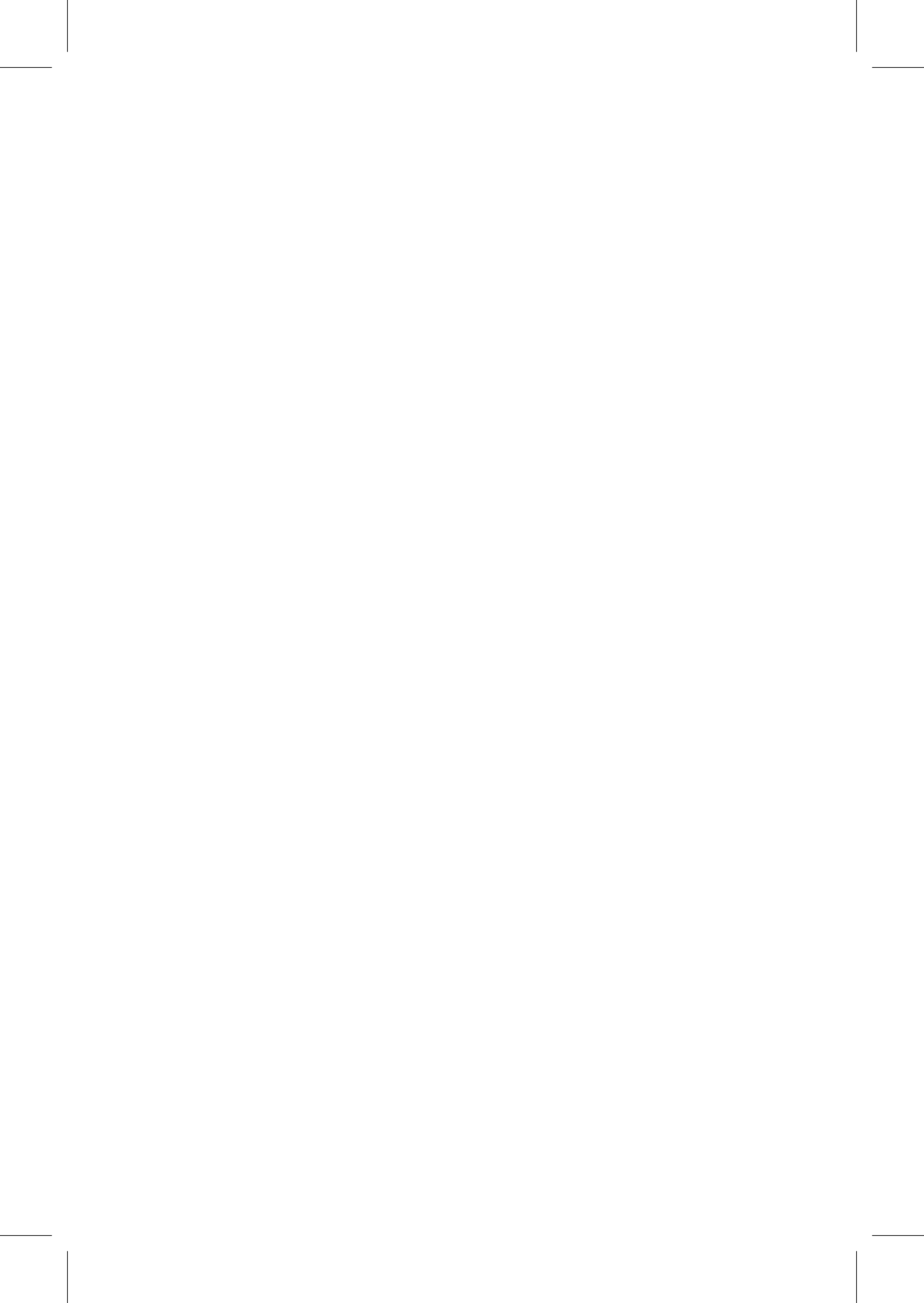
결론은,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

번역 : 유광훈(하버드 대학 박사과정)

중동학 및 중앙아시아학의 관점에서 본 몽골제국에 관한 연구(1989~2009)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미할 비란**

- I. 사료
- II. 연구경향과 주요 분야
- III. 장래 경향들



중동학 및 중앙아시아학의 관점에서 본 몽골제국에 관한 연구(1989~2009)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미할 비란

지난 이십 년 동안 몽골제국사 분야에서 연구활동이 활기차게 이루어졌다. 필자는 이 글에서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즉 일한국과 차카다이조(朝)에 중점을 두고 주요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제안을 할 것이다.

I. 사료

몽골사학계에서 일어난 활력의 일부분은 사료의 간행과 번역으로부터 기인하였는데, 이는 또한 연구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었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이고르 드 라케빌츠(Igor de Rachewiltz)의 『몽골비사(蒙古秘史)』의 영문 번역본,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Leiden, 2004, vol. 2)이다. 이 탁월한 번역본에는 칭기즈 칸의 몽골에 대한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백과사전적 주석이 포함되어 있다. 휠러 텍스톤(Wheeler M. Thackston)의 라시드 앓 딘의 『집사(集史)』 가운데 몽골과 관계된 부분의 영문 번역본 *Jami' al-Tawarikh(Collection of histories)* (Cambridge MA, 1998~1999, vol. 3) 또한 매우 중요한 이 사료를 보다 많

은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 전문가들의 주석을 포함시킨 주해본을 준비 중이다. 또한 주로 일한국에서 기록된 중요한 사료 몇 가지가 최근 간행되었다. 그중 중요한 문서집(공적 및 사적) 두 권은 호프만(B. Hoffman)의 *Waqf im mongolischen Iran; Rashiduddin's Sorge um Nachruhm und Seelenheil* (Stuttgard, 2000)과 헤르만(G. Herrmann)의 *Persische Erkunden der Mongolenzeit* (Wiesbaden, 2004)이다. 일한조(朝)의 문화사와 지성사 분야에서는 아부 알 마즈드 무함마드 이븐 마수드 타브리즈(Abu al- Majd Muhammad ibn Mas'ud Tabrizi)의 문서집 *Safīneh-ye Tabrīz : A Treasury of Persian Literature and Islamic Philosophy, Mysticism, and Sciences* (Tehran, 2003)은 특히 중요하다. 『사피나(Safina)』[문자적으로는 ‘배(船)’의 의미지만 여기서는 문학 집성의 의미이다]는 대부분 1321년부터 1323년 사이에 일한조의 한 학자가 개인 소장용으로 필사한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문헌 209권을 담은 문집인데, 이 문서만이 그에 대해 알려진 전부이다. 그의 인상적인 문집에 의하면 아부 알 마즈드(Abu al- Majd)의 관심사는 문학, 사전학, 사본학, 천문 용어 어원, 수학, 법리학, 역사학, 약학 등에 이르므로 그의 개인 도서관은 일한국 말, 마지막 일한 아부 사이드의 치세(1316~1335)와 그의 죽음 후의 혼란기 지성계의 분위기를 개략적으로 알려준다. 『사피나』에 관한 2004년 학회의 결과물, *The Treasury of Tabriz : the Great Il-Khanid Compendium*, ed. By A.A. Seyed-Gohrab & S. McGlinn (Amsterdam and Indiana, 2007)이 2007년에 간행되었고 이 필사본에 대한 소개서 역할로 좋을 것이다.

일한조 사회사 및 지성사 분야의 또 다른 주요 사료는 이븐 알 푸와티(Ibn al-Fuwati)의 *Majma' al-adab fi mu'jam al-alqab* (Tehran, 1995, vol. 6)이다. 아랍어로 된 인물사전인 이 사료의 저자는 바그다드의 함락을 목격하였던 일한조의 학자 겸 도서관원이었는데, 단지 일부분만 전해지는 이 사료는 일한조의

사회사와 지성사 분야의 금광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고, 이 책에만 기록이 남아 있는 다른 몽골 한국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많이 제공한다. 이 사전의 일부분은 이미 1960년대에 다마스쿠스(Damascus)에서 간행되었으나 1995년 판본은 다른 필사본에 기초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료의 양을 두 배 가까이 늘려놓았다. 비록 연구자들이 주로 르우벤 아미타이(Reuven Amitai)의 작업을 통해 일한조와 몽골사에 있어 맘룩조의 아랍어 사료의 중요성을 이미 알게 되었지만, 일한조에서 기록된 아랍어 사료들은 여태까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주목을 훨씬 적게 받았다.

일한국 외부의 무슬림 사료 중에서는 자말 카르쉬(Jamal Qarshi)의 *Mulbaqat al-Surab*의 신판본을 러시아어 번역과 함께 들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전에는 바르톨드(V. V. Barthold)의 대작 *Turkestan down to the Mongol invasion* (St. Petersburg, 1900)의 러시아어본에 부분적으로만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던 것이다. 카르쉬는 자하리(Jawhari)의 유명한 사전을 아랍어에서 페르시아어로 번역한 바 있으며, *Mulbaqat al-Surab*는 이 사전에 대한 카르쉬의 페르시아어 주석(surah)의 아랍어 부록이다. 이는 또한 몽골 중앙아시아 지역의 카이두(Qaidu)의 왕국에서 기록된 현존하는 유일한 역사서이기도 하다. 이번 완전본은 흥미롭게도 *Istoriia Kazakbстана v persidskikh istochnikakh* (A. K. Muminov, Almaty ed. 2005)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카이두와 차가다이조에 대한 독보적인 역사적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대부분은 이미 바르톨드의 판본에 포함된 내용), 몽골 중앙아시아의 문화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선보인다.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여성의 역할, 또는 이슬람 세계 동부의 이처럼 먼 장소에서도 계속 이어져온 그리스 학문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몽골 시대의 문화간 교류에 대해 조명해주는 중세 사전들 세 권이 더 있는데, 첫째는 라술조(朝) 예멘에서 편찬된 14세기의 아랍어·페르시아어·그리스

어·아르메니아어·투르크어·몽골어 사전인 *The King's Dictionary: The Rasulid Hexaglot*, ed. P. Golden (Leiden, 2000)이다. 이 사전은 텡그리-알라 같은 '유일신'부터 의복과 음식까지 모든 것에 대한 이 모든 언어의 단어를 병렬하여 동시에 나열하고 있다. 나머지 둘은 명초(明初)의 한-페 어휘 사전인 『회회관잡자(回回館雜字)』와 『회회관역어(回回館譯語)』로서 최근 류잉성(劉迎勝)이 광범위한 주석과 함께 재간하였다[『回回館雜典回回館譯語研究』, 北京, (2008)]. 이것은 외래 약과 식물에 대한 한문 전사(轉寫)와 아랍문자 본명을 기록한 명초 의약서인 『회회약방(回回藥方)』(北京, 1999)과 함께 중요한 성과이다. 원조(元朝)와 몽골 문화사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사료는 *A soup for the Qan: Chinese dietary medicine of the Mongol era as seen in Hu Szu-Hui's Yin-shan Cheng-yao*, tr. by P. Buell(London, 2000)로서, 부엘(P. Buell)이 『음선정요(飲膳正要)』를 폭넓은 주석 및 서론과 함께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 원대 음식백과사전 겸 요리책은 몽골 유라시아에 걸친 음식과 의약의 교류를 입증하는 사료이다.

몽골사 연구를 위해 한문사료를 사용하는 것이 전자 『사고전서(四庫全書)』처럼 한문사료 상당수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 가능해진 점 덕분에 매우 용이해졌다. 주요 한문사료의 번역, 그 가운데 특히 『원사(元史)』의 여러 부분의 번역이 이루어진다면 원 및 몽골사 연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종류의 사료로는 고고학적 성과들이 있는데, 그중 특히 카라 코룸에 대한 독일-몽골 발굴단의 성과와 금장한국(金帳汗國)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발굴단의 성과 *Stepi Evropy v epokhu srednevekov'ia*, tom 6, *Zolotoordynskie vremia*[Donets(2008) 『중세 유럽 초원』 제6권, 금장한국 시기를 언급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몽골 지배하의 서부 초원지대, 불가 강 유역, 북 코카서스, 크림리아 지역의 중심도시, 주거, 매장풍습, 종교, 인구, 동전 주조 등

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며 금장한국의 복합적 경제구조와 그 안의 다양화한 유목민-정주민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이다. 보다 작은 규모지만 여전히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파벨 페트로브(Pavel N. Petrov)의 *A Survey of Numismatics of the Mongol States -13th~14th centuries* (Nizhny Novgorod, 2003)과 차가다이조 화폐학을 다루는 그의 최근 학위논문 및 논문들이다.

II. 연구경향과 주요 분야

지난 20년간의 몽골제국 연구에서 두드러진 경향은 몽골인들을 문화 파괴자로서만 보지 않고 유래 없는 규모의 유라시아 통합을 이루어내고 그에 따라 첫 세계화 및 다문화 사회로의 길을 개척한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문화사의 대두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자는 토마스 알센(Tom Allsen)인데 그의 책들, 특히 중국 원조와 이란 일한국의 연결과 교류를 재조명한 *Culture and Conquest in Mongol Eurasia*(Cambridge, 2001)는 몽골학에 새로운 기준을 세운 저작이다. 필자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유카 카도이(Yuka Kadoi)의 *Islamic Chinoiserie : The Art of Mongol Iran*(Edinburgh, 2009)는 비록 이슬람 미술의 중국 주제 채용에 대해서만 다루고 반대 방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 일십년 이전부터도 몽골 시대를 주요 시기로 인정하고 있던) 미술사 분야에서 알센의 질문을 이어간다. 주로 일한조 역사를 다루는 두 논문집 역시 문화사의 번성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들은 전시회 목록인 *The Legacy of Genghis Khan*, ed. by L. Komaroff and S. Carboni(New York, 2002)와 전시회에 뒤따라 열린 좌담회의 결과물인 *Beyond the legacy of Chinggis Khan*, ed. L. Komaroff(Leiden, 2006)이다. 둘 다 도해를 풍부히 담

고 있는 이 논문집들은 일한조 영역을 주로 하였으나 다른 몽골국가 또한 포함하는 역사·미술사·고고학 논문들을 수록하여, 일한조와 몽골역사 연구에 대한 새 방향들을 제시한다(아래 참조). 또 언급할 가치가 있는 연구는 일한국 초기에 대한 조지 레인(George Lane)의 연구 *Early Mongol Rule in Thirteenth-Century Iran. A Persian Renaissance*(London, 2003)으로 중국에서 쿠빌라이가 취한 문화 후원자의 역할과 유사하게 훌레구와 아바카가 이란에서 페르시아 문화의 장려자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레인의 글을 간혹 마지막 일한조 궁정사가의 글과 유사하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그의 증거들 중 일부분은 일한국 역사를 좀 더 함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 중요한 것들이다.

금장한국의 영역에서 혁신적인 연구는 데빈 디위즈(Devin DeWeese)의 *Islamization and Native Religion in the Golden Horde*(Philadelphia, 1993)로서, 이는 금장한국과 몽골제국 연구자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내륙아시아의 종교 일반에 관심을 가진 어느 누구와도 연관성이 있다. 투르크어와 페르시아어로 된 그의 후기(16세기부터) 금장한국 사료의 활용 방식과 당대의 문학 자료를 역사 사료로서 기꺼이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 책의 가치를 더해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일한국, 금장한국, 차가다이 한국)에서의 몽골 이슬람화라는 문제도 지난 20년간 학계의 주목을 많이 받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논문이 풍성하게 나왔는데 그 주된 예로 아미타이, 비란, 디위즈, 김호동, 리이신(Li Yixin), 멜빌(Melville), 파이퍼(Pfeiffer)를 들 수 있다. 문화사와 몽골제국 제도의 위상을 더 넓은 비교사적 관점에서 다루려는 간행물 가운데 언급해야 할 책들이 있는데, 토마스 알슨의 *The Royal Hunt in Eurasian History*(Philadelphia, 2006)로서 유목제국과 정주제국 양자 모두에 존재했던 지배층 수립의 군사·경제·사상·정치적 역할에 대해 논하고 있다. 실버스타인(A.

Silverstein)은 *Postal Systems in the Pre - Modern Islamic World* (Cambridge, 2007)에서 역참제도와 서아시아에서의 그 선례에 대해 고찰하였고, 켈렌카(P. Kelenka)는 *The Horse in Human History* (Cambridge, 2009)에서 지난 6000년간의 인류와 말의 관계를 다루면서 초원의 유목민 말 문화와 몽골 정복전에 대한 중요한 장들을 포함시켰다.

세계 역사학계에서 세계사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근간의 경향은 광범위한 관점이 요구되는 분야인 몽골제국 연구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 결과 종종 상기한 문화사의 대두와도 긴밀하게 연관된 몇 가지 경향이 나타났는데, 모두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우선 광범위한 역사적 시각하에서 몽골제국의 위상을 확인하려는 시도, 두 번째로 몽골제국과 당대의 여타 국가 간(또는 몽골제국 내의 국가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세 번째로 몽골제국령 전반에 걸쳐, 그리고 그 너머까지 이루어졌던 물류와 사람의 이동에 대한 연구가 있다.

몽골인을 더 넓은 시대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는 주목할 만한 사례는 최근 간행된 *Cambridge History of Inner Asia : vol. 2 : the Chinggisid Age*, eds. N. DiCosmo, A. J. Frank and P. B. Golden(Cambridge, 2009)이다. 이 책은 내륙아시아의 역사를 몽골 정복전의 시작부터 19세기까지 다루고 있고 이 지역의 역사에 있어 칭기스조(朝) 후손과 칭기스조 이념의 역할을 강조한다. 몽골제국에 관한 부분(*The Rise of the Chinggisids and Legacies of the Mongol Conquests*)은 예케 몽골 울루스(Yeke Monggol Ulus)에 대한 글[잭슨(Jackson)], 차가다이와 우구데이조에 대한 글[비란], 금장한국에 대한 글[바사리(Vasary)]과 몽골 행정[마티네즈(Martinez)], 이슬람화[디위즈], 인구이동과 민족 변화[골든(Golden)], 문화 중개인으로서의 몽골인[알슨] 등 주제별로 분류된 글들을 싣고 있다. 다음 부분(*Chinggisid decline 1368-1700 Nomads and Settled Peoples in Inner Asia after the Timurids and New Imperial Mandates and the End of the Chinggisids*)은 정치사에 집중하고, 중국

과 러시아의 초원 권역 정복으로 끝마친다. 16세기 이후 중앙아시아 서부에 대한 글들[브레겔(Bregel), 맥체스니(McChesney), 프랑크(Frank)]이 매우 중요한데, 이 시대와 이 지역에 대한 서구 언어로 된 연구성과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 대해 필자가 유일하게 주저하는 바는 편집자 측에서 각 글의 길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제한을 부과했기 때문에 각각의 글들이 매우 간략하다는 점이다.

내륙아시아에 있어 몽골의 영속적인 영향에 대한 강조와 크게 대조적으로, 내륙아시아 역사를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묘사하는 벡위드(Beckwith)의 *Empires of the Silk Road*(Princeton, 2009)는 내륙아시아에서의 몽골제국이 끼친 영향을 최소로 평가하는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저자가 언어학적 주제들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몽골제국의 대두 직전의 전임자들에 대해 연구하여 그들을 광범위의 내륙아시아적 틀 안에서 평가하고 그들의 정권과 문화의 제반 측면을 궁구하려는 최근 연구서가 둘 있다. 이는 비란의 *The Empire of the Qara Khitai in Eurasian History*(Cambridge, 2005)와 토간(I. Togan)의 *Flexibility and Limitation in Steppe Formations : The Kerait Khanate and Chinggis Khan*(Leiden, 1998)이다. 그러나 서쪽에 있었던 몽골의 다른 전임자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은데, 카라한조(950~1213)에 대해서는 코치네브(Kochnev)의 유작 *Numizmaticheskaja istoriia Karakhanidskogo kaganata, 991~1209 gg* (Moscow, 2006)이 다년간의 화폐학 연구를 종합하였고, 최근 아프라시압(몽골 파괴 이전의 사마르칸드)에 대한 프랑스 - 우즈베크 고고학 발굴의 성과가 카레브(Y. Karev)의 논문들로 간행되었다. 이 연구성과는 전에 인식했던 것보다 더 정주적인 왕조상을 드러낸다. 셀주크 역사 분야에도 연구 숫자가 제한적인데(미술사와 건축사는 예외), 셀주크의 유목적 전통을 고려한 새 통합적 이론이 나온다면 유익할 것이다.

중국학 방면에서는, 스미스(P. J. Smith)와 폰 글랜(R. von-Glann)이 편집한 논문집 *The Song-Yuan-Ming transition*(Cambridge MA, 2003)이 중국사에서 새로운 시대 단위를 창출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것은 학자들 사이에 널리 수용되고 있다. 이 책은 원대를 중국사의 연속성을 침해한 ‘불의의 사고’로 보지 않고 송·원·명대 간의 연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원대가 중국사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슬람사의 분야에서는 비란의 *Chinggis Khan*(Oxford, 2007)이 무슬림 세계에서 몽골 유산에 대해 재조명하고 13세기부터 21세기까지 무슬림 세계(와 다른 장소)에서 칭기스의 이미지가 계속 살아온 후속적인 영향력을 추적한다.

몇몇 탁월한 연구자들이 몽골과 그들의 동시대 이웃들 간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 가운데는 문화·정치·사회경제 분야의 장들을 포함한 잭슨(P. Jackson)의 *The Mongols and the West*(London, 2005)가 있고, 바사리(I. Vasary)의 *Cumans and Tatars*(Cambridge, 2005)는 몽골과 남유럽 및 동유럽의 관계를 주로 정치사적인 각도에서 강조한다. 필자가 아직 읽지 못한 신간인, 필딩(A. Fielding)의 *The Mongols in the Making of Europe, 1220~1500: Images and Texts*(Global Oriental Publishing, 2009)은 주류 문학과 시각예술 내의 몽골 이미지를 추적함으로써 서구인들의 창작력에 몽골인들이 끼친 영향을 관찰한다. 몽골과 맘룩조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르우벤 아미타이가 그의 연구서 *Mongols and Mamluks*(Cambridge, 1995)와 논문집 *The Mongols in the Islamic Lands*(Variorum, 2007)에서 주로 군사사(軍事史)와 이슬람화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더 최근에는 앤 브로드브릿지(Ann Broadbridge)가 *Kingship and Ideology in the Islamic and Mongol Worlds*(Cambridge, 2008)에서 이 문제를 1402년 티무르의 이집트 침공 사건에까지 시대를 내려가면서 다루었는데, 양자 관계에서 외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책들은 모두 일한조와 맘

룩조의 관계를 강조하지만 또한 금장한국과 그리고 차카다이조도 몇 줄도 언급한다. 무슬림세계 쪽의 관점에서 몽골과 인도 관계를 논한 연구로는 잭슨(P. Jackson)의 *The Delbi Sultanate*(Cambridge, 1999)와 윈크(Wink)의 *al-Hind : The Making of the Indo-Islamic World*(Leiden, 2004) 제3권이 있다. 원조와 인도의 관계는 탄 셴(Tan Sen)의 *Buddhism, Diplomacy and Trade : The Realignment of Sino-Indian Relations 600-1400*(Honolulu, 2003)와 몇몇 후속 논문에서 다루었고, 출간 예정인 데이비드 로빈슨(David Robinson)의 *Empire's Twilight : Northeast Asia under the Mongols*(Cambridge MA, 2009)은 한국·일본·만주와 몽골의 관계를 다룬다. 최근 간행된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5a, The Sung Dynasty*, ed. Paul Smith(Cambridge, 2009)는 몽골의 남중국 정복을 중국측 시각에서 묘사하고 있다. 원조와 일한국의 관계는 앞서 언급한 알슨의 *Culture and Conquest*에서, 13세기 초까지의 몽골 국가간 관계는 비란의 *Qaidu and the Rise of the Independent Mongol State in Central Asia*(Richmond, 1997)에서 다루고 있다.

물류와 인구의 이동에 관해서는 선구자적 연구는 다시 한 번 토마스 알슨의 책 *Commodity and Exchange in the Mongol Empire*(Cambridge, 1997)으로, 이 책이 이 주제의 기본 방향을 잡아주었다. 무역, 특히 해상 교역과 교역활동을 바탕으로 형성된 해외거주 교민 집단이 근년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샤페(Chaffee)·카우즈(Kauz)·마티네즈(Martinez)·요카이치(Yokkaichi) 등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인구이동의 또 다른 측면인 민족 변화는 브로즈(M. C. Brose)가 *Subjects and Masters : Uyghurs in the Mongol Empire* (Bellingham, 2007)에서 논하였는데, 그는 원대와 명초까지 몇몇 위구르 지배층 가계의 명운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다. 이 분야는 장래에 더 주목을 끌 분야임이 확실하다.

위에서 돌아본 세계적 경향과 확실하게 대조되는 또 하나의 미시적 경향은 주로 일한국 분야에서 몽골 치하의 지방사 또는 지방정권을 다루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지방사’는 원조 분야 연구에서도 지방지의 활용을 통해 나타나는데 소(B. K. L. So)의 *Prosperity, Region, and Institutions in Maritime China : The South Fukien Pattern, 946~1368*(Cambridge MA, 2000)이나 송의 중심지였던 원대 강남에 대한 풍성한 연구 등이 있다. 일한국 내 지역들에 대한 연구로는 아이글(D. Aigle)의 파르스(Fars)지방에 대한 탁월한 연구서 *La Fars sous la domination mongols : politics et fiscalite (XIII-XIV s.)*(Paris, 2005), 길리 엘레위(H. Gilli-Elewy)의 바그다드(Baghdad)에 대한 연구서 *Baghdad nach dem Sturz des Kalifats 1258-1335*(Berlin, 2000), 새로 간행된 *The Cambridge history of Turkey, Vol. 1*, ed. K. Fleet(Cambridge, 2009) 안에 멜빌(Melville)의 몽골 치하 아나톨리아에 대한 장문의 논문 등이 있다. 또한 곧 간행될 아나톨리아에서의 몽골 지배와 룸 셀주크조에 대한 사라 니르 울두즈(Sara Nir Yulduz)와 앤드류 피콕(Andrew Peacock)의 연구들도 이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몽골 행정 분야에서는 앞서 언급한 코마로프의 책에 포함된 일한조 케식[侍衛軍]에 대한 멜빌의 글을 언급해야 할 것인데, 그는 사료를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무슬림 사료들이 이란 일한국에 대해 그다지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케식과 같은 몽골 제도들의 중요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일한조 행정기구와 전체적인 몽골 행정기구에 대한 새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예를 들어 멜빌의 아나톨리아에 대한 글은 중국 원조의 이중 행정기구와 유사한 몽골인과 페르시아인으로 이루어진 이중 행정기구가 일한조하의 아나톨리아에도 존재했다고 제안한다.

지난 20년간 일한조 역사 분야에서는 성과가 너무나 많이 나왔는데, 차가

다이조 역사 분야에서는 주로 차가다이조 영역 자체 사료의 상대적 부재로 인해 성과가 훨씬 적다. 그러므로 필자는 차가다이 한국 분야의 상황에 대해 몇 줄 언급하고자 한다. 차가다이조 국가의 초기 단계를 다루는 영어 연구서로는 차가다이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1270년대에 이를 점유한 우구테이조의 제왕(諸王)에 초점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비란의 책 카이두가 유일하다. 비란의 이후 논문 중 몇몇도 차가다이조 역사의 여러 측면을 다루고 있다(외교, 이슬람화, 초기 군사사). 차가다이조에 관한 가장 자세한 연구서는 류잉성(劉迎勝)의 『차가다이 한국 연구[察哈台汗國研究]』(上海, 2006)인데, 한문 및 페르시아어 사료에 기반하여 한국의 정치사(칭기즈 칸의 중앙아시아 정복부터 티무르의 등장까지)와 경제 및 사회생활, 종교와 문화, 지리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귀중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1991년에 독일어로 썼던 저자의 학위논문의 중국어 번역본이라서 1990년대 이후의 연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고, 그중 저자 자신의 성과 다수조차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카라예브(O. Karaev)의 더 오래된 연구서 *Chagatajskij ulus. Gosudarstvo Khajdu. Mogulistan*(Bishkek, 1995)는 이보다 훨씬 덜 상세하고 인상적으로, 동 차가다이조(14세기 중반 이후) 시대를 강조하고 거의 전적으로 무슬림 사료만에 의존하였다. 차가다이조 역사의 몇몇 측면이 최근 주의를 끌기 시작했는데, 일본학자 마쓰이 다이(松井太)는 차가다이 한국에서 기원한 몇몇 몽골어와 위구르어 문서들을 간행하였고, 페도로브(M. Fedorov)와 더 최근에는 페트로브(P. Petrov)가 화폐학 및 소량의 고고학 문헌을 간행하였다. 티무르의 대규모 걸작 건축물들의 가장 이른 사례일 듯한 차가다이조의 기념 건축물에 대해서 다룬 논문이 몇 있는데 그 예로 특히 하스(C. Hasse), 오카네(B. O'Kane), 바바자노브(Babajanov)를 들 수 있다. 이 지역에서의 수피 활동에 대해서는 디위즈와 김호동(金浩東)의 논문 몇 편이 있고, 한국 내 기독교 활동은 라이언(J. Ryan)과 디킨슨(M. Dickson)이 다루었다. 차가다이조 역

사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완성되기를 바란다.

Ⅲ. 장래 경향들

Ⅱ장에서 분명히 보았던 것처럼, 상술한 대부분의 경향은 아직 진행 중이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 필자는 여기서 장래의 유익한 모색을 위한 방향을 두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사와 지성사 : 이 모색 방향은 물자와 사람의 이동에 대한 연구를 잇고 완성하는 것이다. 몽골인들이 창조한 새 정치질서는 지리적·사회적 유동성을 장려하였고 그 결과 사회에 다수의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또한 지식계층의 활동 분야에도 그 경향이 투영되었다. 변화는 지배층의 구성, 인구의 민족적 종교적 구성, 무슬림 과학자와 학자들의 지성계의 상황 등의 영역에서 뚜렷하다. 이러한 변화를 추적하는 주 방법론은 인물 연구가 될 것이고, 그를 위한 자료는 연대기 역사서뿐 아니라 풍부한 (중국 원조, 맘루 술탄조, 일한국의) 전기 문학, 성인전(聖人傳), 묘비명 등이다. 이 자료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몽골인과 복속민 가운데 직업·민족·부족·종교적 성향·성별 등에 따라 규정되는 특정 사회 집단의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또한 강제적·자발적·집단적·개인적·정치적·경제적인 이유로 발생한 다양한 이주행위가 보이는 세밀한 배치도를 그려낼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 같은 인구 이동은 몽골 지배의 너무나 전형적인 특성으로서 몽골 한국들의 국경 훨씬 너머에 까지 미쳤다. 더 일반적으로는 이 연구들은 신구 지배층간의 관계나 몽골 지

배하의 여성의 지위 등 몽골 사회의 다른 측면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고 또한 다른 한국들의 비교 연구의 바탕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4개의 몽골 한국 전체에서 14세기 후반부에 나타난 군사령관들의 대두와 그에 따른 제실 권위의 침식 현상과, 이것이 각 한국의 운명에 미친 각기 다른 결과를 탐구한다면, 좀 더 간단하게 개별 한국에서 천문학자·무역상·통역관 등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을 비교하는 것 등이 있겠다.

몽골 침입과 지배로 야기된 사회적 변용은 중국과 무슬림 세계의 지성계의 지도를 크게 바꿔놓은 충격이었다.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과 몽골 복속민들의 다양한 지적 산물^[이 부류의 문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고 그나마도 대개는 온전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본 것이 아니었다]에 대한 연구를 연계한다면 몽골 치하의 지적 환경^[신학·수학·의학·언어학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과 지식 전달의 경로와 수단, 예를 들면 도서관·학교·주석서·번역가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일한국과 원대 중국은 이러한 모색을 시작하기에 가장 비옥한 장소인데, 역시 비교연구적 관점으로부터 유익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성사의 또 한 가지 면은 시대와 공간을 통한, 다양한 사람들의 집단적 기억 안에 있는 몽골 시대의 주요 사건과 인물^[제반 칭기스 제실 인물, 몽골의 바그다드 정복, 아인 잘루트 전투, 콜리코보 전투 등]의 구성과 재구성이다. 몽골의 바그다드 정복을 각각 다른 역사학 전통에서^[13세기부터 2003년 미국의 바그다드 정복까지, 중국에서부터 유럽에 걸친 무슬림 세계의 각각 다른 지역을 통해]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는 질문이 이러한 연구를 기다리는 주제일 것이다.

탈유목제국(post-nomadic empires)에서의 몽골의 정치유산 : 이것은 다른 전근대 제국들 안에서 몽골제국의 위치라는 보다 일반적인 질문의 특정 사례에 속하는 주제이다. 몇십 년 전 학계의 보편적 견해는 몽골인들이 갑자기

나타났듯이 갑자기 사라졌고 아무런 영향과 유산을 남기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는데, 현재 몽골제국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유목민적 정치문화가 뒤를 이었던 국가들에 장기간에 걸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런 탈유목국가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선 나라를 세운 유목민이나 준유목민이 제국 건설 과업 추진의 일부로서 유목생활을 포기하였으나 유목적 정치문화의 많은 측면을 유지한 경우가 있다. 그 예로는 중국 청조, 오스만 제국, 인도 무갈조, 중앙아시아 우즈베크조, 부분적 측면에서는 이집트와 시리아의 맘룩조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부류는 비록 지배층이 과거 자신의 영토를 다스리던 유목민들을 정복했고 종종 그들에 대해 깊은 적대감을 드러내었음에도 유목민들의 정치 문화 또는 행정 기구의 일부를 유지한 경우이다. 그 예로는 중국 명조와 러시아 모스크바 대공국이 있다. 이들 탈유목 정체(政體)들로 말미암아 19세기까지 유라시아의 대부분 영역에서 유목적 정부형태가 영향력을 유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세계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유목민들이 전해준 것은 그들의 민족 문화가 아닌 원래부터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로 구성된 제국 문화였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는 제국들이 유목민에 대한 자신들의 빚을 무시하기 어렵지 않았다. 어쨌든 최근 연구는 유목적 영향력의 잔존과 그 중요성에 대해 더 조심성 있게 다루고 있다. 문헌자료와 시각적, 고고학적(장래용 인형) 증거를 결합한 연구의 좋은 예는 로빈슨의 편저 *Culture, Courtiers and Competition : the Ming Court(1368-1644)*(Cambridge MA, 2008)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명조를 원조의 후계국가로 보는 관점이다. 이런 흐름하에서 다른 연구들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자면, 모스크바 대공국과 금장한국에 대한 오스트로츠키(Ostrowsky)의 연구, 중국 청조에 대한 크로스슬리(Crossley)와 로스키(Rawski)의 연구, 티무르조에 대한 맨즈(Manz)의 연구 등이다. 이 현상에 대한 유라시아의 모든 측면들을 포함하는 통합론의 필요성이 절실한데, 이는 몽골

정치 문화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모색 방향으로부터 가능한 또 한 가지 유력한 궤적은 토마스 알슨의 수렵 연구를 모형으로 한 전근대 제국들의 특징과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일 것이다. 정통성 관념, 군사 조직, 정주민들에 대한 태도 등은 이러한 비교 분석을 일차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주제들이다.

번역 : 유광훈(하버드 대학 박사과정)

북방민족 왕조와 중국역사

중국학계의 요·금·원·청 등 왕조에 대한 연구

중국 난징 대학 테무르

- I. 중국학계에서의 '정복왕조' 이론
- II. 문헌정리와 연구성과
- III. 연구논저
- IV. 정복왕조사 연구에서의 어문과 역사의 결합



북방민족 왕조와 중국역사

중국학계의 요·금·원·청 등 왕조에 대한 연구

중국 난징 대학 테무르

I. 중국학계에서의 ‘정복왕조’ 이론

‘정복왕조론’은 독일계 미국학자 비트포겔(Karl A. Wittfogel)이 2차 세계대전 후 제기한 것이다. 그는 1949년 『중국사회사 : 요(The History of Chinese Society, Liao)』라는 저서(중국학자 馮家升과 공저)의 서문에서 진·한부터 청에 이르는 중국의 전근대 왕조를 ‘전형적 중국왕조’와 ‘정복왕조’ 두 종류로 구분했다. ‘정복왕조’에서는 통치민족이 중원으로 들어온 방식에 따라 다시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그 하나는 ‘침투형 왕조(Dynasties of Infiltration)’로 16국과 북위 등이 대표적이고, 다른 하나는 ‘정복왕조(Dynasties of Conquest)’로 요·금·원·청이 대표적이다. 동시에 비트포겔은 각 북방민족 왕조와 한지(漢地)의 문화관계가 단순히 동화(assimilation)된 것이 아니라, 두 성질이 함께 변용(acculturation)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한족문화에 전면 흡수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비한족 왕조들의 한문화에 대한 태도도 어느 정도 구별된다고 보았다. ‘정복왕조’는 비교적 거부하는 편이었고, ‘침투왕조’는 비교적 흡수하는 편이었으며, ‘정복왕조’ 중 종래의 문화배경과 생활방식의 차

이에 따라 요·원은 비교적 거부하는 편이었고, 금·청은 비교적 흡수하는 편이었다는 것 등등이다.¹⁾

‘정복왕조’ 이론은 중국역사에서 ‘정복왕조’의 특수성과 민족성(비한족성)을 강조하며 미국에서 발표된 후 구미 각국과 일본, 홍콩·타이완 등지의 학술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많은 토론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캠브리지 중국사』 6권에 요·하·금·원, 네 왕조가 따로 열거되어 『캠브리지 요·서하·금·원사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907~1368)』로 편찬된 것이 하나의 생생한 증거이다. 그러나 1949년 이후 중국대륙의 학술연구에서는 줄곧 냉담하게 받아들여져, 연구자들이 신중하게 이 논제를 다루는 것을 피해왔고,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도 “정복왕조론의 핵심은 중국역사에서 민족관계를 왜곡한다”²⁾라는 이유로 “다른 의도가 있다[別有用心]”, “저의를 추측하기 어렵다[居心叵測]”라는 죄명이 씌워졌다. 1983년 중국 요금거란여진사연구회(遼金契丹女真史研究會)는 『요금거란여진사역문집(遼金契丹女真史譯文集)』을 편역·출판하기로 결정하였고 길림성 사회과학원(吉林省社會科學院)이 그 업무를 위탁받아 1990년 『요금거란여진사역문집』이 길림문사출판사(吉林文史出版社)에서 출판되었다. 이 논문집에는 비트포겔의 『중국사회사 : 요』의 「서문[中國社會史—遼之導言]」, 일본학자 다무라 지쓰조(田村實造)의 「중국의 정복왕조에 관하여[關於中國的征服王朝]」, 시마다 마사오(島田正郎)의 「요조의 특징[遼朝的特點]」, 소련학자 보로비예프(沃羅比耶夫)의 「연해지구에 남아있는 여진 화폐[濱海地區的女真遺藏錢幣]」, 몽골학자 패이렬(佩爾列)의 「거란

1) “General Introduction” in Karl A. Wittfogel & Feng Chia-Sheng(1949), *History of Chinese Society, Liao(907~1125)*, Philadelphia :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2) 景愛(1984), 『征服王朝論的要害在於歪曲中國歷史上的民族關係』, 文化部文物局古文獻閱覽室, 油印本.

국가의 사회·경제와 봉건관계[契丹國家的社會·經濟和封建關係] 등 다수의 논문들이 수록되었다. 이 책의 편자는 서두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50년대 초 이래 국외에서 한때 고조되었던 ‘정복왕조론’을 소개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편자는 여기에 수록된 일본과 소련학자의 논문은 “그 이론에 대한 일본과 소련의 반응”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1990년대 이후 비교적 평화로운 심리상태와 냉철한 관찰에 근거하여 형성된 관점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난징 대학[南京大學] 원사연구소(元史研究室)의 진득지(陳得芝) 교수는 정복왕조에 대응하여 처음으로 ‘북족왕조(北族王朝)’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 용어는 내륙 유라시아 알타이어계 여러 민족이 전근대 건립한 왕조를 개괄한 것으로 이미 많은 중국학자들이 수용하고 있다. 또 타이완의 소계경(蕭啓慶) 교수는 대륙출판사(大陸出版社)의 논문집 제목인 『내북국외의중국(內北國而外中國)』에서 원조의 특수성을 강조하였는데 여기에서의 ‘북국(北國)’ 개념은 ‘북족왕조’의 개념과 대체로 부합한다. 그리고 1997년 베이징 대학[北京大學]의 장범(張帆)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들이 ‘정복왕조론’을 냉담하게 대하고 비판하는 주요 이유는 비트포겔의 이론이 역사상 북방민족과 중원한족의 대립·충돌을 강조하여 중화민족 대가정 안의 민족관계에 도발적인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분출된 분노가 아마도 그 이유이겠지만, 학술연구는 어디까지나 지나치게 감정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비트포겔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순수한 학술적 배경에서 이 이론을 제시했는지 여부는 우선 차치하고, 우리의 관심은 그의 이론이 우리의 연구에 영감을 주고 귀감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이다. 나는 비록 비트포겔의 ‘정복왕조론’이 몇몇 구체적인 문제에서 검토가 요구되지만 대체로 여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고, 특히 그가 각 북방민족 왕조의 유형을 구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복왕조’의 ‘정복’ 두 글자는 다소 눈에 거슬리지만,

그것으로서 몇몇 북방민족이 중원에 진입한 시기의 방식과 이전에 존재하였던 상태를 이해한다면 큰 오류는 없는 듯하다. 역사상 한때 존재했던 북방민족의 한족 정복에 대한 인정은 오늘날 그들을 중화민족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취급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³⁾

비트포겔은 여러 ‘정복왕조’를 ‘침투형’과 ‘정복형’ 두 종류로 구분했는데 장범 교수는 이러한 구분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자세히 분석하면, 비트포겔의 몇몇 관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유형을 구분할 때 그는 각 통치민족이 중원에 진입한 과정·방식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 민족이 남하하기 이전 경제생활 상태를 종속적인 지위에 놓은 듯하다. 남하의 과정·방식을 보더라도 비트포겔이 북위를 ‘침투왕조’의 대표로, 요를 ‘정복왕조’의 하나로 본 것은 대체로 문제가 있다. 북위의 건립자 탁발선비가 막북에서 이동하여 음산 남쪽에 이른 것은 비교적 순조로운 ‘침투’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도무제가 남하하여 후연을 정벌할 때 ‘스스로 6군 40만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마읍(馬邑)을 나와 구주(句注)를 지나니, 정기(旌旗)가 2,000여 리에 이어지고, 북치며 나아가니 백성들의 가옥이 모두 진동했다’, 진양(晉陽)을 함락시키고 정형(井陘)을 나와 신도(信都)로 내려와 중산(中山)을 격파하여 중원 통치의 기초를 확립했는데, 이것은 사실 한 차례 성공적인 ‘정복’으로 봐도 무방하다. 단지 직접적인 상대가 한족정권이 아니었을 뿐이다. 요왕조를 건립한 시기의 거란족은 탁발선비와 같이 이미 장기간 중원의 변경에 근접해 있었던 민족이다. 요는 진정으로 한지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한지의 일부(연운십육주)를 후진이 후당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얻은 것이다. 그 후 요 태종 야율덕광이 남하하여 후진을 공격해 멸망시키고 한때 중원을 차지했지만, 도저히 형세를 안정시킬 수 없어 결국 “나는 중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제어하기

3) 張帆(1997), 「元朝의特性 : 蒙元史若幹問題的思考」, 『學術思想評論』第1輯, 遼寧大學出版社.

어려운지 몰랐다(我不知中國之人難制如此)”라고 개탄하면서 딱하게 북방으로 돌아가, ‘정복’은 실현되지 못했다. 요 일대에 걸쳐 국가통치의 중심이 줄곧 북위·금·원·청과 같이 한지(漢地) 농업지구에 들어오지 못하였기에, 그 ‘정복’의 의의는 실제로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비트포겔이 제시한 ‘정복왕조론’은 비록 참신한 발상이지만 요대를 ‘정복왕조’의 전형으로 설정하고 연구한 것은 하나의 잘못된 선택인 것 같다.⁴⁾

이것이 바로 ‘정복왕조’ 이론 자체에 대해 정면으로 내보인 중국학자의 적극적 반응이다. 장범 교수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본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만 비로소 정복왕조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한지를 ‘정복’하기 전 그 통치민족은 한족의 농업사회와 경제생활이 확연히 다른 비교적 순수한 초원 유목민이라는 점. 둘째, 한지를 ‘정복’하기 전 그 민족이 이미 막북 초원에서 효과적인 통치를 시행하고 강대한 초원 유목제국을 건립했다는 점. 셋째, 그 민족이 한지에 대한 ‘정복’을 충분히 실현하고 한족 취락지역을 대부분 혹은 전부를 점령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당연히 넓은 의미에서 ‘정복왕조’는 단지 상술한 한두 조건만을 갖출 수도 있지만, 나는 세 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만 비로소 가장 전형적인 ‘정복왕조’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여진족이 세운 금조와 만주족이 건립한 청조가 당연히 정복왕조에 속하지만, 여진과 만주는 도리어 ‘비교적 순수한 유목민족’이 아니며, 수렵·어로와 농경이 여진 경제생활의 주요한 일부를 차지하였다고 생각한다.

4) 張帆(1997), 「元朝的特性：蒙元史若干問題的思考」, 『學術思想評論』第1輯, 遼寧大學出版社.

II. 문헌정리와 연구성과

1949년 이후 30년간 중국의 요·금·원사학자들은 비록 의식형태의 제한을 받았지만 여전히 만청(晩淸)·민국(民國)시대 학자들이 쌓아놓은 기반 위에 뛰어난 성과를 내놓았다. 1959년부터 『귀잠지(歸潛志)』, 『초목자(草木子)』, 『남촌철경록(南村輟耕錄)』 등 많은 금·원 필기체 사서들이 중화서국의 『원명사료필기(元明史料筆記)』 총서로 잇달아 출판되었다. 조만리(趙萬裏)가 표점·교감한 『원일통지(元一統志)』(1956)와 장량채(張亮采)의 『보요사교빙표(補遼史交聘表)』(1958)도 중화서국(中華書局)에서 출판되었다. 채미표(蔡美彪)가 편찬한 『원대백화비집록(元代白話碑集錄)』(科學出版社, 1955)은 대량의 원대 경역체 성지비의 내용을 수록하여 원사 연구의 중요한 특색을 집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후학들의 연구에 편의를 제공해준다. 이 단계에서 비교적 뛰어난 성과는 중화서국 점교본(點校本) 『요사(遼史)』(1974), 『금사(金史)』(1975), 『원사(元史)』(1976)로, 이 세 책은 모두 이제까지 공인된 가장 믿을 만한 판본이다. 그것과 관련된 공구서 『요대인명색인(遼史人名索引)』(1982), 『금사인명색인(金史人名索引)』, 1980), 『원대인명색인(元史人名索引)』(1982), 육준령(陸峻嶺) 주편 『원인문집편목분류색인(元人文集篇目分類索引)』(中華書局, 1979)도 편찬되었다. 아울러 진술(陳述)이 『요문휘(遼文集)』를 보충해 만든 『전요문(全遼文)』(中華書局, 1982)과 진고화(陳高華)가 편찬한 『송요금화가사료(宋遼金畫家史料)』(文物出版社, 1984)가 출간되었다. 이러한 문헌회편과 공구서는 비록 1980년대 초 출판되었으나, 그 기초 작업은 모두 개혁개방 이전에 대체로 완료되었다. 담기양(譚其襄)이 주편한 『중국역사지도집(中國歷史地圖集)』(地圖出版社, 1982)은 '상방보검(尙方寶劍: 황제가 하사한 보검)'의 협동과제를 받은 것이다. 비록 문화대혁명 시기 편집제작에 참여하고 있던 일부 학자들이 타격을 받았으나, 총체적인 작업은 정

치운동의 큰 방해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어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다. 이 책은 오늘날까지 학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요·송·금·원·서하의 역사연구자들이 협력하여 『중국 역사대사전(中國歷史大辭典)』 요하금원권(遼夏金元卷)과 『중국대백과전서(中國大百科全書)』의 원사권(元史卷)과 요송서하금사권(遼宋西夏金史卷)을 완성했다. 구수삼(邱樹森)이 주편한 『원사사전(元史辭典)』(山東教育出版社, 2002)과 같은 공구서들도 후학들과 연구생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 1996년 이후 『북경도서관고적진본총간(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이 잇달아 출판되어 금대와 원대 별집이 수록되었다. 2000년 이후 『사고금휘서총간(四庫禁毀書叢刊)』, 『사고존목총서(四庫存目叢書)』, 『속수사고전서(續修四庫全書)』, 『천진도서관고본비적총서(天津圖書館孤本秘籍叢書)』 등 대형 총서가 잇달아 출판되고, 요·금·원대의 사료가 각각 수록되었다. 현재 이러한 총서들은 많은 대형 도서관에서 개가 열람할 수 있어 학자들의 연구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복단대학도서관고적부(復旦大學圖書館古籍部)에서 편집한 『사고계열총서목록·색인(四庫系列叢書目錄·索引)』(上海古籍出版社, 2007)은 편리하게 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원대농민전쟁사료회편(元代農民戰爭史料彙編)』(中華書局, 1986), 『원대백련교자료회편(元代白蓮教資料彙編)』(中華書局, 1989), 『원대주의집록(元代奏議集錄)』(浙江古籍出版社, 1998) 등 책들이 중국에서 잇달아 출판되었다. 그중 진술(陳述)이 편집한 『전요문(全遼文)』과 이수생(李修生)이 편집한 『전원문(全元文)』(鳳凰出版社, 1998~2005)은 많은 학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학자들의 연구에 큰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요·금·원 세 왕조 역사의 서술은 통사형 저서와 대학 역사교재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다. 채미표(蔡美彪)가 주편한 『중국통사(中國通史)』(1979)의 6권 3장은 요·서하·금 3왕조의 역사를 서술했는데, 통사저작 중 가장 먼저 비교적 많은 분량(약 8만자)으로 요왕조를 하나의 단대사로서 완전하게 갖추어 서술한 것

이다. 금사와 서하사도 대체로 동일한 정황에 속한다. 더욱이 원사권(元史卷)은 제7권의 전체 분량을 차지하는데 이전 통사류 저작 중 매우 드문 상황이었다. 1949년 이후 편찬된 대학 역사교재 중 정복왕조사는 일반적으로 중원왕조의 소수민족 부분에 부속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요사는 대체로 송사의 소수민족 관련 부분에 속해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정황에 매우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명확한 사례가 바로 구수삼(邱樹森)과 진진강(陳振江)이 편집한 『신편중국통사(新編中國通史)』(福建人民出版社, 1993) 2책이다. 이러한 대학 역사학과 통사 교재는 20세기 중국 고대사 연구의 많은 성과를 종합하여 요·송·금 3왕조 역사 서술을 건국 시기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개별적으로 서술함과 동시에 서로 비교 대응하여 체제 방면에서 매우 큰 변화를 보였다. 바로 이전의 관례적 체제를 탈피하여 요·금·서하·원 등 비한족이 건립한 왕조가 비교적 본연의 지위를 차지했다. 1990년대 말 이후 『신편중국통사』는 점점 더 많은 중국 대학 역사과에서 본과생 지정교재로 채택되고 있다. 통사 저작 방면에서 그 외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성과는 백수이(白壽彝)가 총 주편한 『중국통사(中國通史)』(上海人民出版社, 1997)이다. 그중 난징대학(南京大學)의 진득지(陳得芝) 교수가 주편한 원대권(元代卷)은 참신한 체제 아래 20세기 동서양 학자들의 많은 몽원사 연구성과를 종합 제시하여, ‘몽원사 연구의 국제성 특징을 체현했다’고 인식되며, 현재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중요한 참고자료이자 원사 연구자들의 입문 필독서가 되고 있다.

Ⅲ. 연구논저

‘문화대혁명’ 시기 요·금 역사학은 타격을 받았는데, 가장 큰 손실은 ‘요사 삼대가(遼史三大家)’ 중 부낙환(傅樂煥) 선생과 풍가승(馮家升) 선생이 잇달아 사망했다는 것이다. 1976년 ‘문혁’ 종결 후 다행히 살아남은 1세대 원로 학자들은 ‘과학의 봄’을 맞이하여 감격하였고 1980년대 초 중국요금사학회(中國遼金史學會), 중국원사연구회(中國元史研究會), 중국몽고사학회(中國蒙古史學會)가 잇달아 성립되었다. 이 학회들은 1세대 원로 학자인 진술(陳述)·한유림(韓儒林)·옹독건(翁獨健) 등의 지도 아래 학술대회를 조직하고, 국내외 학술 관련 네트워크와 연계하고, 학술잡지를 편집·출판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중요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20세기 마지막 20여 년은 중국학계 요·서하·금사 연구의 황금시기로 인식된다. 1980년대 이후 중국대륙의 요·금·원, 세 왕조 역사의 주류학자는 점차 착실한 문헌고증에 기초한 실증적 연구로 돌아가 높은 수준의 연구저작을 발표했다. 단행본보다는 전문적 정기간행물의 형식으로 요·금·원사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넓은 학술 무대를 가지게 되었다. 진술(陳述)이 창간한 『요금사논집(遼金史論集)』은 1996년 이전에 9집이 출판되었다. 중국원사연구회가 편찬한 『원사논총(元史論叢)』은 이미 11집이 출판되었고, 12집과 13집도 곧 간행될 예정이다. 중국몽고사학회(中國蒙古史學會)가 편찬한 『몽고사연구(蒙古史研究)』는 9집이 출판되었고, 난징 대학 원사연구실(南京大學元史研究室)이 편찬한 『원사금민족사연구집간(元史及民族史研究集刊)』(원제 『元史及北方民族史研究集刊』)은 이미 21집까지 출판되었다.

1949년 이후 중국대륙에서 활동한 요·금·원사학자들 중 많은 수가 구미 등에서 유학한 경력을 갖고 있다. 부낙환(傅樂煥)은 1940년대 런던 대학교 동

양·아프리카 대학(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풍가승(馮家升)은 1940년대 초 콜롬비아 대학 전임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중국사회사 : 요』가 바로 그와 비트포겔이 함께 저술한 성과이다. 한유림(韓儒林)·소순정(邵循正)·옹독건(翁獨健) 세 학자들은 1930년대 모두 유럽과 미국으로 유학하여 펠리오(Pelliot) 등 동양학 대가들의 지도를 받았다. 1978년 이후 중국대륙의 원사연구는 세 원로 선생의 조직·준비 아래 점차 진행되었고, 많은 학자들이 1960년대와 1970년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높은 수준의 원대사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다. 한유림(韓儒林) 선생이 주편한 『원조사(元朝史)』(人民出版社, 1982)는 1949년 이후 최초의 원조 단대사 저작으로 오늘날 많은 방면에서 여전히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일부 학자들의 논문집이 계속 출판되어 다른 학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부낙환(傅樂煥)의 많은 뛰어난 연구는 그의 논문집 『요사총고(遼史叢考)』(中華書局, 1982)에 수록되었다. 풍가승(馮家升)의 논문은 『요사증오삼종(遼史證誤三種)』(中華書局, 1959)과 『풍가승 논저집수(馮家昇論著輯粹)』(中華書局, 1987)에 수록되었다. 양지구(楊志玖)의 『원사삼론(元史三論)』과 진술(陳述)의 『거란정치사고(契丹政治史稿)』는 각각 1985년과 1986년에 인민출판사(人民出版社)에서 출판되었다. 진고화(陳高華)의 『원사연구논고(元史研究論稿)』도 1991년에 출판되었다. 2001년에는 내몽고대학 몽고학중심(內蒙古大學蒙古學中心)에서 주청주(周清澍)의 『원몽사차(元蒙史筌)』(內蒙古大學出版社)와 『역린진몽고학문집(亦鄰真蒙古學文集)』(內蒙古人民出版社)을 출판하였다. 진득지의 『몽원사연구총고(蒙元史研究叢稿)』는 2005년 인민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가경안(賈敬顏) 선생의 유고 『오대송금원인변강행기십삼종소증고(五代末金元人邊疆行紀十三種疏證稿)』는 2004년 중화서국에서 출판되었다.

역사인물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석후(李錫厚)의 『야율아보기전(耶律阿保機傳)』(길림교육출판사, 1991), 주봉(周峰)의 『완안량평전(完顏亮評傳)』(民族出版社, 2002), 유숙용(劉

肅勇)의 『금세종전(金世宗傳)』(三秦出版社, 1986), 범군(範軍)·주봉(周峰)의 『금장종전(金章宗傳)』(中國廣播電視出版社, 2003), 구수삼(邱樹森)의 『타환첩목아전(妥歡帖木兒傳)』(吉林教育出版社, 1991), 주양소(周良霄)의 『쿠빌라이[忽必烈]』(吉林教育出版社, 1986), 이치안(李治安)의 『쿠빌라이전[忽必烈傳]』(人民出版社, 2004), 유효(劉曉)의 『야율초재평전(耶律楚材評傳)』(南京大學出版社, 2001) 등이 모두 학계의 좋은 반향을 일으켰다.

외국의 연구성과를 번역 소개한 것으로는, 내몽고대학 몽고사연구소(內蒙古大學蒙古史研究所)가 1970년대부터 구미와 일본 학자의 요·금·원사연구 논문을 번역하여 간행한 『몽고사연구참고자료(蒙古史研究參考資料)』(내부 간행)에 많은 구미·일본학자의 논문을 수록했다. 미카미 쓰기오[三上次男]의 『금대 여진연구(金代女眞研究)』(金啓宗 韓譯, 1984, 黑龍江人民出版社)도 출판되었다. 프랑케(Herbert Franke)가 주편한 『캠브리지 중국사』 6권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 907~1368*은 사위민(史衛民) 등이 한역하여 『검교중국요서하금원사(劍橋中國遼西夏金元史)』라는 제목으로 1998년 출판되었는데, 영문 원서를 읽기 어려운 학자들이 이 책을 참고할 수 있다. 오타기 마즈오[愛宕松男]의 『거란고대사연구(契丹古代史研究)』는 형복례(邢復禮)가 한역하여 1988년 내몽고인민출판사(內蒙古人民出版社)에서 출판되었다. 시마다 마사오[島田正郎]의 『대거란국(大契丹國)－요대사회사연구(遼代社會史研究)』(何天明 韓譯, 2007, 內蒙古人民出版社)도 번역·출판되었다.

석각문 사료와 문서의 발굴·정리·이용도 점차 더 많은 학자들이 중시하기 시작했다. 북경도서관금석조(北京圖書館金石組)가 편찬한 『북경도서관장중국역대석각탁본휘편(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彙編)』(中州古籍出版社, 1990)은 요·금·원대의 많은 진귀한 석각문 사료를 제공했으나, 문자 설명에 오류가 많고, 소위 파스파 문자를 모두 몽골문으로 오인(誤認)했다는 결점을 안고 있다. 향남(向楠)이 편찬한 『요대석각문편(遼代石刻文編)』(河北教育出版社, 1995)과 『요대석각문속편(遼代石刻文續編)』(遼寧人民出版社, 2010)도 출판되었다. 중국국가도서관선본금석조(中國

國家圖書館善本金石組)가 편찬한 『요금원석각문헌전편(遼金元石刻文獻全編)』(北京圖書館出版社, 2003)은 3,000쪽의 분량에 이르는 중화민국시기 전후에 편집·인쇄된 요·금·원 석각문헌 탁본을 수록하여 세 왕조의 정치·경제·문화·풍속 연구에 풍부한 사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근래 많은 학자들이 원대 역집내로(亦集乃路)에 남아있는 흑성(黑城) 출토문서를 이용하기 시작하여 그 지역의 경제·문화를 연구하고 있다. 이일우(李逸友)가 편찬한 『흑성출토문서(黑城出土文書)·한문문서권(漢文文書卷)』(科學出版社, 1991)도 근래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중시하며 활용하고 있다.

IV. 정복왕조사 연구에서의 어문과 역사의 결합

어문과 역사의 결합은 정복왕조사 연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이 특성은 적어도 세 방면에서 드러난다. 첫째는 방대한 한문사료는 아직 널리 새로운 자료 발굴의 여지가 있어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정리하는 데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부 비(非)한문 사료가 존재하며, 설령 한문사료라 할지라도 많은 비한어 문장·어휘와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한족 이외 민족들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관련 사료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요·금·원사는 모두 한학(漢學)과 내륙 유라시아 연구 두 영역에 걸쳐 있다. 혹자는 요·금·원사가 민족사와 왕조사 두 계통에 걸쳐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민족사의 영역은 주로 변강지구에 위치하여 학술적으로 많은 언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아울러 왕조사의 체계는 전장(典章)제도의 전승성을 중요시 하지만 오늘날 한학과 내륙 유라시아 연구를 아우를 수 있는 학자는 점

점 감소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영역은 학자들에게 “한학도 서학도 아닌 학문[不中不西之學]”으로 불린다. 따라서 원사의 이러한 넓은 영역에서 학자들은 종종 각자의 특징에 근거하여 한지(漢地)·중앙아시아 또는 몽골을 선택하여 자신의 전문 영역으로 삼는다.

전통 한지를 중심으로 한 시각과 ‘형식’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동시에 거란·여진·몽골과 그 외 고대 민족의 제도와 영향을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중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요·금·원사 연구 방법론에 대해 말하자면, 민족어문과 한문사료는 의심할 바 없이 서로 보완·성취되는 것이다. 이제 많은 중국학자들이 거란소자·여진문·몽골문을 통해 관련 왕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중국학자 청격이태(淸格爾泰) 등의 『거란소자연구(契丹小字研究)』는 ‘돌파성 성취’로 120여 개 거란문자를 분석·설명했다. 학자들은 이 거란 어휘와 몽골 어휘가 서로 비슷하고 또한 거란소자의 격조사가 현대 몽골어보다 더욱 엄격하고 전면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여, 거란인의 언어가 고대 몽골어 방언의 일종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제 원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원전장(元典章)』 등 책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원대 공문의 경역한 문체(元代硬譯公牘文體)는 물론 몽골어와 페르시아어에 대한 학습을 중요시하기 시작하였다.

번역 : 고명수(고려대)



‘신’ 청사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미국 다트머스 대학 **파멜라 크로슬리**

- I. 머리말
- II. 구청사
- III. 신청사
- IV. 만주족 중심의 역사 대(對) 청사



‘신’청사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미국 다트머스 대학 피멜라 크로슬리

I. 머리말

최근 일부 청대사 연구자들이 이른바 ‘신’청사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스스로 객체화시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언급하기도 하면서 여러 연구자들의 다양한 주장을 분류한다.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대체로 만주족의 정체성이 청대에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그리고 그 정체성이 제국의 정책과 문화 및 군사활동의 성공과 실패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것이다. 하나의 학파로서 신청사 연구자들은 청제국을 단순히 중국사의 한 시기로 여기는 것에 의구심을 품고 있으며, 실제로 거의 모두 만주족은 사실상 중국문화에 동화되었기에 중국을 지배한 다른 제국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그러나 자신을 ‘신’청사와 연결하는 몇 학자들의 연구에는 민족전통의 지속성이라는 오래된 생각이 역사적 담론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신청사 연구를 낭만화된, 그리고 사실상 썩 검증할 수 없는 역사 이상으로 몰아가려고 한다. ‘신’청사로 여겨지는 연구자들이 실제 서로 다른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은 신청사가

역사연구의 새로운 흐름으로 분류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II. 구청사

신청사의 근원은 이전의 청사연구(즉 '구청사')에 바탕을 두고 있다. 1912년 청제국이 멸망하기 전까지 미국인과 영국인들은 청제국에서 만주어와 만주족이 지닌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많은 외국인들이 만주어를 공부했고 이들 중 몇몇은 한어를 배우는 수단으로 만주어를 이용하기도 했다.¹⁾ 청과 교류한 미국인이나 영국인들은 대부분 청을 '타타르' 왕조, 혹은 '만주' 왕조라 불렀고 만주족이 외래 정복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일부 미국인과 영국인들은 만주족과의 동질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만주족을 중국을 성공적으로 정복한 존재로 유럽인들과 유사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²⁾

청제국의 멸망 후, 19세기와 20세기 중국의 역사는 중국의 민족주의적 관점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특히 소일산(蕭一山), 주희조(朱希祖), 전목(錢穆) 등의 저작이 유명했다. '만청(滿清)'이라는 용어는 과거 제국의 무능력, 부패, 압제에 대한 비난과 함께 중국어 저술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20세기 초 중국의 민족주의 역사가들은 청대사를 '왕조', 즉 단순히 중국사의 한 시기로 규정했

1) *Orphan Warrior*, 279쪽 참조. 만주어는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영어 사용자들은 만주어를 한어보다 훨씬 배우기 쉽게 여겼고, 한문 고전은 대부분 만주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번역본을 통해서 이전에는 극소수의 외국인만이 읽을 수 있었던 유교 경전을 이해할 수 있었다. 모든 외국인들이 이 방법을 채택한 것은 아니지만—대부분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만 배우고 싶어했다—이는 미도우(Thomas Taylor Meadows) 등 몇몇 학자들이 입증한다.

2) 이에 대한 필자의 언급은 *Orphan Warrior*, 142쪽.

고 이러한 관점은 곧바로 영어권 학계에 전해졌다. 이 세대가 남긴 놀라운 학문적 유산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바로 청조의 시종(始終) 연도이다. 지금 학자들은 청대가 중원의 정복으로 시작하여 1911년 10월 중국 민족주의자들의 봉기로 끝났다는 견해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청대를 “1644년부터 1911년까지”로 보는 것은 중국의 강고한 민족주의적 역사관이 낳은 직접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청조의 연대기는 다른 중요한 두 학술적 전제와 함께 1980년대까지 영어권에서 청사를 서술하는 데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는 또한 존 킹 페어뱅크가 미국 내 중국사 연구의 학술적 프레임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시기였다. 페어뱅크와 그의 제자들의 영향 아래 청대는 중국사의 한 왕조로 간주되었다. 뿐만 아니라 만주어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치부되었는데, 이는 제국의 모든 자료가 한문으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만주어에서 한문으로 번역되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만주제국과 만주족에 대해 페어뱅크가 갖고 있던 다른 하나의 전제는 늦어도 19세기 말까지 중국 내 모든 만주족이 동화, 혹은 페어뱅크의 표현대로 ‘한화(漢化 : sinicized 혹은 sinified)’되었다는 것이다. 즉 만주족에게는 독자적인 문화나 역사적 관점이 없었다는 것이다. 건륭제에 대한 페어뱅크식의 이해는 칸(Harold Kahn)의 *Monarchy in the Emperor's Eyes : Image and Reality in the Ch'ien-lung Reign*, 1971)에 잘 나타난다. 이 탁월하고 박식한 저서에서 칸은 유가적 도덕의 강직성을 실현하려는 황제의 의식적 노력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가들 역시 이러한 관점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강조했다는 것이다. 1960년대 말 지핑(Ji Ping)이라는 필명을 쓴 자와 소련의 멜리코프(G.V. Melikhov) 사이에 유명한 논쟁이 있었다. 지핑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의 국경분쟁은 중국 측의 주장을 따

라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그 근거는 이 분쟁지역을 과거에 청이 정복하고 통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즉 만주족이 완전히 한화된 이상, 만주족의 정복은 곧 중국의 정복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속적인 영토에 대한 권리를 입증해준다는 것이다.³⁾

이와 상반되는 경향도 있었다. *Eminent Chinese of the Ch'ing Period*, 1943)와 *Dictionary of Ming Biography*, 1976)라는 탁월한 두 참고서를 저술한 역사가 팡자오잉(房兆楹)과 그의 아내 두리엔저(杜聯結)가 이에 속한다. 팡자오잉은 역사가이자 도서관 사서로 미국에 이민하여 1957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명말-청대 역사에 대한 방조영의 서술을 보면 그도 청대 만주족이 한화, 혹은 적어도 동화되었으며 만주어는 청사 연구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당시의 견해를 수용하고 있는 보인다. 그러나 그가 저술한 *Eminent Chinese of the Ch'ing Period*는 만주족의 전통, 언어, 관습이 청대의 독특한 특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책은 청사를 서술하면서 만주어 용어와 만주족 풍습을 언급한 최초의 주류 저작이었다. 방조영과 그의 아내는 이 거대한 공구서의 핵심 연구자이자 저술가였지만 팡자오잉은 역사를 가르친 적이 없었고 중국 언어학 교수였다. 1960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스펜스(Jonathan Spence)를 만났을 당시에도 중국어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스펜스는 팡자오잉을 통해 만주족의 유산이 적어도 황실 가족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음을 감지하게 되었다. 그는 만주족의 전통이 황실가족의 취향, 가족생활, 역사인식, 중원지역에 대한 시각을 형성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첫 번째 책인 *Ts'ao Yin and the K'ang-hsi Emperor*, 1966)에서 스펜스는 만주어와 만주족의 관습

3) *A Translucent Mirror*, 21~22쪽 참조. 지핑의 글이 실렸던 『歷史研究』의 논문들은 대학교수 위원회가 작성하여 익명으로 출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황제와 만주족 귀족들의 개인적인 삶과 세계관을 구성하였음을 생생하게 전했다.

‘구청사가 지닌 결합을 일깨우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문적 영향력이 평가절하된 또 하나의 학자가 로버트 리(Robert H.G. Lee)였다. 그의 *The Manchurian Frontier in Ch'ing History*는 1970년에 출판되었다. 그 당시에 청나라의 흥기를 지역적 맥락에서 검토한 저작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1942년에 나온 마이클(Franz Michael)의 *The Origin of Manchu Rule in China*였다. 마이클은 이 책에서 만주족의 정치관습과 사회조직을 조심스럽게 소개했지만, 그의 주된 주제는 정치적으로 경험이 미숙한 만주귀족들이 중국의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통치술을 학습했고 마침내 명으로부터 권력을 찬탈할 만큼 강력해졌다는 것이었다. 리의 관점은 이와 달랐다. 마이클의 요지는 변경지역에서는 새로운 정치적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는 있었지만 그 자체가 정치적 혁신이나 변화의 원천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이었다. 반면 로버트 리는 변경지역을 지리환경, 정치지리, 경제구조 및 독자적인 정치사를 가진 하나의 완전한 세계로 설명했다. 그가 사용하는 용어는 페어뱅크 학파의 용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그가 주장한 내용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고 후에 여러 학자들이 따르고 더욱 발전시킨다. 그가 설명했듯이 청조를 탄생시킨 변경지역은 청의 경제, 황실가문의 정체성, 그리고 청제국의 전략적 결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로버트 리 역시 페어뱅크와 마찬가지로 만주족은 동화되었고 더 이상 누르하치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여겼지만, 그가 저술한 청조 발상지에 대한 지역사는 이 지역이 가진 지속적인 중요성은 만주족의 완전한 동화라는 주장과 조화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구청사가 신청사로 변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세 번째 인물은 플레처(Joseph Francis Fletcher, Jr.)이다. 플레처가 만주어를 공부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

는 이미 중국어와 몽골어를 익히고 17세기 몽골 역사학 분야에 박사학위논문
을 쓴 상태였다. 그는 타이완에 거주하는 시보족 역사가 광록(廣祿)으로부터
전문적으로 만주어를 배웠다. 광록이 만주어 사료를 읽는 것을 녹음한 플
레처의 자료는 프레처의 제자들이 하버드에서 1980년대까지도 들을 수 있었
다. 프레처가 만주어를 공부한 목적은 중앙아시아와 내륙아시아의 진정한 통
합사(integrated history)를 서술하기 위해서였다. 청시기 몽골과 투르키스탄 정복
을 제외한 청제국 자체의 역사는 프레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지만, 그는
이 시기의 연구에 만주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⁴⁾ 1980년대 초 그
의 저작에서, 그리고 청사 연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프레처는 만주어의 독
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님을 지적하고, 만주어가 청 황실의 언어였던
만큼 모든 청사 연구자가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⁵⁾ 하지만 대부분의 청사 연
구자들은 이런 견해를 무시했고 만주어로 쓰여진 청대 자료는 모두 한문으로
된 번역본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선구자 그룹에 그루퍼(Samuel Martin Grupper)가 있는데 그
는 1980년에 마하칼라[大黑天] 신앙에 대해 학위논문을 썼다.⁶⁾ 중국어, 몽골어,

-
- 4) 이 시기에 출판된 저작 가운데 이례적으로 청조의 생활과 통치에서 나타나는 만주족
의 특징에 주목한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차세대 학자들로 하여금 만주족이 국가제
도에 끼친 영향을 추적하게 했다. 케슬러(Lawrence D. Kessler)(1976), *K'ang-hsi
and the Consolidation of Ch'ing Rule* ; 옥스남(Robert Oxnam)(1976), *Ruling
from Horseback : Politics in the Oboi Regency, 1661~1669* ; 토버트(Preston M.
Torbert)(1977), 『清內務府制度研究』 *The Ch'ing Imperial Household Department :
A Study of its Organization and Principle Functions, 1662~1976*.
- 5) 프레처의 이러한 주장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워드 넬슨(Howard Nelson)
의 책 *Manchu Books in London : A Union Catalogue* 에 대해 그가 쓴 서평이다.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41-2 (December, 1981), pp. 653-663 참고.
- 6) Samuel Martin Grupper(1980), "The Manchu Imperial Cult of the Early Ch'ing
Dynasty : Texts and Studies on the Tantric Sanctuary of Mahākāla at Mukden,"

만주어, 티베트어의 독해 능력을 바탕으로 작성된 그루퍼의 이 놀라운 저작은 청사 연구자들이 마하칼라 신앙의 의례적 기반을 이해하는 데 획기적인 기술적 수단을 제공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도 한문자료에만 의존하는 연구자들이 볼 수 없었던 청의 종교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훌륭하게 보여주었다. 그 후 발표한 몇 편의 글에서 그루퍼는 아직은 미완성이었던 진정한 ‘청사연구’의 대한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플레처의 제자 가운데 로쓰 리(Gertraude Roth Li)는 무권점자 만문자료를 활용하여 박사학위논문을 썼다.⁷⁾ 로쓰 리는 계속해서 청초의 역사에 대한 논문을 썼고 하와이 대학에서 만주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만주족 국가의 초기 형성과정에 대한 로쓰 리의 학위논문은 지금까지 무권점자 만문자료에 근거하여 쓰여진 유일한 영어저작이다. 플레처는 관대하게도 그의 강의를 듣고자 하는 모든 청사 연구자들에게 만주어를 가르쳤다. 이에 호응한 청사 연구자들이 바틀렛(Beatrice Bartlett), 퍼듀(Peter Perdue), 그리고 크로슬리였다. 바틀렛은 특히 청사의 모든 부분에서 만문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틀렛은 당안 자료를 활용하는 데 탁월했고, 만문 자료의 수량, 범위, 상황, 내용을 일찍이 가장 잘 알고 있던 학자였다. 1980년대 말 바틀렛은 중국의 당안관에 대부분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지만 타이완에도 일부 소장되어 있으며 그 소장되어 있는 만문 자료는 수가 백만 건에 달한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플레처를 놀라게 하였다.

인디애나 대학 박사학위 논문.

- 7) 만주문자는 위구르 문자에 기반한 문자를 개량하여 1599년에 만든 것이다. 초기 수십년간 만주문자는 몽골문자와 마찬가지로 자음에서 k, g, h음을 구별하지 않았고 어떤 단모음은 생략되기도 했다. 1632년 문자를 개정하여 원과 점을 첨가함으로써 자음의 k, g, h음을 구분하고 단모음의 존재를 분명하게 표기하게 되었다.

1984년 플레처가 세상을 떠났을 당시 미국에서 만주어를 배우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에게는 몇 가지 선택이 있었다. 워싱턴 대학의 제리 노만(Jerry Norman)은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언어학자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만주어 사전인 *The Manchu-English Lexicon*(1978)의 저자였다. 워싱턴 대학 외에도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분교의 보손(James Bosson)과 인디애나 대학의 크레이더(Lawrence Krader)에게서 만주어를 배울 수 있었다. 당시 세계의 다른 지역, 특히 일본에서는 만주어 학습이 이미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다(일본에 대해서는 아래 상술). 중국에서도 만주어 학습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단지 당안관에 방치된 엄청난 수의 만문 자료의 목록을 만들고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아시아를 제외한 지역 중 가장 중요한 만주어 연구지는 독일이었다. 독일 학자들은 만주어 센터를 여러 개 설립하였고 이곳의 만주어 프로그램은 해니쉬(Erich Haenisch), 발라벤스(Hartmut Walravens), 폭스(Walther Fuchs) 등이 지도하고 있었는데, 스타리(Giovanni Stary)와 김(Martin Gimm)과 같은 학자들을 배양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곳에서는 엄격한 언어훈련과 분석을 강조하면서 문학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플레처와 달리 독일 학자들은 역사가를 배양하는 데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스타리의 제자 디 코스모(Nicola di Cosmo)가 미국 인디애나 대학의 박사과정에 들어오자 청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기초가 잡히기 시작한다.

Ⅲ. 신청사

2004년에 출판된 *New Qing Imperial History*의 편집자는 신청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새로운 청사연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여기에는 역

사가 외에도 미술역사학자, 지리학자, 문학자 등이 포함된다—만주족에 대한 새로운 관심, 그리고 그들이 한족과 중국 문화, 또한 중국의 통치하에 있던 다른 비한족 집단과 맺은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다.”⁸⁾ 비슷한 맥락에서 조안나 웨일리 코헨(Joanna Waley-Cohen)은 신청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만주족의 정치전통에 깃든 내륙아시아적 기원을 깨닫게 되면 만주족의 특징, 그리고 중국사에서 청대가 지닌 특징을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청사의 핵심 목표이다. 신청사 연구는 중국과 중앙유라시아에 걸쳐, 그리고 그 지역을 초월하여 세워졌던 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제국의 여러 문제, 제국적 맥락, 그리고 보다 광범위하게는 근대로의 이전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⁹⁾

여기에서 웨일리 코헨은 신청사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저자와 그들의 저술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크로스리(Pamela K. Crossley), *A Translucent Mirror*.

엘리엇(Mark C. Elliott)(2001), *The Manchu Way :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포레(Philippe Forêt)(2000), *Mapping Chengde : The Qing Landscape Enterprise*.

헤이(Jonathan S. Hay)(2001), *Sbitao : Painting and Modernity in Early Qing China*.

호스테틀러(Laura Hostetler)(2001), *Qing Colonial Enterprise : Ethnography*

8) James Millward, et al. eds(2004), *New Qing Imperial History : The Making of an Inner Asian Empire at Qing Chengde*, p. 3.

9) “The New Qing History,” *Radical History Review* 88 [Winter 2003], pp. 193~194.

and Cartography in Early Modern China.

만(Susan Mann)(1997), *Precious Records : Women in China's Long Eighteenth Century.*

밀워드(James P. Millward)(1998), *Beyond the Pass : Economy, Ethnicity, and Empire in Qing Central Asia, 1759~1864.*

로스키(Evelyn S. Rawski)(1998), *The Last Emperors : A Social History of Qing Imperial Institutions.*

지토(Angela Zito)(1997), *Of Body and Brush : Grand Sacrifice as Text : Performance in Early Modern China.*

만약 웨일리 코헨이 그 글을 조금 늦게 썼더라면 다음의 저서들도 포함시켰을 것이다.

로드스(Edward J. M. Rhoads) (2001), *Manchus and Han : Ethnic Relations and Political Power in Late Qing China.*

버거(Patricia Berger) (2003), *Empire of Emptiness : Buddhist Art and Political Authority in Qing China.*

퍼듀(Peter Perdue) (2005), *China Marches West : The Qing Conquest of Central Eurasia.*

웨일리 코헨(Joanna Waley-Cohen) (2006), *The Culture of War in China : Empire and Military in the Eighteenth Century.*

여기에 한문자료와 만문자료를 모두 사용하여 기인(旗人)과 민간 개인과의 관계, 그리고 청의 고위 권력 내 파벌을 분석한 바틀렛의 선구적 연구

Monarchs and Ministers : The Grand Council in Mid-Ch'ing China, 1723~1820(1991)을 포함시키면 더 완전한 목록이 될 것이다.

만약 만주족과 그들이 제국에 끼친 지속적인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신청사와 연관이 있다면, 필자의 연구 역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990년 필자는 “후기 중화제국에서의 종족성(Thinking about Ethnicity in Late Imperial China)”을 발표했다.¹⁰⁾ 이 글에서 필자는 ‘한화’가 중국사 연구에서 필요하거나 혹은 중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Orphan Warriors : Three Manchu Generations and the End of the Qing World*(1990)에서 필자는 처음으로 19세기에서 20세기 중원 중부지역에 거주하는 만주족 가문의 삶과 의식에 대해 서술했다. 그 책의 서론에서 필자는 청조 국가의 등장은 기본적으로 중국적 정치제도에 문화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마이클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고, 라이트(Mary Wright)가 *The Last Stand of Chinese Conservatism*에서 태평천국 이후 개혁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만주족이 유교적 가치관에 완전히 동화되어 일체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전체적으로 필자가 이 책에서 주장한 바는 만주족의 정체성이 청대에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주족의 정체성은 한족문화와 수세기 동안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고, 청제국이 해체되고 중화민국이 수립되었을 때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형태와 활력을 지니고 있었다. 1992년에 발표한 「중국의 통치권(The Rulerships of China)」¹¹⁾에서 필자는 과거의 청사 연구가 묘사해 온 것과 달리 청의 통치자들은 문화적으로 변용되거나 동화된 자들이 아니었

10) “Thinking about Ethnicity in Early Modern China,” *Late Imperial China* 11-2 [June 1990], pp. 1~36.

11) “The Rulerships of China,” *American Historical Review* 97-5 [December 1992], pp. 1468~1483.

음을 자세히 설명했다. 청의 통치자들은 군주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유교적’ 격식과 만주·몽골·티베트의 종교적 관습이나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번갈아 사용했고, 그들의 지위는 제국 내 모든 종교와 그들이 정복한 모든 것들로부터 획득한 정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자의 책 *A Translucent Mirror*(1999)는 이 주제에 대해 필자가 몇 년간 연구를 진행하면서 발표한 논문과 글을 정리한 최종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청제국이란 황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저술하고 수정한 그 스스로에 대한 역사였으며 이것은 한족 대중이나 한족 지식인들의 요구나 기대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저자가 본인의 연구를 언급하는 이유는 한 가지이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필자는 흔히 ‘신청사’의 대상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저술과 연구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전제와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모두 신청사라는 집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저명한 그리고 어느 면에서 가장 과감한 신청사의 옹호자는 로스키이다. 로스키는 중국 사회사와 경제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후 1990년대부터 만주어를 공부했다. 그리고 청조에서 만주족의 문화적 성향이 제국 전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The Last Emperors*에서 황실 가문의 개인적 습관, 의복, 결혼관습, 언어사용, 사고방식을 자세히 검토한 로스키는 만주족이 중원의 한족황제 전통과 일체감을 가졌다거나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관점에서 스스로를 바라보았다는 오랜 인식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로스키의 철저한 연구는 종교적 신앙과 관습에서, 교육에서, 그리고 자기표현에서, 청 황실이 차별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로스키는 이러한 특징이 제국 전체의 특색에 영향을 끼쳤음에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본고의 주제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논문은 1996년 출판

된 로스키의 아시아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회장연설이다.¹²⁾ 여기에서 로스키가 말한 청사의 '다시 생각하기'는 당시 막 부상하고 있던 연구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로스키에 따르면 청제국의 영토와 주요 업적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 만주족이 동화 혹은 '한화'되었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었다. 청이 정복·통치·교육·예술·경제면에서 이룩한 모든 성공은 오직 만주족이 자신의 본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한족들로부터 모든 것을 배웠다는 사실로써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과거의 관점이었다. 필자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로스키는 '한화'란 우선 학술적으로 취약한 개념이며 만주족 엘리트나 제국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제국은 앞선 명조보다 영토가 두 배에 달했고 국제 무역과 상업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는데, 이는 만주족과 만주족의 특징 때문이었으며 그러한 특징을 극복한 결과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인 로스키가 1996년 아시아학회의 회장연설에서 주장한 내용은 청대의 모든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웨일리 코헨이 설명했듯이 신청사 학파에서는 수준 높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밀워드의 *Beyond the Pass*는 신강성이 만들어지기 전 청이 동투르크스탄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과정에 대한 독특한 분석이다. 다른 청사 연구자들이 만문 사료를 활용하는 것처럼 밀워드는 투르크 사료를 사용하여 신강지역

12) 로스키(Evelyn S. Rawski)(1996), "Presidential Address : Reenvisioning the Qing : The Significance of the Qing Period in Chinese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55, no.4, pp. 829-850. 이에 대한 허핑티(Ho Ping-ti)의 반대는 당시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허핑티의 반박은 새로운 청사 연구자들의 설득력이나 활발한 연구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 허핑티(Ho Ping-ti)(1998), "In Defense of Sinicization : A Rebuttal of Evelyn Rawski's 'Reenvisioning the Qing'" in *Journal of Asian Studies* 57-1, pp. 123-155.

이 독특한 언어, 관습, 그리고 역사적 정체성을 지닌 지역이었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한족의 이주가 점차 증가하고 청의 혹독한 식민통치 속에서도 살아남았음을 보여주었다. 마크 엘리엇의 *The Manchu Way*는 만주족에 의해, 그리고 만주족을 위해 쓰여진 자료를 활용하여 17~18세기 팔기 주방의 삶을 내부로부터 묘사하고 만주족의 독특한 세계관을 보여주었다. 퍼듀의 *China Marches West*는 청의 몽골과 준가르 지역에 대한 정복을 서술한 영문 저서 중 가장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수의 만문 자료를 활용하여 강희제가 보여준 무인의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저작들은 서술과 분석의 대상으로서 청제국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며 청사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 저서들은 청제국에 기초한 새로운 연대기를 제시한다. 우리는 청의 시작점을 명조가 멸망한 1644년으로 보지 않고 홍타이지가 제국을 선언한 1636년으로 볼 수 있다(혹은 금국이 세워진 1616년, 또는 팔기제가 개정된 1601년, 심지어 누르하치가 지역의 패자로 등장한 1587년으로 삼을 수도 있다).

또한 청의 마지막 해를 민족주의자들이 봉기하여 최초의 성단위 국민정부를 수립한 1911년으로 보는 대신 부의가 퇴위한 1912년으로 볼 수 있다(혹은 황실이 법적으로 사라진 1924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은 유라시아에 미친 파급효과와 중원에 기반을 둔 제국이 중앙유라시아의 제국적 추세에 통합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국사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필자와 다른 역사가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것이기도 하다.

신청사는 대학원 과정이나 박사후 과정에서 만주어가 일반 교과목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이는 또 하나의 큰 발전이다. 이전의 중국학 연구에서 계승된 원-명-청 연속성의 패러다임과 달리, 신청사는 명대와

청대에 분명한 분계선을 그어주었다. 그러나 몇몇 부분에서 신청사는 학문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다.

IV. 만주족 중심의 역사 대(對) 청사

필자는 대학원생 시절에 오스만 연구(Ottoman Studies)라는 개념에 매우 흥미를 느꼈다. 플레처가 지적했듯이 오스만 제국과 청은 몽골의 정치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¹³⁾ 그러나 내가 관심을 가진 것은 오스만 연구의 또 다른 개념적 측면이었다. 첫째, 학술적으로 논할 때 오스만 ‘왕조’나 투르크 제국이 아니라 오스만 제국이라 칭해졌다(비록 오스만 제국 시절 유럽인들은 투르크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둘째, 오스만 전공자들은 연구를 위해 오스만 투르크어(Osmanlı Türkçesi), 페르시아어, 아랍어를 배우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셋째, 비록 일부에서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 국가라기보다는 투르크인의 국가라고 주장하기는 했지만 이 문제는 대체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오스만 제국은 하나의 역사적 대상이었다. 그러나 청제국은 그렇게 간주되지 않은 것이 나에게서는 인상적이었다. 청제국은 중국사의 한 시기에 불과한 청 ‘왕조’였다. 당시에 나는 청사 연구자들과 오스만 연구자들에게는 서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몇 걸음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앞서 소개한 여러 학자들은 내가 청사 연구방법이라고 부르는, 앞에서 말한 오스만 연구방법과 유사하게 접근하고 있다. 청사 연구자들 가운데 버거,

13) 플레처(1978), “Turco-Mongolian Tradition in the Ottoman Empire,” in Ihor Sevcenko and Frank E. Sysyn, eds., *Eucharisterion* (I).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Ukrainian Research Institute, pp. 240~281을 참고.

만, 히비아, 웨일리 코헨, 지토 등은 만주족과 한족 또한 몽골족의 정치적·문화적 유산 사이의 차이점을 결합하고 나아가 이를 초월하면서 청의 국가적 비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만주족의 기원과 그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제국의 문제점, 제국의 통합성을 변형시키는 능력, 젠더를 포함한 정체성과 지위의 관계, 역사서술과 집단결속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 연구자 그룹에는 포레, 어쩌면 퍼듀와 필자 자신이 포함된다. 이렇게 논평자들이나 연구사를 정리하는 학자들이 때로 필자를 ‘만주족 중심적(Manchu-centered)’ 역사가들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¹⁴⁾ 청제국 역사의 윤곽을 서술한 이 학자들은 의식적으로 ‘만주족 중심적’ 역사를 옹호하는 학자들과는 다르다. 로스키는 1995년 아시아학회 회장연설에서 청사에 만주족 중심주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엘리엇도 *The Manchu Way*에서 만주족 중심주의를 반복해서 언급했다. 엘리엇은 그의 책에서 한 차례(*The Manchu Way*, pp. 72~73) 만주족 중심주의와 청 중심주의를 동일한 역사적 관점으로 등치시킨 적이 있지만, 필자의 결론은 다르다. 이 두 관점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두 관점의 차이는 학자들마다 ‘신청사’를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대부분은 아닐지라도 미국의 많은 명청시대 역사 연구자들은 일본어를 배웠고 일본에 체류했다. 일본에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들은 여러 시기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반출된 것들이었다. 일군의 일본학자들은 만주어를 배워 가르치고, 만문 자료를 번역·전사

14) 기어쉬(Pat Giersch)(2001), “A Motley Throng’ : Social Change on Southwest China’s Early Modern Frontier, 1700~1800,” in *Journal of Asian Studies* 60-1, pp. 67~94 ; 피터 워딩(Peter Worthing)의 쉬궈치(Xu Guoqi, 徐國琦)의 *China and the Great War*,에 대한 논평, *H-War*, December 2005 참조.

하고, 팔기(八旗) 역사를 면밀히 연구했는데, 청대에 관심을 두고 이들의 연구를 읽은 학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 중 간다 노부오(神田信夫)와 오카다 이데히로(岡田英弘)가 가장 유명했다. 간다는 오카다와 다른 여러 제자들을 지도하여 현재 신청사 연구에 토대가 되는 자료들을 선별·번역·전사·해제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만문노당(滿文老檔)』이라 불린 청 초기 자료집의 몇 가지 출전을 찾아내었다. 『만문노당』은 8년간의 작업 끝에 1963년 마침내 출판되었는데, 이 자료의 원천이 된 것은 나이토 도라지로(内藤虎次郎)가 심양을 여행한 후에 일본으로 가지고 온 청대 자료 복사본이었다. 타이완에서 성장한 간다는 타이완에도 초기 만문자료가 한 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자료가 『만문노당』의 원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일본의 간다와 대략 비슷한 시기에 타이완의 학자들도 그곳의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플레처의 만주어 교사였던 구양루(廣鏞)를 포함하여 리슈에즈(李學智), 천지에시엔(陳捷先) 등 타이완 학자들은 1965년부터 선별한 이 자료들을 출판하기 시작하여 1969년 『구만주당(舊滿洲檔)』을 완간했다. 타이완 연구진과 일본 연구진은 계속 연락을 취하여 각 자료의 차이점을 검토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비교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날 만주사료연구의 대가 왕지파(王吉發)가 등장하였다.

『만문노당』을 만든 일본학자들과 신청사의 대두 사이의 관계는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다. 만주족 역사와 언어에 대한 일본의 연구는 한국과 동북지역에서의 일본 제국주의의 전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나이토 도라지로가 활동하던 시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될 때까지 일본학자들은 심양과 북경에 소장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이 청의 영토, 그리고 나중에는 중국의 영토를 침략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무엇보다도 일본학자들의 연구의 이면에 있는 개념적 배후에 의구심을 갖

는다. 간다 노부오의 팀원 가운데 일부는 일본인·한국인·만주족·몽골족이 고대부터 문화적으로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초기에 이런 주장은 일본이 중국인으로부터 청의 영토를 강탈하고 만주국을 수립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데 활용되었다. 물론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학계는 더 이상 이런 주장을 옹호하지 않았다.

그러나 간다와 오카다는 알타이 가설(假說)을 열렬히 옹호했는데, 이 주장에는 타이완학자 천지에시엔(陳捷先)도 동조했고, 독일의 만주학 연구자나 미국의 플레처 역시 지지했다. 오늘날의 언어학자들은 핀란드부터 알래스카에 이르는 지역의 언어가 몇 개의 공통 조어(祖語)에서 파생되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대담한 주장에 회의를 품고 있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비록 한국어·일본어와 이른바 알타이어군(語群)과의 관계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졌다.¹⁵⁾ 오카다 히데히로나 천지에시엔 같은 학자들에게 ‘알타이’는 하나의 어군일 뿐만 아니라 문화이기도 했다. 이 문화는 시공을 넘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유목·사냥·말과 기마 세계, 플레처의 ‘tanistry(최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공식적인 경쟁)’의 전통으로 연결시킨 것으로, 이 전통은 정주사회, 특히 중국사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¹⁶⁾

15) 알타이 가설의 등장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크로슬리(2009), “The Influence of Altaicism on East Asian Studies,” Berkeley-KU Forum on East Asian Cultural Studies 학회 발표문(Seoul), pp. 23~25 참조.

16) 켈트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tanistry’는 조상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들 가운데 후계자를 선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플레처에게 테니스트리리는 경쟁을 통해 통치권을 획득하고 남아 있는 남성 경쟁자들은 결과적으로 제거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데이비드 모건(David Morgan)은 *The Mongols* (Oxford : Wiley-Blackwell, second edition, 2007, 특히 pp. 35~36)에서 이를 “초원의 테니스트리”라고 불렀다. 플레처의 주장에 대한 비판은 콜린 헤이우드(Colin Heywood)(1997), “Turco-Mongolian Khanship? The Fletcher Thesis Reconsidered,” *The Royal Asiatic*

오늘날의 학자들은 알타이주의(Altaicism)를 입증할 수 없는 가설로 여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1930년대의 인종주의적 사고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데올로기로써, 이 가운데 일부는 독일 제3제국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한 것이었음을 지적한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간다로 대표되는 일본학자들은 대개 신청사학파의 선조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사의 뿌리 가운데 많은 부분은 이 일본학자들과 관련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구만주당(舊滿洲檔)』을 편찬한 사람들과 함께 영어권의 무수한 학자들이 만주어를 다룰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만들어내었다. 여기에는 단순히 무권점자 만문과 후대 유권점자 만문자료의 전사와 번역뿐만 아니라 일본학자들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양홍기(鑲紅旗)의 역사나 1965년에 출판된 『팔기통지(八旗通志)』 인명색인과 같은 주요 자료집도 포함된다. 1978년 제리 노만의 *The Manchu-English Lexicon*이 출판되기 전까지 만주어 연구자들은 독일어·러시아어·일본어 사전에 의존해야 했는데, 일본어 사전의 경우 1937년에 나온 하네다 토루(羽田亨)의 유명한 성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청사를 연구한 영어권 연구자들은 대학원생 시기에 일본어를 정규교과목의 일부로 공부했기 때문에, 일본어로 된 만주어 사전과 간다·오카다 등의 저작들을 통해 만주학을 접할 수 있었다.

이처럼 초창기 만주어 자료의 발전을 가져온 일본 석학들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학자가 엘리엇이다. 그는 알타이주의에 대해 간다나 오카다와 대체로 같은 관점을 갖고 있다. *The Manchu Way*는 처음부터 만주족을 ‘알타이’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글에서도 엘리엇은 만주족의 전통이라는 개념에 시간성과 깊이를 더하는 알타이 문화의 유산을 연

Society/Wellcome Institute symposium 발표논문을 참조.

급하고 있다. 그는 지아 닝[Chia Ning, 賈寧]과 함께 저술한 “The Qing Hunt at Mulan”에서는 가경제가 쓴 시가 황실 사냥의 환희와 미덕을 자랑스럽게 칭송했다는 점에서 이를 ‘알타이’적으로 설명한다.¹⁷⁾ 엘리엇은 또한 청사 연구를 ‘알타이 학파’로 묘사하면서 ‘알타이 중심적’ 관점으로 청사를 재구성하고 있다(퍼듀는 *China Marches West* 에서 이런 관점을 인용한다).¹⁸⁾ 퍼듀는 ‘알타이’를 더 광범위하게 사용하지만 언제나 인용부호로 취급하였다. 로스키는 언어학의 이론에 대해 언급할 경우에만 ‘알타이’를 사용한다. 나를 포함한 다른 학자들은 이 용어가 지닌 낭만주의적 분위기나 혹은 그 불완전한 근거 때문에 대체로 기피한다.

알타이 세계라는 개념은 1930년대, 특히 *Central Asiatic Journal*의 탁월한 학문적 성과에 의해 발전한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그저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알타이주의란 원래 언어학적 가설로, 별 근거도 없이 유목·사냥·하늘숭배·샤머니즘을 포함하는 유라시아 기원문화라는 거대 영웅담으로 점차 발전해간 것이었다. 언어학적 가설 그 자체는 인도-유럽어족의 모델에서 발전하였지만 인도-유럽어 가설의 통시적·변형적 통합성에는 다가설 수 없었다. 알타이주의자들은 투르크어·몽골어·통구스어족군 사이의 유전적 연관성의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 근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알타이어로 구분되는 언어들에서는 문법적 유사성이 가장 현저하지만 그것이 언어들 사이의 유전적 관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법적 유사성

17)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냥을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로 여기는 관리들에게 황제가 보인 반응은 조상에 대한 효성과 자긍심이 담긴 언어로 다음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즉 만주족의 이 오랜 전통과 그로 인해 황실이 얻게 된 영광은 알타이 세계와 중국 세계의 엄청난 간극이 청조의 만주족에 의해 통합되었음을 일깨워준다는 것이다.” *New Qing Imperial History*, p. 81.

18) 퍼듀, *China Marches West*, p. 542. 이 부분은 *The Manchu Way*, p. 73.

이란 우리가 ‘알타이’ 문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상 모든 언어에 옛날부터 있어 온 공통의 구조였는데 인도-유럽어와 같이 다른 언어군의 특징적인 패턴에 의해 약화되었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알타이어군은 언어 사용자 간의 무수한 접촉을 통해 점점 비슷해졌을 수도 있다. 공통 어휘, 그리고 심지어 매우 기초적인 단어에서도 알타이어에는 하나의 어군으로 여길 만한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유사성이 존재한다면 이는 대부분 언어와 언어 사이의 단어 차용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¹⁹⁾ 동일한 기원을 가진 알타이어군의 존재 가능성은 별로 없다. 나아가 알타이 문법의 특징을 지닌 언어의 사용자들이 동일한 알타이 조상의 후손이라거나 혹은 알타이 전통이 중앙아시아와 내륙아시아의 문화를 모두 아우를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타이주의라는 전통은 신청사의 몇몇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만주족과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는 일부 청대 연구자들은 알타이주의에 영감을 받아, 완전한 알타이 세계 속에 존재하는 완전한 만주족의 세계를 상정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만주족의” 혹은 “여진족의”라는 표현 대신 ‘알타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청 초기부터 만주족 문화의 핵심적인 특징은 태곳적부터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청사의 핵심적인 문제를 건드리게 된다. 즉 청대 만주족의 문화는 초기부터 명확한 기원이 있었고 이 기원이 청대 만주족 문화와 공동체의 외관을 결정했으며, 청제국에서 만주족은 하나의 집단이었기 때문

19) 최근의 언급으로는 여러 저서 가운데 다음을 참조. Alexander Vovin(2005), “The end of the Altaic controversy” (review of Starostin et al. 2003) in *Central Asiatic Journal* 49-1, pp. 71-132 ; Johanna Nichols(1992), *Linguistic Diversity in Space and Time*.

에 그 기원은 ‘종족적(ethnic)’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족성이라는 문제는 몇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누르하치가 처음 팔기를 조직하던 시기에 만주족의 문화라는 것이 모든 여진족 가호(家戶)에서 얼마나 통일적으로 존재했고 어느 정도 기능을 발휘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누르하치 시기 요동(현재의 요녕성)지역에서 지금의 흑룡강성과 남쪽으로 현재 북한에 이르는 지역은 경제적·언어적·사회적 다양성이 폭넓게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폭넓은 다양성 속에서 동몽골인·조선인·여러 통구스어 연맹에 속한 개인들이 누르하치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때로 누르하치는 자신의 백성들을 문화적 정체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꺼린 것 같다(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누르하치의 영역이 서쪽으로 확장되어 한어사용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언어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권력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유용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팔기의 선조는 누르하치 자신의 호위부대, 사냥에서의 동반자이자 가호의 경호원이었다. 대략 1601년부터 이 집단들을 개조하여 새로운 국가가 백성을 통치하는 초기 기반으로 삼았다. 당시 정복·협박·유인, 그리고 악정(惡政)에 시달린 지역에서 인심을 얻게 된 결과,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었다. 『팔기통지』와 여러 전기류를 확인한 결과 나는 누르하치의 국가는 이들 집단을 형성하게 하고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족보를 만들게 하였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누르하치 이후 청 조정은 정복과 통치의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만주족의 정체성과 소속을 자의적으로 이용해왔다.

‘만주족 중심주의’ 역사학자들은 만주족이 다른 집단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그들만의 통일된 지속적 문화를 지니고 있었기에 ‘종족적’이라고 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필자가 문제삼는 것이 바로 ‘종족적’이라는 용어이다. 필자 역시 만주족이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여겼다고 생

각하며, *Orphan Warriors*에서 계속 주장한 바이다. 하나의 집단으로서 자신을 다른 집단과 다르게 인식했다는 것은 분명 문화적 현상이다. 그러나 집단 간의 차이를 ‘종족적’으로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이래, 유럽의 역사가들이 ‘종족’이나 혹은 그에 해당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특정한 상황을 설명할 때이다. 즉 정책을 입안하고 역사를 서술하는 국가 기관이 특정 문화집단을 비정상적·주변적·이질적·비영구적·야만적(즉 소수재)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같은 국가기관이 정상적, 중심적, 고전적, 영구적, 문명적이라고 해석한 문화적 정체성들과도 공존해왔다. 중국어에서도 이와 관련된 용어는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 발달해 있으며, 만주어에서도 마찬가지로(그러나 이 용어들이 의미하는 대상은 언어마다 다른데, 이는 신성사학파가 보여주는 중요한 통찰력이다). 1980년대 유럽과 북미의 문화연구는 엄밀한 의미의 종족성이 근대적 정체성과 결합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민족적 정체성이 계층, 대중적 묘사, 이데올로기로부터 새롭게 파생되어 나오면서 대신 언어·복식·거주지·종교와 같은 관습적인 기준들이 배제되는 과정을 탐색해왔다. 동시에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과학이 여전히 지배적인데, 여기에서는 ‘객관적’ 차이에 대한 스탈린주의적 기준을 사용하여 ‘소수민족’을 열거하고 있다. *Orphan Warriors*에서 나는 기본적으로 한족의 민족주의화 과정과 더불어 중원의 만주족이 종족적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만주족은 한어를 사용하고, 한족식의 이름을 가졌고, 한족 복장을 입고, 한족처럼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한족과 다르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이는 근대의 상황으로 유럽사와 중국사에서 오래 사용된 종족적 용어와 개념에 의하면 종족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이러한 견해는 태평천국시기에 많은 만주족 공동체가 파괴되고 19세기 말 팔기주방에 대한 청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급속히 감소하기 시

작한 이후의 만주족의 상황에 대한 것이다. 일부 만주족 공동체가 계속 존재하고 자신들을 점차 ‘만주족’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19세기 종족적 실체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이런 식의 종족적 주변부화나 공동체적 연대감이 존재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나아가 그러한 상황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국가가 만주족 정체성의 기준, 예를 들면, 만주어를 말하고 쓰는 것, 무술을 익히는 것, 소집되고 봉급을 받으면서 군대에 복무하는 것, 주방 안에 거주하는 것을 강력하게 강제했기 때문이었다. 기인들 대부분이 이런 요구를 회피하거나 혹은 따를 수 없었다는 증거는 무수히 많다. 불법적으로 주방을 벗어난 많은 기인들이 문화적 혹은 종족적 연대감에 기초한 새로운 만주족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볼 수는 없다. 초기 만주족의 신분과 문화적 상황은 내가 종족이라고 생각하는 청대와 명대의 집단-회족(回族)·이족(彝族)·다이족(傣族)·단가(蠻家) 등과는 매우 달랐다. 국가의 속박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동체는 때로 문화적 소수자집단으로서 살아남았다. 반면 만주족은 국가로부터 다른 민족과 차별적인 문화적 행동을 지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경우 포상을 받았다. 만주족의 차별된 문화는 국가의 의례, 기념물, 역사 서술에서 사실상 중심의, 우월한, 정통의 문명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는 종족적 상황에 모든 면에서 상반되는 것이다. 이런 속성이 사라지고 일부 만주족 공동체가 자신들의 문화적 사회적 에너지를 지켰을 때에만 만주족은 종족으로서의 특질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신청사의 관점은 다르다. 예를 들어 엘리엇은 그가 ‘종족주권’이라 부르는 하나의 분명한 현상으로 만주족을 묘사한다. 그에게 이 말은 다른 집단과 문화적으로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제국 내에서 하나의 통치계급, 혹은 우월하고 중심적인 문화집단으로의 역할을 지녔음을 뜻한다. 내가 추측컨

대, 영국지역에서의 로마인 경우가 이 ‘종족주권’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다음의 한 가지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만약 우리가 ‘종족성’을 단순히 ‘문화적 차별성과 응집성’을 가리키는 말로 생각한다면, 모든 문화집단은 종족집단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종족적 경험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서술과 분석상의 용어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국가의 조세 징수·군사점령·동화정책으로부터 자신들의 신념·관습·역사적 관점, 그리고 언어를 지켜내고자 하는 공동체도 ‘종족’이 되고, 국가가 한 집단의 지위를 승격시키고 그들에게 문화적 속성을 부과하고 강제하며 이에 대한 복종의 댓가로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이들은 ‘종족’이 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는 신청사의 의미 있는 서술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엘리엇은 *The Manchu Way*에서 언어는 종족성의 근본적인 요소이며 그러한 종족성은 중국에서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역설하는데, 이는 근대적 정체성에 대한 비교문화학의 입장에서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대 초기에 만주족이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이 종족성이 제국의 정복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주장하는 신청사의 기본적 전제 역시 충격적이다. 웨일리 코헨, 엘리엇, 퍼듀 등은 모두 청의 군사적 우수성을 논할 때 특히 만주족의 고유 요소들을 강조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엘리엇은 이것은 알타이 전통의 유산이며 황실 수렵에 의해 강화되었다고 여긴다. 더 나아가 엘리엇은 만주족의 문화적 일관성(그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의 ‘종족성’) 덕분에 황제권은 전장에서나 점령과정에서 예외적으로 강력한 응집력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만주족은 ‘엄격한 군사생활’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호전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청조의 정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다.²⁰⁾ 내가 보기에 이런 주장은 탈영·불법적인 주방 외 거주, 그리고 증원을 정복한 초기부터 팔기가 제도로서 유지된 마지막 시기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주방의 만주족들이 예술 속에서 창의적인 삶을 추구하였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청조의 정복과정에 특별히 만주족적인 것이 있다는 생각과 제국 자체가 ‘만주족적’이라고 여기는 생각은 논리적으로 쉽게 연결된다. 이 분야의 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청을 설명하는 데 ‘만주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청의 정복 시기에 대해 ‘만주 제국주의’, ‘만주 식민주의’, ‘만주(족의) 정복’이라고 표현한다. 로스키, 퍼듀, 웨일리 코헨, 히비아, 밀워드, 엘리엇, 지아 닝 등의 중진 연구자들이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브로피(David Brophy), 김(Loretta Kim), 그리고 마(Haiyun Ma)와 같은 소장학자들 역시 이런 용어를 수용한다.

로스키나 퍼듀 등의 신청사 연구자들이 청조의 정복에서 만주족의 특징(Manchuness)이 진정 결정적인 요소였다는 관점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퍼듀는 “만주 식민주의”를 주제로 한 1998년 *International History Review*의 편집자였는데, 만주 식민주의에서 정확히 무엇이 만주적인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고,²¹⁾ 다른 논문의 저자들도 ‘만주’보다는 ‘청’을 더 많이 사용했다.²²⁾ 이 경우 ‘만주’는 청나라의 역사가 중국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다소 경솔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엘리엇은 다른 학자들과는 달리 이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었고, *The*

20) *The Manchu Way*, p. 525.

21)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20호, 제2권.

22) 퍼듀를 포함하여 니콜라 디 코스모, 웨일리 코헨, 도로씨야 허서트(Dorothea Heuschert), 엘리엇 스펠링(Elliott Sperling), 엠마 진화 텅(Emma Jinhua Teng), 그리고 마이클 애더스(Michael Adas)가 비교 토론에 참여했다.

*Manchu Way*의 결론 부분에서 만주제국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팔기부대가 전투에서 독특한 응집력을 보였다라는 주장에 덧붙여 엘리엇은 만주족이 만리장성을 무시하였던 경향으로 인해 제국의 정치적·행정적 구조가 달라졌다고 여긴다.²³⁾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람들과 영토가 만주제국 아래 하나의 정치체제로 통합되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사실 엘리엇은 1957년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거대한 지리적 영토는 “청제국의 유산”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만주족의 손길을 아직도 느낄 수 있다”(엘리엇의 표현)고 주장하는데 이는 여러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복의 역사는 청나라의 중원정복이 만주족의 종족적 성공비결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었던 업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도르곤과 같은 만주족 지휘관은 분명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1644년 청으로 투항하기 전까지 명조를 섬겼던 동북출신의 오삼계 역시 중요한 인물이었다. 청군이 양자강 이남으로 진격했을 때 병사의 대부분은 명을 배신한 자들이거나 혹은 한족들 가운데 새로 투항한 자들이었다. 팔기병 가운데에서도 만주족은 소수였고, 18세기에 행정적 조치에 의해 한군팔기(漢軍八旗)가 걸리진 후에야 비로소 만주족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웨일리 코헨 자신이 설명했듯이, 청이 정복에 성공한 것은 대포와 총기를 도입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 무기들은 청에 앞서 명이 먼저 사용하던 것이었다. 사실 1618년 여진족이 처음 무순을 공격했을 때 요새에서 발사된 대포에 말이 놀라는 바람에 무수한 여진병사들이 낙마했다. 이때부터 누르하치는 대포를 사들였고 또한 대포를 제작·수리·운반·발포할 줄 아는 한족들(이들이 한군팔기의 기원이 되었다)을 불러들이는 데 노력하였다. 지도를 제작한 예수회 선교사, 중앙아시아의 말, 중원의 수레와 보급

23) *The Manchu Way*, 357~358쪽.

품 및 거대한 군사력(팔기가 그 군사력의 일부를 구성하였고, 나아가 팔기 역시 그 일부만이 만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청의 성공과 관련되어 있었다. 강희제는 개인적으로 그의 모든 국가사업에서 열성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활용하였는데, 청의 정복군 구성에 있어서 바로 이 점이 만주족 문화의 지속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강희제는 그의 아들들, 특히 옹정제와는 이런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지 못했다. 군사적 성공에 있어서 어떤 문화적 요소가, 비록 만주족 문화의 요소라고 하더라도, 경제적·물질적 요인보다 더 중요했다는 주장은 매우 야심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주족이,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청조가, 만리장성을 무시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이것은 『대의각미록(大義覺迷錄)』과 『이신전(貳臣傳)』 등 18세기 역사서의 핵심 주제였지만, 만리장성에 대한 무시 혹은 집착이 청제국의 특성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는 그리 명확하지 않다. 더 중요한 문제는 청제국은 중국 내 모든 문화를 인정하거나 혹은 수용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청의 정복과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문화들을 역사화하고 목록화하는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제국 내의 다른 문화적·경제적 차이들은 명대로부터 계승된 토사(土司)제도를 통해 관리되거나 혹은 전면적인 점령과 강제적인 동화를 통해 통제되었으며, 이는 모두 중국의 서남부에서 실시되었다. 중원의 중부지역이나 동투르크스탄의 이슬람교도들은 청의 지배를 거부한 몽골부족도 마찬가지로 의구심과 경멸의 대상이었다. 필자가 생각하건대 저우언라이의 언급은 변경지역 통치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정통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당시 관변 역사가들은 만주족이 완전히 동화되었기 때문에 청의 정복은 중국의 정복이며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모든 변경지역을 통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독자

들은 이 선언의 이면에서 ‘만주족의 손길’이 아니라 ‘지평’과 구청사의 유령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보건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만주제국’(만주 제국주의, 만주 식민주의 등등)이라는 용어들이 제국이라는 의미 자체를 넌센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기반과 행정의 향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던 홍타이지 시기 이래 제국은 그 안에 여러 통치체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팔기는 하나의 통치체제였고, 이변원(理藩院)의 전신인 ‘몽고아문’도 하나의 통치체제였으며, 1621년 심양을 정복하고 흡수한 한족의 성단위 행정구조 역시 하나의 통치체제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각각의 권한이 팽창하면서 더욱 복잡해져갔다. 각각 분리된 이 통치체제는 황실과 연계되어 있다. 더욱이 청의 황제권과 국가는 세심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표현체(presentation)였으며, 17세기 말과 18세기에 걸쳐 스스로 정당성을 지닌 통치권으로 발전하였고 그 관할영역은 다만 문화적 지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청의 정복에 기여하고 이를 정당화시켰던 지역의 역사는 황제권을 창출한 근거지로 성문화되었고 그 황제권은 이 역사 서술의 언어-만주어·몽골어·한어·티베트어, 그리고 건륭 후기에 이르면 위구르어-들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이런 방식이 청나라에서만 나타났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동시성(simultaneous quality)은 바로 건륭제시기에 가장 정교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²⁴⁾

국가와 통치권의 연대기 역시 ‘만주제국’이라는 주장과 잘 부합되지 않는다. 누르하치가 자신을 여진족의 칸으로, 그리고 여진족으로 여겼다는 증거는 있다. 누르하치의 정권은 아마도 순수하게 여진족 칸의 나라였을 것이다. 이는 1636년 홍타이지가 여진족 칸의 나라와 차하르 칸의 나라를 통합하면서부

24)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A Translucent Mirror* 참고.

터 바뀌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청제국의 발전과 관련된 별개의 문화들을 표준화시키고 전시하고 후원하는 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 작업은 강희 재위 시기에도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건륭 연간에 최고조에 달했다. 이와 동시에 황제권 자체가 점차 추상화되어 건륭 연간에 이르면 황제는 자신을 특정 문화에만 관련된 존재로 표현하거나 설명하지 않게 되었다. 황제는 이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존재였다. 강희와 건륭 사이의 옹정 연간은 아직 불가사의한 시기로 남아있다. 부친인 강희제와 마찬가지로 옹정제는 자신에게 만주족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여겼고, 한족 엘리트에게 만주족의 문화를 정당화시키는 작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옹정제의 감정 표현은 그의 아들인 건륭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건륭제는 만주족을 청 황제권과 청제국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요소 중 한 부분으로 인식한 과거의 경향으로 되돌아갔다. 만주족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만주족의 풍습을 언급할 때 강희제와 건륭제는 “우리의 만주족[musei manjusa/i]”이라고 하였지 “우리 만주족[muse manjusa]”이라고 하지 않았다.²⁵⁾

강희제와 건륭제는 모두 그들이 통치한 국가를 ‘만주제국’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홍타이지가 명명한 다이칭[大淸]이라는 국호 외에 다른 어느 이름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황제권을 “만주족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건륭 연간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청제국의 특징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신청사의 진정한 업적이었던 청대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만주족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인식으로 청대의 거대한 정복을 설명하고 복잡한 제국의 통치권을 단순화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제국의 현실을 부정하고 초기 만주족 칸[汗]

25) 필자가 알고 있는 유일한 예외 사례는 엘리엇이 지적한 바 있는 옹정제의 언급뿐이다 (Elliott, *The Manchu Way*, p. 261).

국가의 연장선으로서 청나라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로 전체를 설명하는 논리를 넘어 일부가 전체를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만주제국”이라는 개념 아래에서는 만주족의 문화·정체성·관습·팔기 조직, 이 모든 것이 청제국 자체와 동일한 존재가 된다. 결국 만주족을 제국의 산물로 여기는 대신(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는 만주족뿐만 아니라 몽골족과 한족 등 다른 집단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제국이 만주족의 산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만주중심적’ 역사와 제국의 진정한 역사 사이에는 갈등이 일어나며 이 갈등이야말로 장래 청대 연구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번역 : 김선민(고려대학교)



일본의 청조사 연구

최근 20년간의 동향과 과제

일본 고쿠시칸 대학 이시바시 다카오

- I. 머리말
- II. 사료(1)
- III. 사료(2)
- IV. 맺음말



일본의 청조사 연구

최근 20년간의 동향과 과제

일본 고쿠시칸 대학 이시바시 다카오

I. 머리말

일본의 청조사 연구는 21세기에 들어서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청조사의 각 연구분야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총괄함과 동시에, 새롭게 대두한 문제를 제시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혹은 세기말이라는 100년에 한 번 있는 전환기를 앞에 두고, ‘전후(戰後)’라는 특별히 긴 시간을 가졌던 일본의 역사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 규모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세계의 역사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1945년 이후의 20세기 후반을 매듭짓고자 하는 역사 연구자 특유의 의식이 작용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어찌되었든 21세기도 10년이나 넘기고 있는 지금 일본의 청조사 연구를 정리해두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뜻밖에도 대한민국의 연구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근 일본의 청조사 연구를 정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고마운 마음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다행이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기로 했다. 제안은 ‘최근 10년 내지 15년간의 동향’이었지만, 일본의 연호(年號)가 쇼와(昭和)에서 헤이세이(平成)으로 바뀐지 20년이 되

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헤이세이 시기 20년간을 주로 다루기로 했다. 부제(副題)를 “최근 20년간의 동향과 과제”라고 붙인 것은 이 때문이다.

II. 사료(1)

청조 혹은 청조의 통치 영역, 나아가 청조와 관련된 주변의 여러 영역에 대한 역사 연구에서 무엇을 문제로 삼으면 좋을까?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대청국(大清國)을 청조(淸朝)로서 다루는 것으로 충분한가? 대청국이란 무엇인가? 청조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이 해명되었는가?

이런 문제들은 지금으로부터 35년여 전에 졸업논문 마감일을 앞두고 암중 모색하던 필자가 계속해서 맞닥뜨렸던 의문이다. 그 후 오랜 시간에 걸쳐 필자 나름대로 대청국 혹은 청조와 마주하며 겨우 일말의 단서를 얻었지만, 환갑을 앞둔 지금도 여전히 같은 의문을 품고 있다. 그러므로 아는 한도 내에서 먼저 청조 혹은 대청국과 관련된 문제점을 총괄하고, 각 연구분야별로 연구성과를 열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대전제로서, 장성(長城) 밖에서 이미 성립해 있던 다이칭(daicing)제국에 1644년 이후 청조로서의 성격도 덧붙여지지만, 대청국과 청조는 항상 하나였다고 하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양자는 하나인 채로 약 270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친 변천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낳았다. 이시바시 히데오[石橋秀雄]은 「대청국의 국서[大清國の國書]」(『歴史と地理』, 世界史の研究 162, 山川出版社, 1995)에서 광서 연간 국서(國書)의 표지(表紙)의 만한합벽(滿漢合璧) 표기가 “amba daicing gurun i gurun i bithe[大清國國書]”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이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청말에는 국호(國號)인 대청(大清)에 대한 만주어 표기가 청초기

의 ‘daicing(번역하면 大清)’에서 ‘amba daicing(번역하면 大大清)’으로 변화하고 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1912년 청조의 멸망이 국가 형태로서는 종말이었지만, 마지막 황제로 알려진 아이신기오로 푸이(愛新覺羅溥儀)는 1924년까지 선통제로서 자금성의 내정(內廷)에서 계속 거주했고, 그 사이 1917년의 복벽운동을 거쳐 1934년에는 만주국 황제에 즉위하는 역사상의 과정이 뒤따랐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대청국의 변천을 개괄한 예는 매우 적어서, 개설이나마 이시바시 다카오(石橋崇雄)의 「청(靑)」(愛宕元・森田憲司 編, 2005, 『中國の國史』(下) 近世-近現代, 昭和堂), 히라노 사토시(平野聰)의 『대청제국과 중화의 혼미(大清帝國と中華の混迷)』(興亡の世界史 17, 講談社, 2007), 오카다 히데히로(岡田英弘) 편, 『청조란 무엇인가(靑朝とは何か)』(別冊『環』⑥, 藤原書店, 2009) 등을 꼽는 데 불과하다.

일반적으로는 대청국과 청조를 별개로 취급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거로 이용하는 주요한 사료기사에 있어 한문과 한문 외의 각 언어, 판도 내의 중국 내지·동북지방·변부(藩部)의 각 지역, 청초·중기·청말 등으로 구분되는 각 시대, 정치·경제·군사·민족·종교·사회·기술·문화·언어·문헌 등의 각 연구분야로 나누어져, 상호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절된 연구가 이루어져 온 것이다. 심지어 정치 분야만을 보아도 내정·외정·중앙·지방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재분화(再分化)의 경향은 다른 연구분야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지엽을 아무리 상세하게 보아도 줄기나 전체상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20세기에서 21세기로 이행하는 시기에 이루어진 각 연구분야에 있어서의 연구성과의 총괄도 이러한 염려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 즈음에 출간된 모리 마사오(森正夫) 편, 『명청시대사의 기본문제(明清時代史の基本問題)』(中國史學の基本問題 4, 汲古書院, 1997)는 이러한 문제의 소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논문을 여러 편 수록하고 있어 중요하다. 기념논집류는 각 연구분야의

범위를 넘어 다수의 집필자가 논문을 제공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로 이어지는 시사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생각나는 대로 간행된 시기 순서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1988), 『榎博士頌壽記念東洋史論争』, 汲古書院.
- (1992), 『神田信夫先生古稀記念論集・清朝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 史學會 編(1992), 『アジア史からの問い』, 山川出版社.
- (1993), 『小冷賢一君記念論集』, 東大文學部中文研究室.
- (1993), 『柳田節子先生古稀記念・中國の傳統社會と家族』, 汲古書院.
- (1994), 『和田博得教授古稀記念・明清時代の法と社會』, 汲古書院.
- (1994), 『松村潤先生古稀記念・清代史論叢』, 汲古書院.
- 野口鐵郎 編(1994), 『筑波大學創立20周年記念東洋史論集・中國史における教と國家』, 雄山閣出版.
- 石橋秀雄 編(1995), 『清代中國の諸問題』, 山川出版社.
- 中央大學東洋史學研究室 編(2000), 『菊池英夫教授・山崎俊男教授古稀記念アジア史論叢』, 刀水書房.
- 明代史研究會 編(2003), 『明代史研究會創立三十五年記念論集』, 汲古書院.
- 川越泰博 編(2004), 『中央大學川越研究室二十周年記念・明清史論集』, 國書刊行會.
- (2007), 『山根幸夫教授追悼記念論叢・明代中國の歴史的位相』上・下卷, 汲古書院.
- 細谷良夫 編(2008), 『清朝史研究の新たなる地平-フィールドと文書を追って』, 山川出版社.

마찬가지로 특정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논문집도 시대나 지역을 초월하여 여러 집필자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빠뜨릴 수 없다. 청조사 논문을 포함하고 있는 논문집 중에 수중에 있는 것만을 역시 공개적으로 간행된 시기 순서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岩見宏・谷口規矩雄 編(1989), 『明末清初期の研究』,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中國史研究會 編(1990), 『中國專制國家と社會統合』, 文理閣.

鈴木健一 編著(1992), 『アジア教育史研究の基礎的課題』, 近畿大學教育研究所.

森正夫 編(1992), 『江南デルタ市鎮研究-歴史學と地理學からの接近』, 名古屋大學出版會.

梅原郁 編(1993), 『中國近世の法制と社會』,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滋賀秀三 編(1993), 『中國法制史-基本史料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神田信夫 編(1994), 『日本所在清代檔案史料の諸相』, 東洋文庫清代史研究室.

竹村卓二 編(1995), 『儀禮・民族・境界』, 風響社.

溝口雄三 編(1995), 『社會と國家』, 東京大學出版會.

溝口雄三 編(1995), 『周緣からの歴史』, 東京大學出版會.

小野和子 編(1996), 『明末清初の社會と文化』,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山本英史 編(2000), 『傳統中國の地域像』, 慶應義塾大學出版會.

夫馬進 編(2000), 『中國明清檔案の研究』, 京都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東洋史研究室.

森時彦 編(2001), 『中國近代の都市と農村』,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伊原弘・小島毅 編(2001), 『知識人の諸相—中國宋代を基点として』, 勉誠出版.

東アジア研究会 編(2001), 『東アジア經濟の軌跡』, 青木書店.

歴史學研究会 編(2001), 『戰爭と平和の中近世史』, 青木書店.

石井三記ほか 編(2001), 『近代法の再定位』, 創文社.

中國史學會 編(2002), 『中國の歴史世界—統合のシステムと多元的發展』
(東京都立大學出版會).

學史學研究会 編(2002), 『歴史學における方法的轉回』, 青木書店.

岩井茂樹 編(2004), 『中國近世社會の秩序形成』, 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森時彦 編(2004), 『中國近代化の動態構造』,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夫馬進 編(2007), 『中國東アジア外交交流史の研究』, 京都大學學術出版會.

藤井讓治・杉山正明・金田章裕 編(2007), 『大地の肖像—繪圖・地圖が語る世界』, 京都大學學術出版會.

加藤雄三・大西秀之・佐々木四郎 編(2008), 『東アジア内陸世界の交流史』, 人文書院.

懷堂記念會 編(2008), 『世界史を見直す・日本史を見直す—阪大史學の挑戦—』, 和泉書院.

左近幸村 編(2008), 『近代東北アジアの誕生—跨境史への試み』, 北海道大學出版會.

中央大學人文科學研究所 編(2009), 『檔案の世界』, 中央大學出版部.

조금은 두서가 없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청조 혹은 청대 중국에 관한 연구대상 범위의 폭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감히 선학에 대해서 실례를 범한다면, 이 정도의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으면서도, 대청국

혹은 청조의 줄기나 전체상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그러면 대청국과 청조의 문제로 시각을 좁히는 경우, 어떠한 동향과 과제가 남아 있을까?

Ⅲ. 사료(2)

먼저 대청국과 청조에 관련된 문제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관건이나 주요한 선행 연구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국 역대왕조로서 위치시키는 연구 및 정통성을 둘러싼 문제

足立啓二(1998), 『專制國家史論－中國史から世界史へ』, 柏書房.

石橋崇雄(1997), 「マンジュ(manju, 滿洲) 王朝論－清朝國家論序説」, 『明清時代史の基本問題』.

石橋崇雄(1998), 「清朝國家論」, 『岩波講座世界歴史』 13.

石橋崇雄(1999), 「多民族國家清朝をめぐる－歴史上の位置付け・時代区分・支配構造・正統性の問題を中心として－」, 『歴史と地理』(世界史の研究 179).

石橋秀雄(1989), 『清朝史再考－明末清初と五族の中國』, 清朝史研究刊行會.

石橋秀雄(1993), 「清初のハンHan－太祖から太宗」, 『歴史と地理』(世界史の研究 155).

石橋秀雄(1995), 「清朝入關後のマンジュ(Manju) 滿洲の呼稱をめぐる－『御製清文鑑』と『滿洲源流考』を中心に－」, 石橋秀雄 編, 『清代中國の諸問題』.

伊東貴之(2008), 「明清交替と王權論－東アジアの視点から」, 『武蔵大學人文學會雑誌』 39-3.

- 片岡一忠(2008), 『中國官印制度研究』, 東方書店.
- 神田信夫(2005), 『清朝史論考』, 山川出版社.
- 谷井俊仁(1994), 「明清近世論」, 『古代文化』 46-11, 財團法人學會誌刊行センター.
- 谷井俊仁(2005), 「一心一德考－清朝における政治的正當性の論理」, 『東洋史研究』 63-4.
- 谷井陽子(1996), 「清朝漢地征服考」, 小野和子 編, 『明末清初の社會と文化』.

2. 북아시아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연구 및 정통성을 둘러싼 문제

- 河内良弘(1992), 『明代女眞史の研究』, 同朋舎出版.
- 石橋秀雄・石橋崇雄, 앞의 글.
- 江嶋壽雄(1999), 『明末清初の女直史研究』, 中國書店.
- 楠木賢道(1990), 「明代三萬衛女直軍官の動向」, 『史峯』 1, 筑波大學東洋史談話會.
- 承志(Kicengge)(2009), 『ダイチン・グルンとその時代－帝國の形成と八旗社會－』, 名古屋大學出版會.
- 平野聰(2007), 『大清帝國と中華の混迷』(興亡の世界史17), 講談社.
- 細谷良夫(1990), 「清朝勃興期の史跡－遼東邊牆と城郭を中心に」, 『秋大史學』 36.
- 増井寛也, 「明末建州女直のワンギヤ部とワンギヤ・ハラ」, 『東方學』 93, 1997.
- 増井寛也(1998), 「明代建州女直マギヤ・ハラ考」, 『立命館文學』 554.
- 増井寛也(1999), 「明末建州女直の有カムクン〈シャジのフチャ・ハラ〉について」, 『立命館文學』 559.
- 増井寛也(1999), 「明末のワルカ部女直とその集團構造について」, 『立命館文學』 562.
- 増井寛也(2003), 「明末の海西女直と貢勅制」, 『立命館文學』 579.

3. 한(Han)권과 황제권을 둘러싼 문제

- 石橋崇雄(1988), 「清初한(han)權の形成過程」, 『榎博士頌壽記念東洋史論叢』.
- 石橋崇雄(1994), 「清初皇帝權の形成過程—特に『丙子年四月<秘録>登한大位
權』にみえる太宗ホン=タイジの皇帝即位記事を中心として—」, 『東洋史研究』
53-1.
- 石橋崇雄(1998), 「清朝の支配權と典禮—特に清初前期における한權・皇帝權と
即位儀禮・祭天典禮の問題を中心として—」, 『王權のコスモロジー』.
- 石橋秀雄, 「清初の한Han—太祖から太宗」, 앞의 책.
- 谷井陽子(2004), 「清朝入關以前の한權力と官位制」, 岩井茂樹 編, 『中國近世社
會の秩序形成』.

4. 청조로서의 시대구분과 국가구조를 둘러싼 문제

- 石橋崇雄, 「만จู(manju, 滿州) 王朝論」・「清朝國家論」, 앞의 책.
- 楠木賢道(2000), 「天聰5年大凌河攻城戰からみたアイシン國政權の構造」, 『東洋史
研究』 59-3.
- 杉山清彦(2001), 「大清帝國史のための覺書—セミナー「清朝社會と八旗制」をめぐっ
て」, 『滿族史研究通信』 10.
- 杉山清彦(2007), 「大清帝國の政治空間と支配秩序—八旗制下の政治社會・序論—」,
『文獻資料學の新たな可能性③』(大阪市立大學東洋史論叢別冊特集號).
- 杉山清彦(2008), 「清代만จู(滿州)人の「家」と國家—辭令書と系圖が語る秩序」,
加藤雄三・大西秀之・佐々木四郎 編, 『東アジア内海世界の交流史』.
- 杉山清彦(2008), 「大清帝國史研究の現在—日本における概況と展望—」, 『東洋文
化研究』 10, 學習院東洋文化研究所.
- 杉山清彦(2008), 「大清帝國のマンチュリア統治と帝國統合の構造」, 左近幸村 編,

- 『近代東北アジアの誕生－跨境史への試み』.
- 杉山清彦(2008), 「大清帝國の支配構造と八旗制－マンジュ王朝としての國制試論－」, 『中國史學』 18.
- 鈴木眞(2001), 「雍正初年の戸部銀庫虧空事件からみた清朝支配構造の特質」, 『東洋學報』 83-3.
- 鈴木眞(2003), 「諸阿哥分封からみた康熙朝政權中樞の權力構造」, 『史峯』9.
- 鈴木眞(2007), 「清朝入關後, 旗王によるニル支配の構造－康熙・雍正朝を中心に」, 『歴史學研究』 830.
- 谷井俊仁(1994), 「順治時代政治史試論」, 『史林』 77-2.
- 谷井陽子(2005), 「八旗制度再考(1) 連旗制批判」, 『天理大學學報』 56-2.
- 谷井陽子(2006), 「八旗制度再考(2) 經濟的背景」, 『天理大學學報』 57-2.
- 谷井陽子(2007), 「八旗制度再考(3) 財政構造」, 『天理大學學報』 59-1.
- 三宅理一(2009), 『ヌルハチの都－滿洲遺産のなりたちと變遷』, ランダムハウス講談社.

5. 국가제사와 종교의 문제

- 井淺井紀, 『明清時代民間宗教結社の研究』, 研文出版.
- 石橋崇雄(1995), 「清初祭天儀禮考－特に『丙子年四月(秘錄)登ハン大位檔』における太宗ホン=タイジの皇帝即位記録にみえる祭天記事を中心として－」, 『清代中國の諸問題』.
- 井上徹(2000), 『中國の宗族と國家の禮制－宗法主義の視点からの分析』, 研文出版.
- 小田則子(1994), 「清朝と民間宗教結社－嘉慶帝の「邪教説」を中心として」, 『東方學』 88.

6. 개인사회 내부의 권력구조와 권력투쟁의 문제-청말 이전의 각 시기와 청말 이후

石橋崇雄(2000), 『大清帝國』, 講談社.

石橋秀雄(1989), 『清代史研究』, 綠蔭書房.

石橋秀雄(1992), 「清初のエージェンツ-太祖・太宗期を中心に」, 『神田信夫先生古稀記念論集・清朝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磯部淳史(2006), 「順治帝即位をめぐる黄旗旗人の動向について-バブハイ斷罪事件を例として」, 『立命館東洋史學』 29, 立命館東洋史學會.

磯部淳史(2007), 「清朝順治初期における政治抗争とドルゴン政權-八旗制度からの考察を中心に」, 『立命館東洋史學』 30.

磯部淳史(2008), 「清初入關前の内三院について-その構成員を中心に-」, 『立命館文學』 608, 立命館大學人文學會.

磯部淳史(2009), 「順治朝における皇帝・旗王關係についての一考察-順治八年~十二年の政局をめぐる-」, 『立命館東洋史學』 32.

杉山清彦(2003), 「ヌルハチ時代のヒヤ制-清初侍衛考序説-」, 『東洋史研究』 62-1.

鈴木真(2001), 「雍正帝と藩邸舊人」, 『社會文化史學』 42.

中村哲夫(1998), 「光緒新政への政策轉換の背景」, 『史學雜誌』 107-1.

細谷良夫(1993), 「布山總兵官考」, 『神田信夫先生古稀記念論集・清朝と東アジア』.

細谷良夫(1994), 「烏真超哈(八旗漢軍)の固山(旗)」, 『松村潤先生古稀記念・清代史論叢』.

細谷良夫(1995), 「清朝中期の八旗漢軍の再編成」, 石橋秀雄 編, 『清代中國の諸問題』.

細谷良夫(2001), 「三藩の亂をめぐる」, 歴史學研究會 編, 『戦争と平和の中近世史』.

- 細谷良夫(2007), 「明朝の武將尙可喜－後金國へ歸順した経緯」, 『東北大學東洋史論集』 11.
- 細谷良夫(2008), 「清末の漢軍旗人－尙氏一族をめぐる」, 細谷良夫 編, 『清朝史研究の新たなる地平－フィールドと文書を追って』.
- 松浦茂(1995), 『清の太祖ヌルハチ』, 白帝社.
- 村上信明(2007), 「清朝の蒙古旗人－その實像と帝國統治における役割」, 風響社.
- 柳澤明(2001), 「八旗再考」, 『歴史と地理』(世界史の研究 185).
- 綿貫哲郎(2000), 「いわゆる「八旗世襲譜檔」について」, 『滿族史研究通信』 9.
- 綿貫哲郎(2003), 「「六條例」の成立－乾隆朝八旗政策の一断面」, 『社會文化史學』 45.
- 綿貫哲郎(2008), 「「世職根源冊」からみた清初の降清旗人」, 『史叢』 78, 日本大學史學會.

7. 기인사회 내부의 권력구조와 권력투쟁의 문제(혈연제·혼인제)

- 楠木賢道(1999), 「清初, 入關前におけるハン・皇帝とホルチン部首長層の婚姻關係」, 『內陸アジア史研究』 14.
- 杉山清彦(1998), 「清初正藍旗考－姻戚關係よりみた旗王權力の基礎構造」, 『史學雜誌』 107-7.
- 杉山清彦(2001), 「清初八旗における最有力集團－太祖ヌルハチから攝政王ドルゴンへ」, 『內陸アジア史研究』 16.
- 杉山清彦(2001), 「八旗旗王制の成立」, 『東洋學報』 83-1.
- 杉山清彦(2004), 「漢軍旗人李成梁一族」, 岩井茂樹 編, 『中國近世社會の秩序形成』.
- 杉山清彦(2008), 「清初八旗制下のマンジュ氏族」, 細谷良夫 編, 『清朝史研究の新たなる地平－フィールドと文書を追って』.
- 杉山清彦(2009), 「貳臣と功臣のあいだで－漢軍旗人としての李永芳一門－」, 『明

清史研究』5, 明清史研究所.

鈴木真(2001), 「雍正帝による旗王統制と八旗改革－鑲紅旗スヌの斷罪事件とその意義」, 『史境』42, 歴史人類寬會.

鈴木真(2005), 「旗王家の繼承と新設－雍正朝の兩紅旗を例に」, 『東方寬』109.

鈴木真(2006), 「乾隆帝の後妃とその一族」, 『史境』52.

鈴木真(2007), 「康熙朝における近臣たち－「内務府系氏族」について」, 『社會文化史學』49.

鈴木真(2008), 「清初におけるアバタイ系宗室－婚姻關係を中心に」, 『歴史人類』36.

鈴木真(2009), 「清朝前期の權門と鹽商－イエヘナラ氏と長盧鹽商を例に」, 『史寬雜誌』118-3.

増井寬也(1989), 「クルカKurkaとクヤラKuyala－清代琿春地方の少数民族」, 『立命館文寬』514.

増井寬也(1993), 「滿族入關前のムクンについて－「八旗滿洲氏族通譜」を中心に」, 『立命館文學』528.

増井寬也(1994), 「滿族入關前の〈ギラン〉とその語義について」, 『立命館文學』537.

増井寬也(1995), 「滿族入關前のウクスンについて」, 石橋秀雄 編, 『清代中國の諸問題』.

増井寬也(1996), 「滿族ギョルチャ・ハラ考」, 『立命館文學』544.

増井寬也(1996), 「《ニヤマン》と《フンチヒン》－清初滿族における親族組織の一斑－」, 『大垣女子短期大學研究紀要』36.

増井寬也(1999), 「ヌルハチ勃興初期の事跡補遺－エイドゥ＝バトゥル自述の功業記を中心に－」, 『大垣女子短期大學研究紀要』40.

増井寬也(2001), 「グチュgucu考－ヌルハチ時代を中心として」, 『立命館文學』572.

- 増井寛也(2004), 「清朝入關前の〈アゲ〉ageについて—天命期を中心に」, 『立命館文學』 582.
- 増井寛也(2004), 「建州統一期のヌルハチ政權とボオイ=ニャルマ」, 『立命館文學』 587.
- 増井寛也(2005), 「滿洲〈アンダ〉anda小考」, 『立命館東洋史學』 28.
- 増井寛也(2006), 「專管權から見たアイシン國の功臣集團とその構成」, 『立命館文學』 594.
- 増井寛也(2006), 「海西フルン四國王位繼承考—ヌルハチ・シュルガチ兄弟の確執に寄せて」, 『立命館史學』 27.
- 増井寛也(2007), 「マンジュ國〈五大臣〉設置年代考」, 『立命館文學』 601.
- 増井寛也(2008), 「清初二ル類別考」, 『立命館文學』 608.
- 増井寛也(2008), 「ニマチャNimaca雜考」, 『立命館文學』 609.

8. 기인(旗人)과 한인(漢人)에 관한 권력구조와 권력투쟁의 문제(청말 이전의 각 시기와 청말 이후)

- 佐藤豊(1996), 「清末における民族問題の一側面」, 『愛知教育大學研究報告』〈人文・社會科學〉 45.
- 佐藤豊(1997), 「烏澤聲「滿漢問題」について」, 『愛知教育大學東洋學論集』 2.
- 渡邊修(1994), 「『己巳の役』(1629~30)における清の對漢人統治と漢官」, 『松村潤先生古稀記念・清代史論叢』.
- 渡邊修(1995), 「順治年間(1644~1660)の漢軍(遼人)とその任用」, 石橋秀雄 編, 『清代中國の諸問題』.
- 綿貫哲郎(2002), 「清初の舊漢人と八旗漢軍」, 『史叢』67, 日本大學史學會.

9. 한인사회 내부의 권력구조와 권력투쟁의 문제(청말 이전의 각 시기와 청말 이후)

伍躍(2000), 『明清時代の徭役制度と地方行政』, 大阪經濟法科大學出版部,

山本英史 編(2000), 『傳統中國の地域像』, 慶應義塾大學出版會.

山本英史(2007), 『清代中國の地域社會』, 慶應義塾大學出版會.

10. 관료제의 문제(중양)

上井恒毅(2004), 「清朝內閣研究序說」, 川越泰博 編, 『中央大學川越研究室二十周年記念・明清史論集』.

叢小榕(1998), 「清朝の官制」, 『昭和藥科大學紀要』 32.

瀧野邦雄(2004), 『李光地と徐乾學－康熙朝前期における黨争』, 白桃書房.

谷井俊仁(1993), 「清律」, 滋賀秀三 編, 『中國法制史－基本史料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谷井俊仁(2002), 「清朝官僚制における合理性」, 『比較法史研究』 10.

谷井俊仁(2006), 「官僚は如何に敘述されるか－『周禮』から『會典』へ」, 『人文論叢』 23.

黨武彦(2001), 「清代の翰林院－制度的「知識人」の養成機關－」, 伊原弘・小島毅 編, 『知識人の諸相－中國末代を基点として』.

黨武彦(2006), 「清代都察院の政治的機能について－雍正～道光期における科道官の政策提案事例を中心に」, 『熊本大學教育學部紀要』〈人文科學〉 55.

黨武彦(2007), 「清代六部行政文書の諸類型－『六部文件』を素材として」, 『熊本大學教育學部紀要』〈人文科學〉 56.

11. 관료제의 문제(동북지방·중국 내지의 각 지방)

江夏由樹(1994), 「辛亥革命後の盛京戸部官莊の拂い下げについて」, 『松村潤先生古稀記念・清代史論叢』.

江夏由樹(1995), 「中國史における異民族支配の問題－中國東北地域史から見た清朝異民族支配の一側面(アジアの混沌と秩序〈特集〉)」, 『一橋論叢』 114-4.

江夏由樹(1999), 「中國東北地域史研究と檔案史料－地方政治と土地問題との関わりを中心に」, 『東洋史研究』 58-3.

楠木賢道(1995), 「チチハル駐防シボ佐領の編立過程」, 石橋秀雄 編, 『清代中國の諸問題』.

神戸輝夫(1990), 「鄂爾泰と雲南」, 『史學論叢』 21, 別府大學史學會.

谷井俊仁(1988), 「清代外省の警察機能について－割辦案を例に」, 『東洋史研究』 46-4.

谷井俊仁(1989), 「督捕則例の成立－清初の官僚制と社會」, 『史林』 72-2, 史學研究會.

谷井俊仁(1990), 「改票考」, 『史林』 73-5.

黨武彦(1998), 「清朝における地方文書行政システム－仁井田陞博士舊藏清末蘇州府昭文縣文書を中心として－」, 『專修法學論集』 72.

古市大輔(1993), 「清代乾隆年間の採買政策と奉天：華北への奉天米移出」, 『小冷賢一君記念論集』.

古市大輔(1996), 「光緒初年盛京行政改革再考－盛京將軍崇實の上奏した「變通奉天吏治章程」の再検討を通じて－」, 『東京大學文學部アジア・アフリカ歴史社會研究』 1.

古市大輔(1997), 「光緒初年盛京行政改革の財政的背景－東三省協餉の不足と盛京將軍の養廉確保の意圖－」, 『東洋學報』 79-1.

- 松浦茂(2006), 『清朝のアムール政策と少数民族』, 京都大學學術出版會.
- 柳澤明(1997), 「清代黑龍江における八旗制の展開と民族の再編」, 『歴史學研究』 698.
- 柳澤明(2008), 「駐防城チチハルの風景－康熙五十年代を中心に」, 細谷良夫 編, 『清
朝史研究の新たな地平－フィールドと文書を追って』.

12. 관료제의 문제(중앙과 지방)

- 内田直文(2001), 「康熙朝政治史の一考察－江南の彈劾事件をめぐる」, 『九州大學東洋史論集』 29.
- 内田直文(2001), 「清代康熙年間における西北方面への穀物調達問題」, 『東洋學報』 83-3.
- 内田直文(2003), 「清朝康熙年間における内廷侍衛の形成－康熙帝親政前後の政局
をめぐる」, 『歴史學研究』 774.
- 内田直文(2005), 「清代康熙年間における奏摺政治の展開」, 『九州大學東洋史論
集』 33.
- 内田直文(2006), 「清代康熙27年政變再考」, 『東方學』 112.
- 内田直文(2009), 「清朝入關後における内廷と侍從集團－順治・康熙年間を中心に
－」, 『九州大學東洋史論集』 37.

13. 번부의 문제(내·외몽골 : 청말 이전의 각 시기와 청말 이후)

- 井上治(1994), 「ホタクタイ=セチェン=ホンタイジの活動と政治的立場」, 『史滴』
15, 早稻田大學東洋史懇話會.
- 梅山直也(2006), 「八旗蒙古の成立と清朝のモンゴル支配－ハラチン・モンゴルを
中心に」, 『社會文化史學』 48.

- 岡洋樹(2006),『清代モンゴル盟旗制度の研究』,東方書店.
- 小沼孝博(2004),「清朝によるオオロト各オトク支配の展開ーモンゴル諸部に對する「旗」支配の導入」,『東洋學報』85-4.
- 小沼孝博(2004),「清代乾隆朝におけるジャハチンの動向ー清朝によるモンゴル諸部支配の一側面」,『史境』48, 歴史人類學會.
- 楠木賢道(1994),「康熙30年のダゲール駐防佐領の編立」,『松村潤先生古稀記念・清代史論叢』.
- 楠木賢道(1999),「天聰年間におけるアイシン國の内モンゴル諸部に對する法支配の推移」,『社會文化史學』40.
- 楠木賢道(2001),「清朝の八旗に組み込まれたジャルト部とモンゴル族」,『自然・人間・文化ー地域統合と民族統合』,筑波大學大學院歴史・人類學研究科.
- 楠木賢道(2002),「清太宗ホンタイジによるモンゴル諸王の册封」,『中華世界の歴史的展開』,汲古書院.
- 中村篤志(2002),「モンゴル國立歴史中央文書館所藏の財産關係文書」,『歴史』98, 東北史學會.
- 中村篤志(2002),「財産關係を通じてみた清代モンゴル旗社會の社會關係」,『集刊東洋學』87, 中國文史哲研究會.
- 中村篤志(2003),「清代モンゴルの比丁冊に見るタイジの血統分枝集團」,『集刊東洋學』90.
- 中村篤志(2003),「19世紀ハルハ・モンゴル旗社會の統計史料ートシート・ハン部左翼後旗の“戸口家畜冊”について」,『内陸アジア史研究』18.
- 萩原守(2006),『清代モンゴルの裁判と裁判文書』,創文社.

14. 번부(藩部)의 문제(신장 위구르 : 청말 이전의 각 시기와 청말 이후)

片岡一忠(1991), 『清朝新疆統治研究』, 雄山閣.

小沼孝博(2000), 「換防兵制導入からみた清朝のカシュガリア支配」, 『社會文化史學』 41.

小沼孝博(2001), 「19世紀前半「西北邊疆」における清朝の領域とその收縮」, 『内陸アジア史研究』 16.

小沼孝博(2003), 「清朝のジュン=ガル征服と二重の支配構想」, 『史學研究』 240, 廣島史學研究會.

小沼孝博(2003), 「征服前, 清朝の對カシュガリア政策の推移」, 『史峯』 9, 筑波大學東洋史談話會.

小沼孝博(2005), 「イリ駐防八旗の設置について－清朝の新疆支配體制の構築に關する一考察」, 『東方學』 110.

小沼孝博(2006), 「清朝とカザフ遊牧勢力との政治的關係に關する一考察－中央アジアにおける「エージェン=アルバト」關係の敷衍と展開」,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 72, 東京外國語大學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小沼孝博(2007), 「バク制度の創設－清朝公文書による東トルキスタン史研究序設」, 『内陸アジア史研究』 22.

香坂昌紀(2004), 「清代前期のジュンガル政策とその經濟效果」, 『東北學院大學論集』 歴史學・地理學 37.

澁谷浩一(1996), 「康熙年間の清のトルグート遣使－所謂密命説の再検討を中心」, 『人文學科論集』 29, 茨城大學人文學部.

澁谷浩一(1997), 「康熙54(1715)年のジュンガルのハミ襲撃事件と清朝」, 『人文學科論集』 30.

澁谷浩一(2008), 「1723-26年の清とジュン=ガルの講話交渉について－18世紀

前半における中央ユーラシアの國際關係, 『滿族史研究』 7.

15. 번부(藩部)의 문제(티베트 : 청말 이전의 각 시기와 청말 이후)

石濱裕美子(2001), 『チベット佛教世界の歴史的硏究』, 東方書店.

石濱裕美子(2005), 「雍正期の皇室外交の二面性－果親王のチベット奉使旅行」, 『內陸アジア史硏究』 20.

石濱裕美子(2007), 「清初勅建チベット佛教寺院の總合的硏究」, 『滿族史硏究』 6.

伴眞一朗(2004), 「三藩の亂におけるチョネ(co ne)領主の軍事活動－青海ホシヨトの動向と關連して」, 『日本西藏學會會報』 50.

伴眞一朗(2006), 「清朝の青海支配確立期におけるチョネ(Co ne)領主の役割とその意義－清朝とテボ(The bo)のチベット人との紛争をてがかりにして」, 『內陸アジア史硏究』 21.

平野聰(2004), 『清帝國とチベット問題』, 名古屋大學出版會.

柳靜我(2004), 「駐藏大臣」派遣前夜における清朝の對チベット政策－1720～ 1727年を中心に」, 『史學雜誌』 113-12.

柳靜我(2008), 「カンチュンネー暗殺と清朝の對應－雍正期對チベット政策の一側面－」, 『滿族史硏究』 7.

16. 청조의 통치영역이나 청조의 여러 주변 영역을 둘러싼 문제(청말 이전의 각 시기와 청말 이후)

足立啓二(2001), 「東北アジアの近代化と從屬化」, 東アジア硏究會 編, 『東アジア經濟の軌跡』, 青木書店.

安藤潤一郎(2002), 「清代嘉慶・道光年間の雲南省西部における漢回對立」, 『史學雜誌』 111-8.

岸本美緒(1999), 『明清交替と-17世紀中國の秩序問題』, 東京大學出版會.

C.A.Daniels(2004), 「雍正七年清朝によるシブソンパンナー王國の直轄地化について-タイ系民族王國を揺るがす山地民に關する一考察-」, 『東洋史研究』 62-4.

17. 정치사상의 문제(청말 이전의 각 시기와 청말 이후)

大谷敏夫(1992), 『清代政治思想史研究』, 汲古書院.

岡本さえ(1996), 『清代禁書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平野和彦(1996), 「鄭孝胥と康有爲」, 『群馬女子短期大學紀要』 22.

18. 외교의 문제(동아시아 : 청말 이전의 각 시기와 청말 이후)

畑地正憲(1999), 「清代の輸送業者『攬頭』について-李朝貢團の貨物輸送をめぐる-」, 『山口大學文學會誌』 38.

松浦章(2002), 『清代海外貿易史の研究』, 朋友書店.

松浦章(2003), 『清代中國琉球貿易史の研究』, 榕樹書林.

松浦章(2004), 『清代上海少船航運業史の研究』, 關西大學出版部.

村上衛(2004), 「政治・外交: 清朝と漢奸」, 森時彦 編, 『中國近代化の動態構造』.

19. 외교의 문제(對 日本 : 청말 이전의 각 시기와 청말 이후)

楠木賢道(1993), 「江戸時代から近代にかける清初史研究の潮流-荻生北溪・荻生徂徠曾補訂正『建州始末記』をめぐる-」, 『神田信夫先生古稀記念論集・清朝と東アジア』.

杉山清彦(2004), 「『韃靼漂流記』の故郷を訪ねて-越前三國湊訪問記-」, 『滿族史研究』 3.

杉山清彦(2008), 「大清帝國と江戸幕府-東アジアの二つの新興軍事政權-」, 懷德

堂記念會 編, 『世界史を見直す・日本史を見直す－阪大史學の挑戦－』.
荷見守義(2006), 「ヌルハチ助兵の謎－文祿・慶長の役との關係をめぐって」, 『弘
前大學國史研究』 120.

20. 외교의 문제(對 서유럽 : 청말 이전의 각 시기와 청말 이후)

小池求(2009), 「1901年のドイツへの清朝「謝罪使」の派遣－「謝罪使」觀と謁見儀
禮問題を中心に」, 『史學叢誌』 118-9.
澁谷浩一(2000), 「イズマイロフ使節團と儀禮問題－康熙帝直筆の一件の理藩院書
簡をめぐって」, 『人文學科論集』 34.
則松彰文(1994), 「清代乾隆期における英國使節團の來訪と對英認識」, 『福岡大清
總合研究所報』 156.
則松彰文(2001), 「清代嘉慶期の對英關係と廣東貿易に對する認識」, 『福岡大學人
文論叢』 33-1.
則松彰文(2001), 「上諭檔より見た英國使節團と乾隆帝－「派人留京」問題を中心に
－」, 『福岡大清研究部論集』〈人文科清 編〉 1-1.

21. 외교의 문제(對 러시아 : 청말 이전의 각 시기와 청말 이후)

楠木賢道(1996), 「黑龍江將軍衙門檔案からみた康熙23年の露清關係」, 『歴史人類』
24, 筑波大清院人文社會科清研究科.
澁谷浩一(1991), 「露清關係とローレンツ・ランゲーキャフタ條約締結に向けて」,
『東洋清報』 72-3・4.
澁谷浩一(1994), 「キャフタ條約以前のロシアの北京貿易－清側の受入れ體制を中
心にして」, 『東洋清報』 75-3・4.
澁谷浩一(2003), 「キャフタ條約締結過程の研究－國境貿易條項の成立と清側ロシ

- ア文條約」、『人文學科論集』40.
- 澁谷浩一(2006),「キャフタ條約の文書通信に關する條項について—條約締結後の清側によるロシア側書簡受領拒否問題をめぐって」、『人文學科論集』45.
- 澁谷浩一(2007),「康熙年間の清のトルグート遣使とロシア」、『史朋』39.
- 澁谷浩一(2007),「ウンコフスキー使節團と1720年代前半におけるジューン=ガル,ロシア,清の相互關係」、『人文コミュニケーション學科論集』2.
- 野田仁(2002),「清朝史料上の哈薩克(カザフ)三「部」」、『滿族史研究』1.
- 野田仁(2005),「露清の狹間のカザフ・ハーン國—スルタンと清朝の關係を中心」、『東洋學報』87-2.
- 野田仁(2006),「清朝によるカザフへの爵位授與—グバイドゥッラの汗爵稱退の事例(1824年)を中心に」、『内陸アジア史研究』21.
- 野田仁(2007),「18世紀中央アジアにおける露清關係—ジューンガル政權崩壞からカザフ,アルタイ諸族の歸屬問題へ」、『史學雜誌』116-9.
- 柳澤明(1988),「キャフタ條約への道程—清の通商停止政策とイズマイロフ使節團—」、『東洋學報』69-1・2.
- 柳澤明(1989),「キャフタ條約以前の外モンゴル—ロシア國境地帯」、『東方學』77.
- 柳澤明(1993),「ガルダンのハルハ侵攻(一六八八)後のハルハ諸侯とロシア」、『神田信夫先生古稀記念論集・清朝と東アジア』.
- 柳澤明(1994),「いわゆる「ブトハ八旗」の設立について」、『松村潤先生古稀記念・東洋史論叢』.
- 柳澤明(1995),「ブトハとフルンブイルにおける「八旗」の性格—特に理藩院との關係について—」,石橋秀雄 編,『清代中國の諸問題』.
- 柳澤明(2003),「1768年の「キャフタ條約追加條項」をめぐる清とロシアの交渉について」、『東洋史研究』62-3.

吉田金一(1992), 『ロシアと中國の東部國境をめぐる諸問題』, 環翠堂.

22. 경제의 문제(동북지방 · 중국 내지 · 번부)

足立啓二(2002), 「明清社會の經濟構造」, 中國史學會 編, 『中國の歴史世界—統合のシステムと多元的發展』.

新宮學(1998), 「明清社會經濟史研究の新しい視點—顧誠教授の衛所研究をめぐって—」, 『中國—社會と文化』13, 中國社會文化國會.

岸本美緒(1997), 『清代中國の物價と經濟變動』, 研文出版.

井上裕正(2004), 『清代アヘン政策史の研究』, 京都大學出版會.

岩井茂樹(2004), 『中國近世財政史の研究』, 京都大學學術出版會.

上田裕之(2009), 『清朝支配と貨幣政策—清代前期における制錢供給政策の展開—』, 汲古書院.

白井佐知子(2005), 『徽州商人の研究』, 汲古書院.

岸本美緒(1998), 『東アジアの近世』, 山川出版社.

黒田明伸(1995), 『中華帝國と世界經濟』, 名古屋大學出版會.

黒田明伸(2003), 『貨幣システムの世界史』, 岩波書店.

鈴木眞(2005), 「康熙末~雍正初年の長蘆鹽課未納問題」, 『一橋論叢』134-6.

谷井俊仁(2004), 「清朝原額主義財政の論理」, 岩井茂樹 編, 『中國近世社會の秩序形成』.

谷井陽子(1989), 「道光・咸豐期外相における財務基調の變化—張集馨の生涯を軸に」, 『東洋史研究』47-4.

黨武彦(1990), 「乾隆初期の通貨政策—直隸省を中心として」, 『九州大學東洋史論集』18.

黨武彦(2003), 「乾隆末年における小錢問題について」, 『九州大學東洋史論集』31.

畑地正憲(1999), 「清代の人參採取における攬頭について」, 『山口大學文學會誌』 49.

日山美紀(1991), 「清代典當業の利子率に関する一考察－康熙～乾隆期の江南を中心として－」, 『東方學』 106.

細見和弘(2004), 「中國近代化と清末財政」, 森時彦 編, 『中國近代化の動態構造』.

23. 군제(軍制)의 문제(동북지방 · 중국 내지 · 번부)

石橋崇雄(1988), 「清初八旗制下における職官名の漢字表記改稱時期－特にbayara及びgabsihyan關係の職官名を中心として－」, 『中國近代史研究』 6.

太田出(1998), 「清中期江南デルタ市鎮をめぐる犯罪と治安－綠營の迅防制度の展開を中心として」, 『史學雜誌』 107-10.

太田出(2000), 「清中期江南デルタ市鎮をめぐる犯罪と治安－綠營の迅防制度の展開を中心として」, 『法制史研究』 50.

24. 1912년 이후의 변천과 만주국의 문제

阿部由美子(2007), 「張熊復辟と滿蒙王公の反應」, 『滿族史研究』 6.

柴田紳一(1996), 「皇帝溥儀と石原莞爾 · 甘粕正彦」, 『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報』 33-3.

宮脇享子(2006)『世界史のなかの滿洲帝國』, P H P 研究所.

25. 문헌사료의 문제(편찬사료와 당안[檔案]사료)

新宮學(2002), 「明末清初期の諸史料にみえる燕王府＝西苑所在説の再検討」, 『山形大學歴史 · 地理 · 人類學論集』 3.

石橋崇雄(1999), 「清初入關前の無圈点滿洲文檔案『先ゲンギエン＝ハン賢行典例』

- をめぐって—清朝史を再構築するための基礎研究の一環として—, 『東洋史研究』 58-3.
- 加藤直人(2007), 『逃人檔』, 東北アジア文獻研究会.
- 細谷良夫 編(2008), 『清朝史研究の新たなる地平—フィールドと文書を追って』, 山川出版社.
- 神田信夫 編(1994), 『日本所在清代檔案史料の諸相』, 東洋文庫清代史研究室.
- 神田信夫ほか(2003), 『内國史院檔・天聰七年』, 東洋文庫.
- 楠木賢道(2006), 「康熙帝の側近, シャンナン=ドルジの奏摺」, 『歴史人類』34.
- 谷井俊仁(2000), 「清後期交代秘本小考」, 夫馬進 編, 『中國明清地方檔案の研究』, 京都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東洋史研究室.
- 谷井陽子(1990), 「戸部と戸部則例」, 『史林』 73-6.
- 谷井陽子(1995), 「清代則例省例考」, 『東方學報』〈京都〉 67.
- 谷井陽子(2000), 「做招から叙供へ—明清時代における審理記録の形式」, 夫馬進 編, 『中國明清地方檔案の研究』.
- 黨武彦(2003), 「清代檔案史料論序説—乾隆期の日本人漂流民送還關係軍機處錄副奏摺を素材として」, 『東京大學史料 編纂所研究紀要』 13.
- 細谷良夫(1991), 「『滿文原檔』『黃字檔』について—その塗改の検討」, 『東洋史研究』 49-4.
- 細谷良夫(2002), 「歴史語言研究所所藏『已入滿州姓氏』檔案—包衣ニルをめぐって」, 『滿族史研究』 1.
- 細谷良夫(2005), 「『平定三逆方略』の編纂と『平定三逆方略』稿本—三藩の亂をめぐる史料」, 『アジア流域文化論研究』 1.
- 松村潤(2001), 『清太祖實錄の研究』, 東北アジア文獻研究会.
- 柳澤明(1993), 「中國第一—歴史檔案館所藏内閣・宮中滿文檔案概述」, 『東方學』 85.

柳澤明(2001), 「中國第一歴史檔案館所藏のロシア關係滿文檔案について」, 『滿族史研究通信』 10.

26. 문헌사료의 문제(만주어 문헌 · 한어 문헌 · 번부의 언어 문헌)

石橋崇雄(1988), 「清朝の「繙譯科拳」をめぐって」 『歴史と地理』世界史の研究135.

石橋崇雄(1989), 「『han i araha manju gisun i buleku bithe, (御製清文鑑)』考一特にその語彙解釋中の出典をめぐって」(『國土館大學文學部人文學會紀要』別冊 1.

石橋崇雄(1992), 「『六條例』をめぐって - 清朝八旗制度研究の一環として -」(『神田信夫先生古稀記念論集 · 清朝と東アジア』.

石橋崇雄(1994), 「順治初纂『大清太宗文皇帝實錄』の滿文本について」 『松村潤先生古稀記念 · 清代史論叢』.

石橋崇雄(1994), 「清朝文獻史料考一特に「遼寧省圖書館特藏部」所藏の滿 · 蒙 · 藏文書籍をめぐって」 『國土館史學』 2.

石橋崇雄(1996), 「滿文『han i araha gucu hoki i leolen, (御製朋黨論)』」 『國土館史學』 4.

石橋崇雄(2000), 「無圈点滿洲文檔案『先ゲンギエン=ハン賢行典禮 · 全十七條』」(『國土館史學』)8.

石橋崇雄(2005), 「『鑲紅旗檔』光緒34(1908)年付け檔案について - 清朝史を再構築するための清末期基礎研究の一環として」 『國土館大學人文學會紀要』 37.

石橋崇雄(2009), 「『御製人臣徹心錄』 - 「植黨論」 -」 『國土館大學人文學會紀要』 42.

澁谷浩一(1993), 「北海道大學圖書館所藏滿文『蒙古八旗戸口冊』について」 『史朋』 24.

黨武彦(2008), 「方觀承撰『薇香集』について - 詩を史料とした乾隆期政治史の再構

成」『熊本大學教育學部紀要』〈人文科學〉57.

27. 기술사의 문제

澤美香(1990), 「檔案史料から見た『皇輿全覽圖』とヨーロッパ技術」『史観』121, 早稻田大學史學會.

C.A.Daniels(1988), 「明末清初における新製糖技術體系の採用及び國內移轉」『就實女子大學史學論集』3.

C.A.Daniels(1993), 「明末清初における甘蔗栽培の新技術－その出現及び歴史的意義－」『神田信夫先生古稀記念論集・清朝と東アジア』.

C.A.Daniels(1994), 「明末清初福建の樹皮布消費について－『天工開物』に書かれなかった製紙史の一側面－」『松村潤先生古稀記念・清代史論叢』.

C.A.Daniels(1995), 「16~17世紀福建の竹紙製造技術－『天工開物』に詳述された製紙技術の時代考證」『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48-49.

C.A.Daniels(1997), 「明清時代の生産技術」『明清時代史の基本問題』.

28. 문화사의 문제

一ノ瀬雄一(1995), 「明清時代の花卉文化」『史泉』81, 關西大學史學・地理學會.

出木愛子(1999), 「アヘン戰爭以前の中國におけるケシ栽培・アヘン生産問題について－特に清朝の對應を中心に－」『寧樂史苑』44, 奈良女子大學文學部.

大谷敏夫(2002), 『清代の政治と文化』朋友書店.

谷井俊仁(2005), 「清乾隆朝にみる出版の權威性」『人文論叢』22, 三重大學人文學部文化學科.

장황하게 열거한데다 다소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방대한 목록인 만큼, 이것을 통해 1990년대 이후의 새로운 연구동향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1990년 이전에는 사료의 탐색과 번역, 연구방법론의 모색, 시대구분의 시도 등이 주된 연구였다. 심하게 말해서 일차 사료의 이용에 큰 제약을 받으면서 대청국과 청조에 관련된 역사상의 흐름이나 전모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원칙을 판별하려고 하는 시도를 거듭했던 것이고, 거기에서 중국 사회경제사의 연구 축적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커다란 이론의 구축·검증·논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반해 1990년대 이후에는 주된 사료인 당안(檔案)류를 논거로 하는 실증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새로운 방법·이론을 모색하는 가운데 비판이 생겨나고, 차츰 지배구조의 분석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변부(藩部)나 청-러시아 관계를 둘러싼 연구에는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 반면 국가 제사, 종교, 정치사상, 1912년 이후의 변천, 만주국 등에 관계되는 연구는 변함없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그러면 21세기에 들어서서 10년을 넘기고 있는 현재, 무엇이 기본 문제로서 의문시되고 있는가? 새로운 동향과 과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IV. 맺음말

1990년대 이후에 주목해야 할 연구자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할 수 없다. 그중에서 잇달아 새로운 연구를 발표해온 다니 도시히토[谷井俊仁]·다니 요코[谷井陽子]·스기야마 기요히코[杉山清彦] 세 연구자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왔다. 세 연구자는 모두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론의 구축·실증·검증·비판을 거듭하고 있어서 여러 의미에서 ‘최근 20년간의 동향과 과제’를 상징하

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세 연구자 중에서 다니 도시히토 씨가 2007년 6월에 갑자기 서거한 것은 무엇보다도 안타깝고, 애석하고,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여기에서는 특히 다니 요코, 스기야마 기요히코 두 연구자의 논고를 언급하고자 한다. 두 연구자는 모두 많은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다니 요코의 논문인 「팔기제도재고(1) 연기제 비판(八旗制度再考(1) 連旗制批判)」(『天理大學學報』 56-2, 2005), 「팔기제도재고(2) 경제적 배경(八旗制度再考(2) 經濟的背景)」(『天理大學學報』 57-2, 2006), 그리고 「팔기제도재고(3) 재정구조(八旗制度再考(3) 財政構造)」(『天理大學學報』 59-1, 2007)의 연속된 일련의 논문을 논하고, 또 스기야마 기요히코의 논문으로 「대청제국사 연구의 현재-일본에 있어서 개황(概況)과 전망-[大清帝國史研究の現在-日本における概況と展望-]」(『東洋文化研究』 10, 學習院東洋文化研究所, 2008)을 논하겠다.

먼저 다니 요코의 연작이다. 「팔기제도재고(八旗制度再考)」라는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종래 일본에서의 팔기제도 연구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문제의 소재를 제시한 논문이다. 무엇보다도 비판이 통쾌하고 시원하다. 이에 더해 (1) 연기제(連旗制) 비판, (2) 경제적 배경, (3) 재정구조로 이어지는 전개가 참신하다. 1990년대 이전의 팔기제도 연구가, 그 당초의 연구는 별개로 치더라도, 대체로 사회경제사에서 보이는 시점에서 벗어나 있었던 감이 있는 것과는 천양지차이다. (1) 연기제 비판에서는, 아베 다케오[安部健夫]의 「팔기만주 niru의 연구(八旗滿洲ニルの研究)」를 “역사학 논문으로서 실증적 근거가 성립되지 못한 것은 치명적”이라고 단언하고, 그 “연기제론적(連旗制論的) 이해는 비판적 검증을 거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초의 입각점으로 돌아가서 팔기제도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재구축하려고 기획했다”고 하고, “경제적 기반을 시작으로 여러 기반을 검토함으로써 팔기제도의 성격을 재고하는” 구상 속에서 “최종적으로는 팔기제도가 분봉제(分封制)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일관해

서 집권적 체제를 이루었다는 것을 밝힐 생각이다”라고 선언한다. 스기야마 기요히코와 대치하는 자세가 흥미롭다. 그 「소결(小結)」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쾌하게 말하고 있다. “팔기제에 대한 연기제론적 이해는, 팔기가 각각 독립된 존재이고 기왕(旗王)을 정점으로 하는 배타적 주종 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전제가 증명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 글은 이러한 전제가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전제와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사실을 들어 팔기의 조직도 인원도, 오히려 한의 휘하에서 집중 관리되는 성격의 것이었다는 점을 밝혔다.” 물론 필자의 연구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모델을 원용함으로써 어떠한 실증이 이루어졌는가와는 무관하게 모델에 맞추어진 상(像)이 형성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예컨대 이시바시 다카오(石橋崇雄)는 팔기제를 여덟 개의 기로 이루어진 ‘부족연합이라고도 할 만한 성격’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종래의 실증적 연구에 의해 잘 알려진 대로 팔기는 혈연관계 뿐 아니라 언어나 전통·풍속 습관까지 다른 다양한 유래를 가진 집단이 혼성된 것으로, 그 위에 각각 누르하치의 일족을 받들고 있는 구성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에 비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적절하다. ……”라고 일도양단하고 있다. 이는 실증 없이 자명한 것으로 설명해온 종래의 연구자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서 뜻밖의 기쁨이다. 이어지는 (2)경제적 배경, (3)재정구조도 마찬가지로 통쾌하고 명쾌하기 그지없고, 한층 더 새로운 비판과 검증이 기다려진다.

이제 스기야마 기요히코(杉山清彦)의 「대청제국사 연구의 현재-일본에 있어서 개황(概況)과 전망-[大清帝國史研究の現在-日本における概況と展望-]」으로 옮겨가 보자. 제목과 부제에서 보이듯이 필자의 이 글과 겹치는 내용인데 더욱 상세하고 훌륭하다. 다만 약간의 흥미로운 점이 눈에 띄이기 때문에 그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서론 - 「大清帝國史」란 무엇인가

一 「清朝·滿洲史研究」를 둘러싸고

二 「清朝·滿洲史研究」의 흐름

(一) 「滿洲史」의 시대

(二) 「清朝史」연구의 확립과 추이

三 「清朝·滿洲史研究」의 현재

四 大清帝國史의 構築을 향하여

결론 - 다시 「大清帝國史」란 무엇인가

注

물론 여기에서도 필자의 연구는 3장에서 비판받고 있다. 즉 “우선 거론할 것은 이시바시 다카오의 청조국가론(淸朝國家論)이다. 이시바시 다카오는 청의 양면성을 한층 더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통일(複合)다민족국가’로 자리 매김하고, 그 지배구조를 ‘기(旗)·한(漢)·번(藩)’의 삼중구조(三重構造)로 파악할 것을 제창하고 있다. 국가론이 결락된 상황에서 이시바시 다카오의 논의 제기는 의미가 크다. 다만 이전에 지적한 것처럼 그 관건인 개념의 정리와 실증 연구에 의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고, 또 삼중구조론(三重構造論)도 도식화된 모델이라고는 할 수 없고 추상적인 표현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했다. 지적대로다.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실은 ‘대청제국(大清帝國)’이라는 용어이다. 출처에서도 제목으로 내걸고 있으므로 같은 책임이 필자에게도 있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이 ‘제국(帝國)’을 논고에 이용하려면, 그 전제로서 실증 연구로 뒷받침된 엄밀한 정의(定義) 내리기가 필요하다. 그 엄밀한 정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글이 특정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끝으로 고언을 드리

는 것으로 과제를 제시하고 줄설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자칫 새로운 이론의 구축과 새로운 이름 붙이기를 안이하게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이칭 구론’이라는 만주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신만주’라는 조어(造語)를 도입하기도 하지만, 실증 연구의 뒷받침 없이는 무의미하다. 비판받는 당사자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하나에 ‘대청제국’이 포함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 용어를 출처에 사용했을 때에는 정의도 없고 매우 식견이 없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지금은 서점에 진열된 서적의 대부분에 ‘대청제국’이 쓰이고 있을 뿐 아니라, 연구논문에서도 산견되고 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 스스로 더욱 경계심을 갖고자 한다.

번역 : 김선민(고려대학교)

• 찾아보기

<ㄱ>

간다 노부오[神田信夫] 199
감소하고 179
거란 53
경계 88
고려 36, 37, 52
고려사 58
과거제도 25
구만주당(舊滿洲檔) 199
구육 77
구청사 187
국경[Border] 88, 114
국경시대[Borderland] 88, 114
그루지아 52
그루퍼(Samuel Martin Grupper) 188
기인(旗人) 97, 192, 230
김호동 49, 67, 75, 76, 77

<ㄴ>

나오미 스탠던 117
내지 89, 219
니콜라 디 코스모 61, 67

<ㄷ>

다니 도시히토[谷井俊仁] 245
다니 요코[谷井陽子] 245
다이칭[大清] 212
당안(檔案) 245
대청국(大清國) 218
대청제국(大清帝國) 248
대하 36
대하(서하) 35
데이비드 모간 71, 74
데이비드 크리스천 59
동시성[simultaneous quality] 211
두리엔저[杜聯結] 186
디 코스모 62, 63

<ㄹ>

라시드 옷딘 76, 77
로버트 리 111
로버트 리(Robert H.G. Lee) 187
로스키(Evelyn S. Rawski) 192
로쓰 리(Gertraude Roth Li) 189
리차드 프라이어 69

<ㄱ>

마르코 폴로 72
 마르크스주의 65
 마이클 버드와 빌렘 폰 센덜 116
 만문노당(滿文老檔) 199
 만문자료 97
 만주 88
 만주어 184
 만주제국 208
 만주족 184
 만주족의 특징[Manchuness] 208
 만주족 중심적[Manchu-centered] 198
 만주학 97
 만청(滿淸) 184
 만한합벽(滿漢合璧) 218
 맹안모극 26, 27
 맹약관계 33
 맹약체제 39
 모스크바 공국 54
 모트 22, 24
 몽골 196
 몽골비사 77
 문화변용 104
 미할 비란 53
 민족성 87

<ㄴ>

바그다드 58
 박현희 54
 버르트 프래그너 68
 변부(滿部) 88, 219, 233
 변속 88
 변강사 88
 변경[Frontier] 88, 114
 변경사 91
 변경정책 85
 변경통치 85
 봉금 109
 북경 76
 북아시아 224
 북족왕조 169
 분봉제(分封制) 246
 블라디미르초프 65
 비트포겔 22, 24, 39, 167, 169
 빈 라덴 57

<ㄷ>

사산조 69
 성(省) 제도 104
 사한국 76, 77
 소수민족 86
 소유르갈 52
 수기야마 마사야키 49, 75, 76

스기야마 기요히코[杉山清彦] 245

스탈린 57

스텐든 22

식민주의 108

신강 88

신청사 29, 94, 183

<ㅇ>

아델만과 애론(Adelman and Aron) 115

아르케메니드 69

아부 루고드 59

알렉산더 대왕 69

알타이 가설 200

알타이주의[Altaicism] 201

앤 램튼 69

엠마 텅 87

연기제론적(連旗制論的) 246

영락대전 72

오스만 연구(Ottoman Studies) 197

오아시스 62, 63

오웬 라티모어 62, 66, 92

오카다 이데히로[岡田英弘] 199

요동변경 119

우즈벡 57

우즈벡족 57

운남 88

울루스 77

원(元) 76

원사 77

원조사 56

월경 120

웨일리-코헨 95

유광훈 54

이고르 드 라케빌츠 71, 72

이프타 52

이원적 통치체제 23, 30, 31, 32

일한국 72

임지현 118

<ㅈ>

자사크 71

장성(長成) 218

전연의 맹약 33, 34, 36

정복왕조 21, 32, 167, 171

제임스 밀워드 87

조공체제 33, 37, 39, 96

조셉 플레처(Joseph Francis Fletcher) 59, 60, 64, 92, 187

조안나 웨일리 코헨(Joanna Waley-Cohen) 191

조지 부시 57

존 킹 페어뱅크 185

종족 207

종족적 204

종족주권 206

준가르 196

중간지대로 104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89

중국중심적 역사관 92

중앙유라시아 196

중원 86

집사(集史) 76, 77

<ㄷ>

창조적 오해 24

청제국 85, 183

청조(淸朝) 218

청조사 217

칭기즈 칸 55, 71, 74, 77

<ㄴ>

카라키타이 35, 53, 68

카이산 76

쿠비 52

쿠빌라이 72, 75, 76

크리스토퍼 이셋 87

킵차크 73

킵차크 한국 54

<ㄹ>

타이완 88

토마스 바펠드 59, 61~64, 66, 87

투우시아 52

톨루이 77

특징 179

티무르 57

<ㅍ>

파멜라 크로스리 95

파커와 로세스(J. Parker and Lars Rodseth)
115

팔기제 97

팔기 주방 196

팡자오잉(房兆楹) 186

패터슨 기어쉬 87

핑지엔 52

포르트 대제 55

프랜시스 우드 72

피터 잭슨 74

피터 퍼듀 87

<ㅎ>

한인(漢人) 230

한화 23, 24, 25, 26, 27, 28, 38, 95, 185

황제권 212

홀레구 58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41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 동향

초판 1쇄 인쇄 2010년 11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10년 11월 29일

지은이 윤영인·이용규·김선민·토마스 알슨·미할 비란·테무르·파멜라 크로슬리·이시바시 다카오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7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0

ISBN 978-89-6187-197-6 93910

-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